

광주 1백년²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광주 1백년²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박선희 지음



갈수록 뚜렷해지는 발자국

박선홍 선생님은 오늘도 근대도시 100년, 광주의 발자취를 찾아 골목을 누비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개발독재와 민주화를 겪어오면서 도시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살이의 흔적들이 퇴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커켜이 쌓여진 삶의 지층들은 도시의 성장과 변화, 쇠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는 행정상 도시 명칭의 지시체일 뿐, 더 오랜 역사·문화적 연원을 간직한 '빛고을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의 뿌리는 문화입니다. 생활세계에서 함께 공유하고 기억으로 추억하는 공통기반의 매개체가 없다면 어떻게 세대 간에 문화가 전수되고 개인과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박선홍 선생님은 근대도시 광주가 걸어온 길과 궤를 같이합니다. 선생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시민의 소소한 일상사에서부터 광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 공간,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공감하고 이해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마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한평생 이 고장의 지킴이로 도시의 다층적인 미시사를 복원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초판이 나온 지 20년만의 일입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억으로만 존재해온 장소들을 답사해 그림 지도를 추가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 90십 노구를 이끄시고 총장으로 일대를 살살이 돌아보면서 사라져간 공간

에 대한 예의를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후속세대로서 선생님의 유지 維持 를 이어나가야 할 의무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번 도서는 2012년 광주 일백년Ⅰ권 개정증보판에 이은 후속작입니다. 한평생 광주의 역사발굴에 힘쓰신 선생님의 노력에 신장용 사진작가, 조광철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 그리고 이대석 완도고 선생님이 편집과 수정, 사진작업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는 광주공동체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도움과 수고로움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광주의 통시적인 역사와 더불어 그 소중한 속살까지 알리고자 하는 선생님의 열정이 광주 일백년 Ⅱ권에 온전히 담겨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적재산권의 양도로 오늘의 작업을 광주문화재단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내년의 광주 일백년 Ⅲ권 발행에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책임으로 여깁니다.

2014년 11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 영 진

‘광주학^{光州學}’의 내일을 염원하며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만 열면 멀리 지구 반대편의 일이나 수백 수천 년 전의 문물들을 앉은 자리에서 손금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 도서관이나 필요한 전문 자료를 찾아다닐 일도 없게 되었고 벌써부터 책이 없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도 있다. 심지어는 종이의 무용론까지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문화와 역사와 지식을 담을 수는 있으나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어온 전통이나 정체성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실체적 진실을 기반으로 이어져 오고 이어져 갈 것이다. 누렇게 바랜 옛 사진 한 장, 수수께끼 같은 발굴기록이나 유물 유적들의 실체적 진실들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전통 가치를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라면서 광주의 옛 흔적들이나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 없었고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애정 때문에 이들을 모으고 간직해왔다. 이것이 초판 「광주 1백년」이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어딘지 허전한 빈 자리와 아쉬운 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재판 「광주 1백년」은 우리 향토사가학자들의 정성 어린 협조로 귀한 자료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가 아닌 것은 없겠지만 국악과 공연, 연극과 영화, 음식에서 체육까지 얽힌 숨은 자료들을 비롯, 우리고장 근대문화사의 기원을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시대를 넘어 문화의 가교역할을 한 기

생이야기, 다방과 황금동의 술집 이야기 등도 당대의 생활문화사로서 정당한 지위를 점하며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의 빈자리를 메웠다는 약간의 안도감이 든다. 무엇보다도 금융과 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이번 재판의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자료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부족하나마 지금도 겹쳐지고 묻혀 있는 우리 향토 사료들을 찾아 이를 다듬고 가꾸어나가는 일들을 나는 이어갈 것이다. 못다 이룬 대목은 다음 세대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그 일을 선뜻 맡아 줄져 「광주 1백년」의 판권을 흔쾌히 받아주신 광주문화재단에 경의를 표한다. 부디 광주문화재단이 우리 광주 향토정신의 도도한 정통성과 문화자산의 곳간으로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광주학光州學’을 여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4년 11월

박 선 흥

	책을 펴내며	8
	갈수록 뚜렷해지는 발자국_서영진	
	중보판 저자의 말	10
	'광주학光州學'의 내일을 염원하며	
■ 제1장 광주의 멋과 풍류	국악의 새로운 바람	18
	1900년대 창극의 등장 광주 최초의 국악경창대회 광주 최초의 창극 무대 양명사 속골 명창과 김채만 협률사 잊혀진 국악인 박동실	
	시대를 넘는 문화의 가교, 기생	31
	광주교방 기생조합과 권번 광주권번을 출입한 예술가들	
	기생들의 삶	38
	화대 기생들의 법도와 은어 한량과 기생 화순 출신의 기생, 농선 정인준과 기생 도수경 기생의 새로운 활동 무대 태평양전쟁 말기의 기생들 국악원과 시립국악원	
■ 제2장 공연과 영화	오원기념각	54
	별천지 양림동의 명소 음악회 가극 열세 집 블라디보스토크 학생음악단 가극대회와 영화 쌍옥루 반일회	
	흥학관	61
	설립 광주 청년문화의 산실	

■
제3장
음 식

광주좌와 제국관	65
행감을 치고 화롯불 켜던 극장 무성영화와 번사 아리랑과 나운규 배우 최판영 영화 빨래하는 처녀 영화 수업료 영화제작자 최남주	
광주극장	80
광주 최초의 조선인 영화상영관 극장주 최선진	
스크린 바깥 풍경	85
극장과 기도 가두행렬 마치마와리	
해방 후의 극장	88
해방과 광주극장 1950~60년대의 극장들	
연극운동	94
소인극 첫날밤 물레방아는 쉬었다 익조 1930년대의 유명 연극들 해방 직후의 연극운동	
요릿집의 등장	102
일본말에서 비롯된 요리 광주최초의 일본 요릿집 일본청주 기쿠네키	
조선 요릿집	110
조선 요릿집의 연원 광주의 조선 요릿집, 신광원 별장까지 갔춘 춘목암 춘목암과 현준호 현준호의 식도라	
중국 요릿집	122
호떡에서 청요리까지 비단이 장사 왕서방 우리 먹거리로 정착한 짜장면 타이완의 요리	

을중 요릿집	131
을중 요릿집과 여급 식당을 겸하던 여관들	
광주의 별미	135
후쿠이데이의 복요리 기무라야 빵집 손님들이 들끓던 오텡 가게들 우동과 고구마 맛탕 굴 전문집 가키야스	
다방	142
카페 남국카페와 김용구 문화인의 사랑방 다방	
일제 말엽의 먹거리 풍속	147
감질나던 나라비 술 대용식 호박런치	
해방 직후의 음식	154
호수미와 김재호 숟가락과 탕 서민들의 음식들 생선 내장탕의 유래	
1960년대의 술과 먹거리	161
그리운 뽕뿌집 황금동의 스탠드바 삼학과 보해 움팍집	
향토음식	171
청미장 한정식의 대모 주정순 광주의 명물 애저 토하젓과 갓김치	
광주의 전통차	179
우리 차 운동의 중심지 광주 춘설현과 필자 다인의 성지 춘설현 차의 대중화를 위하여 이은상의 전남특산가	

■ 제4장
체 육

광주 체육의 개척자 김후옥 198
 근대체육의 여명기 | 김후옥
 숭일학교 체육부와 녹색상회 | 광주 YMCA 체육관
 광주스카우트의 개편 | 두터운 인정과 의리
 광복 후의 보이스카우트 운동과 김학준

만능체육인 김복실 213
 배재학교의 박치기 | 선수·코치·감독·심판의 1인 4역

덴마크 체조 보급한 정인세 218
 친구따라 광주에 정착 | Y총무로 종교·체육 활동 전념
 정신질환자와 함께 한 노후

지덕체를 겸비한 주봉식 222
 광주권투의 개척자 | 해방 후의 청년단체 활동

■ 제5장
금 용

광주농공은행 230
 대한제국시절 광주·전남의 금융 | 근대은행의 여명
 농공은행의 설립 | 광주농공은행의 창립
 농공은행의 운영 | 경영권은 일본인이 장악
 식산은행으로 개편

광주지방금융조합 244
 전국 최초의 금융조합 등장 | 관권을 동원한 조합원 모집
 금융조합을 쥐고 흔든 일본인들 | 업전의 설움
 광주금융조합의 변천

■
제6장
통 신

호남은행 256

호남은행의 설립 배경 | 총독부의 견제로 설립에 진통
초대은행장 김상섭 | 현준호가 등용한 인재들
호남은행에 대한 일제의 압박 | 호남은행의 강제 합병
현준호의 호남동 저택과 학선제

해방 후의 은행들 272

식산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조선저축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무진회사로 출발했던 한일은행
상업은행 유치에 얽힌 이야기
광주상공회의소의 상업은행 유치운동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점

광주은행 284

광주상공회의소의 노력으로 설립 | 광주은행의 변천
필자와 광주의 금융기관 |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들

경양역 290

봉수와 역 | 또 하나의 광주 | 장성의 청암역 | 역둔토

광주우체국 297

우체사와 전보사 | 통신 주권을 잃다
어느 우편배달부의 회고 | 광주우편국의 변천
우체국, 전신전화국 그리고 우다방 | 사라져가는 우체통

초판 저자의 말 314

광주, 그 지난날의 이야기

초판 끝머리 말 316

이 따뜻한 광주의 이야기_전원범



제1장

광주의 멋과 풍류



■ 국악의 새로운 바람

1900년대 창극의 등장

1902년 고종의 즉위 4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 서울에는 협률사(協律社)라는 서양식 극장이 문을 열었다. 이 극장은 황실 소유였고 황실에서 관리했다. 이처럼 협률사는 극장의 이름이었다. 동시에 협률사는 이 극장에 소속된 국악인 단체의 명칭이기도 했다.

국악단체로서 협률사의 책임자는 무안 출신의 판소리 명창 강용환, 부책임자는 구례 출신의 송만갑이 맡았다. 이밖에 일반단원들 중에도 호남 출신의 국악인들이 많았다.

극장이든 국악인단체를 의미하든 협률사는 창극의 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극은 우리에게 영화 〈패왕별희〉로 잘 알려진 중국 노래극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19세기 후반 서울에는 중국 노래극이 들어와 있었다. 강용환은 이 노래극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 결실로 창극을 만들어냈다고 전해진다.

창극은 판소리를 일종의 노래극 형태로 꾸민 것이다. 판소리가 소리꾼과 고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창극은 각기 다른 소리꾼들이 극중의 인물을 맡아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906년 협률사는 해체됐고 1908년 사설극장으로 전환했는데 이때 이름을 원각사로 바꿨다. 그런 원각사도 1909년에 해체됐다. 원래 협률사 개관 당시부터

활동했던 국악인들은 원각사 때에도 그곳을 무대로 활동했으나 원각사까지 폐쇄되자 활동무대를 잃게 됐다.

이후 그들 중 일부가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스스로 국악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 당시에는 이런 단체들을 통틀어 협률사라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몇 년 뒤 광주에 국악공연단체인 양명사가 설립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별칭으로 '광주협률사'라 했고, 양명사 이후에 다시 김채만의 제자들이 광주에서 국악단체를 꾸렸을 때도 그 단체는 협률사라 불렀다.

광주 최초의 국악경창대회

1908년 8월 음력 7월 광주에서는 지역 국악인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순종 황제의 즉위 2주년을 경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날 광주시내는 경축의 뜻으로 상점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행사장인 광주천으로 모여 들었다. 광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이 행사를 보기 위해 구름떼처럼 몰려왔다.

행사 장소는 지금은 광주천 한복판이라 할 금동과 양림동 가운데였다. 당시에는 광주천이 여러 굽이를 치며 흘렀고 강폭도 꽤 넓어 금동과 양림동 사이의 하천 한가운데에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행사장은 바로 이곳이었다.

이 날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행사장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행진 도중에는 최서중, 장원재, 김영선이 선창을 하면 뒤따르는 군중이 후창하며 노래를 불렀다. 최한영에 따르면 당시 불렀던 노래의 가사는 이렇다.

성절 聖節이라 성절이라 / 개원기원 開元紀元 성절이라

칠월 성절 좋을시고 / 성수무강 聖壽無疆 하오리다

만세만세 만만세요 / 천세천세 천천세라

대한제국 만만세요 / 천세천세 천천세라

그리고 해질녘에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자 참석한 사람들은 불을 밝혀들고 태평가를 부르며 객사인 광산관까지 다시 행진을 했다. 여기서 만세를 부른 뒤에 해산했다.

이 행사는 대한협회 광주지회가 주최했다고 전해진다. 대한협회는 1907년 11월에 대한자강회의 후신으로 발족한 단체였는데 1909년 초엽까지 전국에 60여 개의 지회를 두고 있었다. 광주지회의 설립 시기는 명확치 않는데 이 국악행사가 개최될 즈음에는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다.

당시 대한협회의 기관지인 <대한협회보>에 의하면 광주지회의 설립에는 앞서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김광제와 함께 광주지역 인사로는 서정희徐廷禧와 최중섭崔鍾燮이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립된 광주지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1908년 12월에 간행된 <대한협회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1900년대 광주지역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회장	박원승 林源升 부회장 최상진 崔相鎭 교육부장 노문규 盧汶奎 법률부장 노채필 盧埰弼 재무부장 이응일 李應逸 실업부장 김형옥 金衡玉
총무	문정현 文珽鉉
평의원	조명석 趙明錫 김태식 金台植 김치주 金致晔 최홍진 崔泓鎭 최상욱 崔尙昱 서정희 徐廷禧 김기창 金其昌 김윤수 金允洙 이희범 李喜凡 최중섭 崔鍾燮
간사원	정해술 鄭海述 김방혁 金邦赫 정경교 鄭敬教 최형섭 崔亮燮 장경두 張璟斗 김인수 金仁洙 정근섭 丁根燮 박진환 朴珍煥
서기	신병식 申秉湜
회계	최득주 崔得柱
회원	강영록 姜泳祿 김인강 金仁康 김방혁 金邦赫 김태식 金奉錫 김중옥 金鐘玉 김태식 金台植 김현주 金顯胄 문달준 文達俊 문동하 文東夏 문서인 文瑞寅 문진원 文振元 박영환 朴永煥 박정구 林正九 박하청 朴夏淸 신태욱 申泰郁 이병의 李秉儀 이성두 李成斗 임병룡 林炳龍 장경섭 張景燮 정경모 鄭庚模 정병규 程炳圭 정경교 鄭敬教 정윤철 鄭潤哲 정재룡 鄭在龍 정해민 鄭海民 정해술 鄭海述 정해업 鄭海業 조명석 趙明錫 조문석 趙文錫 조석호 曹錫浩 조홍철 趙洪哲 지응현 池膺鉉 차영덕 車永德 최성언 崔成彦 최영우 崔永友 최원택 崔元澤 최재익 崔在翊 최중훈 崔鍾勛 최형섭 崔亮燮 최형욱 崔亨旭

어떻든 광주지회가 주도한 이 국악경창대회는 당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한 사건이었다. 그때만 해도 일반인들이 전문 국악인들의 공연을 직접 접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비록 예로부터 호남에서는 출중한 국악인들이 많이 배출됐고 국악 애

호층도 두터웠다고 하지만 실제 국악공연을 보려면 상당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얼마간 여비도 줘야 했으므로 일반 서민이 국악인들을 집에 불러 공연을 보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그래서 국악공연은 부호 등 한정된 계층이 회갑연 등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나 행해졌다. 따라서 1908년 광주천에서 열린 국악경창대회는 수많은 관객들이 말로만 듣던 국악을 직접 감상할 기회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광주 최초의 창극 무대 양명사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다. 국악경창대회가 열린 다음해인 1909년 광주에는 국악 공연장이 세워졌다. 이것이 이응일, 김인수, 정인준 등이 주동이 되어 세운 양명사(揚明社)다.

지금은 롯데시네마 충장점으로 상호가 바뀐, 옛 제일극장에서 충장치안센터로 가는 골목 중간에는 일제 때 최상채 외과의원, 해방 후에 전남도립보건의소가 들어선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양명사 자리다.

양명사 공연장은 200여 평 규모의 가설건물이었다. 지붕은 이엉으로 덮었고, 내부는 전면에 무대를 두고 객석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다. 1층은 맨 바닥에 거적을 깔았고 2층은 기둥을 세워 다락을 달아낸 형태였는데 1층은 일반석, 2층은 귀빈석이 있었다. 좌석은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고 남녀 관객이 분리해서 앉았다.

이 가설극장은 이응일이 자비를 털어 지었다. 이응일은 본디 서울 출신으로 징세 등의 일로 광주에 왔던 인연으로 몇 년 뒤 광주농공은행 임원을 맡기도 했다. 이 무렵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재력가들은 극장을 세우고 예능인들을 고용해 공연물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는 흥행업에 눈뜨기 시작했다. 이런 흥행업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었는데 이응일 등이 광주에 양명사를 세운 것도 이런 맥락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양명사는 가설극장뿐 아니라 이 극장에 소속된 국악인 단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국악인들은 관아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재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이런 관행이 1890년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서울에 협률사가 생긴 1900년대에 이르러 극장 소속으로 그 활동 양태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어떻든 1909년 8월 양명사가 출범하면서 지역 국악인들은 무등산 중심사와 약사암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인 창극을 준비했다. 그리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삼국지 등 4편의 창극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곧 무대에 창극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매일 공연내용, 즉 예제(藝題)를 바꿔 선보였다. 이를테면 춘향전을 하루에 다 소화하려면 무려 9시간이 걸렸으므로 이를 사흘로 나눠 공연했다. 첫날에는 이별가 대목까지, 둘째 날에는 옥중가를 부르는 대

목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사출도 대목까지를 보여주는 식이었다.

양명사가 생기면서 창극 외에도 새로운 볼거리가 등장했다. 공연에 앞서 출연자들은 홍보를 위해 시내를 행진했다. 행진의 맨 앞에는 징과 팽과리, 나발 등 악기 연주자들이 섰고 그 뒤를 출연자들이 뒤따랐는데, 이도령과 변사또 역을 맡은 출연자들만은 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말을 탔다. 이것 자체가 당시 광주 사람들에게는 큰 눈요깃거리가 되어 행진대열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창극 공연 자체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그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춘향전이라 하면 한글소설을 빌려다 보는 것이 고작이었고 기껏해야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랑채에 소리꾼을 불러 판소리 형태로 감상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창극에서는 이도령과 춘향 등이 실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고, 그들이 중간 중간 가슴이 터질 듯이 내지르는 소리에 보

■ 광주 최초의 연극 공연장인 양명사가 있었던 자리 춘향전 등의 창극이 최초로 공연되어 성황을 이루었으며 관객들은 가마나나 돛자리를 깔고 앉아서 보았다.



는 이들의 눈은 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창극 춘향전을 접하는 관객들의 모습도 흥미로웠다. 큰칼을 걸고 머리를 풀어 산발한 춘향이 애절하게 옥중가를 부를 때면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고 아예 목 놓아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기구한 처지에 놓였던 춘향에게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외침과 함께 이도령이 징과 피리 소리 속에서 등장하면 관객들은 마치 자신이 극중의 인물이라도 되는 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줄행랑을 치는 변사또를 보고는 “저 놈 잡아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화려한 옷차림의 출연자들이 나와 무대 인사를 했고 그러면 무대 양쪽에서 포장을 잡은 사람들이 달려 나와 막을 단았다. 관객들은 답답한 시절의 시름을 잠시 잊게 해준 공연에 큰 박수로 답례를 하고 종종 걸음으로 가설 극장을 빠져 나갔다.

이처럼 창극 춘향전은 양명사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소리꾼 김낙석이 일명 벼락이가 연출을 담당했다. 담양 수북면 출신인 김낙석이는 서울에서 창극 공연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마침 고향에 내려와 있었던 까닭에 춘향전의 연출자로 영입됐다. 훗날 박동실은 당시 춘향전의 출연진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창꾼 : 정확진, 박홍준	이도령 : 한성태	변사또 : 박재실
방자 : 전일도	춘향 : 박동실	월매 : 박장원
향단 : 박화섭	어사 : 김억순	

명단 중 창꾼은 도창^{都唱} 또는 수창^{首唱}이라고도 했는데 소리꾼 중에서 최고참이 맡았다. 창극의 줄거리를 관객들에게 말해주는 일종의 해설자와 같았다. 그런데 창극 출연자 중에는 여성 국악인이 없었다. 그래서 월매와 향단은 남성 소리꾼이 맡았고 심지어 춘향 역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박동실조차도 열세 살 난 소년이었다.

여성 출연자 없이 남자들만이 배역을 소화하는 이런 관행은 1900년대에는 아주 흔했다. 서울의 협률사, 그 뒤를 이은 원각사에서든 그랬다. 1960년대 박동실의 회

고에 따르면, 원각사 시절에 창극 춘향전에서 춘향을 맡은 사람도 남자 소리꾼이었다고 한다.

박동실은 변성기 이전이라 목소리가 여성스러운데다 소년이라 체구도 작아 춘향역을 맡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인기는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창법에서 비롯됐다.

창극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었고 수십명이 함께 모여 공연해야 했기에 이를 배우고 익히는 데는 많은 공력이 들었다. 소리꾼들은 공연에 앞서 중심사와 약사암 등 무등산을 찾아 연습해야 했다. 그럴 때면 그들이 산중에서 내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무꾼이나 농부들이 연습 광경을 참관했고 더러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양명사는 한동안 이처럼 관객몰이를 했고 순회공연까지 펼쳤지만 운영 형편이 좋지는 못했다. 입장료 수입은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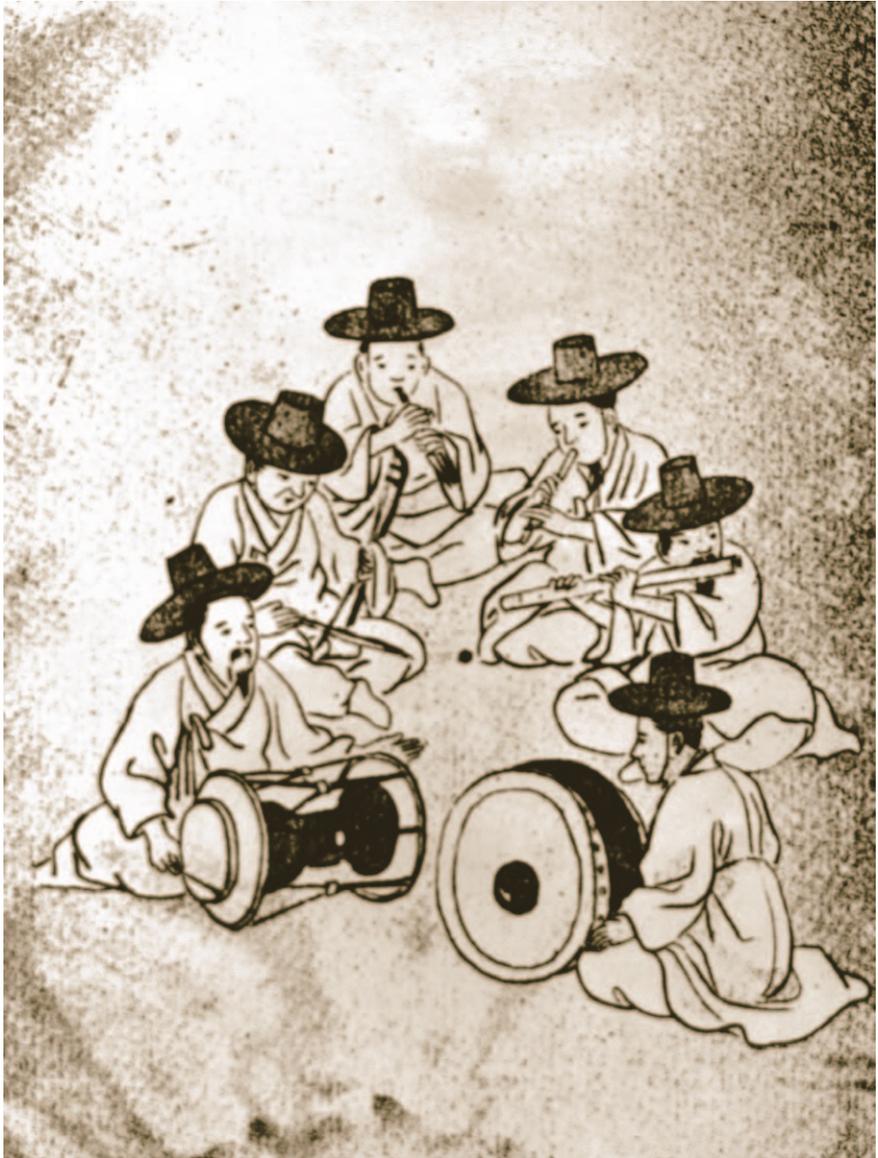
출연자들은 따로 고정된 보수를 받지 않았다. 박동실에 의하면, 이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한다. 출연자들은 의상이나 공연소품을 직접 마련해야 했다. 더러 부호들이 끼니나 양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양명사는 몇 년 뒤에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속골 명창과 김채만 협률사

양명사에 이어 광주에는 또 하나의 국악단체가 등장했는데 1912년에 결성된 광주협률사가 그것이다. 광주 출신으로 오랫동안 국악 현장에서 활동했던 박항(朴晷)이 쓴 「관소리 2백년」을 보면, 협률사는 광주의 속골이란 곳에 살던 명창 김채만의 제자들로 구성됐다고 한다. 속골은 광주대학교 뒤편에 있는 행암동 구암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이곳에 머물던 김채만은 수많은 소리꾼들을 양성했는데 이렇게 해서 관소리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훗날 ‘속골 명창’이라 불렀다.

속골에서 배출된 명창들로 김억순(金憶順)·안영환(安永煥)·공창식(孔昌植)·박화섭(朴化燮)·한성태(韓成泰)·박종원(朴宗元)·신용주(申用柱)·박종섭(朴淙燮)·전일도(全一道)·김정문(金正文)·성용태(成龍泰)·박동실(朴東實) 등이 있었다.

이들이 규합해 공연단체 협률사를 결성한 것은 1912년이였다. 이 해는 김채만이 마흔 일곱의 나이로 이미 강진에서 타계한 1년 뒤였다. 따라서 김채만이 직접 조직했



■ 화보집에 실린 조선의 악사들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일본인 화가 나카무라(中村金城)는 반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1백여점의 한국 풍속화를 그려 「조선풍속」화보집을 펴냈다.

다고 볼 수 없지만 제자들이 스승의 유지를 잇는 성격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김채만 협률사’로 부르고자 한다.

김채만 협률사는 강용환(姜龍煥 1865~1938)의 연출로 한 달 남짓 연습 끝에 공연에 들어갔다. 첫 작품은 양명사 시절부터 단연 인기를 끌던 창극 춘향전이었다. 춘향전은 서울 협률사 시절부터 줄곧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기도 했다. 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관객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명사와 달리 이들에게는 고정된 공연장을 꾸릴 여력이 없어 광주천 둔치에 임시무대를 꾸리고 공연했다. 그래도 관객들의 반응은 컸고 다른 지역으로 순회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김채만 협률사에서도 출연진은 모두 남자였다. 남자 소리꾼이 여성 역까지 소화하는 관행, 이른바 남창여역(男唱女役)은 여기서도 계속됐다. 이 때문에 재밌는 일화도 많았다. 춘향이나 월매 역을 하는 출연자들은 여자 옷에 익숙하지 않아 치맛자락을 밟고 일어서는 바람에 관객 앞에서 치마가 벗겨지는 일이 많았다. 관객들은 야유보다는 박장대소로 화답했고 대체로 공연은 흡족할 만한 성공을 거뒀다.

춘향전을 잇는 두 번째 작품은 심청전이었다. 심청은 한성태, 뽕덕어멈은 신용주, 심봉사는 강용환, 화주승은 박준수, 송천자는 박화섭, 황봉사는 김정문이 맡았다. 심청전의 인기도 대단해 가는 곳마다 관객이 가득 메웠다.

협률사에서 활동한 박종원은 훗날 박황과의 면담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하여간에 공연을 부치기만 하면 손님은 미어터졌고 공연이 끝나면 그 지방 유지나 부자들의 초청에 응하여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들 수입이 천석꾼 부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렵 전국 주요도시에는 기생조합들이 속속 등장했다. 기생조합은 기생 양성도 했으므로 춤, 노래, 악기를 가르칠 뛰어난 선생들이 필요했다. 협률사 단원들은 이런 기생조합의 선생으로 하나 둘 빠져나갔다. 김정문은 남원조합으로, 박화섭은 경주조합으로, 한성태는 함흥조합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결국 김채만 협률사는 1920년에 해산됐다. 이후 남은 박동실의 주도로 새로 협률사가 꾸려지기도 했는데 이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다.

잊혀진 국악인 박동실

이처럼 박동실은 양명사와 김채만 협률사에서 두루 활동했다. 양명사 시절에는 이미 타고난 재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동실에게는 예술가의 피가 흘렀다. 외할아버지 배희근은 영광 출신으로 성음이 우수하고 비위도 늙름한 소리꾼이었다고 전한다. 아버지 박장원도 판소리에 일가견을 이뤘다. 이런 박동실의 예술가적 기질은 그의 후손에게도 이어졌다. 1970년대의 유명한 대중가수 김정호가 박동실의 외손자다.

박동실은 1897년 담양 객사리 241번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원래 부모는 광주군 본촌면 용두리현 북구 용두동 467번지에 살다가 중도에 담양으로 주소를 옮겼다. 1929년 어머니 배금순이 사망한 곳도 광주 용두리였다고 한다. 정황상 박동실은 원래 광주에서 태어났던 것 같다.

■ 담양 남면 박석기의 지실마을 풍류방



물론 유년시절에 그가 담양의 부호 국채옹(鞠塚翁)의 풍류방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부터 부호들은 음악인들을 불러 이런 풍류방을 운영했다. 비교적 이름이 잘 알려진 풍류방으로는 화순 동복의 율회(律會), 구례 김무규의 풍류방이 있다. 국채옹도 자신이 세운 우송정(又松亭)을 중심으로 이런 풍류방을 운영했다. 이 무렵 박동실은 담양객사에 개설된 사립 광명학교(담양동초등학교의 전신)에도 다녔다고도 한다.

국채옹의 풍류방을 떠나 박동실이 다시 자리를 옮긴 곳은 박석기(朴錫紀)의 풍류방이었다. 이 풍류방은 담양 남면 지실마을에 있었다. 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박석기는 한량 기질이 농후해 일본유학 시절에는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1939년 혹은 1940년에는 화랑창극단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박석기는 풍류방 선생을 뽑기 위해 여러 명창들을 모아 소리를 들었는데 무대 소리에 능한 박동실을 택했다. 이곳 풍류방에서 박동실에게 소리를 배운 명창으로는 김소희, 한애순, 박귀희, 한승호, 박후생, 임춘앵, 김녹주, 장월중선, 박송희 등이 있다.

박동실은 소리뿐 아니라 작사와 작곡에도 재능이 탁월했다. “때마침 봄이 되니 만산에”로 시작하는 〈사철가〉도 그가 지은 것이다. 해방 2년 전에는 이준,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등을 기리는 〈열사가〉를 짓기도 했다.

1945년 10월 광주극장에서는 광주·전남 국악인들이 출연한 해방 기념 공연회가 열렸다. 당시 필자도 객석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출연진 전원이 무대에 나와 〈해방가〉를 합창했다. 이 〈해방가〉도 박동실이 가사와 곡조를 지은 것이었다. 당시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던 광경과 함께 〈해방가〉의 노랫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반가워라 반가워 / 삼천리 강산이 반가워

모두들 나와서 손뼉을 치면서 / 활기를 내어서 춤을 추어라

이런 경사가 또 있느냐

(후렴) 좋네 즐겁네 삼천리 강산에 광명이 떴으니 / 이런 경사가 또 있느냐

반가워라 반가워 / 우리나라 국기 반가워

모두들 나와서 깃발을 흔들며 /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세

이런 경사가 또 있느냐 / (후렴)



■ 2002년에 박석기의 풍류방 근처인 한국가사문학관 앞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됐다.

글을 배운 선비들과 / 육체 노동하는 여러분도
진충보국(盡忠報國)은 일반이라 / 우리가 다 각기 힘을 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세 / (후렴)

이런 박동실의 판소리는 김소희, 한애순, 장월중선으로 이어졌으며 경주 쪽으로는 장월중선의 딸인 정순임과 이향희로 이어졌다. 그러나 박동실은 한국전쟁 중 월북해 북한에서 활동하다 1968년 12월 사망했다.

박동실은 월북과 이후 북한에서의 활동으로 임방울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2002년에 박석기의 풍류방 근처인 한국가사문학관 앞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됐다. 2003년에는 그의 국악활동에 대한 학술대회도 열렸다. 다음은 ‘명창 박동실 기념비’에 새겨진 글이다.

명창 박동실(林東實)은 1897년 이곳에서 태어나 소리의 근원을 익혔고 이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 소리의 연원 또한 이곳의 천재적인 명창 이날치(李捺致)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 예술의 태반은 오로지 담양의 대바람과 푸르른 들판에서 여문 것이다. 그는 또 이 고을이 충절의 고장임을 한 순간도 잊지 않도록 많은 열사가(烈士歌)를 지어 소리의 세계를 넓혀 주었다. 전쟁 속에서 그는 추운 북쪽으로 떠났고 1968년 12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담양의 바람과 햇살은 그로 인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 나갔다. 북소리 호령소리 가득했던 그는 환히 뿔러가는 소리 길을 다시 지켜갈 것이다.

■ 시대를 넘는 문화의 가교, 기생

광주교방

양명사, 협률사는 주로 남성 국악인들의 얘기다. 이들 국악단체나 그들의 공연에 여성 국악인들이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되지만 그 역할과 비중은 남성 국악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렇다면 여성 국악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여기서 국악 전승의 또 다른 가교 역할을 한 기생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 지방에는 교방敎坊이란 기관이 있었다. 지방관아에 소속된 기생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생 준비생들에게 노래와 춤, 악기 등을 가르쳤던 곳이었다. 지금처럼 예술인 양성교육기관이 따로 없던 시절이라 이러한 교방은 지방에서 노래, 춤, 기악 등을 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모든 고을에 교방이 있었던 같지는 않다. 조선시대에 전라도에는 50여 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기록을 통해 교방의 존재가 확인된 고을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전주, 능주, 남평, 해남, 순창, 무주 그리고 광주에 있던 교방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있던 기생청妓生廳, 당시 전라도에 속했던 제주의 장춘원長春院도 교방과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춘향전의 무대인 남원에는 교방이 있었던 기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물



■ 한말의 기생
백년 전에 한국에 온 영국의 언론인 F. A. 맥킨 기자가 촬영. 뒤에 태극기와 일본 국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을사조약 이후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론 남원에 적잖은 수의 관기^{官妓}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1921년 남원기생조합이 조직된 것을 보면 교방에 준하는 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방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나주의 신청^{神廳}, 진도의 장악청^{掌樂廳}처럼 음악인을 양성하던 기관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교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39년 광주 토호인 노홍준이 광주목사를 욕보인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목사 신보안이 소매라는 여인과 정을 통했는데 본래 소매는 노홍준의 소첩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노홍준은 관아에 쳐들어가 신보안을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건을 알게 된 조정은 이듬해 노홍준을 곤장 1백대를 때리고 변방으로 내쫓았으며 광주 사람들에게도 사건의 연대책임을 물어 광주목을 무진군으로 강등시켰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된 소매는 당시 광주교방에 속한 기생이었다.

광주목사 구타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교방은 조선시대 말엽까지 운영됐다. 「광주읍지」에 따르면, 1710년대 광주목사 이희담이 교방 건물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18세기 자료인 「여지도서」에는 광주교방 기생이 18명이라고 적고 있다. 또 1872년 광주지도를 보면, 교방이 읍성의 남문 안쪽에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광주교방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반적으로 교방 등에 속한 관기^{官妓} 제도가 1908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광주교방도 그 무렵에는 없어졌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관기 제도의 폐지는 기생들에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종전까지 교방을 통해 관아의 보호를 받았던 기생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다. 광주의 경우, 1910년대까지 기생들은 남문 밖과 북문 밖 일대에서 주점 등을 열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 평양 기생학교 수업풍경
 평양기생학교에서는 소학교 과정까지 교육했고, 구수한 평안도 사투리로 된 서도 소리와 폭넓은 교양미를 갖추어서 인기가 높았다.

기생조합과 권번

이처럼 한낱 웃음을 파는 창기(娼妓)와 다름없게 된 옛 관기들이 자신들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결성한 것이 기생조합이다. 기생조합은 예기조합(藝妓組合)이라고도 했는데 예기는 창기와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였다. 또한 기생조합은 권번(券番)이라고 했는데 권번이란 말은 1910년대 중반부터 이미 기생조합과 혼용해서 사용된 명칭이었다.

광주에 처음 기생조합이 생긴 것은 1917년 후반에서 1918년 초엽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남문 밖 일대서 주점을 열며 생활하던 기생들이 1917년 전반기에 조합 결성에 나섰다. 처음에는 기생 문란옥, 황국홍, 계향옥 등이 주축이 되어 조합 설립을 추진했고 몇몇 한량들이 여기에 동참했던 것 같다.

해방 후에 광주국악원장과 수녕당(壽寧堂)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경모당의 당장(堂長)을 지낸 최경식(崔景植)에 따르면, 기생조합은 남문 밖에 해당하는 남동 21번지에 있었다. 건물과 땅은 평소 국악에 조예가 깊었던 한량 정덕범(鄭德範)이 기증했다. 건물은 기증 당시에는 초가집이었으나 훗날 지역유지들이 돈을 모아 기와집으로 개축했고 1960년대까지 광주국악원으로 사용했다.

이 조합의 소속 기생은 50여명이었는데 주로 광주 출신이었다. 조합장은 최서현(崔

瑞鉉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최정기의 증조부 이 맡았다. 기생조합장은 대개 그 지역의 고명한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조합장의 성품과 교양이 소속 기생들의 자질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기생들에게 조합장은 친부모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조합장이 세상을 뜨면 마치 친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출상 때는 상여를 뒤따르며 곡을 했다. 그 곡소리가 구슬픈 중머리가락이어서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웠다.

그런데 1920년 북문 밖인 옛 화니백화점 자리에 또 다른 기생조합이 생겨났다. 조합장은 처음 화순 출신의 오현창吳憲昌이 맡다가 뒤이어 최서현의 동생 최서국崔瑞國이 이어받았던 것 같다. 이 조합은 주로 광주 외 지역 출신의 기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대략 30명 정도였다.

이렇게 한 지역에 두 개의 기생조합이 양립하다 보니 이를 구별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조합의 위치에 맞춰 먼저 생긴 조합은 '남밖南門에 조합'이라 했고, 나중에 생긴 조합은 '북밖北門에 조합'이라고 불렀다. 이들 조합은 1928년께 하나로 통합됐고 명칭을 광주기생조합이라고 했다. 조합장은 남밖에 조합의 최서현이 맡았다.

그러던 1932년 4월 10일 광주기생조합의 공식명칭을 광주권번으로 개칭했고 조직 형태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자본금 5천원의 광주권번 사장은 김승련金承鍊이 맡았고 주소지는 옛 남밖에 조합의 것을 그대로 썼다.

김승련 외에도 광주권번의 운영에는 당대의 광주 한량들이 두루 참여했다. 박호일朴昊一, 최당식崔當植, 최준기崔駿基, 차남기車南起, 장경두張璟斗, 최양섭崔亮燮, 정덕범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광주권번을 출입한 예술가들

기생조합과 권번은 단순히 향락문화의 공간이 아니었다. 기생 양성소인 동시에 전통예술의 교육기관이었다. 이들을 육성하는 과정은 엄격했다. 필자가 전해들은 것과 광주권번 출신인 함동정월의 구술에 의하면, 기생 예비생들을 위한 학예부가 있었다. 학예부는 학감 1명, 부학감 1명, 그리고 약간 명의 강사로 구성됐다. 학감은 박동실, 성원묵(성창순의 아버지), 정광수, 박석기, 안

치선 등이 역임했다. 강사로는 오진석(피리), 박종원(대금), 성원목, 정광수(판소리), 이장선, 박석기, 안치선(가야금·거문고), 이창조, 신갑도, 한진옥(무용) 등이 있었다.

권번의 입학 연령은 8~20세로 다양했다. 입학금으로 5십원을 내야 했고 매달 5원씩을 냈다. 수업기간은 보통 3년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했다. 오전은 분야별 공부를 했고 오후에는 시조와 창, 단가 외에 한글, 일본어, 한문, 예절, 글씨쓰기 등 공통과목을 공부했다. 토요일은 오전만 했고 일요일은 쉬었다.

생활지도는 매우 엄했다. 단정한 옷차림은 기본이었고 걸음걸이, 앉은 자세, 머리 단장, 식사예절, 화법까지 엄하게 가르쳤다. 학생들은 다방 출입도 금지됐으며 잘못을 저지르면 마당에 있는 석류나무 가지로 만든 매로 체벌을 받았다. 한 주에 세 번의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권번으로 전학을 가거나 퇴학당했다.

강사들도 실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문제되면 언제든 해임됐고 나이가 연로해 수업 진행이 원활치 못해도 권번을 나와야 했다. 그 덕에 광주권번에는 이름난 선생들이 두루 거쳐 갔고 배출한 명인들도 많았다. 명창으로는 박초월 朴初月, 김소희, 박송희, 한애순 韓愛順, 박정자, 안채봉 安彩鳳, 박춘선 朴春仙, 박화선 朴花仙, 한해자, 정춘실 등이 있었다.

무용에는 이매방 李梅芳 을 꼽을 수 있다. 목포 출신인 이매방은 광주권번을 오가며 박영구 朴永九 에게서 승무와 북을, 이창조 李昌祚 에게서 검무를 배웠다. 이밖에 광주권번이 배출한 무용가로는 박후성 朴厚性 과 한재옥 韓在玉 이 있었다. 기악부분에서는 거문고의 박석기, 가야금의 원광호 元光浩 와 안치선 安致善 등이 이름을 떨쳤다.

기생이나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온습회 溫習會 라고 했다. 일종의 학예발표회 같은 것이었다. 이밖에 주요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1926년 목포에서 조선면업공진회와 전라남도 물산공진회가 열렸다. 부대행사로 전국 규모의 명창대회도 열렸는데 이때 광주권번이 공연했다. 고채운 高彩雲, 이산옥 李山玉, 최금옥 崔錦玉, 최승월 崔弄月, 김매향 金梅香, 정춘운 鄭春雲, 전채봉 全彩鳳, 한소옥 韓素玉, 김산호주, 김앵무, 성춘홍 成春紅, 도초선 都楚仙 이 그들이다. 그들은 검무, 승무, 북춤, 가야금병창, 새타령, 단가 따위를 불러 절찬을 받았다. 이 대회에는 광대로 공창식 孔昌植, 박화섭 朴化燮 등도 출연해 단가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 기생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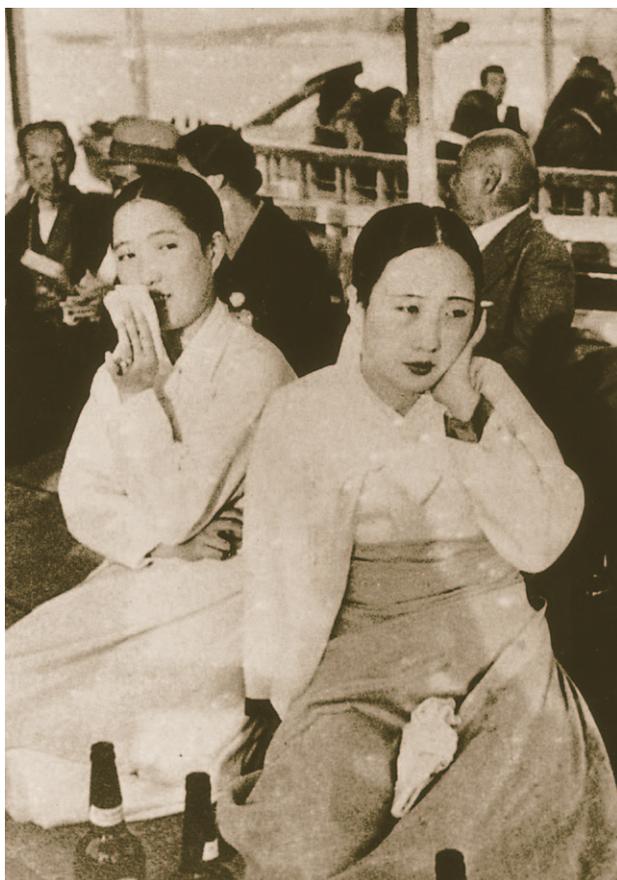
화 대

관기 제도가 사라지면서 종전에 관기와 민간기생으로 나누던 관행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기생을 예기藝妓와 창기娼妓로 나누던 관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려는 기생들도 전통예술의 전승자인 기생, 즉 예기들에 관한 것이다.

당시 기생의 봉사료는 화대花代라고 했다. 이 화대라는 말이 처음부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춘에 대한 대가, 즉 해웃값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본래는 손님들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술시중을 든 대가, 또는 대화상대로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한 값, 다시 말해 놀음값을 의미했다. 물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화대는 점차 놀음값이란 의미가 희석되고 결국에는 해웃값과 같은 말로 변질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말하는 화대 얘기는 아직 해웃값보다는 놀음값의 의미가 강했던 시절을 의미한다.

당시 화대는 시간에 따라 값이 정해졌다. 그래서 화대를 시간비時間費 또는 시간대時間代라고도 했다. 최경식에 의하면, 1930년대에 광주 기생의 시간대는 한 시간에 1원 50전이었고 시간이 늘어나면 추가 시간당 1원이 가산됐다. 참고로 당시 쌀은 한 가마니에 12원, 한 말에 2원 50전이었다.

대체로 기생의 시간대는 외모를 앞세운 ‘화초기생’이든, 노래를 잘 하는 ‘소리기



■ 일본인들의 뱃놀이에 흥을 돋우는 기생들
 훌륭한 기생일수록 손님 의중을 재치있게 알아차려야 하며 기분 나쁜 말도 우아하게 받아 넘겨야 한다. 또한 화대가 흠족지 않더라도 항의하거나 불쾌한 내색을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돈보다도 정을 더 소중히 여겼다.

생'이든 차등 없이 일정했다. 그러나 인기 있는 기생은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생은 하룻밤에도 여러 요릿집에서 호출이 쇄도했으므로 옷돈을 얹어주어야 했다. 일단 요릿집에 오면 서너 시간씩 머물게 되어 시간대를 더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하룻밤에 여러 요릿집을 겹치기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시간대는 손님이 기생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 시간이 끝나면 요릿집에서는 손님에게 계산서를 내보였는데 여기에는 술값, 음식값, 시간대 그리고 인력거 비용이 합산되어 있었다. 손님은 이런 비용을 모두 요릿집에 지불했다. 그러면 요릿집은 시간대

만을 떼어 나중에 권번에 보냈다. 권번에서는 이 시간대 중에서 10~2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해당 기생에게 지급했다.

기생들의 수입은 어땠을까? 광주권번의 인기 있는 기생인 김산호주(金珊瑚珠)가 스물셋에 병으로 숨졌을 때 적잖은 유산을 남겼다. 현금 3천원, 논 7두락, 그리고 1천 7백원 상당의 집이 있었다. 1933년 서울에서 활동하던 전남 출신의 장금향(張錦香)은 기생생활을 접으면서 빈민구제에 쓰도록 서울과 전남에 각각 5백원을 기부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얼마간 성공한 기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는 못했다.

기생들의 법도와 은어

기생들은 오후가 되면 집을 나서 권번에 모였다. 요릿집에서 호출을 하면 인력거를 불러 타고 요릿집에 갔다. 권번 옆에는 전속 인력거집이 있었다. 매일 초저녁이면 호출 나가는 기생들로 이 집은 연신 붐볐다. 인력거 가격은 한번 이용에 30전이었는데 이 값은 나중에 호출한 손님이 계산했다.

기생들에는 법도가 있었다. 먼저 좌석에서는 누가 오늘 모임의 주최자이고 누가 초대를 받는 사람인지를 눈치껏 알아야 했다. 좌중에서는 손님 마음을 재치 있게 알아채야 했다. 대화 중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도 우아하게 받아 넘겨야 했다.

술자리에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됐다. 그래서 요릿집에 가기 전에 미리 음식을 먹고 들어갔다. 손님이 술을 치마에 쏟아도 껴넘치 않아야 했다. 당시에 기생의 옷을 크게 망쳤으면 다음날 손님이 옷감 한 벌을 기생집에 보내는 관례도 있었다.

시간대와 달리 손님이 건네는 팁이라도 다 받아서는 안됐다. 생색내듯이 주는 팁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런 팁을 냉큼 받아 쥐는 기생은 별 볼일 없는 기생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

기생은 먼 발치서도 얼른 눈에 띄었다. 옷차림이 여염집 여인들과 달랐다. 화려한 옷차림이라도 기생은 반드시 치마를 바로 입었다. 치맛자락을 바른쪽으로 감아 입었다는 뜻이다. 치마 색깔은 주로 옥색이거나 남색 계통이었다. 물론 기생이 누군가의 첩실로 들어 앉으면 옷차림부터 달라졌다. 이제 치마는 외로 입었다. 이전과 다르게 치맛자락을 왼쪽으로 감아 입었다. 치마 색깔도 황색이나 다홍색으로 바뀌었다.

기생들은 자신끼리만 통용하는 은어도 있었다. 기생들은 이런 은어를 '변'이라고

했다. 기생들의 은어는 외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어려서 기생수업을 받을 때부터 이런 은어의 비밀을 불문율처럼 간직했다. 필자는 60여년 전 어렵게 기생들의 은어를 알게 됐다. 한동안 기생들의 불문율을 지켜주기 위해 마음속에 묻어두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기생들이 사라진 지금은 공개해도 될 성싶어 소개한다.

〈 음식에 관한 것 〉

밥, 죽=서삼	쌀=새미	보리밥=붕탱이
고기=사지것	술=타리, 탈	소주=소짜
음식=석음		

〈 옷에 관한 것 〉

옷=버삼	저고리=옷버삼	속옷=속버삼
------	---------	--------

〈 인체에 관한 것 〉

얼굴=밴대	코=홍대	입=서삼집
발=디딤	눈=저울대	손=육갑

〈 사람에 관한 것 〉

노인=감영	남자=때들	부인 여자=해주
어린이=자동	기생=생짜	가벼운 사람=축새
보기 싫은 사람=서구	예능인=대광	

〈 그밖의 은어 〉

돈=이돌, 도리	거짓말=석부	없다=빼었다
살짝이 가자=빼자	혼내준다=남소낸다	좋다=타조
퐁=구성	변소=구성집	개=서구

술상머리에서 기생들은 이런 은어들을 섞어 나지막하게 속삭이듯이 의사소통을 했다. 대개 손님들은 그 말뜻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를테면, “저 감영 생짜 타조하고 석부 잘 누린다”는 “저 영감 기생만 좋아하고 거짓말을 잘 한다”는 뜻이었다. 또 “저 때들 도리 빼었고 탈만 갔다”는 “저 남자 돈은 없는데 술만 취했다”란 의미였다. 은어가 왜 필요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한량과 기생

한량(閑良)은 원래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무반(武班)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후 관직은 없으나 재산은 있어 멋과 풍류를 즐기는 사립을 뜻하는 말로 변했다.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시조를 읊거나 활을 쏘며 기생들과 풍류를 즐겼다.

광주 한량들이 즐겨 입던 옷차림을 보면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였으며 신발은 갓신을 신었다. 물론 명주 두루마기나 세루(양털모직) 두루마기를 입기도 했으나 나주 셋골나이 무명에 옥색 물을 들인 명주 안감을 댄 두루마기를 비단옷보다 더 멋진 것으로 쳤다. 여름에는 한산모시를 즐겨 입었다.

한량은 기생들의 오랜 벗이었다. 한량과 기생은 동거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 아직 수업 중인 기생, 즉 동기(童妓)는 요릿집에 나갈 수 없었다. 머리를 엮는 의식을 통과해야 했다. 그것은 첫날 밤을 남정네와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역할을 흔히 한량이 했다. 이 머리엮음을 마치면 머리에 쪽을 틀고 본격적인 기생이 됐다.

머리엮음은 아무 한량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위가 있거나 재력을 갖춘 한량이라야 할 수 있었다. 머리엮음을 하면 그 한량은 기생에게 옷가지, 폐물, 살림집, 세간 등을 장만해 주는 것도 관례였다. 그래서 아무나 한량 노릇을 했던 것은 아니다.

한량과 비슷한 난봉꾼도 있기는 했다. 물론 단순한 오입쟁이를 넘어 난봉꾼을 한량과 단숨에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둘의 경계는 모호했다. 그러나 풍류를 모르고 사리분별 없이 방탕한 삶을 즐기는 한량들을 흔히 난봉꾼이라 했다.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한량들의 멋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기껏해야 한량들의 흉내를 내는 정도였다. 그렇다 보니 적잖은 돈으로 승용차를 대절해 기생을 끼고 요릿집과 명승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고작이었다. 대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있더라도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부모의 가산을 탕진하기 일쑤였다.

그렇다 보니 얼마 뒤에는 돈이 떨어지곤 했다. 당시에는 이런 난봉꾼들이 많아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간꾼도 있었다. 거간꾼들이 빌려주는 돈은 한 달에 10% 이상의 고리대였고 이마저 떨어지면 종내에는 부사후출급(父死后出給)이란 증서를 써주고 보다 고율의 돈을 얻어 썼다. 부사후출급이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뜻이었으니 폐륜의 극치였다.



■ 규모가 큰 가정연회
 권번에서 기생을 불러 노래와 춤, 술시중을 듣게 하였다.
 사진은 1941년 호남은행 목포지점 최태근 지점장 사택에서의
 연회. 의재 허백련 화백의 모습도 보인다. (오른쪽 안쪽 두번째)

화순 출신의 기생, 농선

20세기 초엽 광주·전남의 기생들 가운데 농선^{農仙}만큼 유명했던 기생도 없을 것이다. 화순 향청리 출신인 농선은 철종의 부마인 박영효^{朴英孝}의 첩이 됐고 그 바람에 화순의 역사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농선의 원래 이름은 박경희^{朴景熙}였다. 1870년경 화순에서 700섬지기의 부농 박인규^{朴仁圭}, 일명^{別名} 朴良三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농선이 기생이 된 데는 사연이 있다. 농선의 팔자가 좋지 않으니 버려야 한다는 어느 도인의 말을 듣고 박인규가 딸을 버린 셈치고 기생출신의 자기 첩인 번예에게 양녀로 주면서 기생이 됐다고 한다.

농선은 성장하면서 달덩이같이 환한 외모와 출중한 재주로 동기童妓 때부터 화순 일대에서 이름을 날렸다. 번에는 이런 농선을 더 넓은 곳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고 서울에 올라간 농선은 당시 정계의 거물 박영효의 눈에 띄어 머리를 얹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설에는 박현경이 자신의 출세에 지장을 줄까 싶어 누이를 멀리 서울로 보냈다고 하고, 또 다른 일설에는 농선이 화순에서 양가집 총각과 결혼했으나 실패하자 기생이 됐고 화순에 온 박영효와 인연을 맺어 서울로 갔다고도 한다.

이후 농선은 박영효의 사실상 배우자로 살았다. 박영효는 1872년 영혜옹주와 사별한 뒤에 홀로 살았다. 정실부인이 죽더라도 부마는 재혼을 할 수 없다는 궁중 법도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농선은 정실부인의 자리를 꿰찰 수 없었다. 그럼에도 농선이 박영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에 따른 정치적 후광은 오라비에게 미쳤던 것 같다. 박현경은 1900년대 초엽에 전북관찰부와 전남관찰부 주사 벼슬을 받았다. 이 무렵은 주사만 돼도 제법 양반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박영효가 명성황후의 암살계획 실패로 일본에 망명해 있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박현경이 박영효에 망명시절에 주사 벼슬을 했던 것은 다소 미스터리한 일이다.

박영효가 화순탄광의 개발에 미친 영향력은 보다 분명하다. 화순탄광 개발을 위한 회사, 즉 화순무연탄 주식회사는 공식적으로 1930년에 설립됐다. 초기 이 회사의 사장은 박영효였다. 당시 박영효는 여러 공직을 가지고 막강한 실력을 행세하고 있었던 터라 자본금 2십만원에 불과한 화순무연탄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이다. 화순무연탄은 박영효 이후 농선이 사장직을 이어 맡았다. 모하게 이 회사의 경영진 명단에는 공식적으로 박현경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전해지기로는 농선의 입김은 박영효를 통해 현재의 화순군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화순군은 원래 화순군, 능주군, 동북군의 세 고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세 군 가운데 면적, 인구수에서 원래의 화순군이 가장 작았다. 그런데 20세기 초엽 다음과 같이 두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면서 지금의 화순군이 만들어졌다.

첫째, 1908년 화순군과 능주군이 통합돼 새로운 능주군이 생겼다. 그런데 1913

년에 돌연 능주군을 화순군으로 개칭했다. 이듬해에는 이 화순군이 다시 동북군을 흡수했다. 지금과 같이 화순군의 행정구역을 갖게 된 것은 이 때부터였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 옛 화순군 출신인 농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둘째, 1930년 개통된 광주와 여수를 잇는 경전선 철도의 선형에도 농선의 힘이 미쳤다고 한다. 철도는 남평역에서 능주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화순읍내를 우회한다. 이 노선 결정에 대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선의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로 생각했다. 이때 농선은 박현경에게 정보를 줘 그가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한다.

박현경이 사실상 소유했던 화순탄광은 1934년 일본 종연방적, 일명 가네보에 매각됐다. 막대한 매각대금으로 그는 화순에 과수원을 조성했다. 이 과수원은 31,800여평의 규모를 자랑했다. 나주 최초의 과수원으로 알려진 마부치 馬淵繼次郎의 과수원 29,000여평 보다 넓었다.

한편 화순역 일대의 박현경 소유지는 훗날 남화토건의 최상옥 회장이 매입해 옛 박현경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함께 모두 5,000평을 화순중학교 부지로 기증했다.

어떻든 박현경은 말년에 화순읍 대리에 현대식 3층 돌집을 짓고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 이 집은 훗날 다른 사람이 인수해 고아들을 수용한 자애원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런데 박영효와 박현경 집은 특이한 혼인관계로도 주목을 받았다. 박영효는 농선과 낳은 아들을 박현경의 딸 원희(元熙)와 결혼시켰다. 따라서 박영효와 박현경은 처남 매부이자 사돈 관계가 됐다. 물론 농선은 박원희의 고모이자 시어머니가 됐다. 이런 특이한 혼인은 왕실에서 종종 나타나는 근친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인준과 기생 도수경

광주의 대표적인 한량으로는 정인준(鄭仁俊)을 들 수 있다.

그는 대한제국 시절에 양명사와 잠농사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미남인데다 멋쟁이였으며 박식했다. 시조에도 능했고 춤에도 조예가 깊었다.

활쏘기에도 일가견이 있어 사동에 살던 부호 임병용(林炳龍, 일명 林士凡)이라고 했는데 사범은 그의 字였다. 을 설득해 광주공원 옆인 사동 142-2번지에 대환정(大歡亭)이라는 사정(射亭)을 세우기도 했다. 일제 때 사정은 한량들의 주요 활동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대환정은 평소 지역 한량들의 휴식처였고, 매년 한 두 번씩은 전국의 한량들을 모아 궁



■ 대환정에서 활쏘기

평소 지역 한량들의 휴식처였고, 매년 한 두 번씩은 전국의 한량들을 모아 궁술대회를 여는 장소였다.

술대회를 여는 장소였다. 이런 대환정은 1950년대에 매각되어 이후 전주최씨 문중 회관으로 사용 중이다. 대환정이 사라지면서 광주에는 사정이 없다가 1960년대 초반 지금의 사직공원에 관덕정 觀德亭이 세워졌다.

정인준은 도수경 都水景이란 첩으로도 유명했다. 도수경은 원래 개성의 이름난 기생이었는데 서울에서 어느 전직 고관의 애첩으로 광주에 왔을 때는 한량들의 큰 호기심을 샀다. 이처럼 기생들이 몇 번씩 동거남을 바꾸는 일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도수경이 광주에 오자 정인준은 황금동의 옛 리버사이드 관광호텔 자리에 있었던 6대문이 달린 저택을 수리해 호화로운 살림집을 차려주었다. 이 집은 도수경이 살기

전에는 황금동의 조선인 요릿집인 춘목암의 최초 경영자인 이춘실의 소유였다. 이것을 정인준이 구입해 도수경의 살림집으로 차려 준 것이었다.

건물은 도수경 살림집 이후에 최영욱 박사의 서석병원이 됐다가 신현申鉉이 신외과를 이곳에서 개업하기도 했다. 이후 백제호텔로 사용하다가 리버사이드관광호텔로 바뀌어 사용했다.

그런데 정인준의 애첩이자 못 사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도수경은 말년에 폐가망신해 슬픈 여생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기생의 새로운 활동 무대

일제 때 기생들의 활동분야는 다양했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음반 취입이었다. 음반은 축음기라고 알려진 기계를 통해 소리가 재생된다. 유성기라고도 했던 축음기는 1870년대에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해 우리나라에는 1890년대 말부터 소개됐다.

곧이어 일본계 회사인 일본축음기상회와 일동축음기상회가 국내에 판매점을 차렸고 이들과 제휴한 미국의 콜롬비아와 빅타 등이 국내에 진출했다.

음반 취입은 1907년 콜롬비아에서 녹음한 것이 한국 최초다. 최초의 목소리 주인공은 기생 최홍매였다. 당시 최홍매는 콜롬비아 녹음실이 있는 일본에 건너가 취입을 했다고 한다.

축음기는 고가라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음반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음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 사건이 있었다. 평양 출신의 가수 윤심덕이 부른 〈사의 찬미〉가 그것이다. 이 노래는 애조된 곡조가 특징인데 당시 한국인들의 처지나 정서에 맞았다.

더욱이 이 노래에 얽힌 뒷얘기가 노래만큼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26년 윤심덕은 일본에서 녹음을 마치고 부관연락선을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던 중에 연인 사이이던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투신자살을 했다. 이 사건은 일간지에 대서특필됐고 음반이 발매되자 〈사의 찬미〉는 날개 돋힌듯 팔려나갔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최고의 흥행 음반으로 〈사의 찬미〉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노래처럼 슬프게 삶을 마감한 윤심덕은 기생과 무관한 소프라노 가수였다. 우리

에게 알려진 음반 취입자들도 원래부터 대중가수였던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초창기 음반취입을 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기생이었다.

처음에 기생들은 국악을 녹음했다. 음반을 통해 널리 알려진 명창으로는 이화중선이 있다. 이화중선은 신재효의 제자 진채선 이래로 최고의 여성명창이란 평가를 받았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던 김소희도 그의 소리에 빠져 소리꾼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특히 이화중선의 <추월만정秋月滿庭>의 인기는 대단했다. 박황은 「관소리소사」에서 <추월만정>은 임방울의 <쑥대머리>가 들어 있는 음반과 함께 당대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했다. 참고로 <쑥대머리>음반은 120만장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대중가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연예기획자들은 기생들이 부르는 대중가요에 눈을 돌렸다. 최초의 기생출신 대중가수는 평양의 왕수복이었다. 1930년대의 한 조사에 의하면, 왕수복의 인기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을 앞지를 정도였다.

이화자도 빼놓을 수 없다. 인천기생이던 이화자는 노래를 잘 불러 그곳 사람들은 예전부터 '인천의 이난영'이라고 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화류춘몽花柳春夢>이 있다. 이 노래는 기생들의 처지를 담고 있었는데 이난영의 남편 김해송이 작곡했다. 김해송은 이화자를 가까스로 설득한 끝에 이 노래를 음반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한다. 노랫말만 들어도 폐부를 찌를 정도로 처량하다.

꽃다운 이팔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 절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라
연지와 분을 발라 다듬는 얼굴 위에 / 청춘이 바스러진 낙화 신세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점잖은 사람한테 귀염도 받았으며 / 나젊은 사람한테 사랑도 했더라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어 / 손수건 적신 적이 몇 번이고
(이름조차 기생이면) 마음도 그러냐.

빛나는 금강석을 탐내도 보았으며 / 겁나는 세력 앞에 아양도 떨었던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해진 / 한 떨기 짓밟힌 낙화 신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기생의 도리냐.

〈화류춘몽〉은 애잔한 가사와 곡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기생들은 이 노래를 일종의 자기 고백서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 노래를 듣고 신세를 비관해 자살하는 기생들도 있었다.

기생들은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했다. 1910년대에 전국을 통틀어 라디오는 1천대에 불과했는데 1930년대 말엽이면 10만대로 늘었다. ‘라디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많은 기생들이 음반 판매로 이름이 알려지면 방송에도 출연했다. 가수 심수봉의 고모인 심매향도 이 무렵 경성방송에 출연한 기생 중 한 사람이었다.

기생들의 새로운 활동무대 중 하나는 영화였다. 기생출신 영화배우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유신방(柳新芳)일 것이다. 유신방은 원래 인천기생이었는데 나운규와 우연히 만나 그의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촉망받던 여배우 전옥(張淑)의 모친이자 최민수의 외조모를 제치고 이후 나운규의 영화에서 여주인공을 전담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기생을 여배우로 기용한 것은 당시 기생만큼 연예계 활동이 자유로운 여성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광주 출신으로 나운규에게서 영화제작기법을 배운 김용구(金容九)도 이런 이유에서 영화 〈빨래하는 처녀〉 제작에 대구기생 임소춘(林小春)을 주연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영화는 완성되지 못했다. 중간에 주연인 임소춘이 바람이 나서 행적을 감춰 촬영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영화배우들의 삶은 그리 썩 좋지 않았다. 영화출연에 대한 수입은 적었다. 이로 인해 영화출연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었고 결국 생활고 때문에 기생으로 전업한 여배우들이 많았다.

한국 최초의 여배우 이월화는 몇 차례 결혼생활의 실패까지 겹쳐 서울과 강릉에서 기생생활을 했다. 복혜숙은 충남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이화학당에 다니다가 예술단체 토월회에서 활동했고 그 계기로 영화배우가 됐다. 그러나 1926년 토월회가 해산된 뒤에는 서울의 조선권변과 인천의 용동권변의 기적(妓籍) 기생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기생들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기생들의 삶은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었다. 1943년 이화중선이 일본의 세토나가이 바다에서 투신자살했다. 그의 사생활은 어느 기생들보다 더 신비에 싸여 있었다. 자살의 이유를 알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화중선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 그리고 기생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렸는지 모른다.

태평양전쟁 말기의 기생들

기생들은 화려한 삶을 좇지 않았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일 때 광주기생들은 의연금을 쾌척했다. 당시 광주대동상회(光州大同義憤會)에 돈을 낸 기생들은 비취, 추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중에는 은퇴한 기생 국화도 보이고 기생 운향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의연금을 낸 사람도 있었다.

기생들은 자연재해나 기근이 발생하면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동참했다. 1925년에는 조선기근구제회 집행위원인 서정희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광주좌(光州座)에서 기금마련 공연을 했다. 1936년에는 광주공제회(光州共濟會)에서 고아 구제 사업을 할 때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홍수, 가뭄 때면 각종 공연을 열어 성금을 모으기도 했다.

물론 기생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이 있었다. 1920~30년대 기생조합이나 권변에 속한 광주기생들은 일부 요릿집에서 기생 시간대를 줄이기 위해 여금을 고용하는 문제, 시간대 지급에 따른 문제로 요릿집 또는 조합이나 권변과 마찰을 빚었다.

또한 그들에 대한 수요가 항상 많았던 것도 아니다. 당시 '요릿집이 흥하면 기생도 흥하고 요릿집이 망하면 기생도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1930년대부터 요식업계에는 불황이 닥쳤고 화류계는 그 직격탄을 맞았다. 광주권변도 이 무렵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937년에 폐업했다.

권변 폐업 뒤에도 기생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집에서 요릿집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고조되면서 요릿집에는 손님의 발길이 줄었고 기생을 부르는 일도 드물었다. 사실 전쟁 말기에는 요릿집은 고사하고 일반 식당조차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했다. 극심한 식료품 부족으로 설령 손님이 와도 차려낼 음식이 없었다.

1942년부터 요릿집조차 폐업하고 대중음식점으로 전환했다. 인력거를 타고 거리를 오가던 기생들의 모습도 덩달아 사라졌다. 식당에는 음식을 나르는 심부름꾼만 남았다. 그들은 명주 치마저고리가 아닌, 몸빼(일바지)를 걸치고 있었다.

국악원과 시립국악원

광주권번은 해방 직후에 복설됐으나 다시 문을 닫았다. 이후, 광주국악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야 문을 열었다. 이 무렵부터 국악원은 본격적인 국악인 양성기관으로 전환했다. 역대 원장은 초대 최준기, 2대 최흥중, 3대 최경식, 4대 최한영, 5대 박인천이 맡았다.

이때 국악원은 옛 권번 건물을 사용했다. 이 건물은 '남밖에 조합' 시절부터 정덕범이 희사한 초가집을 바탕으로 다시 여러 국악인들이 낸 출연금으로 개축한 것이었다. 특정인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건물등기 때도 지혜를 짜냈다. 기부자들을 대표해 세 사람의 성씨를 따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작명해 이를 등기부에 올렸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엽 공동명목자 중 한 사람이 건물과 대지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정다툼 끝에 그 사람이 승소했다. 이후 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에 따라 광주국악원은 폐쇄되고 말았다.

이 건물은 그 뒤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마지막에는 살림집으로 사용했다. 공교롭게도 건물 부지는 2008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지역에 포함됐다. 건물은 누군가에게 팔려 광주 밖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1년 광주공원이 있는 구동에 시민회관이 건립됐다. 금호그룹의 박인천 회장 등 광주의 국악애호가들은 시립국악원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광주상공회의소를 맡고 있던 박인천 회장은 사무국장인 필자에게 시립국악원의 설립계획을 지시했다. 필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수소문 중에 당시 유일한 국악원이 경주에 있음을 확인하고 경주를 방문했다.

다행히 경주시립국악원에는 장월중선(張月中仙)이 원감으로 있었다. 그는 옛 광주권번 출신으로 필자와도 친분이 있던 처지였다. 덕분에 경주국악원의 운영체제, 시립국악원의 설치조례, 예산 확보방안 등 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광주 시립국악원을 설립하게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인천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악기를 구입하고 시립국악원 강사들의 1년치 월급과 건물 수리비를 부담했다. 이렇게 해서 경주시립국악원은 1974년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에서 발족됐다. 국악원장은 당연직으로 광주 부시장이 맡았다.

그러나 국악원의 실제 운영은 원감이 맡았다. 원감은 광주국악원 시절에 학감을 지낸 안치선(安致善)이 임명됐다. 그는 광주고보(지금의 광주제일고) 출신으로 곡성 오곡면장과 전남도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가야금, 거문고, 단소, 정가의 명인이기도 했으며, 광주국악원 시절에 총무도 맡아 국악원 운영에도 능했다.

시립국악원은 당대 최고의 명인들이 강사로 일했다. 소리에에는 한애순·박옥심(일명 박춘선·안채봉), 대금과 아쟁에는 이철주·박종선, 가야금과 거문고에는 김취선·손영숙, 피리에는 박덕용, 시조에는 이상술, 무용에는 한진옥, 해금에는 신상철(서울국악예술학교 출신) 등이 있었다.

강사들은 준공무원 신분이었고 급료는 초기에 월 5만원이던 것이 중간에 7만원으로 인상됐고 1987년 해산 무렵에는 20만원이었다. 교육은 유치부, 중·고등부, 일반부, 노인부로 구분됐다. 수강생의 대부분은 노인과 주부였지만 춤과 기악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았다.

전통예술 교육을 전담하던 시립국악원은 광주가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1987년에 문을 닫았다. 때마침 시립국극단을 창설했는데 시립국악원을 따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쇄했다. 이것으로 기생조합으로 시작해 그 맥을 이어오던 전통예술의 산실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제2장 공연과 영화



오웬기념각

별천지 양림동의 명소

1900년대 초엽 서양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주, 정착하면서 양림동은 세칭 '서양촌'이라고 불렸다. 이국적인 풍미를 자아내는 건물들도 하나 둘 생겨났다. 회색벽돌로 지은 오웬기념각도 그 중 하나였다.

이 건물은 유진 벨 Eugene Bell 배유지와 함께 초기 선교사로 광주에 왔던 클레멘트 캐링턴 오웬 Clement C. Owen 오웬과 그의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오웬은 1909년 4월 폐렴으로 광주에서 숨졌다.

건물은 스와인하트 Martin Swinehart 서로독가 설계했고 건립자금은 미국인들이 모아 보내준 기금으로 마련했다. 건립 시기는 명확치 않는데 1911년설과 1914년설이 있다. 건물규모는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건평 1,497㎡ 450여평이며 1층은 바다, 2층은 발코니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광주광역시는 이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초기 오웬기념각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건물이었다. 3·1운동 직후 일제가 총장로 3가에 있던 북문안교회의 철거를 요구하자 기독교인들은 남문 밖의 금동에 새 보금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전까지 임시 교회로 이용된 것이 오웬기념각이었다. 1920년대 양림교회가 완공되기 전에도 임시 교회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오웬기념각은 20세기 초엽 광주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건물 또는 종교단체의 공간 이상을 의미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연극, 음악, 무용, 영화 등 갖가지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이



■ 오웬기념각

초기 기독교 선교사로 광주에 왔다 순교한 오웬 목사를 추모하여 미국 친구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오웬기념각으로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이루어진 광주개화문화의 요람이었다.

곳에서 펼쳐졌던 까닭이었다.

이런 오웬기념각은 종교나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색다른 공간이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곳에서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것 역시 매우 볼 만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양림오거리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오웬기념각에 이르는 길가의 아카시나무에는 청사초롱이 매달렸다. 또한 숭일학교의 높다란 종각 끝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천을 늘어뜨리고 여기에도 휘황찬란한 청사초롱을 매달았다. 해질녘이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러 양림동으로 몰려왔고 그럴 때면 선교사들은 양과자 한 봉지씩을 나눠주곤 했다.

음악회

오웬기념각은 아마도 광주에서 서양음악이 처음 연주된 곳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음악이면 국악만을 알던 사람들은 그 때 처음으로 이색적인 악기들과 멜로디를 들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서양식 옷차림새도 보는 이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다. 비록 악기를 다루는 솜씨라야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대수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이 있을 때면 그 인기가 대단했다.

정규 음악교육을 받은 서양음악연주회가 처음 열린 것도 이곳이었다. 황해도 출신으로 광주 출신의 의사 최영욱과 결혼하고 시택인 광주에 정착한 김필례(金弼禮)는 수피아여학교의 교사로 일했는데 1920년 이곳 오웬기념각에서 음악발표회를 가졌다. 당시 그는 성악과 피아노를 연주했던 것 같다. 이후 광주에는 서양음악을 하는 남성 연주자들도 등장했는데 수피아여교 교장을 지낸 문영순의 부친 문안식(文安息)과 그의 동생 문천식(文千息)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가극 열세 집

오웬기념각에서는 여러 공연과 행사가 열렸다. 그 가운데 최홍중 목사의 아들이자 전남대 교수 최협의 부친인 최득은(崔得恩)은 생전에 오웬기념각에서 열린 가극 〈열세 집〉을 두고두고 칭찬하곤 했다. 열세 집이란 당시 우리나라의 13도를 가리킨다.

이 연극은 3·1운동 직후에 열렸던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나라 잃은 설움이 컸던 시기였다. 공연내용도 항일의식을 담고 있어 관객들의 공감대를 사기에 충분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게 구성돼 있었다.

수피아 여학생 13명이 소복을 한 천사의 모습으로 무대에 나타난다. 그들은 머리를 길게 풀고 잔잔한 음악에 맞춰 걸어들어온다. 이들 천사는 긴 줄이 달리고 색종이로 짠 각 도의 지형을 뜬 틀을 안고 있다. 이 줄과 틀의 색깔은 도별로 달랐다. 천사들은 각 도를 상징하는 노래와 춤을 추며 품에 안은 각 도의 모형을 하나씩 끼워 맞춰 나중에는 한반도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이때 장내의 불은 꺼지고 한 덩어리가 된 한반도에 오색찬란한 촛불이 켜진다. 그리고 완성된 한반도는 13명의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솟는다. 이럴 즈음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침묵이 흐른다. 이윽고 땅덩이가 좌우로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 움직임이다.

〈열세 집〉은 전국기독교수련회에 다녀온 여학생들에 의해 공연됐는데 그 뒤로도 서너 차례 더 공연됐고 다른 지역으로도 초청공연을 다녀왔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학생음악단

필자의 앞 세대 어른들은 오웬기념각에 얽힌 추억거리로 1921년 블라디보스토크 학생음악단의 공연을 꼽곤 했다. 이 해의 음악단은 남자 7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됐는데 모두 러시아령 연해주에 살고 있는 교포 2세였다. 그들은 이강李剛과 나경석羅景錫의 인솔로 4월 24일 배편으로 원산항에 도착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순회공연에 올랐다. 광주에는 5월 30일에 도착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해삼위海參威라 하여 중국 땅이었는데 1860년 러시아 영토가 됐다. 그 무렵 많은 조선인들이 굶주림과 가난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했다. 이런 이주는 훗날 대한국민의회·독립단·노인단 등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결성되는 밑거름이 됐다. 1919년 9월 조선총독 사이토齋藤實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姜宇奎의 사도 이곳 노인단 출신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러시아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럼에도 조선과 왕래가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볼셰비키혁명 후에 러시아는 혁명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적군과 백군 사이에 격렬한 내전에 휩싸였고 이를 핑계로 1918년 일본군이 시베리아 동부지역을 점령했다. 내전이 장기화 되면서 볼셰비키 군대인 적군과 일본군은 모두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여력이 없었다. 그 절충으로 연해주를 포함한 시베리아 동부에 완충국가로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이 세워졌다. 이 공화국은 명목상 소비에트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지만 일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어정쩡한 국가였다.

극동공화국은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존속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조선인들의 연해주 왕래가 빈발했다. 3·1운동 후에 최홍중 목사가 연해주로 건너가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그러던 1921년 4월 30일 광주청년회는 회의를 열어 이 음악단을 광주에 초청하기

로 결의했다. 광주에 머무는 동안 생기는 숙식비도 광주청년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계의 유지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는데 당시 현준호, 광주보통학교 동창회, 성청년회, 송정노동수양회, 김종섭, 윤승하, 차남술, 김정현, 최복식 등이 많게는 수 십원, 적게는 1원씩을 냈다.

블라디보스토크 음악단은 5월 30일 열차편으로 송정역에 도착했다. 광주에서는 최홍중·최종섭 崔鐘涉·박이규 朴珥圭·설병호 薛炳浩·양동익·강태성 姜泰成, 송정리에서는 변상구·정승채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의 공연은 오웬기념각에서 이뤄졌다. 이때에 광주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러시아 춤을 관람했다. 대부분의 춤은 남녀가 손을 맞잡고 서로 부둥켜안는 장면이었다. 그때만 해도 오웬기념각은 관람석 가운데로 포장을 쳐서 남녀 관람석을 나눠 쓸 때였다. 아직 남녀유별의 전통적 관념이 뚜렷하게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남녀 공연자들은 서로의 몸을 서슴없이 부둥켜안고 춤을 췄다. 무덤덤하게 지켜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민망함은 다른 장면 덕분에 곧 잊혀졌다. 춤은 곡조에 따라 느리다가 경쾌하게 반전했고, 마지막에는 남자 춤꾼들이 손으로 바닥을 짚고 힘차게 하늘을 향해 다리를 내젓는 모기를 보일 때는 탄복이 절로 나왔다.

이 음악단의 광주공연은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그해 방문 중에는 슬픈 일도 있었다. 군산 공연 중에 일행 중 이마리아라는 소녀가 천연두를 앓아 그만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6월 4일, 14세의 이 소녀는 동행자들과 군산 지역민들의 애도 속에 군산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결국 이들 음악단은 6월 5일 서울발 열차편으로 눈보라치고 바람찬 시베리아로 돌아갔다.

블라디보스토크 학생들은 이듬해인 1922년에도 모국방문공연을 했다. 광주에서도 7월 11일 흥학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때도 많은 관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가극대회와 영화 쌍옥루

1922년 오웬기념각에서는 가극대회도 열렸다. 그 해 1월에 개최한 이 행사는 금정교회 錦町教會 부설 유치원을 후원할 목적이었다. 광주청년회, 광주기독교청년회, 노동공제회 등이 후원단체로 나섰고 행사는 북문밖교회 北門外教會 중앙교회 부설 유치원생들의 공연, 찬양대의 합창, 배인에 裴仁愛의 <해와 별> 독창, 송일

학교 학생청년회의 희극 〈우리 소리〉와 가극 〈초로인생〉의 공연, 가극 〈열세 집〉의 공연, 남궁원숙南宮元淑의 노래 〈잘 살으리 2천만의 고려족〉 등이 이어졌다.

오웬기념각에서는 영화도 상영했다. 1925년 인기를 모았던 영화 〈쌍옥루雙玉淚〉도 이곳에서 상영됐다. 이 영화는 1910년대 매일신보에 연재됐던 조중환趙重桓의 번안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원작은 일본소설이었는데 매일신보에 연재한 뒤에 연극으로 만들어져 인기몰이를 했고 그 뒤 영화로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영화는

■ 반일회

1930년대 수피아여자학교에서는 졸업식 전야제로 학예회를 가졌는데 그 행사명을 반일회(班日會)라고 하였다. 班은 反의 이음(異音)으로 '反日'을 뜻하는데 이것이 일본 경찰에 말쑥이 되자 '班一會'라 고치고 매년 같은 날 행사를 가짐으로써 반일사상을 고취시켰다.



당시 유행하던 신파조 분위기였다.

학생신분이던 이경자가 유부남이자 학생이던 서병삼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는데 남자는 그녀를 버리고 유학을 떠난다. 이경자는 아들 정남을 어느 할머니에게 키워달라고 맡기고 정옥조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 일남을 낳는다.

정남의 생부 서병삼은 독일유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어 돌아온다. 어느 여름날 이경자 부부는 바닷가에서 피서를 즐기는데 정남이가 살던 곳이다. 이경자는 그 사실을 몰랐고 정남과 일남은 어느 새 친구가 되어 함께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둘 다 익사한다. 나중에 두 아이가 형제임이 밝혀지고 이경자는 통곡한다. 이 영화는 무성 영화였다. 변사의 구슬픈 해설과 기막힌 열변으로 관람석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

반일회

오웬기념각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수피아여학교에서는 매년 몇 차례씩 학생들의 반일회(反日會) 행사를 개최했다. 학년말 또는 졸업식 저녁, 크리스마스 전야, 개교기념일 등에 개최한 행사로 요즈음의 학교 축제와 비슷했다. 내용은 대개 〈장발장〉, 〈베니스의 상인〉, 〈바보 온달〉 등을 극화해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행사가 특별한 관심을 모은 것은 반일회가 '反日會', 즉 일본을 반대하는 모임이라는 숨은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반일회는 수피아여학교의 항일정신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 흥학관



■ 해방 후 광주 시청의 모습
흥학관은 광산동 100번지 일대에 있었던
시청 뒷편에 있었다.

설립

20세기가 시작될 즈음 광주에 등장한 최초의 공연장은 총장로 3가의 양명사였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광주의 멋과 풍류, 특히 창극을 소개하면서 다룬 바 있다. 이 양명사가 운영될 즈음 일본인이 황금동의 파레스호텔 자리에 고사옥高砂屋을 열었고,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같은 자리에 다시 일본인이 광주좌光州座를 세웠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양림동에는 오웬기념각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20년대에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시내에 등장하는데 흥학관興學館이 그것이다. 양명사, 고사옥, 광주좌 그리고 오웬기념각에 비해 흥학관은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운영됐다. 양명사 등이 기본적으로 상업적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장소였고, 오웬기념각이 종교행사에 초점을 맞춘 문화공간이었다면 흥학관은 다분

히 사회적·정치적 성향이 강한 청년운동의 산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홍학관은 지금의 번지수로 광산동 100번지 일대에 있었는데 이곳은 그 뒤에 같은 번지수에 광주면사무소가 들어서고, 이후 광주면이 읍과 부로 승격되면서 해당 관청인 읍사무소와 부청이 자리를 잡게 됐다. 옛 사람들에게 홍학관이 광주부청의 뒤편에 있었다는 통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홍학관이 세워진 것은 1921년이다. 비록 1922년에 홍학관의 낙성식을 겸해 최명귀의 회갑연을 축하하는 정구대회가 그 앞마당에서 개최됐다는 신문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실제 홍학관 건물은 한 해 앞선 1921년에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이 건물은 순전히 기부를 통해 세워졌다. 당시 광주에는 최명귀(崔命龜)라는 부호가 살았는데 그는 광산동 일대를 비롯해 지금의 동구와 남구, 그리고 광산구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훗날 누룩과 술을 제조 판매하던 전남주곡회사의 최상현, 그리고 소작인들의 쟁의를 지원한 광주노동공제회에 거액을 희사해 세상을 놀라게 한 최석수 등이 그의 아들들이다.

본래 홍학관은 광주공립보통학교 지금의 광주서석초등학교 동창회장이던 그의 동생 최종윤에게 고장 청년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라며 환갑잔치에 쓸 돈 1만원과 땅을 내주어 짓게 했다고 한다.

광주 청년문화의 산실

3·1운동 이후에 광주에서도 전국의 여느 지역처럼 청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그 중심에는 광주청년회가 있었다. 이 단체는 유학생, 국내 지식인 등을 초청해 자주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홍학관에도 송진우, 안재홍, 방정환 등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운동의 또 다른 흐름인 체육활동도 홍학관을 무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홍학관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이 아니었고 여러 단체들이 이곳을 집회 등 행사 장소로 사용해 체육전용 공간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홍학관 앞마당이 체육행사장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특히 낙성식이 있던 1921년부터 홍학관 앞마당은 연식정구대회의 개최지로 유명했다.

물론 건물 내부가 체육관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광주 출신의 체육



■ 흥학관과 광주경보 야구부
 광주 공회당 구실을 했으며 지역문화의 발전과 민중계몽에 크게 기여했던 흥학관과 광주경보 야구부. 우승기 오른쪽이 투수로 활약했던 최동문으로 광주일고 동창회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1923년)

인 김후옥(金厚玉)은 주로 유도 보급에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초기에는 흥학관에서 권투를 교습하기도 했다. 그 명맥이 주봉식(朱奉植)으로 이어졌는데 주봉식 때에는 총장로 5가의 광주 YMCA회관이 권투도장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1930년대 초엽의 일이고 그 전까지 광주에서 권투는 흥학관을 중심으로 보급됐다. 초기 광주지역의 권투를 일러 '흥학관 권투'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도 흥학관은 광주지역 사회단체의 본거지였다. 광주청년회, 노동공제회, 전남노동연맹, 광주청년학원 등이 이곳을 그들의 주요 활동무대로 삼았다. 초기 흥학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1920년대 광주청년회가 주관한 여자야학의 교습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사실이다. 여자야학은 뒤에 설립된 광주여자청년회에서도 따로 운영했고 노동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야학도 있었다.

흥학관은 일제 말엽에 건물과 부지가 광주부청으로 넘어갔고 해방 전까지 광주 식량배급조합 사무실로 사용됐다. 정부수립 후부터 제2공화국 때까지는 지방자치 를 하던 시기로 이 기간에는 광주시의회의 의사당으로도 쓰였다. 그러나 1960년대 광주시청이 광산동에서 계림동으로 옮길 때 건물이 철거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 광주좌와 제국관

행감을 치고 화롯불 쬐던 극장

양명사가 충장로 3가에서 문을 열 즈음, 일본인들도 광주에 극장을 설립했다. 이것이 1908년께 황금동의 옆 남극카바레 자리에 있었던 다카사고야, 즉 고사옥이라는 가설극장이다. 이 극장은 크게 활기를 띠지 못했다. 한 달에 한두 번 공연이나 영화를 무대에 올리는 정도였다.

그 뒤 후지가와 藤川忠義가 그 근처인 파레스호텔 자리에 광주좌 光州座라는 극장을 세웠다. 「광주지방사정」 1917년에 따르면, 광주좌는 1917년 직전에 건립됐다. 규모는 건평 120여평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람공간이 의자가 아닌 다다미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수용인원은 다



■ 광주좌가 있었던 자리

소 유동적이었다. 그 뒤 후지가와는 1924년 3월 광주좌를 증축해 이듬해 11월 3일에 재개관했다.

이 무렵부터 극장 내부는 2층 객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서구식 극장의 영향으로 상석이 무대와 가까운 1층이 아니라 2층이었다. 입장료도 1층은 2십전, 2층은 2십5전이였다. 관람석은 모두 다다미를 깔았던 탓에 판자가 놓인 통로로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다다미에 앉으려면 다시 신발을 벗어야 했다. 판매원들은 객석을 비집고 돌아다니며 먹거리를 팔았다. 그들은 5전씩 받고 방석을 빌려 주었으며 겨울에는 1십전씩 받고 화로를 대여했다.

광주좌는 관객이 100~200명만 입장해도 수지가 맞았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입장하면 극장 입구에 '만원사례'라고 쓴 안내판을 내걸었다.

1930년 이전까지 유일한 극장이었던 탓에 광주좌는 술한 공연이 이어졌다. 1922년에는 광주좌에서 YMCA 주최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김태오(金泰午)가 조직한 현악단의 공연이 있었는데 송헌영(宋憲永), 장맹섭(張孟燮), 유주문(劉柱文), 최윤상(崔允相), 최순오(崔淳五), 이태식(李泰植) 등이 이 악단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1930년 5월에 '동서고금 음악·무용 가극대회'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출연 인원만 1백여명에 달해 당시로는 흔치 않던 대규모 행사였다. 이밖에 광주좌는 각종 연극, 연주회가 개최됐고 광주예기조합 소속의 어린 예비 기생들이 간혹 온습회(溫習會)라는 이름으로 예능발표회를 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그런데 광주좌에서 열리는 행사는 한번에 2~3일 정도 이어지다가 끊겼고 공연이 없으면 한두 달 동안 계속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개관시간도 일정치 않아 해질 무렵에 문을 열고 손님이 적당히 입장했다 싶으면 공연을 시작하는 식이었다. 폐관은 대개 밤 열두시쯤에 했다. 관객의 대부분이 남자였다는 점도 지금과 달랐다. 여염집 부인이나 처녀들은 사실상 극장 출입을 하지 못했다. 더러 한두명이 극장 안에 보이는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극장을 출입하는 여자들을 손가락질하던 시절이었다.

이런 광주좌는 어이없는 사고로 문을 닫았다. 일본인들은 극장에 새로운 영화나 공연물이 들어오면 목욕재계를 하고 신체(神體)를 모셔 둔 작은 제단인 가마다나(神棚) 앞에서 흥행의 성공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이 광주좌에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1월 8일, 이 날도 극장주 후지가와는 고사를 지

냈는데 도중에 불을 밝힌 초가 넘어졌고 이것이 인화성이 강한 필름으로 옮겨 붙으면서 삼시간에 극장 전체가 화염에 싸였다. 광주좌는 이렇게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아직 광주좌가 불타 없어지기 전에 광주에는 새로운 극장이 등장했다. 1920년대 구로세 黑瀨豐藏가 옛 광주객사이자 일제초기 광주군청이 들어서 있던 자리에 극장을 세웠다. 초기에는 이 극장을 일러 광남관 光南館이라 했다. 광남관은 중간에 제국관 帝國館으로 개칭한 것 같은데 그 시기는 1930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국관은 670여 석의 극장이었다. 광주극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영화 상영을 위한 설비가 완비된 극장이기도 했다. 또한 제국관은 일본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도호영화사 東寶映畫社의 전속극장이기도 했다.

■ 동방극장

제국관이 해방 후 공화극장으로 불리다가 동방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뒤에 다시 무등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이때는 아직 낮 시간에 영화상영을 하지는 못해 주로 밤에만 문을 열었다. 낮에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영화도 주로 일본영화 위주로 상영했고 가부키 같은 일본 공연물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1931년 광주좌가 소실되고 1935년 광주극장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광주에서 유일한 극장이었던 까닭에 조선인들의 각종 공연, 영화, 권투 등 스포츠 행사 등도 이곳에서 개최됐다.

제국관은 해방 후 구로세가 물러가고 이 극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기섭(金起燮)이 불하를 받았는데 경영은 지배인 최흥열(崔興烈)이 전담했다. 해방 직후에는 한동안 공화극장이라 했다가 동방극장으로 개칭했고 뒤에 경영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무등극장이라 했는데 2012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무성영화와 변사

1920년대는 무성영화의 시대였다. 무성영화에서는 영상만큼이나 변사의 역할이 중요했다. 언젠가 광주좌에서 있었던 일이다. 변사가 열을 올려 변설을 하는 가운데 “앞에 가는 사람은 순사요, 뒤에 가는 놈은 도적놈이라”고 했다. 그러자 관객들이 “왜 도적이 순사 뒤에 따라 가느냐. 변사 집어 치워라”하고 외쳤고 변사는 목을 가다듬어 “아차차 실수로구나. 여기서 집어치우면 이 변사는 엄동설한에 어린 처자식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란 말씀이요.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니 손님들은 양해하시라”하면서 익살스럽게 고비를 넘겼다.

당시 영화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사물이 인화되어 나오는 것만도 신기했었는데 하물며 동작이 연이어 살아 움직이듯 재현되는 영화는 얼마나 경이로웠겠는가! 그래서 초기에 영화는 움직이는 사진이라 하여 활동사진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데 활동사진에 곁들여 변사의 구성지고 해학적이면서도 재치에 넘친 대사는 더욱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기술적으로도 변사의 역할은 중요했다. 1991년 동아일보에 실린 변사 신출(申出)의 회고담에 의하면, 무성영화는 영사기사가 변사의 해설에 호흡을 맞추어 수동으로 영사기를 돌렸으므로 필름의 길이와 관계없이 변사의 연기력에 의해 상영시간을 조정했다. 동시에 변사와 영사기사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당시 영화는 중간에 필름이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때도 변사는 “아, 이리하여 무정한 사진마저 끊

어지고 말았던 것이었다”라고 영사기사의 실수를 돌려대기도 했다. 그러다 서둘러 갈아 끼운 필름이 너무 빨리 돌아가면 대사 중간에 “기사야 너무 빠르다. 숨이 차서 못 하겠구나”라고 하여 영사기사를 책망하기도 했다. 이럴 때면 영화 내용에 눈을 글썽이던 관객들도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변사의 역할은 이처럼 영화상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심지어 같은 영화임에도 변사의 해설에 따라 어제와 오늘의 스토리가 상당 부분 바뀌어 전달되기도 했다.

그래서 무성영화 시절에 관객들은 영화의 제목보다 그날의 변사가 누구인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극장 측에서도 변사의 역량이 흥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크게 우대하곤 했다. 그리고 변사의 일이 고됐던 탓에 극장에는 서너 명의 전속 변사가 30~40분씩 교대하기도 했다. 물론 변사가 서툴거나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그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관객들은 바로 “변사를 갈아라”, “집어 치워”하며 야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사는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직업이었고 시중에는 변사의 말투를 흉내내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 시기에 전남 출신의 변사로는 김복만(金福萬)과 이양춘(李陽春)이 큰 인기를 끌었다. 해방 후에도 변사가 딸린 무성영화의 상영은 1960년대까지 농촌지역의 가설극장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점차 사라졌다.

아리랑과 나운규

무성영화의 대표작은 〈아리랑〉이었다. 1956년 광주 호남동 현준호의 저택에서 촬영한 영화 옥단춘(玉丹春)의 기획 담당자이자 우리 고장의 영화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최흥렬(崔興烈)의 회고담에 의하면, 광주에서 〈아리랑〉은 1926년 광주좌에서 상영했다고 한다. 이 때 주연을 맡은 나운규가 직접 무대에 나와 실제 연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광주좌는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하얀 옥양목을 쳐서 스크린을 만들었다. 한창 변사가 열변을 토하며 영화가 절정에 치달을 때 스크린 속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한 나운규가 스크린을 찢고 무대로 나와 영화 속 연기를 재연했다. 오늘날 생각해 봐도 대단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다.

우리나라 초기 영화 가운데 〈아리랑〉만큼 사람들을 감동시킨 영화는 없었다. 이



■ 나운규의 〈아리랑〉
조국을 일제에 빼앗긴 민족의
울분과 설움, 그리고 피끓는 저
항을 그린 나운규의 〈아리랑〉
일제강점기 영화 중 〈아리랑〉
만큼 한국 사람들을 감동시킨
영화도 없었다.

영화는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울분과 설움 그리고 피끓는 저항을 그린 것이었다. 〈개와 고양이〉라는 자막으로부터 시작한 영화는 주인공 영진永鎭, 즉 나운규가 맡은 역할이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갈등을 고스란히 표출했고, 마침내 광기에 사로잡혀 일본인 순사와 앞잡이를 낚으로 찢어 죽이는 장면은 소름 돋을 만큼 강렬한 저항정신을 표현했던 것 같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에 영진이 잡혀가고 주제가인 민요 ‘아리랑’이 흘러나오는데 이때 변사는 “여러분! 포승을 지어 끌려가는 영진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오라 갱생의 길로 가는 것이오니 여러분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 함께 아리랑을 부르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자연스럽게 이 변사의 말에 관객들은 흐느끼면서 손뼉을 치며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아리랑을 합창했다.

이 영화가 상영된 뒤로 아리랑은 도처에서 민족의 설움을 달래는 노래이자 저항의 노래로 상징되었다. 일제가 민요 아리랑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도 이 영화 때문이기도 했다.

■ 나운규의 <사랑을 찾아서>
 나운규 프로덕션에서 1928년
 에 제작한 <사랑을 찾아서>
 나운규가 감독 겸 주연을 맡았
 으며 눈물의 여왕 전옥과 이금룡,
 윤봉춘, 이금룡 등 호화 배역들이
 출연 화제를 모았다.



배우 최판영

일제강점기 광주 출신의 영화배우로는 최판영(崔判泳)이 있었다. 일명 최운영(崔雲泳)이라고도 했던 그는 서울의 경성실업전수학교 시기에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이후의 행적에 대해 그의 형 최한영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학교졸업 후에 부모 몰래 일본으로 건너가 배우수업을 익혔고 다시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 제작사인 쇼지쿠영화사(松竹映畫社)에서 배우생활을 했다고 한다.

최판영은 1930년 광주와 목포 등지에서 촬영한 <지지마라 순희야>에도 출연했다. 비슷한 제목의 영화 <지지마라 순이야>는 조금 알려져 있는데 비해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지지마라 순희야>는 1929년 광주에서 결성된 태양키네마란 영화제작사가 만든 영화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만들려고 했던 영화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듬해 태양키네마는 광주에서 촬영에 들어갔는데 메가폰은 남궁운(南宮雲)이 잡았고 김창선(金昌善), 김형용(金形容)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창선은 사실 일본인 츠모리(津守秀一)였는데 당시에 그는 김창선이란 이름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하곤 했다. 나

운규의 영화 〈아리랑〉도 공식적으로는 김창선이 감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본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아리랑〉이 총독부 사전검열을 통과했다는 말도 있다.

어떻든 〈지지마라 순이아〉는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끝내 촬영을 끝마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촬영을 마쳤더라도 총독부의 검열을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영화의 원작자는 이적효 李赤晔 였는데 사회주의적 성향의 항일예술단체인 카프의 일원이었다. 영화의 내용은 앞서 1928년에 제작한 〈지지마라 순이아〉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 이 작품도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상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편 최판영은 1932년에 영화 〈지는 꽃〉의 주연을 맡는 등 꽤 활발한 활약을 펼쳤다고 하는데 2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금껏 희미하게만 기억되는 배우로 남아있다.

영화 빨래하는 처녀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 광주에서도 영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배우가 되거나 영화제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을 대표하는 인물이 김용구 金容九 1907~1982 였다.

그의 집안은 조부 때부터 한약방을 운영한 탓에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성장했다. 부친도 가업을 이어 한약방을 운영했고 그의 형제 중에는 나중에 금남로 4가에서 병원을 운영한 외과 의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업과 별로 관련이 없는 분야에 관심을 뒀다. 비록 말년에 서예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젊은 시절에 그는 역동적인 삶을 꿈꿨던 것 같다.

광주보교에 들어간 그는 일찍부터 활동적인 분야에 매력을 느꼈다. 2학년 때 이미 연극이나 운동을 하는 서클을 조직했고 동급생보다는 상급생들과 더 잘 어울렸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열네 살이 돼서야 보통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동급생들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은 까닭이었다. 광주보교에 진학해서도 동맹휴학을 주도했고 그로 인해 1927년에 퇴학을 당했다.

그런데 이 무렵 김용구는 이미 연기에 맛을 들이던 참이었다. 이미 광주보교 때부터 연극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이 무렵 광주청년회 등이 야학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다. 더욱이 퇴학생이 된 뒤로 역동적인 예술에 더욱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좌에서 영화 〈바그다드의 도적〉을 관람했다. 이 영화는 요즘 같으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해당했고 주인공 더글러스 페어뱅크스는 남성적 매력을 한껏 뽐내는 열연을 했다. 김용구는 이 영화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고 영화에 대한 열정만으로 무작정 상경했다.

당시 나운규는 영화계의 우상이었다. 김용구는 그에게서 3년 동안 연기와 영화제작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1930년에 광주로 돌아와 대인동에 ‘조선활동사진제작소 김용구 프로덕션’을 설립했다.

김용구가 시도한 첫 번째 작품은 〈빨래하는 처녀〉였다. 자신이 직접 각본을 쓰고 남자 주연을 맡았으며 여자 주연에는 대구 기생 임소춘(林小春)을 기용했다. 야외촬영을 위해 3개월 동안 증심사, 용추폭포, 경양방죽, 유림숲을 떠돌았고 목포의 유달산과 삼학도에서도 촬영했다. 그런데 촬영이 한창 진행될 무렵 임소춘이 광주의 어느 갑부 아들과 바람이 나서 행방을 감췄다. 촬영은 중단됐고 영화는 품비박산이 났다. 결국 김용구는 제작을 포기했고 투자비도 날렸다.

실의에 빠진 그는 기왕에 써둔 각본으로 그 해 9월 광주좌에서 연극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가 진짜 무대에서 목숨을 끊어 죽는 연기를 할지 모른다는 주변의 우려 때문이었다. 어쨌든 비록 완성되지 못했지만 당시 촬영한 필름은 한동안 광주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1931년 11월 광주좌에서 화재가 일어날 때 이 필름도 함께 소실되고 말았다.

김용구는 30대 후반에 들어서도 연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해방 직후에는 중앙예우회(中央藝友會)라는 공연단체에 참여했고 백화(百花)라는 극단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영화 수업료

일제말엽, 우리 지역민들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 1940년에 개봉한 〈수업료〉가 그것이다. 이 영화는 앞서 1939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 자매지가 현상 공모한 작문 가운데 최고상인 총독상을 받은



■ 우수영의 작품을 영화화한 <수업료>
 경성일보사가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상모집한 작품 가운데 조선총독상을 받은 북정소학교(지금의 수창초교) 4학년이 재학 중이었다.

작품을 영화화한 것이었다. 이 작품의 원작자는 당시 광주 북정공립소학교 지금의 수창초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우수영禹壽永이었다.

그는 매달 1원씩 학교에 낼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 꺾었던 고초를 이 글에 담았다. 글은 우수영의 담임교사이자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은사이기도 한 전동수全東洙 훗날 광주 초대 교육감 선생에 의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비록 당시에는 의식할 수 없었지만 이 글은 내선일체와 식민지 교육을 선전하려는 총독부의 정치적 고려로 영화로 제작됐다. 어용영화를 양산하던 고려영화사가 발빠르게 제작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제작현장의 종사자들이나 출연진이 이런 의도에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의 가난과 서러움을 더 사실적으로

그려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실제로 이 영화는 높은 사실성 때문에 일본어로 된 작품임에도 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

영화의 감독은 최인규 崔寅奎가 맡았고 복혜숙 卜惠淑, 김신재 金信哉, 전택이 田澤二, 김영옥 金英玉, 문예봉 文藝峰, 김일해 金一海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했다. <수업료>가 광주극장에서 공연되었을 때 광주는 물론 주변 일원의 학생들도 이 영화를 보러 광주에 왔다. 물론 식민지 교육당국의 동원령에 따른 것이었겠지만 <수업료>를 보던 학생들에게는 영화가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어둔 그늘을 그리고 있다고 느끼는 쪽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때 주인공의 할머니로 처음 노인 역을 맡은 복혜숙은 뒷날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회고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토키 기술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여 작품이 엉성한 데가 많아 상영 도중 토키가 끊겨 병어리 영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면 관객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퍼부었었다. 그런데 <수업료>는 토키가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음향효과도 제대로 살려 폭발 장면에서 폭발레소리가 나는 등 그때로서는 참신한 기술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이렇게 수준 높은 토키 영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최인규 감독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영화제작자 최남주

영화의 역사에서 최남주 崔南周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광주 북문 밖에 해당하는 대인동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광주농공은행과 광주지방 금융조합 설립, 광주전등주식회사에도 투자한 부호 최원택 崔元澤이었고 부친은 최석지 崔錫址였다. 최남주는 1911년에 태어나 서울 보성고보를 거쳐 1930년 도쿄의 니혼 대학 문예과를 졸업했다. 귀국 직후에는 목포에서 환복연미취인점 丸福延米取引店를 차려 일종의 쌀 선물거래를 했으나 큰 손실을 내고 실패했다. 이후에도 여러 사업에 손을 댔으나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1933년에 광산구 하남동의 사금광과 본량동의 용진광산 嶺珍鑛山을 개발했고 특히 금광이던 용진광산을 니혼제련회사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차액을 거머쥐었다. 그 대금의 일부로 그는 다시 학동에 남광광업 南光鑛業를 차리기도 했다.

이렇게 사업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는 문화예술에 대한 일종의 강박적인 열

정을 버리지 못했다. 부유한 가계 덕분에 그는 10대에 이미 연극에 참여했다. 1920년대 광주의 연극은 비록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그는 여기서 연기를 배웠다. 아마도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이겠지만 1930년에는 서울의 영화제작사인 중앙키네마에서 만든 영화 <꽃장사>에도 출연했는데, 이 때 최남산(崔南山)이란 예명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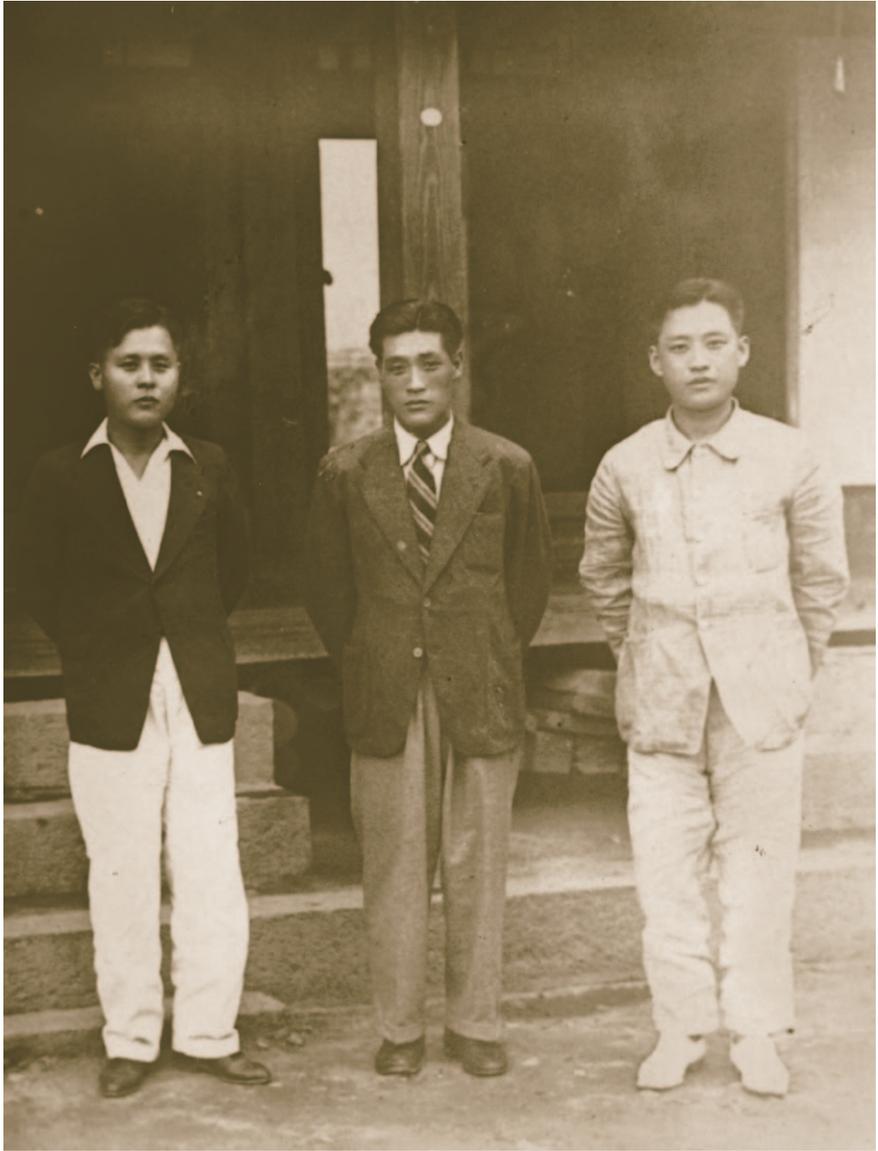
이 해에 최남주는 아예 자신의 영화제작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서울 종로 1가에 주소를 둔 조선영화주식회사^{이하 조선영화사}였는데, 경기도 의정부에는 따로 스튜디오를 두기도 했다. 조선영화사에는 지배인 이재명(李載明)을 비롯해 적잖은 호남 사람들이 일했고 그 가운데 담양군 창평면 출신의 감독인 박기채(朴基采)가 가장 유명했다. 조선영화사는 이렇게 진용을 갖춘 뒤에 꽤 유명한 영화를 제작했으며 1939년의 <무정>, 1940년의 <수선화>가 특히 관심을 모았다.

<무정>은 이광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박기채가 감독을 맡고 한은진(韓銀珍)이 여주인공을 했다. 광주에서는 1939년 광주극장에서 개봉했고 이때 한은진 일행이 직접 광주에 내려와 화려한 무대 인사를 했다. 당시 함께 온 다른 배우들과 제작진 20여명은 대인동에 있던 최남주의 자택에서 머물렀는데 저택의 규모와 맛깔스러운 전라도음식이 화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한은진 외에도 당시 조선영화사의 전속 배우로는 복혜숙, 김신재, 전택이, 문예봉, 이금용, 김일해가 있었다.

한편 최남주의 집은 앞서 1938년 여름에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이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이던 최인식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 방문이 끝나고 최남주는 손기정과 같은 대회에서 마라톤 3위를 한 순천 출신의 남승룡에게 도합 1천원을 희사하기도 했다.

조선영화사는 1941년에 문을 닫았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조선영화령'을 공포하여 모든 영화사를 통합하여 1942년 9월 최남주의 영화사와 똑같은 '상호인 조선영화사'를 만들어 전쟁수행을 위한 어용영화를 제작하도록 했다.

최남주는 영화제작 이외에도 1939년부터 처음에는 서울 종로 2가, 나중에는 서울 서린동에 학예사(學藝社)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출판사는 오늘날 고전이라 할 만한 책들을 펴냈다. 처음으로 낸 책이 「일본 춘향전」이었고, 이어 김천택의 「청구영언」, 임화의 「조선민요집」,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이었



■ 1983년 여름, 초청 강연회 후 기념촬영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가운데)를 초청
하여 강연을 연 후에 최남주(오른쪽), 최인식 기자(왼쪽)와
기념촬영을 하였다.

다. 또한 일본의 이와나미 문고岩波文庫를 본 따서 대중성 있는 문고판을 많이 낸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 가운데 유자후柳子厚의 「조선화폐고朝鮮貨幣考」가 있는데 필자는 1940년에 발간한 이 책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다. 윤치호, 여운형, 백관수, 장덕수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조선 금융사를 다룬 대표적인 책으로 꼽혔다.

물론 사업가로서 최남주가 이름을 알린 분야는 광업이었다. 용진광산은 그가 사업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고 광업은 일제 말엽까지 가장 애착을 보인 분야이기도 했다. 물론 금광을 비롯한 일부 광업분야는 1940년대에 채산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전쟁으로 일본의 대외교역이 차질을 빚고 엔화의 통용권이 제한을 받아 금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43년부터 금광업 업체의 정비와 통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최남주도 이때 받은 자금으로 경기도 고양군의 천일동광산天一銅鑛山, 함경남도 단천군의 철광산 개발에 착수했다. 그런데 단천광산의 철광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지자 총독부는 개인 기업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남주를 중용하여 1944년 자본금 2백만원의 단천철산회사端川鐵山會社 이하 단천철산을 설립하도록 했다.

단천철산이 설립되자 식산은행은 1944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 회사에 3백6십만원을 대출해주었다. 1920년에 설립한 호남은행이 1943년 동일은행에 합병될 당시에 자본금이 2백만원이었고 일제말엽의 전시 인플레이션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했음을 생각해도 이러한 대출규모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전쟁 막바지에 철은 군수물자로 중요했고 조선인 최남주를 지원하는 것은 내선일체를 홍보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해 일제는 이런 지원을 했을 것이다. 실제 단천철산의 중역에는 사장인 최남주 외에도 조선인이 많았다. 이사 박준규林準圭, 감사 오형남吳亨南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박준규는 앞서 현준호의 호남은행에서 지점장과 이사를 거쳤고 최남주가 설립한 남광광업에서도 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었다. 오형남은 화순군 동북면 일대의 대지주였는데 술과 누룩을 제조 판매하던 전남주곡회사와 선광상사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최남주의 장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최남주는 더 이상 광주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일제 말엽에 동남아시아로 영화를 찍으러 갔다가 실종됐다고 했다. 그러나 1946



©「한국영화 60년」

■ 영화 〈무정〉의 한 장면

무정은 이광수 원작을 최남주 제작, 박기채(창평 출신) 감독, 한은진 주연으로 제작되었는데 1939년 광주극장에서 개봉상연 때 배우들이 직접 광주에 내려와 화려한 무대인사를 했다.

년 10월 서울에서 결성된 조선광업회 朝鮮鑛業會에 참여했고, 같은 해에 결성된 조선영화사의 창립발기인 명단에도 올라 있는 것을 보면 해방 후까지 그가 국내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후 정부수립 즈음에 그의 행적은 다시 끊겼다.

■ 광주극장

광주 최초의 조선인 영화상영관

1930년대 중반까지 광주에는 영화상영관이 1곳뿐이었다. 1931년 주로 공연위주의 대관을 하는 간간이 영화를 틀어주던 광주좌가 불타 없어지면서 제국관만이 남아 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국관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영관이었고 이 때문에 조선인 영화관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영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많은 돈이 드는 일이라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또한 흥행업을 일종의 판따라로 보는 사회 통념도 상영관 건립을 막는 벽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영관 건립을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그는 총장로에서 오랫동안 서적, 악기, 장남감 등을 팔던 남해당 악기점의 주인 김준실 金俊實이었다. 김준실의 가게는 악기 외에도 축음기나 레코드를 팔기도 했으며 평소 그는 제국관 등을 빌려 유명가수나 연예인을 불러 흥행사업을 했다. 이런 경험이 영화상영관 건립의 꿈을 다지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영관 건립은 만만치 않았다. 김준실은 1934년에 건립의 첫 삼을 뜨기는 했지만 자금난을 겪었고 건립사업은 얼마 뒤에 최선진 崔善鎭에게 넘어 갔다. 최선진은 당시 상당한 신흥재력가로 떠오르던 참이었다. 김준실의 극장을 인수한 그는 1935년에 건물을 완공했고 극장은 주식회사 체제로 운영됐다. 자본금 3십만원의 광주극



■ 1935년 10월에 개관한 광주극장(1946년)

장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임원진은 사장을 최선진이 맡고 극장 운영을 사실상 맡는 지배인은 대흥농장의 지배인이던 조응원 曹應源이 임명됐다. 이밖에 이사에는 김희성 金喜誠, 최준기 崔駿基, 조국현 曹國鉉, 유연상 劉演相, 최동문 崔東文이 있었다.

광주극장은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한 10월 1일에 맞춰 개관했다. 시내에서 경축 행사가 열리던 터라 축하 분위기는 더욱 높았다. 광주극장은 일본의 쇼지쿠 松竹 및 닛카스 日活 영화사에 전속되어 있었고 이는 당시 영화의 제작은 물론 배급이 주로 일본회사들에 의해 장악된 결과였다. 어쨌든 이후 최선진은 영화 사업에 한 발짝 더 들어가 1937년에는 송정극장과 전북의 강정극장을 인수하기도 했다.

광주극장 개관 뒤인 1936년부터 광주에도 토키, 즉 유성영화가 등장했다. 이제껏 무성영화만 봐왔던 사람들에게 유성영화는 경이 그 자체였다. 이런 유성영화가 처음 스크린을 채운 곳도 광주극장이었으며 그 시기는 대략 1937년쯤으로 기억된다. 당시 기억에 남은 유성영화로는 〈수업료〉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였던 것 같다. 후자는 흔히 원제목보다는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를 따서 ‘홍도야 우지마라’라는 이름으로 더 잘 회자되곤 했다.

극장주 최선진

대부분의 광주사람들에게 최선진은 동성고의 전신인 광주상업고등학교 이하 광주상고의 건립자다. 실제 최선진이 광주상고를 비롯한 유은 학원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의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

최선진은 1891년에 태어났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광주 시내의 유력한 성씨 중 하나는 탐진 최씨였는데 그는 그와 달리 보성 최씨였다. 그는 본디 어엿한 부호 출신도 아니었다. 부친 최권삼 崔權三은 옹기와 잡화를 팔던 상인이었고 당시 상인들이 그렇듯이 이곳저곳의 장터를 떠돌며 장사를 했다. 최선진도 서당 공부를 마친 뒤로는 부친처럼 장터를 떠돌았다. 그는 당시 이문이 많이 남던 목화와 벼, 가마니를 거래했다. 이 후 서른 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광주에서 꽤 유력한 자산가가 됐다.



■ 광주에서 조선인 최초로 영화관을 세운 최선진의 동상
그는 대흥정미소, 여객자동차회사 등을 경영한 실업인이며
대지주로 학교법인 유은학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1920년대는 그가 광주사회에서 이름이 부각되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1920년 현준호를 주축으로 충장로에 호남은행이 설립됐는데 그는 주주뿐 아니라 이사로 경영에 참여했다. 그 이듬해에는 자동차 운송 사업권을 따 이후 광주~송정, 광주~영광 간 여객운송도 했다. 원래 이 분야는 주로 일본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터라 조선인이 파고든 것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가장 잘 아는 분야는 미곡 사업이었다. 당시는 미곡 수요가 늘 공급을 앞지르던 때라 미곡거래는 수익이 컸다. 물론 창고업을 겸한 경우에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최선진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 무렵 순천의 대지주 김종익, 강진의 대지주 김충식도 소자료로 받은 미곡의 판매대행을 최선진에게 맡길 정도였다. 1922년 그가 정미소를 차린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그런 그가 육영사업을 하게 된 것은 1920년대가 거의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1910년대 말엽부터 광주에서는 사립보통학교 설립운동이 있었고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1924년 광주세무서 자리에 사립보통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몇 년 뒤 학교운동을 둘러싸고 재단 내부 그리고 교직원들 간에 내홍에 휩싸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운영에 따른 자금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1928년 최선진이 학교운영을 단독으로 맡으면서 일단락됐다.

사립보교는 1944년까지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다. 이후 해방 직전까지 중앙초교에 더부살이를 하던 상업실수학교가 이 자리로 옮겨와 운영됐다. 최선진은 이 상업실수학교를 인수한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이었고 교명을 6년제의 광주상업중학교로 바꿔 재설립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학교법인 유은학원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이 학교가 설립된 직후인 그해 12월 17일, 그는 54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오늘날 유은학원은 동성중·고교, 동성여중·여고를 아우르는 광주권의 대표적인 사학명문으로 뿌리 내렸다. 1993년 3월에는 계림동 100번지에서 진월동 406번지의 현 위치로 이전했다.

■ 스크린 바깥 풍경

극장과 기도

기도木戶는 원래 일본 에도시대에 성문을 지키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기도방木戶番이라고도 했다. 이 용어가 일제강점 이후에 국내에도 들어와 극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입구를 지키는 사람 혹은 안전요원을 뜻하는 말로 통용됐다. 지금은 부지배인, 부장이라 호칭하기도 하지만 관행상 여전히 기도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제강점기 광주의 극장에서도 기도가 있었다. 극장에서는 늘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고 소매치기, 술주정꾼 등 달갑지 않은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흔했다. 이 때문에 극장 측에서는 실력있는 젊은이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힘이 센 젊은이는 극장 입구에서 입장권을 검사하거나 극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한 극장에 여러 명의 기도를 두기도 했는데 그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를 ‘기도주임’이라 했다.

기도 출신 중에는 나중에 주먹세계의 거물로 부상한 인물도 있었다. 훗날 주먹패의 왕자로 서울 종로를 활보하는 김두한도 초창기에는 영화관 우민관에서 기도 노릇을 했다. 우미관 기도는 그가 주먹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발판이 됐다. 김두한의 오른팔이던 김무옥金武玉도 상경 전에는 광주극장의 기도였다. 2000년대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텔레비전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김무옥의 역할을 맡은 이혁재가 전라도 말을 쓴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가두행렬 마치마와리

일제강점기에 영화나 공연물의 홍보는 어떻게 했을까?

이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간지 아래에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광고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제 때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대부분이라 이는 서울지역의 극장가에서나 통용되는 홍보방식이었다. 대신에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거리를 돌며 홍보하는 일이 관행화됐는데 이를 일본말로 마치마와리(町廻り)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총장로는 평소에는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한적함을 깨고 북과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온 거리가 호기심과 흥분으로 들뜨기 시작했다. 마치마와리는 흔히 몇몇이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사람이 행렬을 이뤄 진행했다. 이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삼시간에 어린아이할 것 없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마치 악극단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선두에는 울긋불긋한 깃발, 즉 ‘노보리(幟)’를 앞세웠다. 이를 든 사람은 오래 장터나 거리에서 눈에 익은 꼬마들이 맡았다.

노보리 뒤쪽으로는 악대가 뒤따랐으며 이어서 공연의 주요 출연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대개 인력거를 타고 거리를 지났고 기억에 남는 마치마와리 참가자들 중에는 이난영, 신카나리아, 남인수, 김해송, 고복수, 김정구 등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런 행렬의 하이라이트는 이처럼 인력거를 타고 가는 연예인들이었다. 그들은 당시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했다. 세상 저편의 이국에서 온듯한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젊은이들은 마음을 설렜다. 주위 구경꾼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입가의 얇은 미소를 짓는 모습은 이 행렬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도 사람들의 애깃거리가 됐다.

마치마와리는 국악공연을 홍보할 때도 등장했다. 이때는 동원되는 악기도 다양하고 소리도 훨씬 우렁찼다. 역시 주요 출연자들은 인력거에 몸을 싣고 악대를 뒤따랐다. 당시 총장로를 지나갔던 국악인들로는 송만갑, 이동백, 이화중선과 이중선 자매, 임방울이 있었다. 이런 행렬에는 일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유명한 출연자일수록 행렬의 뒤쪽에서 등장했다. 필자도 어릴 적에 총장로의 마치마와리를 구경하곤 했는데 송만갑과 이동백이 고종 황제로부터 관직을 하사받았다 하여 갓끈 귀 밑에 옥관자를 달고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영화의 마치마와리는 조금 다른 광경도 있었다. 상영관의 이름을 쓴 깃발이 앞장

을 서고 이어 악대, 그리고 상영할 영화의 제목을 적은 간판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뒤따랐다. 더러는 한 사람이 앞뒤로 영화제목을 쓴 판자를 메기도 했다. 그리고 행렬의 맨 뒤에서는 홍보전단을 뿌렸다.

마치마와리가 끝나고도 극장 앞에는 홍보용 볼거리가 등장했다. 극장 앞을 노보리로 요란스럽게 치장했던 것이다. 노보리는 원래 중세 일본에서 전쟁 때 지휘관의 위치나 아군을 알릴 때 혹은 군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등에 매달던 깃발이었는데 언제부터가 극장 홍보물로 사용됐다. 이것이 거의 고스란히 국내에도 들어와 영화나 공연의 홍보물로 쓰였다.

노보리는 여러 빛깔로 물들인 천에 영화나 공연물의 제목, 출연자 등을 적은 뒤에 긴 나무에 매달았다. 이것을 들고 총장로 한 바퀴를 돈 뒤에 그대로 가게와 극장 앞에 세웠다. 이런 노보리는 요즈음의 화환과 같은 구실을 해 영화나 공연이 성황리에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내면 이것을 극장 앞에 열지어 세우기도 했다. 자연히 유명 출연자가 나오는 영화나 공연일수록 극장 앞에는 노보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든 마치마와리는 당시 대단한 볼거리였다. 광주처럼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된 곳에서도 마치마와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벽촌과 다름 바 없는 시골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때문에 마치마와리가 주는 환상적인 세계에 이끌려 적잖은 젊은이들이 연예계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꿈꿨다.

■ 해방 후의 극장

해방과 광주극장

1937년 중일전쟁, 이어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극장가는 암흑기를 맞았다. 영화 제작은 많은 제약을 받았고 제작된 작품도 대부분 일제의 전쟁수행을 고무하는 어용영화들 뿐이었다. 연예인들도 군부대나 군수공장의 위문공연에 동원됐고 이른바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노래와 공연물이 주종을 이뤘다. 전쟁 말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극장에 올릴 공연물 자체의 확보조차 어려웠다. 극장을 찾던 주고객인 젊은 손님들도 징용과 징병으로 줄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보내야 했다.

해방이 되고서야 비로소 극장가에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1945년 8월 17일 광주극장에서는 전남건준 결성식이 열렸다. 극장은 해방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전남건준 위원장에는 최홍중 목사가 추대됐는데 단상에 올라와 짙막한 인사말을 마친 그는 아리랑을 선창했다. 순간 장내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이윽고 여기저기서 아리랑을 따라 부르더니 삼시간에 아리랑으로 요동쳤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아리랑을 목놓아 합창했다.

해방 직후 광주극장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행사는 이것 외에도 많다. 그해 9월 3일에 열린 해방기념 축하공연도 그 중 하나였다. 이 행사에는 광주 전



■ 1945년 9월 3일 조선독립 전남 축하대회를 마치고 전 남도청 앞을 행진하는 남동 부녀자들. 이 속에는 광주 권번 기생들도 섞여 있었다.

남의 국악인들이 거의 출연한 듯했다. 징병이나 징용을 피해 사망에 흩어져 숨어 지내던 국악인들은 이 행사에 비로소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우리 노래, 우리 가락을 마음껏 불렀다. 특히 박동실이 지은 <해방가>란 노래를 출연자들이 합창할 때는 그 감회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1950~60년대의 극장들

이후 광주의 극장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인 구로세가 운영하던 제국관은 적산으로 분류됐고 일제 때 이 극장과 연고를 가진 전

기섭이 불하를 받았고 후에 전남일보의 김남중이 다시 이를 인수했다. 그러나 광주 극장은 최선진 가족이 계속 운영했다. 그 뒤에 한때 외부 경영인이 들어와 운영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그 가족이 극장운명을 맡고 있다.

새로운 극장들도 등장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개의 극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무렵 광주에는 모두 8개가 있었다. 기존의 광주극장, 제국관이 공화극장을 거쳐 다시 이름을 바꾼 동방극장 후에 다시 무등극장으로 개칭함 외에도 이 무렵에 광주에는 신영·남도·태평·천일·계림·중앙극장이 개관했다.

롯데백화점 후문 쪽에 있었던 신영극장은 북동 일대에서 도정공장을 무대로 양곡관리업을 하던 하원태(河元泰)가 경영했다. 이 극장의 건물은 원래 1930년대에 지은 것인데 이 무렵부터 극장으로 사용됐고 이후 60년대 중반에 개축했다. 이후 이름을 바꿔 대한극장으로 개칭했는데 이 시기에는 극장주가 최갑동(崔甲同)으로 변경됐다.

남도극장은 광주천과 이웃한 금동에 있었다. 나주 영산포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이월금(李月金)이란 여성이 운영했다. 이월금은 한때 호남지역의 영화배급권까지 쥐고 있을 정도로 지역 극장가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다. 1980년대에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월금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금 극장건물은 헐리고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태평극장은 중앙대교 옆에 있었는데 당초 이 자리는 농약보관창고가 있었다. 이를 무대로 농약 판매업을 신성용(申成龍)이 1957년에 극장을 지어 45년 동안 이어왔는데 2002년께 문을 닫았고 몇 년 뒤에 건물마저 헐리고 말았다.

천일극장은 학동의 병무청 맞은편에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피혁공장을 운영했던 조영환(曹英煥)이 1958년에 개관했다. 긴 걸상을 몇 개씩 놓고 영화를 상영했던 이른바 소규모 극장이었다. 인근 학동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는데 영화상영관 역할을 중단한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모했다. 계림극장은 장인섭, 장호승, 최수열 등이 합자해서 세운 영화관이었다. 계림오거리에 있었는데 설립 당시 이곳은 담양과 순창 방면을 오가는 광주의 들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라 영업이 잘 됐다. 이곳 역시 영업을 중단한 지 오래다.

중앙극장은 금남로 5가에 있었는데 토목업을 하던 이재신(李載信)이 세웠다. 뒤이어 최승남·최승호 형제가 2년여 동안 임대 경영했는데 이들 형제는 1960년대에 광주천

변에 현대극장을 세웠다. 그 전에 중앙극장의 경영은 최승남 형제에 이어 앞서 소개한 남도극장의 이월금이 이어받았으나 이 극장 역시 예전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찍 문을 닫았다.

이들 극장 외에도 1960년대에 이르면 극장들은 꼬리를 물고 계속 등장했다. 이 시기에 새로 개관한 극장으로는 제일·현대·문화·한일·동아극장, 그리고 시민관이 있었다.

제일극장은 충장로에서 용문당이란 상점을 경영하던 성기영(成基永)이 세웠다. 본래 영화관 자리는 일제 때 광주부립도서관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그 옆에 시인 박용철의 부인 신정희가 운영하던 신성다방이 있어 문인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제일극장은 2000년대에 들어 복합영상관으로 전환했고 현재는 롯데시네마 충장점이 영업 중이다. 1908년 광주 최초로 조선인이 세운 가설극장인 양명사 터가 근처에 있어 감회가 새롭다.

■ 시민관



현대극장은 1961년에 문을 열었다. 구성로, 즉 예전에 ‘역전통驛前通’이라 부르던 도로의 끝자락이자 광주천과 이웃한 자리에 있었다. 이 도로를 따라 1970년대까지도 천일·장흥·함평·금성여객 등 시외버스들의 정류장이 즐비해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던 곳이기도 했다. 극장은 일제 때 교직에 몸담았다가 해방 후 양조업에 진출한 최승효 崔昇孝가 세웠다. 그는 앞서 중앙극장을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최승효는 이 극장 외에도 광주문화방송국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고서古書 수집가이기도 했던 그는 많은 소장도서를 훗날 순천대학교에 기증했다.

한일극장은 한충식 韓忠植이 세웠다.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현대극장 건너편인 양동에 있었다. 1965년 임권택이 감독하고 신영균과 김지미가 주연을 맡은 <왕과 상노>를 시작으로 개관했다. 양동시장과 이웃한 덕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으나 현재는 문을 닫았다.

시민관은 대인시장 근처에 있었다. 극장건물은 원래 부민관 府民館으로 부르던 것으로 송원식 등이 지었다. 1963년 한미제과의 백유인 白裕寅이 동생 백정인 白貞寅과 함께 영화관으로 영업했으나 지금은 건물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동아극장은 1960년대 중반에 개관했다. 원래 이 자리는 옛 호남은행 본점과 이웃한 곳이자 일제 때는 동아부인상회 광주지점이 있었던 곳이다. 해방 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상호로 차행렬이 상점을 경영했고 다시 극장으로 전환했다. 이후 중도에 신동아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했으나 현재는 건물의 외형만 남은 채 영화관 기능은 중단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차행렬은 1980년대 학교법인 낭암학원을 설립했는데 그 산하 학교들은 동아여고·동아여중처럼 동아부인상회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달고 있다.

문화극장은 김귀진 金貴進이 임동에 세웠다. 본래는 일제 때 종연방직 전남공장이었다가 현재는 일신방직 광주공장이 된 곳의 맞은편이다. 1950~60년대에 공장노동자들이 휴일에 즐기는 소일거리 중 하나는 영화관람이었는데 그들은 광주 시내 극장 관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겨냥해 공장 정문 바로 앞에 세운 것이 문화극장이었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 일신방직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유동에 있는 아세아극장은 양동시장과 이웃한 지점에 있었다. 이곳은 특히 1970년대 유명가수들의 지방순회공연 즉, 당시 리사이틀 공연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근처

에 양동시장은 물론 전남방직, 일신방직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시장상인이나 공장 노동자, 혹은 시장유동인구를 흡수하곤 했다. 영화상영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중단됐으나 오랫동안 건립 당시의 백색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영화는 1970년대까지 가장 대중적인 문화였다. 필자와 같은 1920년대생들은 그 당시에 극장가는 일이 드물었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에 텔레비전의 컬러화, 비디오 플레이어의 보급으로 영화는 장차 사양 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며 이 시기에 극장들은 영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영화는 오히려 가장 촉망받는 사업으로 부상했다. 흔히 말하는 한류의 중요한 견인차의 하나가 한국영화였다. 실제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광주를 일컬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술, 음악, 연극보다는 영화가 광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중문화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가운데 광주시내의 극장들은 대부분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상영관으로 탈바꿈하고 종전에 하나의 스크린을 가진 단관체제에서 극장 안에 여러 개의 스크린을 설치한 다관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유일하게 광주극장만은 광주 유일의 단관 상영관으로 남아 있다. 한국인이 광주에 세운 최초의 영화전용상영관인 광주극장이 광주역사의 또 다른 산증인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꼭 필자만의 염원은 아닐 것이다.

연극운동

소인극 첫날 밤

광주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서양식 연극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20세기 초엽에 오웬기념각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몇 토막의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보다 세속적인 삶의 얘기를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른 것은 1920년대가 되면서부터였다.

1920년대 초엽, 일부 광주 사람들에게 연극은 완전히 생소한 예술은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21년 일본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이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부지역을 순회하며 연극을 선보였으며 동경동우회(東京同友會)로 알려진 이 단체는 그해 7월 광주좌에서 공연을 했다. 이 날 무대에 올린 연극은 충북 출신의 유학생 조명희(趙明熙)의 작품인 <김영일(金英一)의 사(死)>였다. 훗날 소설가로 이름을 날리지만 조명희는 당시만 해도 연극에 열광하던 때였고 <김영일의 사>는 그의 첫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 대한 광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같은 날 무대에 오른 평양 출신의 젊은 성악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은 생생했을지 모른다. 무대에 오른 성악가는 24살의 여성이었는데 그는 '장미화'라는 노래를 불렀다. 단아한 용모에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이 성악가는 바로 윤심덕(尹心惠)이었다.

어떻든 이 무렵 광주좌는 연극의 중심무대였다. 같은 해 8월에 광주좌에서는 다시

〈운명〉, 〈빈곤자의 무리〉, 〈유언遺言〉 등 세 편의 연극이 소개됐다. 이 연극은 또 다른 일본유학생 단체인 갈뚝회가 열연했다. 갈뚝회는 이듬해 7월에도 다시 광주좌에서 〈선구자의 보수〉 등 세 편의 연극을 선보였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였을까, 몇 년 뒤에 광주의 10대 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대본을 짜고 연기를 연습해 무대에 올리는 활동이 시작됐다. 이런 아마추어들의 연극을 당시에는 소인극素人劇이라고 불렀다. 일제강점기에는 아마추어라는 말에 해당하는 순수한 우리말을 찾기 힘들어 일본어로 아마추어를 뜻하는 소인素人이란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 썼다.

이런 소인극 가운데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이 1927년에 공연된 〈첫 날밤〉이란 연극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정한 각본이 없었다고 한다. 마치 노천에서 뜨내기 흥행 단체들이 보여주는 서푼짜리 공연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연극에서 최공순崔恭淳은 신랑 역을, 최당식崔當植은 신부 역을 소화해냈다. 그들은 이렇다 할 무대배경도 없이 가스등과 촛불이 뿜어내는 조명에 의지해 연기를 했다.

이 연극을 기화로 이후에 많은 젊은이, 아니 당시에는 대부분이 아직 10대에 불과했던 소년들이 소인극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최남주, 김용호金容浩, 최계순崔啓淳, 최관식崔官植, 이득윤李得允, 김용구, 강석원姜錫元, 최형렬崔亨烈·흥렬興烈 형제, 하석암河石峯이 그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후에도 연극과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나아가 이런 소인극을 통해 그들 중 일부는 영화에 출연하거나 아예 영화제작의 길에 나서기도 했다.

물레방아는 쉬었다

생시에 최흥렬은 잊지 못하는 연극으로 〈물레방아는 쉬었다〉를 꼽았다. 그런데 이 연극에 대해서는 후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강남진姜南震의 「전남 연극사 연구」를 보면, 이 연극은 1932년 11월에 공연했고 최계순이 극본을 썼으며 연출까지 맡았다고 소개했다. 반면에 김석학金奭學은 「광복 30년」에서 1930년 12월 초엽에 무대에 올랐고 최경순崔敬淳이 대본을 썼으며 최남주가 연출을 맡았다고 적었다.

의견이 분분한 이 대목에 대해 필자는 당시 공연에 직접 참여한 최흥렬에게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공연은 1927년에 처음 이루어졌으며 각본은 최원순의 동생이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최경순이 썼고 연출은 최남주가 맡았다고 했다. 연극을 기획한 목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김필례(金弼禮), 현덕신(玄德信) 등이 운영하던 여자노동야학의 운영비 4백2십원을 마련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지혜를 모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4백2십원의 용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광주시사」는 “그해 12월말로 인가가 만료되어 인가 갱신에 필요한 수속비 4백2십원을 염출할 길이 막연하여 이 연극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4백2십원은 수속비 외에 야학 운영비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4백2십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수속비 납부만을 목적으로 이를 염출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연극이 무대에 오른 내막은 이러했을 것이다. 1927년 광주청년회와 광주여성청년회가 그동안 각각 따로 운영하던 야학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이에 적잖은 자금이 필요하자 이를 모금할 방편으로 연극 공연을 했던 것이다. 당시 광주좌대관료 4원은 광주신간회 부회장이던 곡성 출신의 정수태(丁洙泰)가 부담했다. 연극에는 최흥렬, 이득윤, 최선영(崔善英), 김용구 등이 출연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 관객들은 모금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앞다투어 성금을 냈고 이로 말미암아 여자노동야학의 필요한 경비를 너끈히 조달할 수 있었다.

연극내용도 큰 감동을 주었다. 광주공연 후에는 목포에서도 초청을 받아 공연을 했다. 연극의 주제는 피압박 민족의 서러움과 일제의 악랄한 수탈정책을 다뤘다.

연극의 막이 열리면 무대 중앙에 동척 간판이 걸린 기둥이 서있고 왼쪽에는 이름 없는 무덤, 오른쪽에는 돌지 않는 물레방아가 놓여 있다. 두 명의 농민이 등장하여 한 명은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은 풀을 뜯어 흙 한줌과 함께 쓰러진 동료의 입에 넣어 주나 굶주림에 시달린 농민은 그만 절명한다. 뒤이어 농민 부부가 등장하여 괴나리봇짐에 어린애의 손을 잡고 무덤 앞에서 절을 한 다음 동척 간판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간도로 떠난다. 이때 한 떼의 농부들이 손에 팽이와 삽, 도끼를 들고 나와 동척 간판이 내걸린 기둥을 쳐부순다. 격앙된 울동으로 춤을 추는데 갑자기 무대 중앙에 물음표가 새겨지면서 서서히 막이 닫힌다.

당시 공연장에는 으레 경찰관이 임석하곤 했다. 공연 내용이 비위에 거슬리면 우선

‘주의’라고 외치고 이어 호루라기를 세 번 불면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레방아는 쉬었다> 역시 그 내용이 다분히 식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처음부터 이런 걱정을 떨 수 없었다. 이 연극을 무언극으로 만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또한 출연자들도 공연 중에 체포되어 수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완 좋게 위기를 넘겼다. 당시 동아일보 광주지국장은 김용환(金容煥)이 맡고 있었고 그는 막이 오르기 전에 임금을 나온 일본경관을 술집으로 피어내 술대접을 하여 화를 면했다. 그런데 뒤에 연극내용이 경찰에 알려지는 바람에 출연자들은 화를 피해 도망을 다녀야만 했다.

익조

다음날 아침을 뜻하는 <익조(翼朝)>도 기억에 남는 소인극으로 손꼽혔다. 최경순이 대본을 썼고 하석암이 연출 겸 여주인공 역을 맡았다. 남자 주인공은 박준호(朴俊浩)가 맡았으며 최흥렬도 이 연극에 출연했다.

<익조>는 일제에 항거하다가 수감된 남편의 출옥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렸다. 내일 아침이면 출옥할 남편을 위해 아내는 밤새 옷을 짓고 집안을 치우며 찬을 준비하는 등 가슴부푼 기대로 밤을 지새운다는 내용이다. 이 아내는 곧 압박받는 민족을 상징한 것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기다리는 민족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소박한 호소력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광주시사」는 이 공연이 1934년에 초연됐다고 전하고 있다.

1930년대의 유명 연극들

극장가에서 유성영화가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을 때 광주의 연극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이전까지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하던 소인극 중심이었다면 이 무렵부터는 전문 연극인들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또한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작품들이 큰 관심을 받으며 선보인 것도 이전과 다른



©「한국영화 60년」

■ 1926년 이경순 감독의 <장한몽>

양상이었다.

1930년대 후반, 광주극장에서 공연한 극단 호화선豪華船의 〈사랑 뒤에 오는 것〉도 이 시기의 대표작이었다. 임선규林仙圭가 쓴 이 작품은 농촌의 남녀가 순박한 사랑에 빠지고 둘은 결혼을 맹세했다. 그러던 중 남자는 공부를 하겠다고 서울로 가고 여자는 농촌에 남아 부모를 모시며 길쌈과 농사를 하며 남자를 기다린다. 공부를 끝낸 남자는 도시 처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남자는 옛 애인인 농촌 처녀를 팔시할 뿐만 아니라 도시 처녀 역시 농촌처녀를 무시하고 모욕까지 준다. 이에 격분한 농촌처녀는 발작을 일으키고 애인과 도시처녀가 동침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집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다. 처녀는 달려온 경찰에 붙들려 간다.

이 작품에 앞서 극단 청춘좌靑春座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역시 임선규 작품이었으며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특히 극중 노래인 〈홍도야 우지마라〉는 연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애창됐다. 이 작품도 광주극장에서 공연됐으며 매일 밤 극장을 메울 정도로 관람객이 몰렸다.

이 작품의 여세는 해방 후까지 이어졌고 극중 노래가 더 유명해 연극제목도 아예 〈홍도야 우지마라〉로 바꿔 공연했다. 이 노래는 이서구李瑞求가 노랫말을 쓰고 김준영이 곡조를 지어 요릿집이고 목로주점이고 어디서든 유행했다.

해방 직후의 연극운동

해방이 되자 광주에서도 다시 연극이 재개됐다. 맨 먼저 1945년 10월에 중앙예우회中央藝友會가 발족해 이 단체에는 김용구, 최동호, 박준오, 신현, 최동복 등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연극과 음악 등 여러 장르를 공연하고 그 뒤에 극단으로 백화百花가 따로 결성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연극작품으로는 김용구가 연출한 〈꽃피는 마을〉, 〈최후의 승리〉, 〈혁명가의 일생〉이 있었다.

1946년 3월에는 광주부인회를 중심으로 연극 〈안중근 의사〉가 광주극장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엄밀하게 이 연극은 비전문인들의 연극이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소인극 전통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극은 전적으로 여성들만이 출연했고 안중근은 조아라曹亞羅, 안중근의 어머니는 김정아金貞兒, 고종은 조은례曹恩禮가 맡았다.

이중화李重和, 방춘화方春華, 정현숙鄭賢淑, 최선희崔善姬, 이영애李英愛, 남궁순자南宮順子, 이인성李仁誠 등 50여명의 여성들도 참여했다.

그런데 1950년대까지도 광주뿐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도 연극은 전문인·비전문인을 막론하고 남녀가 함께 공연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연극에서도 여자 역할을 남성 연기자가, 남자 역할을 여성 연기자가 대신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인기 있는 연극들이 대개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강조한 것임에 비해 실제 연극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현실이 역사의 일부였던 셈이다.



제3장 음 식



요릿집의 등장

일본말에서 비롯된 요리

원래 우리나라에는 요리料理라는 말이 없었다. 이 말은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고료리御料理’라는 간판을 달고 음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동시에 요릿집이니 요리사라는 말로 이 무렵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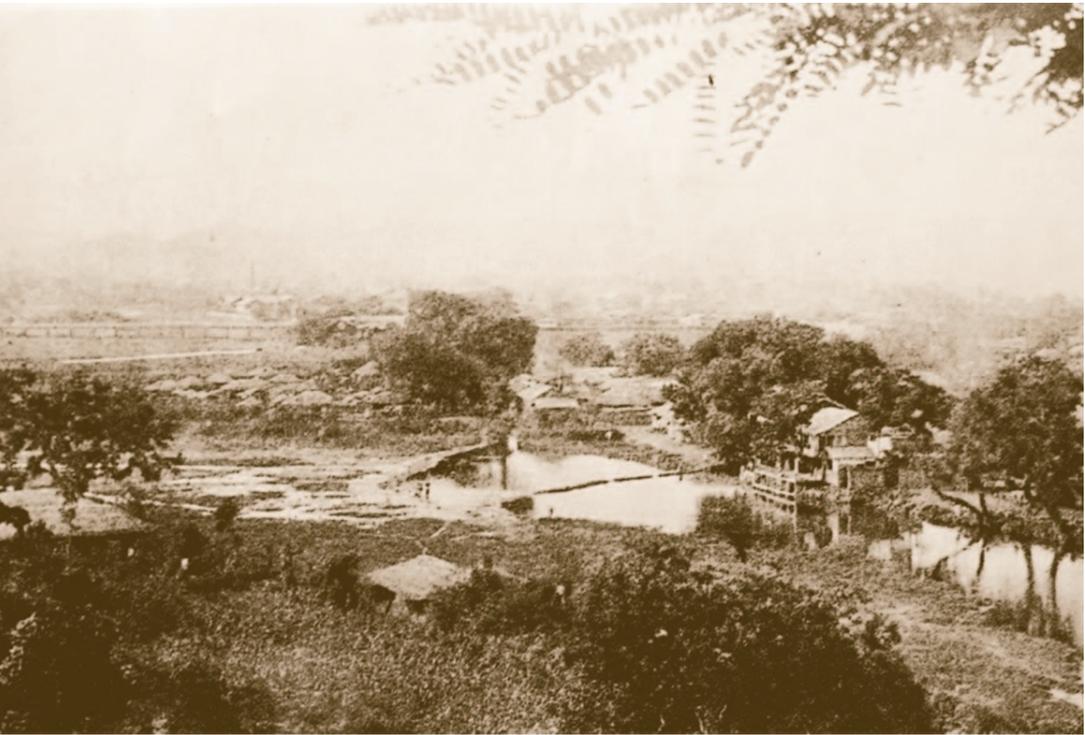
광주에 처음 요릿집이 생긴 것은 러일전쟁이 끝난 뒤 일본인들이 이주,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서문 밖에는 야마모토山本여관이 문을 열었는데 이 여관은 한국식 온돌방을 갖추고 있었다. 광주에 이주하려는 일본인들은 으레 여기에 여장을 풀고 옛 동명호텔 자리에 있던 일본사찰인 동본원사東本願寺에 들러 현지사정이나 취업정보를 파악하곤 했다.

초기 이주자 중 한 사람인 마츠다松田德次郎가 훗날 회고한 것에 따르면, 일본 이주자들 중 몇몇은 일본에 본처가 있음에도 요릿집이나 접객업소에서 일하던 여자들을 현지처現地妻로 삼아 동행했는데 광주사람들은 이 여자들을 일본기생이라 하며 야마모토 여관의 담장 너머로 흘깃흘깃 훑쳐보곤 했다고 한다. 이후 불로동과 황금동 일대는 일본여관과 요릿집이 하나둘 생겨났는데 훗날 이 일대가 광주의 대표적 유흥가로 변모한 데는 바로 이런 내력이 작용했다.



© 나꺼무리의 「조선풍속화보」

■ 한국의 주막풍경
수업을 쓰다듬으며 주막을 나서는 취흥 도도한
한량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 하루노야
옛 적십자병원 자리에 있었는데 고목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그 밑에 넓고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풍광이 아름다운 이 곳에 수상누각이 있어 술을 마시며 놀았다.

광주 최초의 일본 요릿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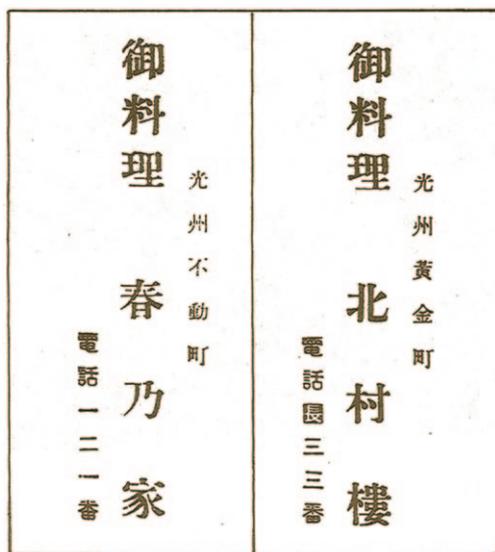
일본 요릿집 중에는 게이샤藝者, 즉 일본기생이 술을 따르고 노래 부르며 시중을 드는 집이 있었다. 우리네 기생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이런 집들도 역시 고료리御料理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했다.

이러한 형태의 요릿집이 광주에 처음 생긴 것은 1908년 초엽이고 황금동의 옛 학생회관 자리에 문을 연 기타무라로北村樓이다. 이 요릿집은 전국을 통틀어 규모면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컸다. 내부에 2백여명이 게이샤와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연회장도 갖추고 있었다.

1908년 5월에는 우레시노嬢野가 경영하는 시노노메東雲여관이 총장로 3가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 여관은 당시 호텔 급이라 할 만큼 규모가 컸고 요릿집을 겸했는데 뒤에 총장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3층 목조건물로 증축했다. 여기서도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연회장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 후에 요시토미吉富梅次郎가 금남로 3가의 옛 가톨릭센터 뒤편에 요로즈야萬屋여관을 열었다. 이곳도 그 무렵에 꽤 큰 규모를 자랑했다. 그래서 일본고관들이 광주에

■ 일본 요릿집 광고





■ 광주에서 열린 벚꽃놀이
봄이면 가설무대를 만들고 기타무라로의 일본 게이샤들이
공연하곤 했다. (1930년대 말)

오면 이들 두 여관, 즉 시노노메와 요로즈야에 묵곤 했다. 그 밖에도 지금 광주일보사가 들어선 무등빌딩 자리에 다카다高田가 세운 이즈미야泉屋여관, 구 역전통에 이시이石井興作가 운영하던 요시노吉野여관, 대인동에 우에야마植山友代가 경영하던 미쿠니야三國屋여관도 제법 이름난 여관이었다. 이들 여관들은 숙박업소 외에 손님이 주문하면 요릿상을 차려내는 연회장소이기도 했다.

한편 순수한 요릿집으로는 기타무라로 다음에 생긴 하루노야春乃家が 있었다. 옛 적십자병원 자리 즈음에 있었는데 개업할 당시만 해도 아직 광주천을 따라 제방이 없었다. 그 시절에는 물결이 구불구불 흘렀고 적십자병원 쪽으로 아름드리 고목이 울창하여 짙은 그늘을 물 위에 드리우고 있었다. 하루노야는 이런 풍광을 이용해 광주천에 수상 발코니를 짓고 강물을 감상하며 술을 마시고 놀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제법 인기가 있었다.

당시 일본 요릿집에서는 오젠(御膳)이라고 하여 손님 수에 맞춰 작고 네모난 상이 팔려 나왔고 상 위에는 손님들의 명찰이 놓여 있곤 했다. 보다 고급스런 술자리라면 정부(正副)로 두 상이 나오기도 했다. 초청 손님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경우에는 그 요리상을 손님의 집으로 배달해 주는 관행도 있었다.

이런 술자리에는 게이샤가 빠지지 않았다. 게이샤는 우리나라 기생들이 손님의 옆에 앉는 것과 달리 요리상을 사이에 두고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 술시중을 들었다. 술이 거나해지면 게이샤가 사미센(三味線)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으며 시노노메나 기타무라로에서 노는 소리가 밤늦도록 충장로까지 들려왔다.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젖히고 노는 바람에 기타무라로의 2층에서 열리는 술자리 광경을 우체국 길에서도 올려다 볼 수 있었다.

하루노야는 뒤에 광산동의 세칭 구시청에서 광주천으로 가는 길 왼쪽에 새로 요릿집을 크게 지어 이전했고 원래의 하루노야 건물은 다시 개축하여 한국 요릿집인 신광원(新光園)이 들어섰다.

일본청주 기쿠닛코

일본 요릿집이나 여관에서 쓰는 술은 광주에서 생산되는 이른바 ‘정종(正宗)’이라 부르던 청주였다. 이런 청주는 일본인들이 광주에 정착함

과 동시에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처럼 일찍부터 술 제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전남 쌀의 품질이 좋았던 탓이었다.

광주에 맨 먼저 생긴 주조장은 1907년 10월 총장로 4가로 이곳은 과거 무등상호 신용금고와 쇼핑몰 밀리오레가 있던 자리로 현재는 NC웨이브라는 쇼핑몰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자본금 2만원으로 마츠다 주조장이 세워졌는데 이 주조장은 술 외에 된장, 간장 따위도 함께 제조해 엄밀하게 말하자면 양조장에 가까웠다. 어쨌든 이 주조장은 1910년 당시 연간 190섬의 청주와 2백관의 된장, 그리고 42섬 분량의 간장을 생산했다. 마츠다 주조장은 이를 시내 요릿집과 여관, 그리고 일본인 가정에 공급해 그 이문이 꽤 짹짹했던 것 같다. 이에 시메노 占野幸市와 오오즈 大津虎八 등도 시내에 양조장을 차렸다.

1919년 12월 마츠다 양조장과 시메노 양조장을 합병해 자본금 20만원의 광주주조 光州酒造를 차렸다. 이 회사는 전에 마츠다 양조장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 이 회사의 청주 기쿠닛코 菊日光은 특히 품질이 유명해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도 팔려나갔다.

일제 때 총독을 지낸 우가키 宇垣一成는 1950년대 일본잡지 「봉게이순주 文藝春秋」에 ‘한국의 회상’이란 수필을 낸 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 그는 황해도 백천온천에서 신경통을 치유했던 일과 함께 조선에서 빚어낸 청주 아사노하나 朝花의 맛을 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청주를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이 일제강점기 때부터이지만 조선에서 빚은 청주는 쌀이 좋은 덕에 일본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이외에도 일본 요릿집으로는 니시무라로 西村樓가 있었는데 이 요릿집은 1919년 6월 화재로 불타 일찍 문을 닫았다. 또한 이들 요릿집보다 조금 격이 낮기는 했으나 기쿠야 菊屋, 광산동의 후지야 藤屋, 이자요시, 만요시, 고도부키 壽 등도 있었다.

요릿집 중에는 일식 외에 서양요리를 곁들인 곳도 있었다. 총장로 3가의 아사히 朝日, 전일빌딩 자리에 있었던 다리야, 총장로 5가의 하나츠키 花月가 유명했다. 당시 요릿집 중에는 주문을 받아 배달을 위주로 하는 곳도 있었는데 총장로 3가에서 하라노 原野貫一郎가 운영하던 후쿠노야, 그리고 이치리-카식당 등이 이런 집이었다.



■ 기쿠닛코(菊日光) 술병
미질이 좋은 조선의 쌀로 빚은 청주로 일본 정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미가 있었다.

■ 조선 요릿집

조선 요릿집의 연원

조선 요릿집의 효시로는 서울의 명월관^{明月館}을 친다. 1909년 관기^{官妓} 제도가 폐지될 무렵, 황실의 음식을 책임지던 궁내부 산하의 전선국^{典膳局} 책임자인 안순환^{安淳煥}이 광화문 거리의 동아일보사 자리에 한국 최초의 요릿집을 개업했는데 그것이 바로 명월관이었다.

명월관에서는 안순환이 직접 요리를 담당했고 궁중의 관기 출신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술은 궁중 나인^{內人} 출신들이 빚은 것이었으니 가히 왕실잔치에 버금가는 고급 사교장으로 각광을 받을 만 했다. 이후 이 명월관을 본 따 전국에 조선 요릿집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명월관은 1918년 원인모를 화재로 소실됐다. 뒤에 안순환은 인사동에 새로 집을 마련해 태화관^{太華館}이란 상호로 영업을 했고 태화관은 얼마 뒤에 한자표기를 泰和館으로 고쳤다. 명월관의 명맥을 이은 태화관은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태화관 자리는 후에 태화기독교복지관으로 사용됐다.



■ 세칭 '구시청 사거리'로 불리는 곳. 이 근처에 신광원이 있었다.

광주의 조선 요릿집, 신광원

광주에 조선 요릿집이 처음 들어선 것은 3·1운동 후인 1920년으로 신광원이 그 시초다. 당시 술꾼들은 흔히 주막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병을 사들고 기생집을 찾아가 조선요리나 청요리^{중국요리}를 시켜놓고 술을 마셨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채로 기생을 불러 여흥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일본 요릿집의 영향으로 요릿집이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교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신광원은 본래 불로동의 옛 그랜드호텔 뒤편, 주차장 자리에서 개업했는데 뒤에 하루노야가 적십자병원 자리에서 불로동의 옛 우미여관 옆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로 옮겨갔다. 대신에 신광원 자리는 또 다른 조선 요릿집인 식도원^{食道園}이 들어섰다.

신광원에는 광주의 주요 인사들의 출입처였다. 안창호, 여운형 등이 광주에 강연을 왔을 때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가 주관하는 만찬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다. 계유구락부는 광주 출신으로 일본 유학시절 2·8 독립선언의 주역으로 참여했고 뒤에 동아일보 편집국장 서리를 역임한 최원순^{崔元淳}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였다. 창립 당시인 1933년이 간지^{干支}로 계유년^{癸酉年}이어서 계유구락부라 이름지었고 당시 광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구락부는 수시로 경향각지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렇게 해서 계유구락부 초청으로 광주에 왔던 안창호와 여운형의 환영 만찬 당시의 풍경을 소개하면 이렇다.

안창호는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이후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와 1935년 6월 광주를 방문했다. 이 때 강연장에 밀려드는 인파를 막기 위해 일본 경찰은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행사에는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안창호가 훗날 중앙교회가 되는 북문밖교회에서 강연회를 하고 밤에 계유구락부가 주최하는 신광원 만찬에는 최홍중, 최영욱, 최원순, 양태승^{梁泰承}, 김용환, 최윤상^{崔允尙}, 현준호^{玄俊鎬}와 같은 극히 제한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밤 그들은 만찬이 끝난 뒤에 안창호에게 참석자들의 서명이 든 허백련의 그림을 선물했다. 안창호는 이튿날에도 북문밖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으며 수피아 여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강연도 했다.



©심양섭

■ 1937년 여름 신광원 2층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명사들
 왼쪽 첫 번째부터 최영균, 김희성, 송화식, 최당식, 김신석, 최영욱, 심덕선, 두 사람 건너 중앙에 최경식, 오른쪽 첫 번째부터 김용환, 김홍열, 한 사람 건너 박영만

안창호 방문 얼마 후에 광주보통학교 강당에서는 여운형의 초청 강연회가 있었다.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여운형의 장기인 격정적인 연설로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강연 후에 환영만찬이 신광원에서 열렸는데 주최측인 계유구락부에서는 최원순, 최홍중, 최영욱, 김용환, 김신석 金信錫, 심덕선 沈德善, 양태승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만찬에서 현 고창고의 전신인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실질적인 창설자이자 초대 교장을 지낸 양태승이 환영사를 했고 이어 여운형이 답사를 했다. 만찬이 끝난 뒤에 여운형은 이날 동석자들이 서명한 정운면 鄭雲勉의 매화그림을 선물로 받았다. 서명한 인사들 중에는 임석 경관으로 함께 했던 조선인 고등계 형사인 정광모의 이름



■ 의제 허백련이 신광원에서 그린 그림으로 화제(畫題)는 다음과 같다
 “신사(1941년) 늦은 봄 밤 신광원 2층에서 심향 박승(心香 朴勝武) 화백과
 함께 이별을 아쉬워 하는데 아이(鵝兒)와 홍도(紅桃) 두 기생이 치마폭을
 펼치며 그림 쳐 주기를 원하니 아, 참 좋을시고, 예부터 영웅이러야 영웅
 을 사랑한다 했으니 예인(藝人)이 예인을 사랑함을 어찌하라. 치마를 물리
 치고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심향이 기꺼운 마음으로 구름 모양의 괴석을
 그리고 던져 주니 내가 받아 모란을 쳤노라.”

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여운형은 이튿날 중앙로의 세무서 자리에 있던 광주사립보통학교 강당에서 다시 강연을 했고 최원순의 집이자 그의 부인 현덕신 玄德信의 병원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상경했다.

당시 이름난 요릿집의 경영자들은 광주에서 이름깨나 알려진 사람들이 많았다. 신광원을 개업한 이동채 李東彩는 순천 출신으로 그의 아들 이형모 李炯模는 뒤에 국회의원을 지냈다. 신광원은 이동채 뒤에 정학권 鄭學權이 경영했는데 정학권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성태 鄭成太의 부친이다. 신광원은 나중에 김창수 金昌洙가 폐업 때까지 경영했고 그는 광주체육인 김용걸 金容杰의 부친이기도 하다.

한편 대인동의 명월관 明月館도 광주농공은행 임원을 지낸 서울 출신 이응일 李應逸의 아들 이의동 李宜東, 일명 銀京이 운영했다. 신광원이 하루노야 자리로 옮겨간 뒤에 그 자리에서 문을 연 식도원 역시 조영규 趙瑛奎가 경영했다. 서울에서는 4·19혁명 직전까지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기봉 李起鵬이 일제 때 명월관의 지배인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광주에서도 제2공화국 시절에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최형열 崔亨烈이 한때 춘목암 지배인으로 있었다.

별장까지 갖춘 춘목암

일제 때 광주에서 가장 인기있고 규모가 큰 요릿집은 춘목암 春木庵이었다. 춘목암은 황금동 80번지 일대, 옛 미국문화원 자리이자 현재는 주차빌딩으로 바뀐 자리에 있었다. 441평의 넓은 부지에 건물은 연건평 221평으로 꽤나 큰 규모를 자랑했다.

본디 춘목암의 설립자는 이춘실 李春實은 1917년경 마산에서 광주로 와 황금동 콜박스 네거리 부근에서 우동집을 시작한 여성이었다. 그는 뛰어난 음식솜씨와 타고난 근면함 그리고 정직한 경영으로 우동집을 키워내 얼마 뒤에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이춘실은 예전 황금동 리버사이드호텔 자리의 넓은 부지에 저택을 마련했고 황금동 80번지 한쪽을 사들여 1925년경 춘목암이란 상호로 요릿집을 열었다. 춘목암 경영은 순조로운 듯했으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이춘실은 병을 얻어 1929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아들은 아직 어려 요릿집을 경영하기 어려워 그의



■ 옛 춘목암 자리

일제말엽 순천철도국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다가 해방 후엔 미국문화원으로 쓰였다. 1990년 헐려 지금은 주차 빌딩이 들어서 있다.

여동생 이진李珍이 남편 조성순趙成洵과 함께 춘목암을 경영했다.

조성순은 원래 광주군 극락면 쌍촌리 출신으로 일찍이 일본 나고야名古屋 비행학교에서 비행술을 배워 2등 비행사 자격을 취득했다. 당시 자동차 운전사도 보기 어려운 시절에 비행조종사가 됐으니 그는 당시 신세대 중의 신세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비행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광주에 비행학교를 세울 꿈도, 취업할 곳도 찾지 못하자 그는 광주 시내의 소바相馬가 운영하던 자동차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했다. 이 무렵에 광주형무소 여간수로 있던 이진과 사귀어 결혼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진 부부가 춘목암을 경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춘목암은 조성순의 능란한 사업수완, 이진의 뛰어난 미모 그리고 이들 부부의 유창한 일본말 솜씨에 힘입어 사업이 날로 번창했으며 인근 목욕탕까지 사들여 건물을 늘렸다.

이 건물은 당시 광주에서 유일한 조선인 건축가인 김순하金舜河가 설계하고 감독해 지었다. 그는 옛 전남도청 옆에있는 전라남도 회의실을 설계했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춘목암은 영업이 날로 번창함에 따라 1933년경에는 증심사 입구에 각종 나무를 심고 분수까지 마련한 춘목암 별장도 세웠다. 그 자리가 지금 의재미술관 자리이다. 당시 광주의 한량들은 시내 춘목암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흥이 도도해지면 광주에 2~3대 뿐인 택시를 타거나 인력거를 이용해 기생들과 드라이브를 겸해 별장에 가서 밤새 놀았다.

조성순은 별장을 신축할 때 시내에서 별장까지 전용 전신주를 세워 전기를 끌어왔다. 그때 증심사에도 전기를 가설해 증심사는 무등산의 고찰 가운데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오게 됐다.

1940년 조성순은 동명동에 자신의 집을 신축했다. 집은 화려한 정원과 최고급 가구로 꾸몄고 당시 광주의 살림집으로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호화스러웠다. 해방 후 이 살림집은 내부를 개조해 광주 최초의 호텔인 동명호텔이 되었으며 해방 정국 때 광주를 방문한 이승만, 김구 등이 이 호텔에 묵어 더욱 유명세를 얻었다.

한편 춘목암은 일제 말엽에 유흥업소의 정비정책에 따라 문을 닫았다. 건물은 순천철도국이 인수해 광주보선구 사무소의 직원숙소로 사용했다. 해방 후에 춘목암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시 문을 열었으나 오래 가지 않았고 이후 중국 음식점 춘화루春華樓로 잠시 사용되다가 미군정 소속의 군인 숙소 겸 장교클럽이 됐다. 이후 1949년에는 미국공보원이 들어섰고 이를 다시 미국문화원으로 개칭해 1987년 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90년에 헐렸고 광주시가 그 자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350여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빌딩을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춘목암 경영주 조성순은 해방 후에 운수업에 손을 대 호남여객회사湖南旅客會社를 경영하기도 했으나 영업 부진으로 1954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 지금의 의재미술관이 자리한 춘목암 별장
1933년에 지었는데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취흥이 도도해지면 택시나 인력거를 타고 이 별장으로
와 밤새 놀았다.

춘목암과 현준호

요릿집은 그 음식만으로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즐겨 찾는 단골이 없다면 음식의 가치도 빛이 바래는 법이다. 일제강점기에 춘목암이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을 출입하는 명사들이 많은 덕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호남은행장 현준호는 이 집의 단골 중 단골이었다.

워낙 단골이다 보니 춘목암에는 그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귀빈실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평소 그가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방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춘목암이 현준호를 극진히 대우했던 것은 그가 돈 많은 부호였던 까닭만은 아니었다.

현준호는 뛰어난 미식가이자 식도락가로도 유명했다. 그래서 춘목암에서는 그의 요리상에 많은 신경을 썼고 자칫 음식이 소홀하면 춘목암 주인이 현준호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듣는 일도 왕왕 있었다. 그럴 때면 기왕에 썼던 요리상을 들어내고 새로 상을 차려 방에 들어온 했다. 현준호는 이런 식으로 요리상을 통해 전라도 식문화를 외지인들에게 자랑하곤 했는데 그의 이런 태도 탓에 춘목암은 고급스런 요릿집으로 발돋움했다.

현준호는 손님으로서의 격식도 상당히 중시했다. 기생들에게 시간대 외에 별도의 돈, 즉 팁을 줄 때면 반드시 돈이 보이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건넸다. 봉투가 준비되지 않으면 당시 모란지라 부르던 최고급 화장지에 돈을 싸 기생이 깔고 앉은 방석 밑에 살짝 끼워 줌으로써 팁을 받는 처지의 기생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렇다 보니 현준호는 기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부호인 동시에 그 앞에서는 허투루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려 애써야 하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춘목암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현준호로 부터 기인한다. 일제 때 우리 문화와 예술에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야나기 柳宗悅란 사람이 있다. 그가 쓴 여러 글 가운데 〈조선과 그 예술〉이 있는데 여기에도 현준호와 춘목암 얘기가 나온다. 1937년 5월 3일 야나기가 광주에 들러 현준호와 춘목암에서 저녁식사를 했던 내용이다.

저녁 때 곡성을 떠나 광주에 도착했다. 여기는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로 길거리가 변화하다. 우리들은 이즈미야^{이즈미야}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밤에는 요릿집 춘목암에서 마츠모토^{松本} 도지사가 주최하는 환영연회가 베풀어졌다. 지사를 비롯하여 내무부장, 광주부윤, 그 밖에 광주의 이름난 신사들이 참석했다. 그 중에서도 호남은행장 현준호는 음식에 정통하여 조선요리에 관해서 혀를 내두를 만큼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연회가 순전히 조선 요리였던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진미를 만났는데 특히 몇 가지 젓갈 맛은 잊을 수 없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요리만큼 그 나라를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현준호의 식도락

식도락가 현준호에 대한 일화는 많다. 현준호가 제공한 장학금으로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마치고 광주시 총무과장,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박찬직^{朴燦直} 국장에 의하면, 당시 부호들은 대부분 평소 대문을 굳게 걸어닫고 손님이 찾아올 때만 문을 열어주곤 했다. 그런데 호남동의 현준호 저택만큼은 연중 문을 열어 놓았다. 그래서 과객이면 누구나 들어와 쉬었다 갈 수 있었고 현준호는 언제나 사랑방에 나와 과객들과 담소하며 식사하는 것을 즐겼다. 해방 직후 광주형무소에서 풀려난 조선인 명사들 가운데 현준호의 사랑방 신세를 지지 않은 이가 없었다는데 이 말도 현준호 식의 사교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준호의 호남동 저택은 집의 위용뿐 아니라 그 집에서 내놓은 밥상의 젓갈로도 유명했다. 젓갈들은 그의 집을 찾는 손님들의 밥상에 늘 올라오곤 했다. 그 종류는 어란을 비롯해 굴젓, 뽕어젓, 송어젓, 강다리젓, 돛배젓^{전어속젓}, 진석화젓 등 수도 많았고 대개 오랫동안 푹 삭은 것들이었다. 심지어 겨우 눈으로 보일듯 말듯하는 토하의 알만으로 담은 젓까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호사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지만 그가 유독 젓갈에 관심을 가졌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는 원래 영암 출신이었고 목포에서도 얼마간 생활했던 탓에 다채로운 젓갈에 대한 식견이 넓었다. 동시에 그가 젓갈을 중시했던 것은 갑작스레 손님을 맞을 때 밑반찬으로 젓갈만한 것이 없으며 주부의 입장에

서도 젓갈만 있으면 충분히 깊은 맛의 음식상을 차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현준호는 또한 생선 애호가이기도 했는데 이런 그가 송진우宋鎭禹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온 일화가 있다. 언젠가 두 사람이 식사를 할 때 구운 생선 한 마리가 상에 올라왔다. 식사가 시작되자 둘은 약속이나 하듯 생선 쪽으로 젓가락을 댔다. 한 사람은 머리, 다른 한 사람은 내장 쪽을 짚었고 서로 쳐다보면서 과연 생선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웃었다고 한다.

이처럼 현준호의 식도락 얘기는 끊이지는 않다. 다음은 1937년 5월 7일, 광주에 온 야나기가 현준호의 저택을 방문한 후에 남긴 글이다.

현준호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마츠모토 지사도 동석했다. 저택에서 여러 가지 순 조선의 진미를 맛보았다. 현씨의 후의에 깊이 감사할 뿐이다. 그 중에서 화채라고 하는 음료수 맛은 잊을 수 없다. 벌꿀, 진달래꽃잎, 푸른 콩, 녹말 등을 넣어 만든 것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맛과 높은 향기가 있었다. 낙지 요리가 나왔을 때 주인이 '이건 여물군요. 낙지는 맹물을 먹이지 않으면 연해지지 않아요' 하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잠시 후에 나온 낙지 요리는 알맞게 연하고 맛이 있었다.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 집 주인처럼 요리에 정열을 가진 사람은 적을 것이다.

■ 중국 요릿집

호떡에서 청요리까지

요릿집에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선술집에서 손님을 대접 하기에는 너무 박절한 것 같을 때, 자주 가던 곳이 청요릿집, 즉 중국 요릿집이었다. 지금은 중국에서 기원한 음식을 중화요리 혹은 중국음식이라고 하지만 일제 때만 해도 주로 청요리라고 했다. 아마도 중국인들이 한반도에 발을 내딛은 것이 임오군란에서 청일전쟁 사이였는데 당시 중국의 국호가 청이었던 것에서 이런 관행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국내에서 중국 요릿집을 낸 중국인들은 대개 1920년대에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 무렵 중국은 이런 저런 내전과 정정불안,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에도 다수가 산둥반도 맞은편 인천항을 경유해 들어왔으며 한꺼번에 500~600명이 집단이주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1926년에는 전국적으로 중국인 노동자, 즉 쿨리(苦力)만 3만명에 달했다.

광주에 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산둥성 출신이었다. 앞서 말한 대로 서해 맞은편 산둥반도를 출발해 인천항을 거쳐 광주에 왔다. 처음에는 대개 막노동을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얼마간의 농토를 빌려 야채 농사를 지었고, 이것을 팔아 돈이 생기면 번두리에 가게를 얻어서 찌뽕, 만두, 호떡 등을 파는 장사를 했다.

이런 호떡집은 충장로를 중심으로 시내 중심부에도 있었다. 남녀노소가 모두 별

미로 즐기는 편이었지만 특히 학생들의 간식거리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중국인들은 밀가루 반죽 속에 시커먼 흑설탕을 넣고 이것을 석탄불에 구웠는데 밀가루 피를 찢으면 달콤한 흑설탕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도 이런 호떡집은 학생들의 사랑방이었다. 호떡을 앞에 두고 몇몇이 둘러 앉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런 소규모 호떡집을 운영하다가 형편이 좀 풀리면 짜장면, 우동 등 다양한 음식을 하는 가게로 발전했고 그 중에는 제법 규모 있는 요릿집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중국인들 가운데는 주단(緞)이나 포목(布)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이런 정도면 소위 말하는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되는 격이었고 그들 내부에서도 제법 성공한 축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근면성은 누구라도 감탄을 자아냈다. 광주에 온 중국인들도 그동안 광주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온 정성을 다했다. 산수동이나 지산동 일대는 당시만 해도 황무지와 진배 없었는데 그런 땅을 그들은 온갖 기술과 노력을 쏟아 부어 어엿한 채소밭으로 가꿔나갔다. 이렇게 해서 재배한 것 가운데 상당수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배추, 무, 파와 같은 채소다. 이렇게 가꾼 채소를 그들은 목도에 메고 총장로를 오가며 팔았다.

당시 그들은 아내와 함께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 중에는 그 무렵까지도 전족을 한 경우가 왕왕 눈에 띄었다. 전족(纏足)이란 중국에서 여자아이의 발에 천을 감아 발을 크지 못하게 하는 풍속이다. 이 풍속이 생긴 것은 평소 잠을 잘 때도 신발을 벗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이 연원은 중국이 원래 전쟁이 잦아 언제든 화를 피해 도망치기 위해 생긴 풍습이었고 이것이 발을 작게 만든 원인이라고 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지만 당시 중국인들과 별다른 접촉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처럼 믿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비단이 장사 왕서방

농사 이외에도 중국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 중에는 석공이나 단순공사와 같은 힘든 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벽돌 쌓는 기술은 탁월했다. 원래 우리에게 벽돌 자체가 생소한데다 벽돌집도 20



■ 충장로 5가 구 역전통에 있었던 청요리집 화흥루 자리
1940년 경에 지은 건물은 당시에 꽤 현대적이었으나 지금은
헐려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세기 이전에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터라 초기 광주의 벽돌 건물 중 상당수는 중국인들이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 충장로 3가의 옛 호남은행, 대의동의 옛 전라남도금융조합연합회는 모두 중국인들이 벽돌로 지은 건물이었다. 이들 건물은 애석하게도 지금은 모두 헐려 사진에서나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중국인 노동자, 즉 쿨리는 험한 환경에도 잘 견뎌내는 능력이 있었다. 아무리 더워도, 살을 에는 추위에도 그들은 묵묵히 일을 했는데 이는 조선인들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도 잘 적응했다. 낯선 광주의 음식도 가리지 않았고, 습하거나 메마른 땅에서도 잠을 잤고 비록 거의 푼돈에 가까운 임금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정말

부실했다. 그들은 주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는데 이 빵의 반찬으로는 익히지 않은 파일 때도 있었다. 더러 별식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큰 냄비에 배추를 넣고 기름으로 볶아 먹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것이 그들의 음식문화의 전부가 아님은 중국 요릿집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음식은 한식이나 일식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고 더욱이 그 상차림에 비하면 값이 놀랄 만큼 싸다. 물론 중국 요릿집을 찾을 때면 이 음식 외에 다른 재밋거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요릿집 주인이나 종사원들은 무척이나 친절했는데 당시 중국인들 가운데는 조선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인 손님들이 듣기 거북한 말이나 반말을 해도 그저 ‘하오 하오 好好’ 하고 넘기기 일쑤였다. 물론 그 중에는 분명 조선어를 알아듣는 이들도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조선인들 중에는 값이 싼 이유도 있었지만 반말을 하는 재미 때문에 중국인 가게를 찾기도 했다고 한다.

어떻든 일제 때에 광주에는 중국 요릿집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광산동의 아관원 雅觀園과 공화루 共和樓, 황금동의 송죽루 松竹樓, 충장로 4가의 아서원 雅細園, 충장로 5가의 화흥루 和興樓, 금남로 3가의 연빈루 宴賓樓, 금남로 5가의 덕의루 德義樓 등이 유명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 요릿집 풍경은 어떠했을까? 그 때도 중국 요릿집에서는 우동과 짜장면 같은 대중적인 음식을 팔았지만 중국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상요리 庖料理라고 하는 풀코스(풀코스)를 시켜야 했다. 1930년대 말엽에 이런 상요리에는 5원, 8원, 10원짜리 등 여러 등급이 있었다. 대개 식사 전에 미리 주문을 했는데 식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이 차림표를 내보이며 손님이 원하는 식재료나 조리법을 물어보았다.

요리상에는 손님 한 사람 앞에 중국식 증류주인 백주 白酒가 한 병씩 나왔고 좀 더 고급스런 술자리인 경우에는 권번에 연락해 기생을 불러 오기도 했다. 그러나 뒤에 설명할 을중 요릿집처럼 요릿집 전속의 여급을 두고 영업하는 집도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조리사에게 팁을 주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기는 했지만 팁을 건네야 체면치레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팁을 주면 주방에서 손잡이가 달린 중국 특유의 무쇠냄비를



■ 충장로 1가의 왕자관

탕탕 치며 합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다.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렇게 받은 팁을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팁을 경리에게 맡겨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에 주인까지 포함해 모든 종업원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우리 먹거리로 정착한 짜장면

중국음식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짜장면이다. 동시에 짜장면은 중국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원산지 중국과는 다른 맛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사실 짜장면은 원래 치오장몐, 즉 초장면炒醬麵이라 하여 베이징 등 중국 북부에서 서민 음식으로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맛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해 한국은 물론 미주 교포사회에서도 소비되고 있다. 심지어 미주지역에서는 한인교포를 상대로 화교들이 파는 짜장면조차 중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만들어 판다는 얘기도 들린다.

짜장면이 우리나라에 쉽게 토착화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값이 싸고 국수나 중국식 된장이 한국인들의 입에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짜장면 값은 대중적인 또 다른 음식인 설렁탕 값보다 언제나 저렴했다. 아마도 이런 규칙은 앞으로도 좀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1950년대에 물가안정을 위해 이른바 관허管許 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원가나 다른 물가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짜장면 값을 묶어둔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짜장면 품질이 좋아질리 만무했고 고급화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또한 규제가 잘 관철되지도 못했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이런 요금 관허제의 틈을 노려 소개된 것이 간짜장과 삼선짜장이었다.

중국음식에 대한 광주사람들의 애정은 해방이 되고 나서도 계속됐고 일제 때의 유명한 요릿집이 없어졌음에도 새로운 요릿집들이 문을 열었다. 해방 직후 광주의 이름난 요릿집으로는 충장로 1가의 왕자관王子館, 황금동의 파레스호텔 옆에 있던 여명반점黎明飯店을 들 수 있다. 여명반점은 문을 닫았지만 왕자관은 같은 상호로 현재 충장로 1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여전히 광주의 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왕자관이 처음 문을 열었던 1945년에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충장로 큰길가의 모퉁이

였던 것이 조금 달랐다.

물론 중국인들이 광주에 남긴 흔적이 짜장면 같은 음식만은 아니다. 일제 때에 충장로에는 유명한 중국인 옷감 판매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손꼽을 만한 것이 충장로 1가의 덕생복(德生福)과 충장로 4가의 협원성(協源盛)이었다. 이들 상점은 중국에서 수입한 법단(法緞), 모본단(毛本緞), 공단(貢緞)과 같은 비단이나 무명과 같은 포목을 팔았다. 단순 소매점도 많았지만 대개 도매업을 겸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이들 점포들은 일정한 특색이 있었다. 점포 앞에는 상품의 견본이 될 만한 것을 진열해 놓았는데 약간 허술한 것이 쇼윈도까지 마련해 화려하게 진열하는 일본 점포들과 달랐다. 그런데 중국인 점포들은 뒤편에 있는 창고에 진귀한 상품들을 가득 쌓여놓았다. 그래서 점포의 규모나 취급상품 등 겉만 보고는 결코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은 중국 상인들의 일상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됐다. 그들은 평소에 열심히 일했지만 검소함이 몸에 밴 탓인지 옷차림이나 먹는 음식에서 사치를 느끼기 어려웠다. 하지만 명절 때에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음력설과 단오, 그리고 추석을 크게 썼다. 설과 추석을 큰 명절로 여기는 것은 우리와 같았으나 전라도에서는 이름 뿐인 명절인 단오를 그들이 크게 쇠는 것은 의외였다. 그래도 설과 추석이 그들에게도 큰 명절이라 설에는 무려 보름동안, 추석 때도 5~7일 동안 점포 문을 닫고 쉬었다.

이런 명절 때에 하는 놀이도 특이했다. 그들은 잡귀를 물리친다는 뜻에서 요란하게 폭죽을 터뜨렸고 평소와 달리 푸짐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술을 마셨는데 취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자고 다시 깨면 또 마시곤 했다. 그러나 고주망태가 되어 거리를 헤매는 중국인들은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타이완의 요리

1920년대 이후 광주에 소개된 중국음식이나 요릿집들은 광주의 근대음식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너무 친숙해 원산지가 중국인 이런 음식문화의 발원지를 잊을 정도가 됐다. 그만큼 중국음식은 우리 일상에 익숙하게 자리잡았다. 물론 이런 중국음식의 발원지에서 그 원형의 음식을 먹을 기회는 없었다. 지금이야 중국여행이 흔해 현지에서 색다른 별미로 중국음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과 국교를 트기

전까지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하려면 중국본토가 아닌, 타이완을 여행할 밖에 없었다.

1980년 11월 필자는 우연찮은 기회를 얻어 타이완을 여행한 적이 있다. 우리 일행은 타이페이의 한 호텔에서 여는 만찬에 참석했는데 당시 타이완의 음식문화를 접하고 필자는 꽤나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의 감회를 귀국 후에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행하던 잡지 <광주상의 光州商議>에 소개했다.

그날 밤 만찬회장은 우리가 묵고 있는 아도호텔 대찬청大餐廳 레스토랑이었다. 참석 인사는 구창환 邱創煥 내정부장 내무부장관과 진민경 陳敏卿 내정부차장 차관을 비롯하여 옥만호 玉滿鎬 한국 대사 등 6명과 우리 일행이었는데 이들 초청인사들에게는 미리 초청장을 일일이 발송해 두었다. 대만에서는 전화나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크게 실례가 될 뿐 아니라 초청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구두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실례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만찬석은 이곳의 관례대로 원탁에 둘러앉는데 탁상위에는 참석 인사의 명패가 있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되 초청측과 주빈이 서로 마주 앉고 그 둘레로 배빈들이 앉게 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참석하면 요리의 목록을 돌리는데 일견 우리의 메뉴처럼 착각하기 쉬우나 '손님들에게 오늘 이러한 요리로 모시겠습니다'하는 뜻의 목록이다. 이 경우 손님은 재료나 조미료라든가 기타 조리방법을 자기 취향에 맞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대체로 당시 음식 종류는 10~14가지였는데 14가지 정도면 최고급에 속한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이런 음식 종류를 늘 짝수로 맞춘다는 점이였다. 필자가 듣기에 타이완에서는 전통적으로 홀수를 기피한다고 했는데 음식을 늘 짝수로 맞춰 내온다든가 크든 작든 선물을 주고받는 때도 짝수, 특히 쌍으로 맞춰 건내곤 했다. 이날 필자가 참석한 만찬에 나온 음식 종류도 14가지였다.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화려함과 다채로움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음식은 물에서 난 것과 바다에서 난 것이 고루 섞여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의 종류만으로 상을 채우기도 했다. 흔히 중국음식은 지역적으로 광둥요리, 베이징요리, 쓰촨요리 등으로 나누는 모양인데 타이완은 크게 광둥요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살구를 넣은 죽을 비롯해 개구리, 산비둘기, 새우, 자라, 장어, 두렁허리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요리였다. 전혀 짜거나 맵지 않으면서 온갖 맛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비만을 걱정하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특히 이채로운 음식은 돼지고기를 꿀에 졸여 천으로 겹겹이 덧싼 위에 흙을 두텁게 발라, 사흘 밤낮을 불에 구운 것이었는데 상에 나올 때는 단단한 흙덩이로 보였다. 이 음식은 뭇가를 축하할 때 쓰는 용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일행과 초청단체의 대표가 나란히 서서 망치로 이 흙덩이를 깨뜨렸을 때 동석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술 마시는 법도 우리와 달랐다. 술잔을 권 사람이 좌중의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함께 술을 들이기자는 눈짓을 하면 지목된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예의라고 했다. 또 좌중에서 누군가 간베이(乾盃)라고 외치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잔을 들어 말 그대로 잔을 깨끗이 비워야 했다. 이를 확인하듯이 나중에 비운 잔을 상대방에게 건네 보여주기도 했다. 만일 거리가 멀어 잔을 비운 것을 직접 보여주기 어려우면 머리 위로 잔을 뒤집어 올려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늘 간베이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쑤이(隨意)라고 외치면 이 때도 모두 술잔을 들기는 하되 다 마실 필요는 없었다. 말 그대로 쑤이는 주량만큼만 마시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술을 권할 때면 타이완 특유의 유머가 넘쳐났다. “오늘 당신의 얼굴이 유난히 곱게 보이니 한잔”, “내가 바라는 요리를 주문해 주었으니 한잔”, “양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간베이”, “대만 여행 중 행운이 함께하기를...쑤이” 등등 술을 권할 때마다 현사를 쏟아내 우리처럼 그냥 술잔을 기울이는 법이 없었다. 평소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큰 볼거리였다.

요즘은 중국여행이 흔해 중국인들과 술을 마시는 요령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중 그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날 만찬에는 서너 명의 여급들이 좌석을 돌며 음식 시중을 들었는데 그들은 술잔이 비면 지체 없이 술을 따라 채웠다. 이 때문에 멋모르고 여급들이 따라주는 술을 죄다 마시다가는 금세 술에 떨어지기 십상이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생각하면 외국문화에 대한 익숙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들이었다. 이런 경험은 필자가 참여한 여행 도중에 겪었던 일이어서 매우 유쾌하고 신선했다.

■ 을종 요릿집

을종 요릿집과 여급

일제 때 요릿집은 기생을 불러 영업하는 갑종^{甲種}, 여급을 두고 영업하는 한 등급 아래의 을종^{乙種}으로 구분했다. 기생은 특정 요릿집에 전속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 요릿집에 나갔는데 이 때문에 그냥 기생이라 하지 않고 예기^{藝妓}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여급은 특정 요릿집이나 술집에 얽매어 술시중을 든다는 점에서 기생과 달랐고 사회적 인식도 기생보다 조금 격이 떨어지는 존재로 간주됐다.

이들 여급은 대개 가난한 집 출신이었다. 당시 사회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인구의 대다수가 매일 끼니를 걱정했을 만큼 가난했고 취업,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는 극히 제한돼 있었다. 이런 판국에 취업을 미끼로 인신매매가 횡행했고 꼬임에 넘어간 여성들이 요릿집 여급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유흥가에 나온 여성들은 기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예능 교육을 받을 처지가 못 됐다. 사실 기생은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희망자 측에서 부담했다. 따라서 애초부터 이럴 처지가 못 되는 여급들은 술집이나 중개인과의 채무관계에 얽매어 술시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간혹 여급 중에도 노래나 춤, 재담 등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다. 또 예쁘

거나 총명한 몇몇은 돈 많은 남자의 첩으로 들어앉기도 했다. 더러 그런 남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술집에 진 빚을 청산하고 유흥가 생활을 접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드물었다. 대다수는 이런 사례는 꿈같은 이야기였고 대다수는 험난한 삶의 굴레를 저야 했다. 더구나 ‘화류계 이십세면 회갑’이라는 말이 있듯 나이가 들고 빛이 불어나면 결국에는 보다 험한, 즉 만주나 남방 같은 곳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

물론 당시에도 여성계나 종교계에서 인신매매나 축첩, 공창제도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지금만큼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극도의 가난과 식민지 상황, 열악하기만 했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등이 겹쳐 그들에 대한 관심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런 여급이 일하던 을중 요릿집은 기생을 끼고 주연을 베풀던 갑중 요릿집에 비해 술값이 싼다. 그래서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다. 일제 때 광주에는 이런 을중 요릿집이 여럿이었는데 그 위치와 상호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충장로 4가에는 송죽원松竹園, 창경원昌慶園, 계룡관鷄龍館, 충장로 5가에는 만경관萬頃館, 유일관唯一館, 청춘관青春館, 백수관白水館, 누문관樓門館이 있었다. 금남로 4가에는 춘일옥春日屋, 금남로 5가에는 성북관城北館, 농춘원濃春園, 광산동에는 다래관多來館, 학동에는 무등관無等館, 동문관東門館 그리고 유동에 유림관柳林館 등이 있었다.

이런 을중 요릿집은 대개 낮에는 일반음식점처럼 식사류와 간단한 술을 팔았고 밤에는 갑중 요릿집과 비슷한 분위기로 바뀌곤 했다. 다만, 갑중 요릿집이 산해진미를 가득 차린 요리상을 내오는데 비해 을중 요릿집은 손님이 원하는 몇몇 일품요리를 접시에 따로 담아 상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을중 요릿집은 나름대로 집마다 일품요리라 할 만한 것이 있기 마련이었다.

구 역전통으로 불리는 지금의 구성로에 있던 성북관도 그런 집이었다. 이 집은 주인의 성을 따서 ‘구씨서방네 집’이라고도 했는데 특히 애저가 유명했다. 또 옛 화니 백화점 후문에서 공원다리로 가는 초입에 있던 계룡관은 닭곰탕을 맛깔나게 만들었다. 이밖에 전남대병원 근처의 동문관은 추어탕, 백수관은 탕반, 광주은행 남부지점에서 구시청 사거리로 꺾어들어가는 지점의 다래관은 비빔밥, 그리고 광주극장 건너편의 창경원과 금남로의 옛 법원 자리 옆에 있던 농춘원은 설렁탕이 손꼽히는 별미였다.

이런 요릿집에 대한 기억은 이제 아스라하다. 그런데 지금은 작고한 언론인 김남중이 자신의 칼럼집 「대도무문 大道無門」에 을중 요릿집들 가운데 설령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광주에서 설령탕의 원조집은 유일관이었다. 이후 춘일옥이나 광주극장 맞은편의 창경원은 유일관을 이어 설령탕을 맡아 팔았다. 이 가운데 창경원은 내부시설을 꾸미는데 꽤나 신경을 썼는데 김남중은 이를 ‘서울식’으로 꾸민 집이라고 표현했다. 얼추 좀 세련되게 실내장식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보다 허름했지만 유일관과 그 맞은편의 만경관은 이런 서울식 설령탕집의 등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 서민풍의 영업방식을 고수했다. 그 때문에 이들 집은 늦은 밤까지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방 이후에는 사실 설령탕 한 그릇 먹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 기초생활품의 가격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관허요금제라는 것을 시행했다. 쉽게 말해 일상적으로 먹고 쓰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묶어 놓았던 것이다. 이 바람에 서민들이 그나마 별미로 먹던 설령탕, 비빔밥, 우동, 짜장면까지도 이 관허요금제의 통제를 받았다. 그런데 이 관허요금제가 워낙 당시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가격 동결이 설령탕 등을 비롯한 음식의 질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식당을 겸하던 여관들

그런데 해방 이후까지도 요리는 반드시 갑종이나 을중 요릿집, 혹은 중국 요릿집에 가야만 먹는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까지 여관은 지금처럼 숙박 영업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식사도 제공했다. 이런 이유로 여관은 아예 하숙집을 겸할 때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에 광주의 중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여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훗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모태가 될 성진회의 결성이 이루어진 곳도 영암 출신의 최규창이 묵고 있던 하숙집, 즉 진남여관이었다.

그런데 이런 여관들 중에는 일상식보다 더 격조가 있고 값도 비싼 요리를 파는 곳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조선인이 운영하던 여관 중 상당수는 요릿집에 준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런 여관들을 열거하면 이렇다.

충장로 5가에는 우리·광산光山·중앙中央·해동海東·광해光海·함평咸平여관, 충장로 4가에는 금강金剛여관이 있었고, 금남로 5가에는 호남湖南여관, 금남로 4가에는 평양平壤여관이 유명했다. 또 대인동에는 관동貫洞과 신흥新興여관도 있었다.

이들 여관 중 상당수가 충장로 4~5가, 금남로 4~5가 그리고 대인동에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일대가 1960년대 후반까지 철도역 등 광주의 교통 관문이었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과는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시내 전역에는 여러 여관들이 산재했는데 장동에는 일광日光, 남동에는 진남鎭南과 순천順天여관이 있었고, 양동에는 영흥永興여관, 수기동에는 풍산豊山여관이 있었다. 또한 광양光陽여관도 꽤 이름난 여관이었다.

이밖에도 시내 전역에는 수많은 여관이 있었는데 이처럼 광주에 여관이 많았던 것은 당시 도청, 법원, 병원 등 주요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광주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중등학교도 많아 하숙생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광주의 별미

후쿠이데이의 복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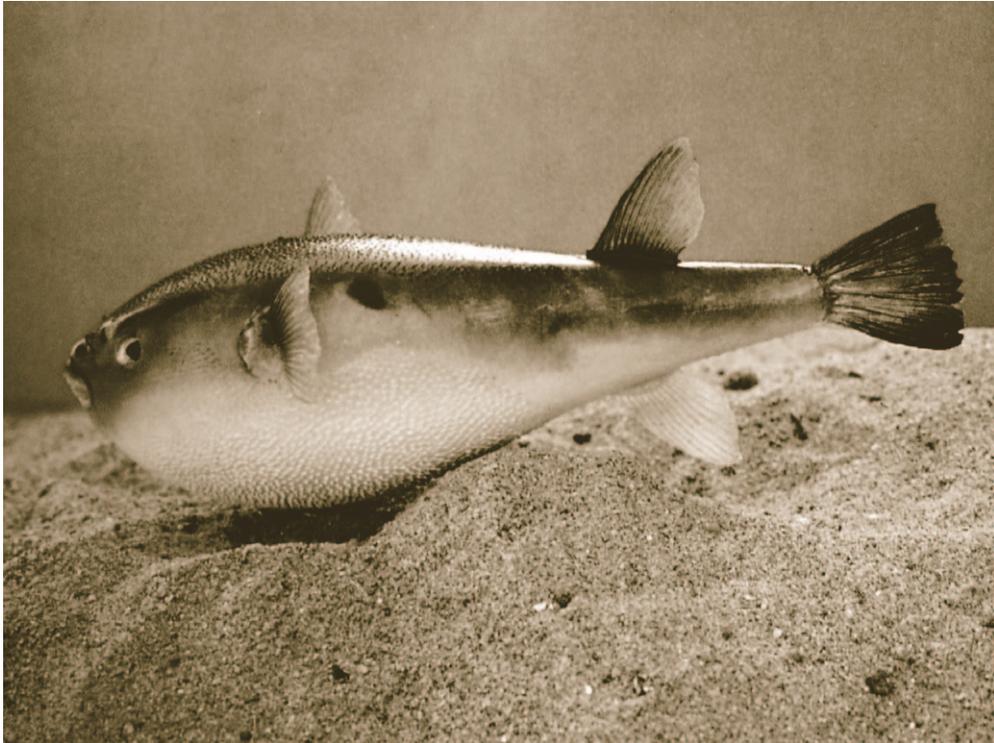
구도청 앞과 광주천을 잇는 길을 오늘날 서석로라 한다. 이 길가에 일제 때 동광주금융조합이 자리했고 같은 자리에 1960년대 전남매일신문 사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남매일신문 맞은편에는 한때 전남도경찰국 산하의

■ 후쿠이데이가 있었던 자리
서석로 옆 충장로 1가 19번지 일대에 있었다.



경찰병원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병원 자리는 일제 때 후쿠이데이(福井亭)라는 식당 자리였다. 이 식당은 호리(堀井留次郎)가 경영했는데 넓은 연회석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복어를 요리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 때만해도 교통과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못해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생복을 내륙 도시인 광주에서 먹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집만은 주인이 광주에서 유일하게 복어 조리사 면허가 있었고, 세심한 냉장수송으로 생복을 들여와 초겨울부



©「한국민물고기보존회」

■ 황복

바다에 살지만 음력 3월에는 강으로 올라와 자갈이나 모래 바닥에 알을 낳는다. 영산강의 맛 좋은 황복은 하구언 공사와 강의 오염으로 멸종된지 오래다.

터 이듬해 봄까지 요리를 했다. 생복이 들어오면 주인의 안사람이 관공서를 돌며 신선한 복어가 들어왔음을 알리고 다녔던 것도 이색적이었다.

원래 전남은 좋은 복어가 많이 나왔다. 그 가운데 여수·영광의 복어와 영산강의 황복黃鰻이 유명했다. 영산강 황복은 나주 왕곡면 송죽리의 재창포在倉浦를 비롯한 중류지역에서 많이 잡혔다. 기름기가 적고 유독 쫄득거리는 식감이 좋았는데 바다에서 잡히는 복어와 달리 등 부분에 노란 황금빛을 띠고 머리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독특했다.

이 반점에 대해 입심좋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다. 일제 때 「조선의 건축과 예술」을 쓴 세키노 關野貞도 그런 사람이었다. 황복들이 나주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복바위에 머리를 찡는 바람에 황복에 반점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엉뚱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노안 복바위 일대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필자가 복어를 처음 먹어본 것은 한국전쟁 뒤 금남로 중앙시장의 초우草宇 식당에서였다. 이 집의 요리사는 김재호 金在浩였는데 해방 후 광주에서 일본식으로 복어요리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필자는 그때까지 복어의 맹독 때문에 그 근처에는 얼씬하지도 하지 않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복어를 좋아해 마른 복어를 구해다가 여름이면 된장을 풀어서 국을 끓이거나 고추장을 발라 구어 술안주로 드시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먹이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처음 접한 복어회는 모양새부터 낯을 나가게 했다. 복어를 백지장처럼 얇게 썰어 그림이 그려진 넓적한 접시에 빙 둘러 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리사의 솜씨와 정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복어 피가 완전히 제거됐음을 손님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했다. 복어회는 구운 복어의 지느러미를 따뜻한 청주에 넣은 히레자케에 먹는 것이 별미였다. 그러나 당시 성미가 급한 필자는 얇게 뜯 힌감을 젓가락으로 한 움큼 집어 먹다가 이를 본 선배한테 무안을 당했다.

복요리의 풀코스에는 회, 껌질무침, 튀김, 그리고 소위 ‘지리’ 혹은 ‘지리나베ちり鯛’라고 부르는 맑은 국으로 이루어진다. 지리는 복어의 살과 머리뼈, 그리고 시라코白子라고 부르는 이리에 숙갓, 표고버섯, 밤, 은행, 찹쌀떡 등을 넣고 다시마로 간을 맞춰 끓인다. 국물이 맵거나 짜지 않으면서 깔끔한 맛 때문에 지금도 찾는 사람이 많다.

기무라야 빵집

기무라야木村屋 빵집은 옛 광주우체국 네거리에서 불로동으로 가는 길의 왼쪽에 있었다. 훗날 같은 자리에 중앙과자점이 들어서기도 했다. 기무라야는 원래부터 1874년 일본 도쿄의 긴자銀座에서 개업한 본점과 연계된 분점 형태로 운영됐는데 일제 때 광주에서 손꼽히는 과자점으로 통했다.

기무라야의 대표 상품은 앙꼬빵, 즉 단팥빵이었다. 단팥빵은 서구의 빵이 일본에 전래됐을 때 빵에 팥고물, 즉 앙꼬를 넣어서 만든 것이 시초였다고 한다. 기무라야는 이런 단팥빵을 이후 100여년 동안 몇 대에 걸쳐 만들어 왔고 지금도 도쿄에는 그 본점이 있다.

기무라야 단팥빵의 특색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확한 규격이었다. 단팥과 밀가루가 각각 25g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팥이 전체 빵의 3분의 1에 불과한 다른 빵에 비해 묵직하고 단맛이 강했다. 약간의 술맛도 섞여 있어 질리지 않았다.

기무라야 단팥빵에서 나는 이런 술맛은 창업 때부터라고 한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데 서양에서는 이스트균을 쓰는데 초기 일본에서는 이것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스트균을 대신해 술을 넣어 발효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술맛 덕분에 오히려 명성을 크게 얻어 대중화됐고 그 이후에 독특한 맛이 기무라야의 브랜드가 되었다.

또 하나의 특색은 종업원들의 나이가 많았다는 점이다. 정년이 없어 종업원들은 나이 지긋해서까지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 6시부터 빵을 구웠다. 이 빵집은 그날 만든 빵만을 진열하는 것으로 더욱 유명했는데 팔다가 남은 빵은 시골점포에 넘기곤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의 군것질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일제 때부터 우리가 맛들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일본식 국수인 가케우동, 단팥이 든 일본식 찹쌀떡인 모치, 단팥빵, 생과자의 일종인 나마가시, 라무네 레모네이드의 일본식 발음로 얼음이 들어간 팔빙수, 중국식 호떡과 만두, 그리고 일본식 팔죽인 젠자이와 시루코이가 학생들의 입을 즐겁게 하던 메뉴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먹거리들의 값은 어땠을까? 조풍연의 「서울잡학」을 보면 1920년경 1십전으로 살 수 있는 간식거리나 군것질거리로는 센베과자 300g, 카스테라 1개,

모치 5개, 흰떡 5개, 식빵, 가케우동 한 그릇, 호떡 5개, 빙수 두 그릇, 눈깔사탕 10개, 땅콩 한 되 었다.

한편, 당시 광주의 학생들이 자주 다니던 집들로는 '오뎅이 집'이란 뜻의 다루마야(達磨屋)도 있었다. 이 식당은 광산동에 본점을 두고 장동에 분점을 냈는데 단팔빵·크림빵·단팔죽·우동 따위를 팔았다.

손님들이 들끓던 오뎅 가게들

일본음식 중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값이 싼데다 술안주, 밥반찬, 간식 등으로 널리 소비되며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것이 오뎅이다. 일제 때 광주에도 이 오뎅을 파는 가게가 여럿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오이리(大イリ) 식당으로 총장로 2가의 광주우체국 후문 맞은편에 있었다. 오이리의 주인 오창선(吳昶善)은 훗날 그 옆 모퉁이까지 매장을 넓혀 총장화원을 차린 오장환의 부친이었는데, 일본인 못지 않은 솜씨와 친절로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필자도 1943년 겨울에 선배들을 따라 오이리 식당에서 처음으로 오뎅을 맛보았다. 그 때 느낀 세상에 이렇게 희한한 음식도 있나 싶었다. 오이리 식당은 오뎅 외에도 일본식 전골인 스키야키, 초밥 등도 팔았다. 식당은 해방 후까지 영업을 정도로 성업을 이루었다.

오이리 외에 오뎅을 팔던 가게로는 사노(佐野欣司)가 경영하던 야코(奴)가 있었다. 이 식당은 금남로 3가의 옛 우리은행 뒤쪽에 있었다. 6~7평의 자그마한 홀을 갖췄는데 일본인 부부가 함께 장사를 했다. 오뎅과 튀김이 주 메뉴였고 깨끗이 필 무렵이면 먼저 깨끗이나 깻잎 튀김을 낸 뒤 손님의 입맛과 식성에 따라 원하는 튀김을 내놓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 식당은 그들 부부가 음식을 만들면서 나누는 유머가 더 가관이었다. 타고난 입심도 좋았지만 때로는 아슬아슬한 외설까지도 거침없이 쏟아내 듣는 이들의 배꼽을 움켜잡게 만들었다. 아마 이것도 그들 나름의 상술이지 않았나 싶다. 어쨌든 이 가게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유명한 오뎅 가게로는 금남로 4가의 옛 중앙교회 건너편, 조선인이 경영하던 전원(田園) 식당도 있었다.

오뎅은 본디 일본 먹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식생활 속에 정착하였다. 원래 두

부산적처럼 두부를 꼬치에 꿰어 된장을 발라 구운 것이었다. 무로마치시대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에도시대에 들어 널리 먹게 됐다고 한다. 1923년 간토대지진 이후 일본 전역으로 퍼졌다. 에도시대 이후 두부 외에 무와 곤약, 생선어묵 등을 간장국물에 조리하거나 삶아 먹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다는 설도 있다.

오뎅이란 말, 즉 어전(鮓)은 원래 땡가쿠(鯛)에서 왔고 중도에 가쿠가 빠지고 일본어에서 경칭의 의미로 붙이는 접두사 ‘오’가 합해져 생긴 말이다. 예전 일본농부들은 모내기철에 풍년을 기원하며 죽마를 타고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이 이 오뎅과 닮은데서 비롯됐던 것이다.

오뎅은 다양한 재료를 꼬치에 꿰어 만든 음식이며 그 중의 하나가 생선어묵이다. 즉 본래 오뎅과 어묵은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이 어묵만을 따로 가마보코라고 불러 구분하였고 우리는 이런 차이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뎅과 어묵을 같은 것으로 본다. 어쨌든 오뎅은 끓여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국물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그래서 오뎅집마다 국물의 맛을 내는 독특한 비법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오뎅은 아주 서민적인 음식이라 일본에서는 원래 노점에서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눈이 내리는 날, 오뎅 냄비 앞의 나무의자에 걸터앉아 따끈한 술잔을 기울이며 오뎅에다 겨자를 발라먹는 맛은 일품이었다. 최근에는 접시에다 듬뿍 담아서 한 접시씩 내지만 옛날에는 손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오뎅을 날개로 팔았다.

우동과 고구마 맛탕

황금동의 옛 학생회관에서 부동교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골목이 나오는데 그 안쪽에 목욕탕이 있었다. 해방 후에도 이 자리에는 황금탕이니 한진탕이니 하는 목욕탕이 계속 영업을 했다. 그런데 일제 때에 목욕탕은 ‘무도탕’이라 불렸다. 흔히 무도탕의 이름에 대해서 무도(無道)가 광주의 진산인 무등(無等)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무등을 음독으로 발음하면 무도가 된다.

그런데 무도탕은 무등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 무도는 육십(六十)을 혼독으로 발음한 것이었고 무도는 당시 피부병과 신경통 치료제였던 약품의 이름이기도 했다.

따라서 무도탕六+湯은 이 치료제를 목욕물에 타서 제공하는 목욕탕이란 뜻이었다. 어쨌든 이 목욕탕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무도탕의 인기를 더해준 것은 그 골목 입구에 ‘우구이스 집’, 즉 앵다옥 齋茶屋이라는 아담한 우동집 때문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으레 목욕이 끝나면 이 집에 들러 우동과 고구마 맛탕을 먹었다.

일제 때 고구마 맛탕은 다이가쿠이모 大學芋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유래담은 다양하다. 1910~20년대 이것을 즐겨먹던 계층이 일본 대학생들이었다는 설, 처음 이것을 만들어 팔던 곳이 도쿄제국대학 앞이었다는 설이 있지만 어느 것이 맞든 대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했던 일제말엽 목욕 뒤에 따끈한 우동 한 그릇과 고구마 맛탕 한 접시는 인기있는 요것거리였다. 또한 이 집은 우동을 질그릇에 담아 1인분씩 따로 끓여 주었는데 국물 맛이 아주 좋았다. 이밖에 만세이안 萬世庵과 라이온식당의 우동 맛도 호평을 받았다.

굴 전문집 가키야스

훗날 동방 또는 무등극장이라 부르게 된 제국관에서 황금동 쪽 건너편에 가키야스 かき安라는 식당이 있었다. 마츠다 松田亦彦가 운영했으며 식당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키, 즉 굴을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었다.

이 집은 전남 연안에서 나는 싱싱한 굴을 재료로 사용했고 그것을 다양하게 요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초무침을 시작해 생굴회, 튀김, 소금구이, 수프, 조림 등 굴을 재료로 하는 요리만 10여 가지가 넘었다. 이들 요리를 안주로 하여 술을 마시고 나면 맨 나중에는 굴밥 かきめし을 주었다. 점심에는 굴밥 외에 꿩고기를 섞어서 만든 꿩밥 ぎじめし을 팔기도 했다. 식당은 식도락가들로 매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다 방

카페

1928년에 광주에 처음 카페가 생겼다. 광산동의 옛 전남매일신문사에서 광주천 쪽으로 몇 발자국 걷다보면 있었는데 상호는 제비라는 뜻의 츠바메였다. 이후 시내 곳곳에 카페들이 등장했는데 옛 호남은행 맞은편인 인성빌딩 2층에 생긴 엔젤카페, 조선인이 경영하던 금남로 5가 영안반점과 신락원 사이의 낙천(樂天)카페, 황금동 파레스호텔 옆에 있었던 남국(南國)카페 그리고 맨 나중에 개업한 광주극장 옆의 백란(白蘭)바가 그곳이다.

원래 카페(cafe)는 커피를 뜻하는 말이었다는데 이후 커피나 다른 음료를 파는 점포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 그런데 일본을 통해 들어온 탓인지 그저 커피를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양주와 맥주, 음식까지 팔고 여급까지 두어 여느 바와 다를 바 없었다.

일본인이 경영했던 엔젤카페는 태평양전쟁 때 적성국 언어라는 이유로 이름을 대륙(大陸)으로 바꿨다. 당시 이런 카페는 일본인 여급이 일본 옷을 차려입고 손님을 접대했다. 반면에 조선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조선인 여급이 한복을 입고 시중을 들었는데 더러 양장을 차려입은 여급도 있었다.

황금동 길가에 있었던 남국카페는 당시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담양군 봉산면의 만석꾼 아들인 김찬수(金燦洙)가 경영하여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을 졸업하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남국카페를 경



■ 츠바메 카페
 광산동에 있었던 일본인 카페로 여급이 기모노를 입고
 손님을 접대했다.

영했고 뒤에는 황금동의 중국 요릿집인 송죽루松竹樓를 열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고향에 돌아가 봉산면장 1954. 2 ~ 1958. 12을 지냈다. 남국카페는 김찬수에 이어 계림동의 부호 조중봉이 경영했고 광주의 젊은이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당시 남국카페의 조리장은 박기석朴基錫이었다. 그는 해방 후 자립하여 수기동에 동원식당東園食堂을 열어 뛰어난 음식솜씨와 겸손하고 친절한 인품으로 광주의 대표

적인 식당으로 이름을 얻었다. 금남로 5가에 있었던 낙천카페는 1928년 살롱 긴가銀河란 이름으로 김상문金相文이 문을 열었는데 뒤에 확장해 그의 동생 김상길金相吉이 맡아 운영했다.

당시 카페와 바는 영업방식이 비슷해 현실적으로 거의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낮에는 커피, 홍차, 우유 등을 팔았고 밤에는 술을 내놓고 팔았다는 점은 지금과 달랐다. 저녁이면 전축을 틀어놓고 손님들이 여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우러졌지만 서양춤을 추는 일은 없었다. 한국식 카페에서는 을종 요릿집처럼 방에서 술을 팔고 여급이 손님을 접대하기도 했다.

남국카페와 김용구

일제 때에 이미 황금동 일대는 젊은이들의 거리였다.

그 중에서도 남국카페는 광주의 대표적 젊은이들이 집합소였다. 이곳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대개는 고위관리, 지주 혹은 유력인사의 자제들이었다. 그런 남국카페에서 1942년 7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다.

이날 밤 연극과 영화 등 평소 예술에 조예가 있던 김용구가 남국카페에 들어섰는데 실내에는 이미 법원직원 10여명이 술을 마시다가 그들 가운데 남 아무개가 김용구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남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

■ 김용구의 자화상



은 조선인이었음에도 평소 일본인보다 동족을 혹독하게 다루기로 악명이 나 있었다. 시비의 발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김용구는 남 아무개로부터 먼저 몇 대 얻어맞기는 했지만 유도 3단에 6년 동안 권투까지 익혔던 터라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되레 한 방을 날렸는데 그것에 남 아무개가 냅다 카페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법원과 검사국의 일본인 직원들이 별떼처럼 김용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조선인이 김용구의 친구들에게 급히 달려가 상황을 알렸고 이 소식을 접한 김후옥(金厚玉), 최동호(崔東湖), 이옥희 등이 몰려와서 결국 집단 편싸움으로 번졌다.

이 사건 후에 연루된 조선인 청년들은 모두 체포됐고 김후옥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혼방조치로 풀려났다. 다만, 김용구는 구속되어 1년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이 사건은 당시 광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됐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가 힘센 일제 권력기관의 직원들이었고 그 수효도 10여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에 기죽지 않고 맞서 싸운 김용구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수감생활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던 날, 많은 젊은이들이 동명동의 형무소 입구로 가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문화인의 사랑방 다방

여하튼 일제 때 카페와 술집을 영업행태로 보서는 서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차와 음료만을 팔던 곳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일제 때에 다방은 흔히 깃싸넨, 즉 깍다점(喫茶店)이라 했고 꽤 이름난 깍다점 몇 개가 있었다.

금남로 3가의 옛 가톨릭센터 뒤편에 있던 메이지(明治), 현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광주지점 뒤편에서 문을 열었던 묘조(明星)가 그런 깍다점, 즉 다방이었다. 당시 다방의 단골들은 하급관리, 신문기자, 문학청년들이 많았다. 방학 때면 고향에 돌아온 일본 및 서울 유학생들도 즐겨 이런 다방에 모이곤 했다.

다방에서는 커피, 우유, 코코아를 팔았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마시던 것은 커피보다는 홍차였다. 1십전짜리 홍차 한잔을 시키면 일본식 생과자 몇 개가 따라 나왔고 그것으로 하루 종일 음악을 들으며 소일할 수 있었다. 자연 젊은이들의 등지로 다

방 분위기도 그런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춰 운영했다. 새로 발매된 레코드가 나오면 맨 먼저 구입해 들려주었다. 그 중에는 유럽의 클래식 음악도 있어 일종의 음악감상실 구실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다방 출입을 일종의 교양인의 증표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런 다방 가운데 조선인이 운영하던 곳으로 광산동의 구도청 근처에서 박재섭씨가 차린 광주다방이 있었다. 이 다방에는 양식집 광주식당도 딸려 있었다. 광주다방 자리는 한국전쟁 뒤에 귀거래(歸去來) 다방으로 상호를 바꿔 계속 장사를 했다. 이 밖에 일제 때 차와 생과자인 나마가시를 팔던 곳으로 충장로 3가에서 와타라이(渡會庄)가 운영하던 벤덴토(辨天堂), 충장로 2가의 기무라야(木村屋) 빵집이 있었다.

■ 일제시대 맥주홀
한겨울에 난로가에 앉아 흑맥주를 마시는 것을 아주 운치있는 것으로 여겼다.



■ 일제 말엽의 먹거리 풍속

감질나던 나라비 술

1941년 12월 일제가 진주만을 습격하고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1937년 중일전쟁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태평양전쟁의 전황은 후기로 갈수록 보도통제로 그 실체를 알기 어려웠지만 언제부턴가 일제가 군사적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무엇보다도 생필품 고갈로 배급제가 실시되면서 그 조짐이 보다 확연했다. 물론 이것이 패전의 징후로까지 확신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당시에 이미 초일류 경제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므로 생필품 생산보다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자원이 들어가기에 민간인들이 물자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는 일제의 말에 속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어쨌든 전쟁말기에 조선은 배급경제 사회였다.

농산물은 도회지로 나오기 어려웠고 이름난 식당들은 문을 닫았으며 그럭저럭 음식을 팔던 영세점포들도 운영이 어려웠다. 훗날 양동시장이 된 천정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과 다름없었고 충장로의 포목점들도 배급조합에 흡수돼 개별 경영을 할 수 없었다. 아예 문을 닫는 집도 많았는데 상품으로 내걸만한 옷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때 신조어로 등장한 것이 나라비^병였다. 지금도 일제 때를 살았거나 부모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세대는 이 말에 익숙하다. 나라비는 길게 줄지어 늘어선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 모습은 냉전시대 구소련이나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물자난을 겪을



■ 일제 말 술집풍경

일제 말기에는 전시의 심한 물자난으로 술이 귀해서 술꾼들은 이곳저곳 야미술(밀조주)집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다시피 마실 수밖에 없었다. 값은 부르는데로 줘야만 했다.

때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과 흡사했다. 일제말엽이면 이런 배급 품목에 식량도 포함됐다. 광주에서도 쌀과 보리를 섞은 배급곡식을 받아야 했는데 그 양은 어른 1명당 하루에 2홑 3작, 즉 0.4리터 정도였다. 비록 농촌지역은 배급제 실시지역이 아니었지만 가혹한 공출로 식량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배급제는 일상이 됐다. 한겨울에 담배가게 앞에는 몸을 떨덜 떨며 담배배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다. 한 사람이 배급 받을 수 있는 양은 고작 한 갑이었다. 줄에는 어린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른 아침에 아버지를 대신해 담배배급

을 받아오는 것이 당시에는 효행인 것처럼 간주됐다. 주부들도 남편을 대신해 담배 나라비를 썼다. 이렇게 배급된 담배는 다시 암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술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시에 술은 사치품이었고 배급량이 적었다. 그래서 술 배급은 1개월에 한번 있을까 말까 했다. 그래서 애주가들은 암시장에서 사고파는 밀주, 또는 야미술을 사서 마셨다. 그렇다 보니 야미술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식당도 술을 배급받았다. 과거의 영업규모에 따라 받은 술만을 팔도록 했다. 그래서 술꾼들은 이런 술을 사먹기 위해 역시나 나라비를 썼다. 오후 다섯 시쯤 되면 식당 앞에는 이런 나라비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고생하고 살 수 있는 양은 적었다. 일본 청주는 1홉^{0.18리터}, 맥주는 네 홉들이 1병^{약 0.7리터}였다. 그것도 오래 전에 공장에서 출고된 것이 많아 신선도가 떨어졌다.

물자난으로 안주도 한 접시씩 팔았다. 식당의 술값은 배급가격이라 시중의 야미술 보다는 싼 편이었지만 안주는 배급제, 즉 물가통제 밖이라 제값을 치러야 했다. 결국 안주를 포함하면 술값은 꽤 큰돈이었다. 그러나 술이 귀한 시기라 다투어 나라비를 썼고 한 잔 먹고 나서 다시 나라비의 맨 뒤에 붙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 이쪽 줄에서 배급하던 술이 다 떨어지면 아직 배급량이 남은 다른 줄을 찾아 나라비를 서기도 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시간보다 줄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제 말엽, 필자는 아직 입에 술을 대지 않았을 때였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선배들에게 끌려 다니며 이런 줄을 서 있곤 했다. 물론 필자 몫의 술은 당연히 선배가 마시고 필자는 안주를 먹는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당시엔 흔한 일이었고 일제가 기세 좋게 시작한 전쟁과 침략이 낳은 결과이기도 했다.

정종이나 맥주가 아닌 막걸리집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역시 술파는 시간이 오후 다섯시로 정해져 있었다. 줄 선 차례대로 큰 뚝배기에 가득 담아주는데 한 잔 이상은 없었다. 뒤에서는 어서 마시라고 재촉하고 차례가 된 사람은 다급하게 한 잔을 비우고 무 김치 한쪽을 입에 문 채 달음박질해 다시 나라비줄의 꿈무늬에 가서 서지만 술이 떨어지면 그만이었다.



■ 물자난을 겪던 시절의 풍경
쌀과 옷감, 장작, 숯 심지어 생선, 채소, 된장에
이르기까지 줄을 서야만 배급을 탈 수 있었다.
참으로 지긋지긋한 암흑의 시대였다.

대용식 호박런치

일제 말엽은 또한 대용품의 시대였다. 석유가 부족하자 자동차는 숯을 연료로 하는 목탄차로 바뀌었고 불을 밝히는 데는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카바이트가 사용됐다. 전투기 기체의 재료인 알루미늄을 만들던 보크사이트가 동남아시아의 함락으로 공급이 줄자 일제는 해남 등지의 명반석 광산에 다시 눈을 돌렸던 것이 이 무렵이었다.

음식도 이런 대용품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 이른바 대용식(代用食)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대용식 가운데 쌀, 설탕, 육류가 귀해지면서 개발된 것이 있었다. 광산동의 구시청 앞에 있던 어느 고급 요릿집은 까칠한 보리빵에 삶은 호박을 곁들여 팔았는데 이를 ‘호박런치’라고 했다. 맛보다 이름이 더 가관인 그런 음식이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라비를 서야 겨우 사먹을 수 있었다. 이 무렵에는 감자떡, 감자튀김은 아주 귀한 음식에 속했다. 중국 요릿집에서도 조리방식을 바꿔야 했다. 고기가 없어 굴이나 생선으로 탕수육을 만들었고 설탕이 없어 엿을 썼다.

복식에도 일제 말엽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여자들의 하의는 검정 물을 들인 뽀빠였다. 남자들도 국방색의 이른바 국민복에 군모를 쓴 판 모자를 썼고 다리에는 각반을 찼다. 어쩌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남자나 치마저고리나 양장을 한 여자를 보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이 다반사였고 뒤늦게 문을 연 전남의학전문학교는 강의나 실습보다 단체노역으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전기사용도 규제를 받았다. 광주에서 방공을 목적으로 경방단(警防團)이 결성된 것은 1936년부터였는데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등화관제를 실시하는가 싶었는데 중국에서 이륙한 B-29폭격기가 한반도 남부를 거쳐 일본 큐슈를 폭격하는 일이 잦자 등화관제의 강도가 심해졌다. 당시 경방단은 거리와 골목을 돌며 집안에서 새나오는 불빛을 단속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그 바람에 밤에는 큰 거리도 어둠이 짙게 내렸고 분위기 또한 으스스했다.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면 그 상실감이 더 큰 법이다. 고기 맛은 점차 까마득하게 잊은 지 오래였고 어쩌다 흰쌀밥을 보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잡곡을 섞은 식량배급은 언제나 모자랐고 배는 늘 고했다. 그럴 때면 일본 선생과 관리들은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군인들을 생각하라며 닝쿠단렌(忍苦鍛鍊)을 외쳐댔다. 고통을 참고 스스로

를 단련하라는 것이었지만 막상 전선에 나갔던 군인들도 상당수는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들도 굶주림에 시달려 총탄에 맞아 죽은 이들보다 아사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를 훗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군인들에게 천황만세를 외치며 총검을 앞세우고 적진에 돌진하는 공격을 다그쳤다고 한다. 침략과 전쟁이 낳은 무력감은 굶주림과 궁핍만큼 컸지만 어느 누구도 그 원인과 이유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 제국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참고로 훗날 중앙시장으로 바뀐 명치정시장(明治町市場)은 광주에서도 사정(社町)이나 천정(泉町) 시장처럼 이름난 시장이었다. 다만 이 시장은 거의 일본인들이 출입하던 터라 광주사람들에게는 낯선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아직 물가통제를 받기 전인 1939년 상황을 담은 기록이 있어 소개한다. 개별 가격을 놓고 보면 지금과 가늠이 안 되지만 개별 상품이나 그 값을 서로 비교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쌀 1되 : 40전	쇠고기 100돈 : 52전
돼지고기 100돈 : 38전	우동 1그릇 : 10전
두부 1모 : 6전	닭고기덮밥 1그릇 : 25전
카레라이스 1그릇 : 28전	청주 1되 : 2원 10전
김꾼 하루품삯 : 1원 20전	목수 하루품삯 : 2원



■ 1940년 경 여성들의 몸빼 차림
지금 보면 어색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가장
멋진 여성복 차림이었다.

■ 해방 직후의 음식

호수미와 김재호

해방 직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내든 식당가든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래도 광주의 서민들이 집밖에서 뭔가 먹거리를 찾을 때면 가는 곳이 두 군데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양동시장 주변의 식당 겸 주점들이었고, 월급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들은 중앙시장 안에 있던 일식집을 많이 찾았다.

중앙시장은 원래 명치정시장이라고 했던 곳인데 주로 일본인들을 겨냥해 일용품과 식료품을 팔았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거래관행은 생선이 횡감이나 구이로 쓰이냐에 따라 다르게 손질을 해서 팔았다. 이 때문에 생선가게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조리사에 못지않게 생선 다루는데 능했다. 당시 이를 배운 일부 한국인들이 해방이 되고서 시장 안쪽에 일식집을 차렸다. 물론 여기서 일식집이라면 값비싼 스시를 내놓는 고급 요릿집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비록 다른 대중적인 식당보다야 값이 비싼 편이었지만 이 무렵의 일식집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말하기에는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저 당시의 일식집이란 일식을 파는 식당 정도의 의미가 강했다.

이런 일식집은 차츰 시장에 균락을 이룰 정도로 많아졌다. 일식집들은 장사도 잘 됐는데 인근에 전남도청, 법원, 검찰청, 경찰국, 은행들이 밀집해 있었던 영향이 컸다. 상거래가 활발한 광주 최대의 상가인 충장로와 인접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일식요리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것은 장어요리였다. 한국전쟁 뒤에는 중앙시장의 간판 음식이 될 정도였다. 사실 1900년대 펴낸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나오듯 우리는 원래 장어를 좋아하지 않았고 잘 먹지도 않았다. 장어를 선호하던 일본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대신에 우리는 조기, 갈치, 명태를 선호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음식의 영향을 받으며 장어요리가 알려졌고 이후 1970년대 까지 영산강 중·하류지역에서 꽤 인기있는 음식이 됐다. 지금은 예전만한 영화를 찾기 힘들지만 나주 구진포의 장어요리도 이 시기에 등장한 음식이었다. 구진포는 나

■ 1952년 여름, 어느날 총장로 풍경
모두가 궁핍한 시절이었으나 일본인들이 떠난 거리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경모



정해복집
이제만은 지금도 직접 복을 손질하고 있다.

중에 자동차 이용이 많아지던 시절의 얘기고, 1950년대에는 아직 그곳까지 갈 형편이 되지 못한 광주사람들은 중앙시장 골목에서 장어요리를 즐겼다.

이 시기에 시장에는 이름난 일식집이 몇 군데 있었다. 일제 때부터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김영호(金榮浩)가 도쿄야(東京屋)라는 일식집을 운영했다. 이 집의 음식 가운데 오야코돈부리, 즉 닭고기덮밥은 일제 때도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보다 더 맛이 낫다는 평을 받았다.

해방 후에 부상한 일식집으로는 초우(草宇)가 있었다. 초우의 안주인은 해방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귀국했는데 이 때문에 '상하이마담'으로 불리곤 했다. 뛰어난 미모와 능란한 경영수완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우의 조리사 김재호(金在浩)의 특출한 요리솜씨가 있었기에 초우의 명성이 높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재호는 보성군 벌교읍 출신으로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요리를 배웠고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하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해 초우의 조리장으로 있었다. 그의 솜씨는 최고 수준이라 할만 했다. 곧잘 조리대를 사이에 두고 손님과 요리에 관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요리에 대한 그의 식견에 손님들은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예약을 받으면 일본어로 된 곤다데(鞆立)라고 하는 차림표를 백지에다 모필로 써서 오늘은 이런 차림표대로 모시겠다고 제시하고 손님의 의견을 물었다.

이런 태도는 그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요리사 도제생활을 하며 몸에 익힌 결과였다. 이런 도제교육은 어려서부터 선배를 스승 삼아 허드렛일부터 하나씩 익혀 점차 고난도의 요리법을 배워나갔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과 지식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인이라는 자긍심도 익혔다. 김재호도 이런 자긍심이 대단했다.

그는 뒤에 자립해 충장로 3가에 호수미(湖壽美)라는 식당을 차렸는데 물론 맛과 분위기가 단연 광주 최고였다. 그는 돈에 연연하지 않았고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인근 카바레와 요릿집을 돌며 자신만의 여가를 즐기는 멋도 있었다. 해방 후 각별한 기술을 요하는 일본식 복요리를 할 줄 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던 그는 맹독을 지닌 복어의 알을 특별한 기술로 처리해 맛보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내놓기도 했다. 그는 많은 제자들도 길러냈다. 지금은 작고했으나 충장로 1가에서 영업을 했던 미정(味亭)의 정상호(鄭祥浩), 현재 남동에서 청해(淸海)란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이계만(李啓滿) 등이 김재호의 계보에 속하는 요리사들이다.

순가락과 탕

우리에게 젓가락과 순가락은 너무나 익숙하다. 그 중에서도 순가락 없는 밥상은 생각하기 어렵다. 예전과 달리 요즘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다. 그럴 때면 외국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순가락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별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론 우리만 순가락을 쓰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만 가도 음식과 함께 큼직한 순가락이 팔려 나온다. 그런데 우리처럼 개인용이 아니라 쓰임새로 말하자면 우리네 국이나 주걱에 가깝다. 서양의 식탁에도 순가락이 놓이지만 식사시간 중에 몇 번 사용하는 정도다. 우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가락을 쓰지는 않는다.

우리는 왜 순가락을 중시하는 것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식단에서 국·죽·탕처럼 걸쭉하거나 아예 국물로 가득한 음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 까닭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포크로 찌어 먹거나 나이프로 썰어 먹거나 젓가락만으로 집어 먹기는 곤란했다.

한때 이규태는 이런 차이에 대해 서양음식은 물기가 없는 건성인데 반해 한국음식은 온통 물기에 젖은 습성이며, 서양음식은 식어도 먹을 수 있는 냉식冷食인데 비해 한국음식은 식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는 온식溫食에 익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서양과 우리 음식의 차이를 이해한다 해도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만 유독 순가락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를 깔끔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어떻든 우리 음식은 따끈한 국물이 있어야 한다. 손님들을 초대해 산해진미를 가득 차려도 국물이 시원찮으면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초대자도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데치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술을 올리고 국물이 될 만한 음식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국물이 든 음식은 우리 음식의 주인공이다.

우리처럼 다양한 국을 만들어내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김치찌개와 된장국은 기본이고 생선매운탕, 곰탕, 개장국, 설렁탕, 족탕, 꼬리곰탕, 내장탕, 콩국, 콩나물국, 시래기국 등 국에 들어가는 재료만큼이나 그 종류가 많다. 그리고 이런 국이 지배하는 밥상에서 순가락은 없어서는 안될 식사도구였다.

아마도 국과 순가락의 관계는 우리가 시저匙箸, 즉 순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법에

도 은연 중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예전 예법대로라면 대개 국그릇은 밥그릇의 오른쪽에 놓는다. 그리고 젓가락보다 숟가락을 국그릇에 더 가까운 쪽에 놓는다.

이처럼 숟가락을 중시하는 우리네 관습만큼 숟가락에 얽힌 말도 많다. 옛날 거지들은 구걸을 하며 ‘밥 한술만 주시오’라고 했다. 생활 형편이 좀 낫다 싶은 사람은 ‘밥술이나 먹는 사람’이었다. 또 가족구성원의 수는 그 집에 있는 숟가락의 수를 물으면 됐다. 심지어 세상을 뜬 것은 속어로 ‘숟가락을 놓는 것’이었다. 숟가락이 우리 음식문화의 핵심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말들이다.

서민들의 음식들

일제강점기에 역전통驛前通과 양동시장 주변에는 서민들이 값싸게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즐비했다. 당시 이런 식당들에서는 여러 반찬거리를 접시에 담아 늘어놓았고 손님들은 주머니 사정과 입맛에 따라 골라 샀다. 1930년대 중반에 이런 먹거리는 한 접시에 3~5전씩을 받았다. 요즘의 회전초밥집의 음식계산법과 얼추 비슷했다.

이런 식당은 술꾼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미처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화려하지만 값비싼 술상 대신에 이런 음식판매점은 입맛에 맞는 안주만을 골라 먹게 되니 주머니 부담이 적었다. 그래서인지 이런 식당들은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다. 이런 풍경은 1950년대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사라졌다.

사정이 더 녹록치 못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저렴한 해장국집을 찾았다. 아침 일찍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뜨끈뜨끈한 술국에 식은 밥을 말아 먹으면 해장도 되고 아침 요기를 대신하기에도 그만이었다. 그 무렵 광주의 해장국 중에는 콩나물국, 소뽕을 넣고 시래기를 함께 삶아낸 된장국도 있었다. 상당수는 술값만 내면 해장국은 안주 삼아 거저 주기도 했다. 이런 해장국 겸 별미로는 생선탕도 있었다.

그런데 생선탕으로 말하자면 목포 부둣가만한 곳이 없었다. 필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목포에 갈 기회가 간혹 있었다. 그 무렵, 아직 일제강점기인데 목포에서는 어느 식당이건 집 앞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생선국을 끓였다. 음식장사를 그만 두는 날까지 가마솥의 불이 꺼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가마솥에

는 그날 들어온 생선들 가운데 국거리를 골라 무를 썰어 넣고 끓였는데 들어가는 생선은 계절마다 달랐다. 어느 때는 조기, 또 다른 계절에는 준치나 병어가 사용됐다. 이런 생선재료를 거의 고듯이 끓여내는 목포의 생선탕은 깊고 칼칼한 맛이 밥과 함께 먹어도 좋았지만 해장국으로도 최고였던 것 같다.

생선 내장탕의 유래

오늘날 일식집에서 생선 내장탕은 인기 있는 메뉴이다.

그러나 본래 일식집 차림표에는 생선 내장탕이란 것이 없었다. 생선머리와 살이 붙은 뼈, 그리고 다시마를 함께 끓인 뒤에 소금으로 간을 맞춘 지리를 먹는 정도였다. 해방 전에는 우리네 음식점에도 생선 내장탕은 없었다. 그저 생선에 호박, 두부, 썩갓, 미나리 따위를 넣고 쇠기름과 고추장을 풀어서 팔팔 끓인 매운탕을 먹는데 그쳤다.

그런데 해방 후 중앙시장에 밀집한 일식집에서는 회를 뜨거나 전을 만들고 남은 생선머리나 부산물들을 함께 냄비에 넣고 함께 끓인 다음에 고추장을 풀어 얼큰한 맛을 내는 생선 내장탕이 등장했다. 이 탕은 해장국으로 곧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입맛에 중독되듯 사람들이 찾게 되자 어느덧 생선 내장탕은 어느 식당에서나 정식 메뉴로 오르게 됐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장가의 생선가게에서 생선뼈나 내장은 흔했다. 그래서 헐값으로 이들 식재료를 얻어 만들어 낸 덕에 생선 내장탕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꽤 값을 치러야 하는 음식이 됐다. 더구나 수요가 많아 생선 내장을 수입한다는 말을 들으면 광주음식이 세월 따라 참으로 많이 변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1960년대의 술과 먹거리

그리운 뽕뽕집

1960~70년대 광주의 술꾼이면 다 아는 집, 작은 점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집, 바로 광주의 명물 뽕뽕집이다. 이 집은 개업을 하고 30여년 간 김귀례(金貴禮)가 영업을 했는데 뽕뽕집이란 이름은 가게 앞에 작두질을 하듯 손의 힘으로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고 이를 당시에 뽕뽕이라고 부르면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내부가 고작 다섯 평 남짓에 불과한 가게가 왜 이렇게 유명했던 것일까? 사정야야 어떻든 술은 어디서나 다 같다. 그런데 이 집의 안주는 정말 별미였다. 술한 안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래도 늘 이 집의 간판음식이라고 할 몇 가지가 있었다.

바지락국은 시원했고 천어 조림은 진하고 얼큰했다. 붕어조림에 담긴 무쪽은 중독성이 있었고 오이와 새우를 고추냉이에 버무린 이른바 겨자무침은 술기운이 확 날아가게 할 만큼 정신을 들게 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땅콩은 고소했고 생밤과 곁들인 세발낙지도 입에 침을 괴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늘 같은 음식만 내놓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 봄이면 썩국, 늦가을에는 박속무침, 한겨울에는 홍어내장이 곁들인 보릿국이 나왔으니 계절의 변화를 이 집에 와 보는 것만으로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들 음식은 맛도 좋았을 뿐 아니라 메뉴도 색달랐다. 세발낙지는 이전부터 목포



■ 금남로의 뽕뽕집
금남로가 넓어지고 지하도가 생겼을 때도 뽕뽕집과 아주머니의 솜씨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 뽕뽕집은 아쉽게도 사라졌다.

인근 남해안 등지에서는 익히 알려진 음식이었지만 당시 광주에서는 생소했다. 그런데 이를 광주에 처음 선보인 집이 뽀뿌집이었다. 세발낙지의 광주 원조집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 집의 영향을 받아 이후 황금동과 불로동 일대에서 번창한 스탠드바에서도 떠나없이 계절이 돌아오면 세발낙지를 내놓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어디 이뿐이라. 30여년 동안 뽀뿌집 주변은 마치 광주의 현대사를 보여주듯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남로는 1920~30년대에 처음 개설됐을 때보다 크게 넓혀졌다. 오래 전 광주읍성의 북쪽 성벽을 따라 늘어선 점포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지금의 중앙로가 생겼다. 금남로 확장 때는 수백년동안 그 길을 지키던 큰 버드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졌고 밑으로는 지하보도가 뚫렸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루걸러 하나씩 정종집, 양주집, 맥주홀이 생겼다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뽀뿌집의 따끈한 정종과 감칠맛이 나는 안주는 변함이 없었다. 30여년동안 좁은 주방을 지키며 수수하고 온화한 미소를 거둔 일이 없던 김귀례 아주머니도 변함이 없었다.

운 좋게 필자도 이 집의 단골이었다. 객지에서 손님이나 벗이 광주에 오면 예외 없이 그들과 뽀뿌집을 들렀다. 그리고 뽀뿌집에 얽힌 술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내심 뽀뿌집이 있어 자랑스러웠다. 물론 지금 뽀뿌집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겨울이 오면 가게가 문을 닫기 전에 선보인 홍어탕이 그림다.

황금동의 스탠드바

한때 광주의 대표적인 식당가이자 유흥가로 꼽히던 황금동과 불로동 일대는 원래 20세기 초엽 광주에 발을 내딛던 일본인들이 맨 먼저 여관, 음식점, 유곽 등을 세운 곳이었다. 강점 직전에 일제는 이 일대에 흥등가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영업을 했다. 이후 제법 유명한 기루妓樓, 즉 유곽이 번성했는데 마츠다마로 松玉樓, 다카후쿠로 高福樓, 츠루노야 鶴乃家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집이었고, 서봉루 瑞鳳樓·서흥루 瑞興樓·한성루 漢城樓는 조선인이 운영하던 대표적 유곽이었다.

그런데 필자 세대에게는 이들 기루보다 그 뒤에 생겨난 주점들에 대한 추억이 많다. 특히 1950년대 말엽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성행한 스탠드바는 단순히 술잔을 기울이는 장소만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다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꼬막 안주에 막걸리를 들이키는 것이 음주 풍속의 대부분이었다. 더러 지금의 폭탄주와 비슷한 것으로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일명 ‘막소’ 또는 각테일처럼 막걸리와 사이다를 혼합해 마시는 ‘막사이’가 있을 정도였다.

이런 음주 풍속이 조금 바뀐 것은 1950년대 말엽이었다. 황금동 일대에는 하나 둘 씩 이른바 정종집이 들어섰고 비교적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물 쓰듯 하기는 어려운 월급쟁이들이 주로 찾았다. 이들 정종집을 ‘스탠드바’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길쭉한 테이블을 경계로 술집주인과 마주보며 술잔을 기울이던 구조 때문이었다.

이들 스탠드바가 정종집과 거의 동의어처럼 불렸는데 당시 이런 주점에 들러 으레 마시던 술이 정종인 까닭이었다. 그런데 정종(正宗)은 원래 일본청주인 사케의 수많은 상품 중 하나였다. 그것도 엄밀하게는 상품명이었다. 그런데 일제 때 국내에 워낙 널리 판매된 탓인지 청주의 대명사가 됐다.

스탠드바가 처음 광주에 등장한 것은 1955년이었다. 총장로 3가의 예전 광주금융조합 옆에 콩집이란 상호로 문을 연 것이 효시였다. 그 자리는 나중에 술한 점포들이 들어섰다가 문을 닫았고 필자 세대에게는 김만복이 경영하던 송도식당(松都食堂) 자리로 알려져 있다.

콩집의 주인은 ‘다이내’라는 예명으로 불렸다. 송도식당 건물의 한쪽에 세들어 장사를 했는데 볏은 콩을 안주로 정종을 한 홉씩 팔았다. 이 집은 곧 색다른 술 판매 방식과 분위기 그리고 싼 가격 탓에 인기를 끌었고 입소문을 타 세칭 콜박스라 부르는 황금동 네거리를 중심으로 유사한 주점들이 문을 열었다. 이렇게 스탠드바가 늘자 각 주점은 손님들의 조안을 받아 안주가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두부나 마른 명태로 시작하던 나중에는 주점마다 경쟁적으로 독특하고 고급스런 안주를 만들어 냈다. 결국에는 웬만한 고급 요릿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안주가 푸짐하게 나왔고 이런 현상이 광주 밖으로 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꽤나 유명해졌다.

삼학과 보해

술꾼들은 황금동 스탠드바에서 철따라 나오는 안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안주의 다양성은 뽕뽕집의 유형과 비슷한 것



■ 보해 금천표와 삼학 대양표
 이들 제품은 70년대 초까지 전국 주류시장을 석권했다.

이라 할 수 있다.

이른 봄의 산나물과 죽국에서부터 초여름의 영광굴비, 죽순나물, 여름철의 싱싱한 은어회, 가을철의 산낙지, 송이버섯, 늦겨울의 코를 톡 쏘는 홍어애를 넣어 끓인 보리국에 때때로 갈비와 애저에 이르기까지 마담들의 솜씨 자랑이 대단했다.

황금동의 정종집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된 데는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목포의 삼학三鶴과 보해寶海 양조장의 영향 때문이었다. 두 양조장은 경쟁적으로 점포를 늘려 나갔다. 얼굴이 반반하고 신용과 수완, 인기가 있는 마담이 있으면 설사 가진 자본이 없더라도 점포를 얻어주고 개업을 하게 했다. 후에 영업성적에 따라 원금을 회수하는 영업전략을 사용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주점으로는 김옥자金玉子의 곰집, 정복심鄭福心의 봉집, 정순임鄭順任의 불로, 장애순張愛順의 스왈로, 송종애宋種愛의 송집, 오윤임吳允任의 칸베라, 노영순盧榮順의 종집, 김경애金京愛의 남창집, 송순애宋順愛의 보금자리, 박운화朴允和의 가고파, 김귀업金貴業의 황금집, 조금자趙錦子의 금자집, 그리고 술, 벳, 오고파 등이 있었다. 이런 스탠드바들이 이 거리를 중심으로 대략 80여 군데 있었다.

“60년대 정종 입주집 시절의 황금동 거리는 참으로 풍류가 있었다”고 당시 정종 입주집 출입이 잦았던 원로들은 회고하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던 시기여서 모두가 가난했지만 황금동 거리는 ‘마음의 풍요’가 넘실거렸다.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그곳에는 술 사줄 선배가 있었고 조용히 술값을 치러주고 나가는 후배가 있었다. 외상술도 그렇게 인색한 것만은 아니었다.

퇴폐가 난무하는 거리도 아니었고 문화인을 자처하는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저녁이면 끼리끼리 모이는 대화의 광장이었다. 황금동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화이트컬러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기 돈 내고 고급 요릿집에 갈 형편이 못 되었던 교수, 공무원, 은행원, 화가, 문인, 언론인들이 주된 손님이었다. 화이트컬러들 사이에서는 음식 솜씨 좋고 외상 관리 잘 하는 마담이 인기였다.

외상을 거절하면서도 손님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것이 이른바 일류 마담이었다. 당시 외상만 깔고 다니던 한 호주가 하루는 단골 주점에 들어섰다. 그 주점의 여주인은 싫은 내색 없이 정중 한 주전자를 내놓았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외상은 없던 것으로 하겠소’ 하면서 손님 앞에서 장부를 그어버리고 ‘앞으로 술 살 사람



■ 황금동의 어느 스탠드바의 풍경

이 나서거들랑 좀 데려오라'고 했다. 적잖은 외상을 포기한 배짱도 배짱이지만 손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한 사례라 하겠다. 당시의 여주인은 이렇게 '여깎'의 풍모와 의리를 지니고 있었다. 손님과의 교분에서도 그렇고 같은 업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였다.

단골손님들의 애경사는 빠짐없이 찾았으며 전근이라도 갈라치면 와이셔츠 한 벌이라도 꼭 사들고 와서 배웅했다. 자기 집에서 일어난 시비나 사건은 반드시 주인이 해결했다.

마담들끼리는 언니·동생으로 친동기간처럼 서로 돕고 지냈으며 옆집 마담이 와서 손님과 어울려 한잔 하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당시 황금동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던 '영산홍'마담이 죽었을 때 스탠드바의 마담들이 모두 소복을 하고 나가 장례를 치러주는 의리를 보이기도 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손님이 깡패와 시비 끝에 멱살을 잡혀 거리로 끌려나가자 삼시간에 인근 마담들이 달려 나와 뜯어 말리고 손님 주위를 에워싸 버렸다. 깡패가 마담들에게 주먹질을 해대도 그녀들은 끝내 그 손님을 보호했다. 분이 안 풀린 깡패가 술집 기물을 다 때려 부셨지만 그 집 마담은 손님에게 단 한 푼도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 무렵 손님들의 음주 패턴은 한집에서 죽치고 앉아 마시는 법이 드물었다. 3~4차까지 이집 저집을 순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다 보면 '술패거리'들끼리 하루 저녁에도 몇 차례씩 마주치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어? 먼저 왔네' 하고선 다시 술판이 벌어졌다. 말하자면 당시의 황금동 출입객들은 어느 특정 주점 손님이 아니라 '황금동 손님'이었다. 그만큼 당시의 황금동은 주객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골들이 선호하는 취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때도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인, 언론계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주점들이 대강 분류되어 있었다.

직접 찾아가 부탁하기는 조금 껌연쩍은 일 같은 것은 황금동 주점가에서 쉽게 해결을 보는 경우도 많았다. 그 당시의 주객들은 거의 셈을 헤아리지 않고 술을 마시는 호걸풍이었고 주인 마담들도 외상을 다 갚으려 들면 오히려 조금 남겨 두어야 또 올 것이어나는 여유를 보였다.

음팍집

그러나 1970년대 초엽 삼학주조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황금동의 스탠드바도 같이 퇴조하기 시작했다. 자금난에 봉착한 삼학주조가 시중에 깔아놓은 외상값을 급히 회수했던 것이다.

스탠드바의 퇴조에는 다른 배경도 작용했다. 이 무렵 술의 소비는 청주에서 소주와 맥주로 옮겨가고 있었고 일식집이 등장하면서 다채로운 안주를 내놓아 스탠드바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럴 즈음 등장한 것이 ‘음팍집’이었다. 하나둘 이른바 색시를 둔 술집이 생겼으며 홀에는 등받이가 달린 의자를 놓았고 바깥에는 붉은 간판을 내걸었다.

이런 색다른 분위기에 끌려 손님들이 음팍집에 몰렸고 황금동은 전염병처럼 ‘붉은 등’이 번졌다. 그리하여 19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 붐을 타고 1960년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또 한번의 전성기를 맞았다. 광주 술집 풍경의 이러한 변천을 이강재 李康載는 저서 「사랑하기에 걱정일레라」에 소개한 바 있다.

50년대에는 맥주가 참 고급술이었다. 명색 요정이란 텔 가도 술은 그것인데 마시는 품이 지금 생각하면 꼴불견이다. 척 들어서면 저고리야 각시들이 받아 걸지만 손님은 바지를 홀랑 벗고 앉는다. 그렇다고 팬티바람 하는 건 아니고 속바지 차림인데 그때는 신사 체면이면 꼭 속바지를 받쳐 입었다.

술상이 나오기 이전 발을 담그는 양대야가 들어오고 이윽고 상을 날라 오는데 한가운데 물이 가득 채워진 반대기가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술을 잘 해도 반대기의 용처를 모르면 촌놈이 된다. 각시들이 ‘나미나미’ 술잔이 넘칠 정도 따라준 맥주를 드음 들이키고 나신 잔을 거꾸로 반대기에 쳐 박았다가 껌싸게 위로 치켜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바닥에 납았던 거품이 말짱히 씻겨지고 그 잔을 선뜻 내밀어 상대에게 권하곤 했다.

60년대 초두 어둡고 불안하던 계절. 정말 막걸리를 고래처럼 퍼마시고 우울을 달궜던 것 같다. 이 무렵엔 전 동방극장 훗날 무동극장 근처의 회평집이 유명했는데 흥어와 배추 무친 것을 산처럼 고풍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전남매일신문을 창간한 김일로 사장도 해거름이면 어김없이 여기에 나타나 술잔을 기울이고 파이프 담배연기를 뿜어대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60년대 막바지에 가서 '도리스 위스키'의 깜박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이것이 '스탠드' 스타일을 본뜬 것이라 생각되는데 목로판에 정체불명의 양주를 따라 놓고 훌쩍겨렸다. 기막힐 사실은 안주가 단 한가지 볶은 콩 뿐이다. 그러니까 훌쩍 와자작을 연신 계속 하는데 이것이 많은 주객들의 창자를 망쳐놓았을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용케 배겨났다고 여겨진다.

70년대의 화려한 성장기를 황금동 일대의 '스탠드'에서 보냈다. 사이다병에 청주 이른바 정종을 채워 내는데 밤마다 몇 병씩이나 마셨던고 -

유명한 집이론 '곰', '봉', '불로', '스왈로' 등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너살스럽던 '마담'들은 무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광주의 한때 한 귀빈들이 서슴없이 들어서던 술집인데 이제는 많이들 은퇴해서 모습을 찾을 길 없다.

70년대 후반부터 짐작은 '스탠드'는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웬만한 사람이면 행감 치는 방식집으로 떠났고 술도 청주는 그 왕좌를 '위스키'에게 양보하게 된다. 그런데 묘한 것은 황금동 일대에 들어선 신판 스탠드의 알량한 모양들이다. 문자 그대로 즐비하게 들어선 정방형 상자 속에서는 빨강·파랑의 조명이 요기를 감돌게 한다. 어디서 모였는지 무서운 밤의 여인들이 손님을 꼬시고 -

■ 향토음식

청미장

한국전쟁 직후 황금동의 제일극장현 롯데시네마 총장점 뒷 골목의 초가집에서 개업한 청미장淸味莊의 한정식은 광주가 자랑할 만한 격조 높은 음식이었다. 청미장을 차린 주인의 이름은 이옥경이었는데 흔히 이여사라 부르곤 했다. 이여사는 전남 상류사회의 요리솜씨를 대표할 만한 수준이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이여사는 미식가요 식도락가로 널리 알려진 무송 현준호의 생질녀이며 해방 후에 전남도시제사공장을 경영한 이시복李時馥과 은행가 이상복李尙馥과는 남매간이었다. 따라서 이여사는 외가와 친가 그리고 시댁에서 배운 솜씨로 양반 지주들의 전통적인 모듬 요리라 할 수 있는 밥상과 술상을 겸한 교자상을 한정식 메뉴로 선보여 광주의 명물로 만들었다. 특히 전남 연해안에서 나는 질 좋은 해산물을 주원료를 한 요리로 특히 젓갈이 유명했다.

뒤에 손진옥孫珍玉이 인수하여 오랫동안 경영했으나 요리의 수준은 전만 못했다. 이 식당은 얼마 후에 폐업하고 지금은 그 자리에 빌딩이 들어섰다.

청미장이 한정식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자 광주에는 다양하고 푸짐한 요리와 깔끔한 솜씨를 자랑하는 많은 한정식집이 들어서게 되어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새삼 확인하게 해줬다. 전국의 향토미각을 순례했던 소설가 홍성유洪性裕가 <주간



■ 청미장이 있었던 자리

조선) 1991년 8월 18일자에 소개한 한정식에 대한 기사를 옮겨보기로 한다.

광주에 한한 일은 아니지만 호남지방엘 가면 비록 허름한 음식점에 들러 백반 한상을 청해도 반찬 가지 수가 너무나 많아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대개의 경우 맛까지 깔끔한 것이다. 하물며 소문난 한정식 전문집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겠다.

광주 중심가에 있는 Y식당은 광주의 많은 한정식 전문집 가운데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별미집이었다.

한상에 올라오는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히 교자상 다리가 휠 정도라는 표현이 무색치 않다. 그 맛을 고루 맛보려면 허리띠를 풀어놓고 느긋하게 대들어야 할 것이다. 전라도가 자랑하는 밀반찬인 갖가지 젓갈류와 김치류 갖가지, 고들빼기김치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를 위시해서 육류며 생선류 등 온갖 산해진미가 지나치리 만큼 푸짐하다. 그 어느 것을 입에 대도 입에 맞는 깔끔한 맛의 전라도 향토음식이다.

그 맛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례로 물김치를 들면 산악지대에서 난 배추를 엄선하고 국물은 바닷게와 왕새우를 넣고 끓인 것에 배·사과·젓·미나리를 넣고 담가 여름 내내 독에 넣고 묻어 둔 것을 꺼내 내놓았다.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처럼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니 그 맛이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집을 소개한 다음, 잘 아는 식도락으로 유명한 어느 노부부가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집의 점심만 먹고 돌아왔다며 과연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식도락을 자처하는 인사로서 만약 이러한 음식을 맛보지 않았다면 큰소리 칠 일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한정식의 대모 주정순

최고급 전통 한정식의 차림상을 교자상이라고 한다. 술상과 밥상을 겸한 모듬 요리라고 할 수 있는 교자상이 해방 후, 광주에서 최초로 식당메뉴로 개발한 것은 청미장이었고 이것을 한층 격조 높인 곳이 장원(莊園)이었다.

장원의 사장인 주정순(朱貞順)은 일명 계향(桂香)이라고도 했는데 광주 출신으로 1953년 구시청 사거리에서 광주천으로 내려오는 길가에 문을 열었다. 당시부터 상호는 장원이었다. 장원은 주정순의 뛰어난 음식솜씨와 영업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 령다보니 서울에 이런 점포를 차리더라도 성업을 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

에 1958년 서울 청진동에 요릿집을 냈는데 상호는 광주에서와 같이 장원이라 했다.

이 무렵 서울에는 청운각, 오진암, 대원각 등 쟁쟁한 요릿집이 많았다. 이후에도 삼청각 같은 유명한 요릿집들이 더 생겨났다. 그럼에도 주정순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요릿집을 경영해 인근 한옥 10여 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1976년에는 3층짜리 별관을 짓는 등 요릿집 규모를 꾸준히 키웠다.

주정순은 음식뿐 아니라 독특한 영업기법으로도 유명했다. 요릿집 내부는 미로 같은 통로로 이어져 집안에서 손님들이 불필요하게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종업원 관리가 철저하여 손님들의 대화가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엄격함 때문에 주정순은 MP, 즉 헌병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장원은 수많은 한정식 요릿집을 배출한 곳이기도 했다. 주정순에게서 일을 배운 사람들이 이후 향원·수정·미당·두마·목련 등을 차렸는데 일추 그 수는 10여곳에 이르렀다.

장원은 유명인사들을 단골로 모신 요릿집이기도 했다. 장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수성 등 정계인사는 물론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등 재계인사의 발걸음도 잦았다.

그러나 장원의 운영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옮기고 세종로의 정부청사도 그 일부가 과천으로 이전했으며, 이른바 요정을 대신해 룸살롱이 새로 등장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1987년에는 금융거래를 해 온 신용금고가 도산하면서 장원이 담보로 맡겨놓은 땅이 은행에 압류당하기도 했다. 결국 장원은 그 무렵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에 장원 또는 향원 등으로 재기를 했으나 그때는 주정순도 거의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난 상황이었다.

주정순은 2007년 별세했다. 유족은 그의 부음을 알리지 않았으나 오랜 명성을 얻은 터라 별세 소식은 금세 시중에 알려졌고 장례식장에는 예전 장원을 출입했던 명사들의 조화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광주의 명물 애저

이 고장을 찾는 손님들이 광주의 대표적인 음식을 물으면 한참 망설여질 때가 있다. 애저라고도 하고 혹은 추어탕이라고도 하고 근래에 와

서는 무등산 닭죽이나 송산교(松山橋) 일대의 용봉탕이라고도 한다.

원래 토속음식은 재료가 그 지방에 한정되어 있고 사람의 솜씨에 의해서만 발전되어 온 그 지방 특유의 음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수송수단의 발달로 재료나 음식의 전국적인 운송이 가능해져 특산 토속음식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 애저만은 특산물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애저는 이 고장 상류사회의 여름철 보신용으로 토종돼지 새끼로 제 맛을 냈으나 요즈음은 양돼지가 들어와 맛이 반감되었다. 이 고장 상류사회에서 애저가 대중화 된 것은 일제시대 구역전통대인동의 구서방네 집에서 비롯되었다. 해방 후에는 상호를 성북관으로 바꾸어 영업을 했고 이 밖에도 일성관(日盛館) 금남로 5가, 은하관(銀河館) 황금동 등의 전문집이 생겼다. 애저는 본래 온마리 또는 반마리 단위로 팔았는데 한국전쟁 후에는 이것을 나누어 날그릇으로 1인분씩 팔기도 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곳에서 애저를 취급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그런대로 명맥을 이어온 집은 포식당(태의동)이었다. 금남빌딩 뒤편에 있었던 이 식당은 광주에서는 드물게 50년 가까이 꾸준히 식당을 경영했다. 포식당 주인 박정지의 상호는 그 주인의 별명인 ‘또순이’에서 연유했다.

1960년대에 도금봉이 주연한 ‘또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박정지의 억척스러우면서도 시원하고 분명한 성깔이 주인공인 또순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에게는 변함없이 구수한 남도창의 멋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꾸밈이 없고 허물없는 인정이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줬다. 한때 반짝 손님을 끌다가 권리금이나 받아먹고 어느새 자취를 감추는 식당들이 부지기수인데 ‘포식당’은 짧지 않은 전통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식당을 경영했다.

여기 참고로 애저의 요리법과 애저요리의 풍미를 돋우는 것들을 소개한다.

태어난 지 한 달 미만의 젓먹이 돼지를 뜨거운 물에 튀겨서 털을 벗기고 내장을 처리한 뒤 깨끗이 씻는다. 재래식 된장을 약간 푼 국물에 애저를 넣고 생강·마늘·밤대추·인삼·녹각 등을 넣고 푹 삶아서 건져낸다. 손으로 찢어서 갖은 양념을 한 초간장에 찍어먹는데 여기에는 토하젓·갯잎·마늘·갯김치 따위를 곁들여야 제맛이 난다.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는 그 국물로 쌀죽을 쑤는데 마늘과 목은 갯잎 절임을 썰어 넣고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 먹는다.



■ 포식당 애저

애저의 맛은 알맞은 된장국물과 삶는 시간, 각종 양념의 배합 여하에 좌우된다. 먹을 때도 손으로 찢어야지 칼을 대서는 안 되고 냉동이 아닌 바로 잡은 것이라야 제 맛이 났다.

한 마리에 네댓 명까지 먹을 수 있지만 일제 때 광주 체육의 선각자요 보이스카우트 창설자인 김후옥은 젊은 날 혼자 한 마리를 거뜬히 먹기도 했다.

애저는 또 삶아서 먹는 방법 외에 찜으로 해 먹기도 한다. 시루에다 찌는데 삶은 것보다 훨씬 기름지고 맛이 좋다. 또 삶아서 먹는 경우에도 삶은 애저를 미리 건져서 걸어 두었다가 물기가 빠진 뒤에 마른 고기로 먹는 것도 맛이 좋다. 옛날에는 내장까지 깨끗이 처리해 먹기도 했다.

흔히 여름철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들 하지만 광주에서는 돼지 냄새가 나지 않고 또 지방질이 적으면서도 고기가 부드러운 애저 요리를 계절과 관계없이 보양식품의 으뜸으로 꼽았다. 특히 여름을 타는 허약한 사람이 먹고 나면 바로 기력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고급 보양식으로 친다.

토하젓과 갓김치

애저 요리를 즐기는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토하젓이다.

토하젓은 돼지와 상극이어서 돼지가 먹으면 바로 죽는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애저에 토하젓을 곁들여 먹으면 탈 없이 소화가 잘된다. 특히 토하젓은 독특한 향취를 가지고 있어 전남지방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젓갈이다.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잡히는 민물새우 젓갈인데 원래는 논밭의 도랑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도랑새우라고도 했으나 이제는 농약으로 귀한 것이 되었다. 젓을 담을 때는 새우를 잘 씻어 흠냄새를 뺀 다음 물기 없이 소금에 절여서 한 달 이상 밀봉해 두었다가 갖은 양념을 해서 먹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찹쌀 죽과 3:1의 비율로 버물러서 4~5일간 푹 삭게 한 뒤 이것을 갈아 갖은 양념을 했고 곱삭을수록 토하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이 지방에서는 나주군 왕곡면의 토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쳤다. 왕곡면은 오래전부터 생강 재배의 주산 단지로 생강밭 도랑에서 자란 토하는 젓갈로 담아도 생강의 향기가 스며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생강재배도 줄어들어 이런 토하를 맛보

기 힘든 형편이다. 토하젓을 일명 소화젓이라고 한다. 소화가 잘된다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가을철에 햇무를 채로 썰어서 버무리는 '생채토하젓'은 가을철 미각의 으뜸으로 쳤다. 그래서 이 지방 속담에 살기가 좋아진 사람이나 집안을 가리켜 '햅쌀밥에 토하젓 먹을 만한 형편이 되었다'고 말한다.

애저와 뿔 수 없는 것으로 갓김치가 있다. 애저와 함께 갓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갓의 독특한 맛과 향기가 식욕을 돋군다. 갓은 여수의 돌산 갓을 가장 좋은 것으로 치는데 갓 잎이 크면서도 부드럽고 향이 짙기 때문이다. 갓김치는 찹쌀죽에 멸치젓과 온갖 양념을 버무려 파와 함께 담궈 익은 뒤에 먹으면 코끝이 짜릿하고 매콤한 향토미각을 느낄 수 있다.

■ 광주의 전통차

우리 차 운동의 중심지 광주

해방 후 무등산의 춘설헌은 가히 다인(茶人)의 메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다인치고 춘설헌을 다녀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춘설차로 차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천고에 무등산이 수박으로 유명터니
홀연히 증심춘설(證心春雪) 새로 고개 쳐들었네
이 백성 흐린 정신 형형히 밝혀주소서.

이 시조는 최남선(崔南善)이 지은 것으로 1966년 필자가 「전남의 관광자원」이란 책을 출판할 때, 동백꽃을 주제로 하는 표지화를 얻기 위해 소송 김정현(小松金正炫)을 찾아가 구술을 받아 적은 것이다. 그때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던 시였다. 원래 최남선이 춘설헌에 헌정한 시였는데 「전남의 관광자원」에 처음 소개되면서 빛을 본 셈이었다.

춘설헌의 삼애다원(三愛茶園) 차밭은 예부터 이곳 증심사에서 공양을 위해 가꾸어 온 것이다. 1911년 최상진(당시 광주 변장)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일본인 오사키(尾崎市三)가 매수하여 다원을 확장했다. 이 후 가공시설을 갖추어 '무도오노 사도(無等の里)'라는 상표로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각지로 수출해 꽤 재미를 봤다.

해방 후 의재 허백련이 이 다원을 인수했으며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 초순부터 잎을 채집해 가마솥에 덖으며 손으로 비벼 가공했다. 의재는 처음에 하도롱 일제 때의 포장용 다갈색종이 봉투에 포장을 했으나 후에 깡통에 담아 ‘춘설春雪’이라는 상표를 넣어 ‘일구춘설승제호一畝春雪勝醍醐’란 시구를 석판 인쇄해 부착했다.

지금도 무등산 춘설현의 삼애다원에서는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춘설차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다원 조성과 아울러 우수한 차를 생산해 전통차가 대중화되고 있다. 춘설현을 내왕한 우리나라의 오래된 다인들은 춘설차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다향茶鄉의 성지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춘설현과 필자

필자는 일제 때부터 더러 우리 차를 마셔보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차 생활을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부터다. 전란 중의 광주 거리에는 성냥, 비누, 칫솔, 치약까지 외래 물자가 범람하고 일상적으로 마시는 차도 커피, 홍차 말고 따로 우리 전통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그 무렵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일하게 된 필자는 의재의 아들 허광득許光得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여서 삼애다원과 춘설현을 내왕하게 되었다. 이것이 연고가 되어 우리 차를 알게 되었고 또 마시는 법도를 익히게 되었다.

광복 후 이처럼 우리 전통차가 명맥이나마 이어 온 데는 의재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해방되던 해인 1945년 오방 최홍중 목사가 은거하던 무등산 기슭의 ‘오방정’에 기거하면서 일본사람이 재배하던 다원茶園을 가꾸었다. 그것이 삼애다원으로 의재는 이곳에 최홍중 목사와 광주농업기술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농촌 지도자 양성에 나서는 한편, 차를 직접 가공했고 오방정을 춘설현春雪軒으로 고쳐 화실로 썼다.

필자가 춘설현으로 선생을 찾아볼 때마다 화선지와 붓을 밀어 놓고 손수 차를 끓여 내놓으셨다. 선생님은 번거로운 다도의 예를 갖추는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끓이는 거동이 어찌나 숙연한지 절로 앗음새를 바로잡곤 했었다.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 차에 관한 것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흡족해 하셨다.



■ 삼에다원

곡우가 다가오면 무등산 기슭의 다원도 푸르름이 더해간다. 아낙들이 삼에다원에서 차를 따고 있다.

그는 또 옛부터 명절에 올리는 제사를 차례 모신다고 했으며, 특히 혼인의식에 있어서 신부가 시가로 돌아오는 날 사당에 폐백과 함께 차를 올리고 신부도 마시는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차의 오미五味 즉 쓰고, 달고, 시고, 맵고, 퉁은 다섯 가지 맛이 바로 인생의 맛이기도 하려니와 이것이 시집살이의 맛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혼례의식의 차례茶禮는 모든 괴로움을 잘 견디겠다는 서약이라고 했다. 차나무는 옮겨 심을 수 없으며 실생實生으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출가하면 다시는 그 가문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것은 남녀의 백년해로를 다짐하는 것이라 했다.



■ **춘설현**
남종화를 개척해 온 의재 허백련이 그 화풍을
전수하며 후학들을 길렀던 곳이다.

옛날에는 결혼에 앞서 봉차封茶를 주고받았다. 이는 양가의 결혼 의사를 분명히 하는 풍속이었다. 또 차나무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속에서 자라며 그 맑은 향기는 한국 여인의 부덕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성이 담긴 차 한 잔으로 이뤄지는 혼인의식이야말로 가장 뜻 깊은 백년해로의 맹서가 아닐 수 없다.

그 무렵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나 집무 시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객용 차도 녹차로 통일되었고 또 귀한 손님들에 대한 선물도 으레 녹차 꾸러미였다. 이는 외래 커피에 대한 우리들의 저항이었으며 또 그들이 고맙게 생각하든 안하든 오로지 내 고장의 특산명물인 전통차를 권하고 싶은 우리들의 정성어린 마음이었다.

다인의 성지 춘설헌

춘설헌을 중심으로 이 지방 다인들의 차 생활이 우리 차 보급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는 1953년에 들어서부터다. 전쟁 후 전남 도청 옆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라남도 상공장려관을 개관했다. 여기에 하드롱지 봉투에 담은 춘설차春雪茶를 출품했다. 이는 전통차 보급을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다. 만일 뜻있는 다인이 있어 해방 이후의 우리 현대다사現代茶史를 적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차 보급에 있어서 이 작은 일들을 기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차 보급을 위한 당신의 작은 노력은 물밑듯이 밀려오는 외래문물들로 말미암아 우리 것을 챙길만한 형편이 못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57년에 전남의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는데 그것이 곧 전남물산공진회全南物産共進會다. 공진회는 국산품 애용시책의 일환으로 개최된 뜻 깊은 행사였다. 따라서 전남지방은 물론 전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소, 돼지 등 축산물에서부터 이 지방의 모든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출품 전시되었다. 행사객 관람객이 연인원 40만명을 기록, 당시로서는 대규모 박람회를 방불케 했다.

공진회는 광주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때 몇몇 뜻있는 인사들과 더불어 이 기회에 대대적인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춘설헌에서 외재 아우인 목재허행면木齋許行冕이 직접 나섰다. 다정茶亭은 아닐지라도 텐트를 쳐 오붓한 찻집茶室을 마련해 아무나 들러 우리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인산인해의 인파에도 불구하고



■ 춘설차 다실
전통차 보급을 위해 무등산 기슭에 세운 다실이다.

이 다실에는 목재와 몇몇 다인 동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초에 큰 기대를 건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전래의 차가 있다는 인식을 준 것 만으로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겠느냐고 자위했지만 모두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쓸쓸하고 허전함을 감추지 못했다.

차의 대중화를 위하여

필자는 어인 50년 넘게 차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유지해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차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되는 것이 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값싸고 정성이 담긴 양질의 우리 차가 생산되기를 바라던 터에 몇몇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 차 생산을 선도하고 있으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값싼 대중차의 생산에는 아직 역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다.

그런데다가 일부 사람들 중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최상급의 차에다 가히 명품이라 할 수 있는 다기를 자랑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차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왜곡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차와 다도는 어떤 특수층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것이어야 한다. 곧 우리 차가 일상적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필자가 바라는 것은 물과 불에 대한 정성, 우려내는 정성 그리고 마음으로 마시는 정성을 갖자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이은상의 전남특산가

1952년 봄 호남신문사에서서는 전남 특산품의 선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임시수도인 부산의 외교구락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때 호남신

문사 사장이던 이은상李殷相이 전남특산가全南特産歌라는 시를 발표했다. 당시 우리 광주 전남의 특산물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것인데 여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아울러 중간에 몇 가지를 덧붙여 설명했다. 이 시를 지은 것이 1950년대 초엽이고 당시에는 큰 명성을 지녔던 것의 상당수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많아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길손이 막대 던져 천리강산 헤매더니
여기가 어디메요 그림 속에 들었구나
무등산 눈얼음이 녹아 풀려 흘러내려
양림천楊林川 구비구비 봄풍악이 요란하다.

넷물을 바라보니 오리떼 물장구질
어느새 저도 몰래 세상 시름 잠깐 잊고
해남 윤고산의 글 솜씨를 잠깐 빌어
노래 한 장 지었건만 부르는 누가 하리

구례 송만갑宋萬甲이 활개 짓고 나타나자
별교 화중선花中仙이 치마 끌며 들어서고
나주 정남희丁南希는 북채를 잡았는데
낙안 오테석吳太石이 가얏고를 안았구나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대의 유명 국악인들이다. 송만갑은 말할 것 없고 별교의 화중선은 이화중선을 말한다. 그 동생 이중선李中仙도 이름난 소리꾼이었다. 특히 이화중선이 유명했던 것은 일본에 가서 레코드 취입을 했던 덕분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창이 됐었기 때문이다.

언덕을 올려보니 백초百草를 두른 속에
 크도 작도 않은 집이 천하운치 도맡았지
 대사립 열고 들어 주인을 찾았더니
 초당草堂 사랑채로 반겨맞아 들이누나
 인사를 바꾸자니 글하는 선비로고
 나주셋골 세목細木으로 위아래를 입었는데
 광양 먹감 은장도를 웃고름에 눈짓 차고
 담양 오죽 담뱃대를 자리앞에 놓았구나

나주 셋골은 지금의 다시면 소재지 일대를 가리킨다. 세목은 가는 실로 짠 무명이다. 다시면은 쌀과 함께 무명으로 유명했는데 세목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섬세함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명맥이 거의 끊겨 전승기술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무명은 조선시대부터 전라도가 대표적 산지였다. 대한제국시절부터 외국산의 공장제 무명, 즉 광목廣木이 수입되고 그 값도 싸서 전통 수공업 제품인 무명은 거의 쇠퇴했다. 1920년대 조선물산장려운동 때 조선인들에게 애용을 권장한 무명도 사실은 조선인 공장에서 만들긴 했어도 이런 광목이었다.

한편 시에 광양 은장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예전에 꽤 고가의 상품이었다. 1950년대 광주상공회의소 건물 내 상공장려관에서는 은장도를 전시하고 판매도 했다. 이 때에 관람자들이 선물용으로 한 두 개씩 사갔다. 상품에 얽힌 이미지가 여성과 관련된 것이라 상당한 인기상품이었다. 당시 광양 은장도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었던 것 같다.

옥매산 돌서랍에 동복초同福草 담겨 있고
 지리산 재떨이에 광주 성냥 놓여있네
 해남 풍류 백옥봉白玉峯의 주련글씨 바라보니
 용의 꼬리 감은듯이 봉의 날개 펼쳤구나

해남 옥매산은 돌로 유명했다. 옥돌은 조선시대부터 조금씩 알려졌다가 일제 때 지질조사를 하면서 그 매장량과 활용가치가 주목을 받았다. 또 이 옥매산에서 난 돌로 만든 돌서랍과 거기에 담는 동북초는 화순군 동북 일대에서 재배한 담배를 말한다. 그리고 해남의 풍류객 백옥봉은 백광훈(白光勳)을 말한다. 그는 글씨로 유명했고 그의 글씨를 받아 주련에 새기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능주 양학포(梁學圃) 목죽그림 붙인 아래
진도 허소치(許小痴) 목화병풍 둘러치고
보성 임옥전(林玉田) 매화그림 붙이러니
동북 송사호(宋砂湖) 나비그림 살았구나

주인에게 다시 일러 집구경을 하자하니
첫말에 선뜻 일어 앞장서며 따라라네
차면(茶) 안을 들어서니 양지바른 남향집이
목포석(木浦石) 다듬어서 주초를 놓았구나

지리산 솔기둥에 백양산 서까래요
조계산 들보 질러 몽탄기와 없었는데
무등산 구들장에 장성 장판 기름 먹여
닭고 쓸고 쓸고 닭아 거울같은 안방이네

위의 여러 시구 가운데 목포석은 응회암을 가리키는 듯하다. 지금의 유달산을 구성하는 암석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목포의 석축물들이 대부분 이 돌을 사용했다. 또 몽탄 기와 운운하는 대목은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대에 있던 여러 기와공장들을 염두에 둔 구절이다. 원래는 벽돌공장으로 시작했는데 중도에 기와공장으로 탈바꿈한 곳이 많았다. 역사적으로 몽탄은 백자와 옹기의 산지로 유명했다.

한편 장성 장판은 비닐 장판이 아니라 기름 먹인 종이를 가리킨다. 비닐 장판이 상용화되기 전에 중류가정은 이런 종이를 방바닥에 깔았다. 장성은 산지에 위치해 닥

나무 재배가 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제 종이를 만드는 곳이 많았다.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태백산맥>의 촬영지로 유명한 장성군 북일면 금곡마을도 원래는 이런 종이생산을 생업으로 삼았던 동네였다.

진상 가던 나주 명물 봉황 새긴 화류장롱
이 분이 그 누관대 이 집으로 들어왔나
보성 벌교 치자물을 곱게 들인 금성주를
지리산 박달나무 홍두깨에 올렸구나

화류장롱은 화류목으로 만든 장롱을 말한다. 화류목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목재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이 화류목이 썼다면 다른 수종을 뜻했을 수 있으나 2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류목이라면 통상적으로 외국산 수종을 의미한다. 아열대 수종이라 목질이 굉장히 단단한데 수목화의 느낌을 주는 무늬가 매우 독특하다.

또 시구에 '보성 벌교 치자물을 곱게 들인 금성주'란 구절이 있는데 금성주란 나주에서 직조한 명주의 별칭이다. 「나주읍지」를 보면, 금성주가 조선시대까지는 많이 직조된 듯한데 20세기에 사실상 전승이 끊긴 듯하다.

선반을 쳐다보니 찬합층층 구레목기
죽석에 바구니를 담양죽기 없혀있고
장흥에도 장평 모시 곡성에도 석곡 삼베
무안 여천 솜뭉치 반달이에 들어있다.

목기는 울창한 수목을 자랑하는 지리산의 목기를 높이 쳤다. 그 산자락에 위치한 구레에서 목기를 많이 만들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오늘날 담양은 대숲으로 유명하고 한때 죽제품 생산과 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청대의 거래로 유명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비록 담양의 부채 제작에 관한 기록이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것이지만 담양을 곧 죽제품의 산지로 널리 인식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20년대 담양에 죽제품 생산과 판매를 전담하는 산업조합이 생긴 결과인데 여기에는 당시 일제가 1군 1산 품육성책을 추진한 영향도 있었다. 특산품이란 것도 그 역사를 쫓다 보면, 이런 저런 역사의 굴곡이 낳은 산물인 경우가 종종 있다.

장흥군 장평모시나 곡성군의 삼베도 담양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유명해졌다. 이런 점에서는 무안의 목화도 비슷한 사례이다. 무안의 옛 이름이 면성(縣城)이었기 때문에 목화재배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을 것이고 또한 성행했을 것이 짐작된다. 사실 이런 논리라면 무안의 목화재배는 문이점이 목화를 들여오기 이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삼국지」의 마한 관련 기록에도 면에 관한 글자가 나오므로 한반도에서 목화재배는 기원 전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무안에서 일제 강점 이전부터 목화재배를 했음에도 목화로 유명했던 것은 일제에 의해 이곳에서 새로운 품종의 목화재배가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무안 남쪽의 목포항이 조면공장의 밀집지 역할을 하였고 목화 반출항으로 육성된 결과이다. 이 은상이 이 시를 지은 1952년에도 무안이나 목포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목화재배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감소했고 목포의 목화 반출항이란 명성도 금새 사그라졌다.

이런 종류의 인식을 대표하는 말이 이른바 ‘3백 2혹 1청’이다. 3백이란 전남의 3대 생산물인 쌀·목화·명주를 말하며 2혹은 화순의 석탄과 완도의 김을 일컬으며, 1청은 담양의 죽제품을 의미한다.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 상품은 조선시대에 모두 유명했던 것이 아니며 대부분 일제 때 거의 강압적인 수준에서 장려되면서 유명세를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본래부터 전남이 3백 2혹 1청의 명산지였던 것이 아니라 일제가 주요 수탈의 표적으로 삼았던 6대 품목이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역사적 이해 없는 지역인식은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하는 것이다.

용문 화문 돛자리는 보성 축내 명물이요
담양 부채 세죽렴細竹簾은 여름철을 기다리고
영암 참빗 얼레빚에 대홍산斗擘山 동백기름
현부인 경대 위에 가지런히 놓였구나

용문석과 화문석은 말 그대로 용무늬와 꽃무늬가 있는나이다. 보성군 축내리의 돛자리는 이런 무늬를 직조 과정에서 만들어 넣는다. 그 가운데 용문석은 청룡과 황룡 두 마리를 넣는다. 원래 용무늬는 왕실의 전유물이었다. 아마도 보성군에서 용무늬를 넣어 돛자리를 직조했던 것은 조선 혹은 대한제국 황실의 요청에 의해서 일 것이다.

어떻든 용문석은 선물용으로, 실내 치장물로 인기가 높았는데 아마도 왕실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도 오랫동안 이 축내리의 용문석을 소장했는데 그 중 한 장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한 적이 있다.

세죽렴은 가는 대오리로 엮어 만든 발을 말한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고 가다듬는 데는 상당한 공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세죽렴 하나를 만드는 데 20~30일 정도가 소요된다. 필자도 이런 세죽렴 하나를 사놓았다가 나중에 역시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뒤올안 장독대엔 화순 광양 오지그릇
완도산 씨암탉이 등주리에 알을 품고
부엌문 열리더니 술상 차려 나오는데
나주 행사반에 갓은 술을 맛보라네

그릇은 음식과 관계된 것이고 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전라도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음식에 대한 긍지는 그릇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됐고 전라도에는 여인들이 장독대를 호사스럽게 치장하는 풍습이 있다는 얘기가 일제 때 나온 잡지들에서 자주 보인다.

한편 나주의 행자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행자반이란 은행나무를 깎아 만든 상으로 이를 통틀어 나주반(羅州盤)이라 했다. 나주는 예로부터 수공업의 중심지였고 나주반 뿐 아니라 여러 이름 있는 수공품들이 많았다. 이는 나주가 원래 큰 고을인데서 비롯된 결과다. 조선시대의 나주는 지금의 신안군의 거의 전역, 무안군과 영암군의 일부, 심지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당부분을 관할했다. 내륙부터 바닷가까지 아우르다보니 산물도 다채롭고 문화수준도 높았다.

강진 소주 취하기로 대합국에 속을 풀고
진도 구기자주 약되라고 또 마시고
광주 매화주를 다시 한잔 기울이며
무안 차돌배기 수육부터 찾는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네 소주는 대개 막걸리를 증류한 술이었다. 전남에서는 언제부턴가 강진군에서 난 소주가 유명했다. 여기에 강진은 바다를 낀 고장이라 대합이나 홍합을 넣고 끓인 국과 해장을 하면 더욱 운치가 있었다.

또 진도 구기자를 원료로 만든 술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지초를 원료로 만든 홍주의 이름이 더 높은 듯하다. 한편 이 시를 짓던 시절을 전후로 하여 광주에서는 매화주가 성행했던 적이 있다. 매화주는 사실 매실로 담은 술이었는데 매화나무가 광주에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잘 자라는 수종이 아니었음에도 한때 집집마다 매화주 담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법성포 굴비 대하 광양 장흥 구운 은어
여수 명물 건어포를 짓가락이 하바뿐이
취토록 마신 후에 일어서자 하였더니
광주 자개상이 저녁 차려 나오누나

화순탄 불을 피워 득량쌀로 밥을 지어
영광 늦그릇에 구실구실 담았는데

비금도 소금 뿌려 광양 김을 구어놓고
진도 미역 끓인 국을 흠뻑거니 마시거니

득량은 보성군 득량면을 말한다. 일제 때 일본인의 주도로 갯벌을 간척해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를 득량평야 혹은 예당평야라고도 한다. 간척지 쌀은 갯벌에 함유된 무기질이 많아서인지 일반적으로 맛이 좋다. 득량쌀의 명성도 여기서 비롯된 듯하다.

비금도는 소금으로 유명하다. 본래 해방 전까지도 우리가 익히 아는 천일염이 전남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닷물을 농축시켜 염도를 높이고 이를 끓여 만드는 이른바 화염^{火鹽}이 일반적인 소금이었다. 그런데 막상 남북분단이 되어 북한산 천일염 공급이 중단되자 서둘러 염전을 만들어 소금 생산을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신안군 비금도다. 전남의 천일염 기술은 계보상 모두 비금도에서 기원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요즘 김이라 하면 완도를 떠올린다. 완도는 김, 미역, 다시마, 전복으로 지금도 유명하다. 이 가운데 김은 일제 때 시작했고 미역 이후의 해산물들은 그 뒤를 이었다. 한국 해조류 양식의 원조가 완도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런데 김은 사실 조선시대에 이미 광양에서 양식이 시작됐다는 설이 있다. 김여익이란 사람이 지금은 광양제철 공장부지로 속해 물과 연결된 태인도에서 갯벌에 나뭇가지를 꽂는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옛 태인도에는 김 양식의 발상지를 기념하는 표지석이 있다.

이런 김은 일제강점 후에 이 땅에 들어온 일본인들에게는 경이로운 해조류였다. 그리고 완도에서 본격적으로 김 양식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예전대로 나뭇가지를 꽂는 방식을 쓰다가 점차 지금과 비슷하게 그물을 바닷물에 드리워 김 포자가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완도에서 생산한 김은 당시 여섯 등급으로 구분됐다. 송·죽·매·동·풍·추가 그것이 다. 앞의 것일수록 상등품이었다. 최상품인 송은 칠흑같이 검고 백지장처럼 얇으면 서도 향기가 진했다. 이들 등급에 든 김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됐다. 당시에는 등외

포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일본에서 조선의 김이 우대받은 이유는 일본의 해안은 파도가 세서 김 양식에 불리한 조건이라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김은 주요 수출품이었다. 대신에 국내에서 김 거래는 줄었다. 시중에 출시된 김은 대개 수출하지 못하는 등외품이었다. 사실 이런 등외품 소비에 익숙해지면서 김의 품질유지에 게을리 한 측면이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이 김 수입을 중단하면서 계속됐다. 수출이 막히자 김의 국내소비가 늘기 시작했는데 품질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영산포 유리그릇 목포 도자기에
우수영 채석^{彩石} 깔아 갖은 회를 놓았는데
남평 잉어, 몽탄 송어, 함평 뱀어, 구례 황어
흑산도 상어, 고래, 홍어, 전복 싱싱하다

나주 동문 미나리를 사이사이 곁들였고
영산포 무우 배추 간직도 잘도 했네
순천 장성 우무얼림 빗깔조차 가지런히
가거도 전호채^{前胡菜}야 처음 보는 별미로고

백양산 송이버섯 제철이 아니겠냐
지리산 표고버섯 백운산 짜리버섯
송광사 백탄불에 볶거니 지지거니
지리산 은행알을 입에 넣고 굴리거니

추자도 멀치젓 나주 함평 토하젓에
고목젓 해삼창자 여수바다 명물이요
이것은 고흥 굴젓 저것은 영암 어란
이 두 가지 맛을 붙여 밥 한 그릇 다 비웠네

무등산 수박 참외 담양 파시 장성 딸기
제철을 기다려서 맛보기로 하거나와
오늘은 곡성 곱감 주먹 같은 보성 밤에
나주 배 아리랑이 거 아니 좋을런가

구례 광양 동복청을 골고루 맛본 후에
상내고 물러앉아 뒷입을 다시는데
무안 고구마로 과자를 만들었고
동복 명물 인삼 전과 씹을수록 맛이난다

우리는 개성인삼의 명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실제 개성인삼은 조선시대 중국에 수출하는 최고의 상품 중 하나였다. 그 인삼을 팔아 우리는 중국산 비단과 책, 약재 등을 사들였다.

그런데 개성인삼은 국민적 상식이 됐지만 동복의 인삼에 대해 전남에서도 아는 이가 드물다. 동복은 현재 화순군에 속한 작은 면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본래는 화순과는 별개인 하나의 독립된 고을이었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이곳은 예로부터 재배를 통해 인삼을 생산한 곳이었다. 일설에는 개성인삼 전에 동복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말대로라면 인삼재배의 시원지는 화순군 동복이 되는 셈이다.

동복은 인삼 외에도 다른 두 가지를 합해 세 가지 명물의 산지이기도 했다. 그 하나는 꿀로 이를 복청이라 했고 다른 하나는 천어로 이를 복천어라 불렀다.

동복의 인삼에 대한 언급 뒤에도 전남특산가는 계속되다가 통일에 대한 바람으로 끝을 맺는다.

무등산 작설차를 곱돌술에 달여내어
초의선사 다법대로 한잔 들어 맛을 보고
또 한잔은 빗갈 보고 다시 한잔 향내 맡고
다도를 듣노라니 밤 깊은 줄 몰랐구나

주인께 하직하고 섬돌 아래 내려서니
난데 없는 진돗개가 경경 짖고 달려드네
장성 갈재 여뀌막대 나주 남평 미투리라
행색이 초라하매 도적인 양 알았구나

이 뒤론 네야 부디 곁만 보고 짓지 말고
길 뻘뻘한 속도적을 바로 가려 짓거라
한번 이르는 말 알아 듣고 잠잠하이
주인이 돌아서자 꼬리치며 들어가네

사립 밖을 벗어나니 하늘에 등실 달이로다
장안을 내려 보며 몇 번이나 비운 말이
이 강산 이 겨레를 모두 이 같이 살고지고
남북강산 툇 터놓고 부디 이같이 살고지고



제4장 체 육



■ 광주 체육의 개척자 김후옥

근대체육의 여명기

근대 체육은 어떤 경로로 광주에 소개됐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육이다. 1896년 광주에는 전남관찰사가 교장을 겸하는 전남소학교(全南小學校)가 광주공원 입구의 왼쪽 언덕에 개설됐다. 이 학교는 광주 전남을 통틀어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근대체육의 도입에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비록 전남소학교의 교과목에 체조과목이 들어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역사 등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남소학교는 우리가 학교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넓은 운동장을 구비할 수도 없었다. 좁다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까닭이었다. 물론 이 학교가 1906년 광주보통학교(중)로서 광주보교로 개편되고 지금의 전일빌딩 자리로 옮긴 뒤에는 약간의 운동장을 갖게 됐다. 그러나 학교 규모에 비해 운동장이 그다지 넓지 않았던 탓에 1920년대에 광주보교는 광주천변으로 나가 운동회를 개최하는 일이 많았다.

광주에 근대체육이 소개된 또다른 계기로는 서양인 선교사나 그들이 운영한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08년 양림동에는 이른바 미션스쿨인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초기에 이들 학교의 교과목에는 체육과목이 따로 있지 않았고 체육이라야 수업 중간의 자투리시간에 달리기 정도를 하는데 그쳤다.

물론 이들 학교를 비롯해 1920년대에 공사립 학교들이 본격적으로 개교를 하면서 정식교과목에 체육이 포함됐고 매년 개최되는 운동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뛰어넘어 지역민의 작은 축제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육이 일반인 사이에서 퍼져 나가는 데는 자못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일제강점기에 광주에는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었다. 유도나 권투 같은 실내체육은 그럭저럭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야외체육을 위한 전용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시내 안팎의 넓은 공터를 운동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광주천의 둔치, 자혜의원 현 전남대병원 자리 동쪽의 공터인 일명 ‘묵은 바탕’, 광산동의 흥학관 앞마당 그리고 192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공사립 학교의 운동장이 이런 야외 체육공간이었다.

광주에 전용 운동장이 생긴 것은 광주읍 시절인 1930년대 초반이었다. 운동장은 양동 삼익맨션 아파트 일대에 있던 도시제사공장 서쪽에 위치했다. 이곳에는 당시 인기 종목이던 야구장을 비롯해 정구장, 육상경기장이 있었다. 광주읍에서 세웠다 하여 공설운동장으로 불렸다.

사실 공설운동장은 히로히토의 즉위를 기념한다는 이른바 어대전(御大典)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그런데 운동장 이용에는 사용료를 내야했고 시내에서 자못 먼 외곽에 위치한 까닭에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체육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김후옥

광주 체육의 개척자로 첫손에 꼽을 만한 인물로는 체육과 사회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 김후옥(金厚玉)을 들 수 있다. 그는 1910년 수기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비교적 부유한 계층에 속했고 일정하게 기독교 영향을 받던 터라 송일학교에 진학했다.

송일학교에서 초등과정을 마친 그는 기독교 계열인 서울의 경신학교에서 중등과정을 마쳤고 다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경신에서 연희전문에 이르는 시절에 그는 당시 체육분야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활동영역을 발견했다. 그는 이 시기에 유도·권투·검도 등을 배웠고 적잖게 두각을 나타냈다.



■ 20대의 김후옥
 그 당시 그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연루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체격도 체육인으로 성장하기에 어울릴 만했다. 해방 후에 결성된 거인구락부(巨人俱樂部)의 회장을 맡을 만큼 그의 키는 6척이 넘었다. 대식가이기도 하여 한 번에 삶은 새끼돼지인 애저 한 마리를 안주 삼아 소주 1.8리터를 거뜬히 마셨다고 한다. 또한 일제 때 유도선수로 이름이 높았고 1990년 한국인 최초로 유도 10단을 인증 받은 석진경(石鎭慶)과도 젊은 시절에 서로 마주 앉아 갈비 한 짝을 거뜬히 먹었다는 얘기도 있으며, 주전부리로 단번에 꿀 한 상자를 먹었다는 일화도 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늘 그렇듯이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의 체구나 활동량 등을 봤다면 결코 지어낸 얘기로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말술을 마다 않는 호주가였지만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다. 후에 그가 활동했던 YMCA나 보이스카우트 활동 중에는 몇 날 며칠이고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또한 거구라는 외모와 달리 인정이 많고 의리를 중시하는 기질 탓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제 때 조선인 주먹의 대명사가 된 김두한이나 엄동호도 그를 형님으로 모셨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뒷날의 얘기다.

송일학교 체육부와 녹성상회

앞서 말한 대로 1920년대 후반에 그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 시기에 경성 YMCA체육부에 출입했고 여기서 유도 등을 배웠다. 그가 유도 3단 자격을 보유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무렵 김후옥도 서울에서 이 운동에 참여했고 이 일로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그가 출옥한



■ 김후옥이 서구 사동에 건립한 광주 최초의 체육 도장 녹성구락부
광주천 금교를 건너 사직공원 초입 오른쪽에 있는 2층 건물

것은 1930년 10월이었다.

이 일로 그는 잠시 서울생활을 접고 광주에 돌아와 모교인 송일학교 강당을 이용해 유도·권투·역도 연습장을 차렸다. 이 무렵 혹은 그보다 조금 뒤의 일일 수도 있으나 그가 송일학교 체육부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불렀다는 노래가 전해지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장쾌하고 용감하다 우리 동모 동무야 / 달기땀 올음 들려온다 깨어 일어나
나가고 나가자 용진 건아야 / 자유롭게 활동하자 우리 동모야

씩씩하고 용감하다 우리 동모야 / 일치단결 용진하자 우리 용사들
나가고 나가자 용진건아야 / 절대 강한 신쇄 伸鐵라도 깨어지리라

이 노래는 원래 경성 YMCA 체육관에서 불리던 노래에 바탕을 두고 같은 곡조에 그가 가사의 일부를 고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광주경찰서 고등계 고코로 이시心石 형사주임은 송일학교 체육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30년은 아직 학생독립운동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부의 특성상 사제간, 같은 회원간의 결속력이 언제나 정치적 성향을 띤 비밀단체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기도 했다.

이에 고코로이시는 송일학교장인 미국인 선교사 김아각D. J. Comming 金亞各에게 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시설을 조선인 체육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시비를 걸었고, 김후옥이 사범 면허도 없이 유도를 지도하는 것은 위법이라 하여 이 체육부를 해산시켰다.

구도심에서 광주천의 금교를 건너 옛 KBS광주방송국이 자리 잡은 사직공원으로 오르는 길의 오른쪽에는 아직 옛 모습을 어렵פות이 간직한 2층 건물이 서 있다. 사동 105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필자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녹성상회綠星商會로 불리던 곳이다. 지금은 간판으로 가려져 있지만 예전 이 건물의 2층 정면에는 둥근 판에 푸른 빛깔의 별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었다.

김후옥이 이곳에 상점을 낸 것은 1931년 중반이었다. 상호도 그렇거니와 건물에 표현됐던 녹성은 1920년대부터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에스페란토어에서 비롯됐다. 에스페란토어에서 초록은 평화를, 별은 희망을 의미했다. 다소 생뚱맞은 로고일 수도 있다 싶지만 이것은 김후옥이 서울생활에서 접한 문화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성상회는 물산장려운동의 영향도 받았다. 그래서 김후옥의 가게에서는 조선인 회사에서 만든 고무신만 팔았는데 그것이 '거북선표' 고무신이였다. 거북선표는 서울 호모공사護謨工社에서 생산하던 고무신의 상표였다. 신발에 새겨진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을 연상시켰다. 당시 조선인 회사에서 생산한 고무신으로는 중앙상공中央商工의 '별표'와 거북선표가 유명했다. 그 가운데 김후옥이 거북선표를 택한 것은 서울생활에서 맺은 인맥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북선표를 만든 서울호모공사의 설립자 장두현은 경성 YMCA의 활동가 중 한 사람이었고 김후옥은 서울 체류 당시에 경성 YMCA체육관을 출입했다.



© 「무등일보 89. 6. 15」

■ 1932년 2월에 건립된 광주 YMCA회관 겸 종합체육관 김후옥은 체육관 건립비로 8백원을 찬조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녹성상회의 부지구입과 건축에는 1만 2천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엔 엄청난 거액이었다. 당시 미국제 고급승용차 두서너 대를 사거나 광주 시내에서 어지간한 점포를 차리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갓 스무 살을 넘긴 김후옥이 이런 거액으로 상점을 차렸던 것이다. 이 거액은 그의 어머니가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김후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녹성상회 개점과 함께 김후옥은 건물 뒤편에 체육관을 차렸다. 여기에 그의 진정한 관심분야인 유도·권투·역도의 연습장을 만들었다. 이 체육관을 찾는 청년들은 곧 150여명으로 불어나 체육관 내부가 비좁게 느껴질 정도였다. 또한 녹성상회 위층에는 사교공간을 꾸려 자기 또래의 젊은 이들이 매일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은 일본경찰의 주목을 받더니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유는 체육관이 떠들썩한 장소인데 이것이 광주신사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체육관은 문을 연지 불과 6개월만인 1931년 12월 성탄절 전후에 폐쇄됐다.

김후옥은 경성 YMCA에서 탄 유도 3단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승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도와 검도는 일본경찰이 심사했고 그들은 강도관講道館 계통의 도장에서 인정한 자격만을 기준으로 사범 자격을 내줬다. 이 무렵 김후옥은 동아일보 편집부국장을 지낸 최원순崔元淳의 권유로 다시 상경해 강도관에서 6개월을 머물며 3단의 자격증과 사범의 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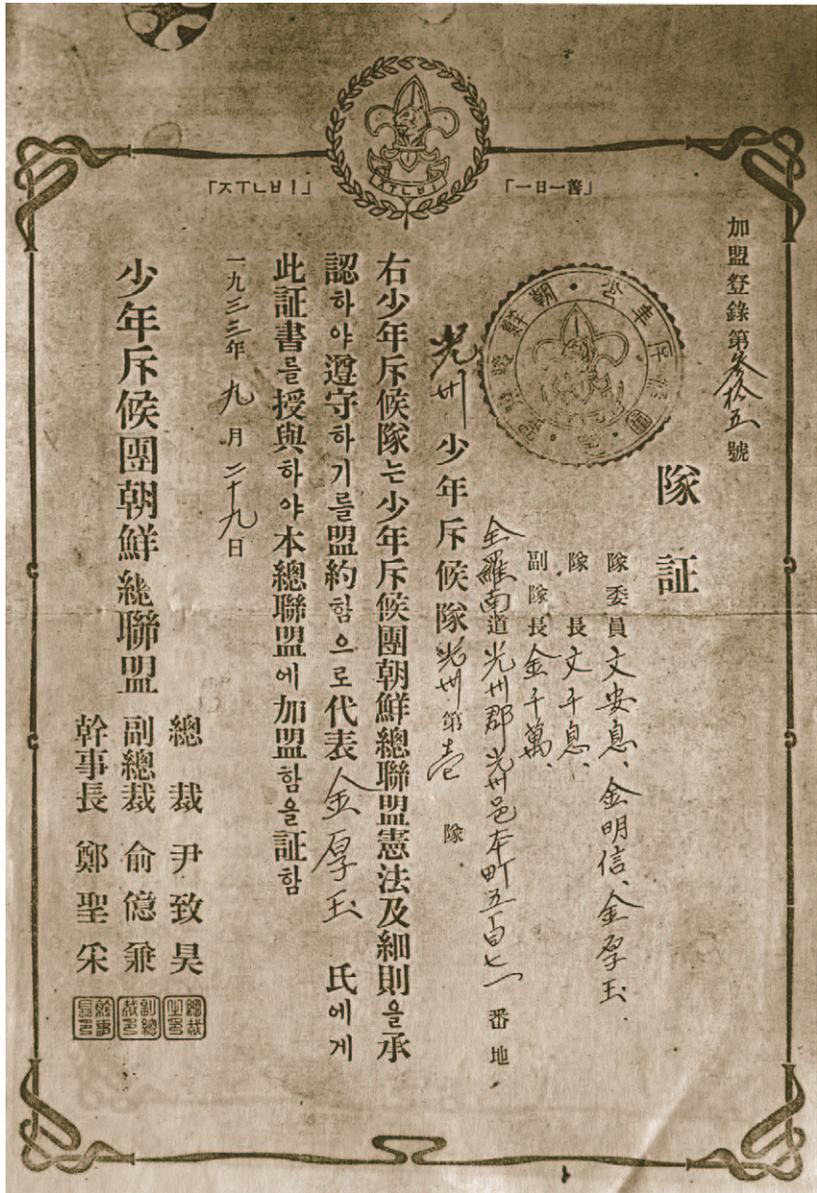
광주 YMCA 체육관

김후옥이 숭일학교 체육부와 녹성상회 일을 그만두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였다. 미국인 선교사 고든 어비슨(Gordon W. Avison, 魚呑信)이 불렀다. 어비슨은 김후옥을 위로하며 광주 YMCA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니 이 시설을 이용해 체육부를 운영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 무렵 광주 YMCA는 지금의 충장로 5가에 있는 광주극장 옆에 건물을 지었다. 원래 이곳은 김용성(金容成) 소유의 정미소 터였다고 하는데 YMCA 측은 부지 400여 평을 마련했다. 이에 필요한 매입자금 4천원은 선교사 어비슨이 부담했고 다시 이 부지를 담보로 호남은행에서 3천2백원을 융자받았으며 모자란 8백원은 김후옥이 찬조했다. 이렇게 하여 1932년 2월에 준공됐고 건물은 체육관을 겸했는데 체육부에는 권투·유도·역도·레슬링 등 4개의 클럽이 있었다.

김후옥은 이곳 체육관의 간사를 맡았으며 사실상 관장과 다름없이 활동하였고 그 산하에 각각의 코치, 즉 사범을 두었다. 권투는 주봉식(朱奉植), 유도는 정인세(鄭寅世)와 김성길(金盛吉), 역도는 강석구(姜錫玖), 레슬링은 박동만(朴東萬)이 맡았으며 회원은 270여 명이었다. 나중에는 이들 네 종목 외에 체조·배구·농구·축구·야구가 체육관을 통해 활성화됐다.

체육관 운영비는 현준호(玄俊鎬), 고광표(高光表), 최남주(崔南周), 손종채(孫鍾彩) 네 사람이 냈는데 그들은 매월 1백원씩을 찬조했다. 이 체육관은 1939년 일제 탄압으로 중단될 때까지 운영됐다.



■ 광주·전남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승인장
 광주 제1대 대표 김후옥에게 윤치호 총재
 가 대증으로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에서 유
 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 조선소년척후대 제1대의 야외훈련(1924년)

광주스카우트의 개편

스카우트는 1920년대 초엽 우리나라에 등장하는데 초기에는 이를 소년군(少年軍) 또는 척후단(斥候團)으로 부르곤 했다. 광주에서도 척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기에 스카우트 단체가 창설됐다. 이 광주척후단은 창설 직후에 전국조직인 '소년척후단 조선총연맹'에 가입했다.

소년척후단 조선총연맹은 원래 조철호 계열과 기독교 계열의 정성채 계열의 스카우트 단체가 1924년에 결합한 조직이었으나 192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잼보리 대회를 거치면서 다시 분열됐다. 광주척후단도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그리하

여 1930년대 초엽에 개편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31년 10월에 출범한 용진소년대(勇進少年隊)였다. 이 소년대도 1933년에 새로 출범한 소년척후단(少年척후團) 조선총연맹에 가입해 두 번째 총연맹에 가입할 즈음 용진소년대의 운영에는 김후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후옥은 용진소년대의 노래를 작사했다. 이 노래의 후렴구인 ‘잊지마세’는 바로 용진소년대의 별명이 됐다. 당시 대원이었고 훗날 보이스카우트 전남연맹 위원장을 역임한 김학준(金學俊)에 따르면 가사의 전체 내용은 이렇다.

십삼도에 맑은 정기 근역(楸域)에 덮인 / 빛나도다 반만년간 단군의 자손
날리도다 용감하게 용진의 깃발 / 용감하고나
(후렴) 잊지마세 잊지마세 / 높고 높은 우리 사명 / 삼천리 용사들이 힘을 합하세
몸을 닦고 정신 닦고 힘은 우리들 / 땀 속에서 단련하여 모범이 되자
그 속에서 자라는 우리 용사들 / 위대하고나 (후렴)

뿐만 아니라 1933년 여름 대홍수 때는 광주~송정리 간의 장애비다리(지금의 극락교 부근)에서 인명구조와 이재민 돕기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보이스카우트를 준(準)군사단체이자 항일단체로 규정하고 단체의 해산과 함께 관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도 이런 탄압이 심해 김후옥, 문천식(文千息) 대장은 물론 김학준, 조두환(曹斗煥) 등 어린 단원들까지 체포됐다. 심지어 스카우트와 직접 관련이 없던 주봉식, 이정옥(李正玉), 최숙(崔淑), 유웅(柳雄) 등도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악명 높은 일본헌병 노구치(野口), 미즈구치(水口), 도쿠나가(徳永) 등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스카우트 깃발과 비품도 압수당했다.

두터운 인정과 의리

옥고를 치르고 나온 김후옥은 실의에 찬 세월을 보내면서도 방림동 앵당실에 있는 자기 소유의 농토를 스카우트와 체육관 출신들에게 제공했다. 그는 일본인들 밑에서 피눈물 나는 압제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내 땅을 가



■ 광주 YMCA 초청으로 열린 경성 대 광주 대항 권투대회를 마치고 촬영한 것이다. 가운데줄 왼쪽 두번째 주봉식·김후옥, 한사람 건너 정인세, 맨 오른쪽 한금동이다.

■ 1936년 전남 권투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촬영한 것이다. 뒷줄 왼쪽 김후옥, 주봉식, 두사람 건너 김용환, 최영균, 한사람 건너 최홍중 목사, 최윤상, 오른쪽 강석구이다.



꾸면서 흠과 더불어 살기를 권장했다.

서울 학창시절부터 김후옥과 친구 사이이며 방림동 귀일원^{歸一院} 원장이었던 정인세^{鄭寅世}는 김후옥을 회고하면서 “그는 나보다 한 살 아래였지만 유도·권투·검도·야구 등 체육 만능선수였으며, 지사적 의기의 사나이일 뿐만 아니라 힘으로는 당대를 풍미했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언제나 싸움이 벌어지면 처음엔 맞지만 어지간히 화가 치밀면 상대의 멱살을 잡아 내들러 팽개쳐 버렸다는 것이다.

김후옥은 정인세의 회고담이 아니더라도 남아적 기질에 얽힌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인정에 약해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뉘우치고 빌면 불같은 화가 눈 녹듯 풀어지고 후배들이 어디를 간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용돈을 집어 주었다.

그는 타고난 의협심으로 불의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켜서는 법이 없는 사나이였다. 일제 때 일본인 깡패에 맞서 싸운 김두한이나 신마적패의 엄동호 등이 김후옥을 형님으로 깎듯이 모셨던 것도 그의 이러한 협객다운 면모 때문이었다. 영화 <장군의 아들>의 원작인 홍성유^{洪性裕}의 소설 「인생극장」에서도 이런 김후옥과 김두한의 만남을 꽤 비중 있게 묘사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그는 지속적으로 서울에 체류했다. 그러던 일제 말엽에 김후옥은 김두한 등과 반도의용정신대라는 단체에 가입했다. 김두한이 일본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단체를 조직해 사실상 김두한의 역할을 부각하는 말이 전한다. 그러나 실제 조직의 책임자는 장명원이었으며, 이들은 태평양으로 징용 가는 것을 대신해 국내의 근로현장에 투입됐다. 이 일로 인해 장명원은 1949년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 즉 반민특위에 체포됐으며 당시 조사과정 중 장명원에 대한 김후옥의 간략한 진술기록이 남아 있다.

광복 후의 보이с카우트 운동과 김학준

1931년 10월 조선척후대 보이с카우트 전남연맹으로 출발한 보이с카우트 운동은 1937년 반일단체로 규정되어 폐쇄된 이후 그 맥이 끊겼다. 광복 후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진 보이с카우트 운동이 새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김학준^{金學俊} 1921. 10. 25 ~ 2014. 6. 2이 1947년 3월 한국 최초로 보이с카우트



■ 제1회 한국 잼버리에 참가한 광주보이스카우트들 가운데 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학준 전 전남연맹위원장,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백낙준, 한 사람 건너 필자, 서상덕 대장, 조규혁 도반장

유년대 시범대를 결성하면서부터다.

그가 창설한 이 유년대 시범대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한국 보이스카우트 전남연맹의 창설로 이어진다.

원래 김학준은 일제 강점기 이 고장 청소년 운동의 선구자 김후옥이 창설한 용진소년대(勇進少年隊) 대원 출신이다. 그는 1937년 용진소년대가 항일독립운동단체로 규정되어 폐쇄될 때 김후옥을 비롯한 청년지도자들과 함께 16세의 어린 나이에 검거되어 일본헌병대의 모진 고문을 겪었다.

그는 소년운동의 효시가 된 용진소년대의 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유년대와 보이스카우트 전남연맹 창설자이다. 그는 30세에 전남연맹을 결성하고 초대 사무국장에 취임한 이래 실질적인 연맹 운영과 리더 트레이너로서 보이스카우트를 이끌었다. 1987년부터는 직접 전남연맹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1996년부터는 재단법인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오로지 청소년 운동가로서의 외길 인생을 살았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소년운동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소년운동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이다.

필자가 그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광복 후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면서부터다. 그는 필자의 직속상관이었다. 사무체제도 잡혀있지 않고 직원들이 한글조차 서툰 혼란기에 그의 사무처리 능력은 명료하고 능숙했으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선구적인 신세대 엘리트였다. 나는 단번에 그에게 심취하여 그 길로 그를 따라 보이스카우터로서의 생애를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70년 세월을 그와 함께 해왔다.



■ 김학준의 젊은 시절 모습

필자는 지금도 한국보이스카우트 제1회 잼버리 대회를 잊을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 인근의 일광해수욕장에서 일주일간에 걸쳐 잼버리 대회가 개최됐다. 부실한 야영장비와 전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별 심사에서 전남 연맹이 1·2·3등과 7등을 한꺼번에 휩쓸었다. 그때 곁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일사불란한 통솔력과 몸에 베인 스카우트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보이스카우트 운동 뿐만 아니라 청년운동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다. 광복 후 광주 YMCA 재건에 참여하여 소년부 위원장과 이사로서 헌신했으며 광주 JCI 창립에도 깊이 관여했다. 또 대한 적십자 전남지사 상임위원으로 봉사했으며 1976년에는 보이스카우트 세계연맹으로부터 리더트레이너로 지명되었다. 그는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최고 영예인 무궁화금장과 국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말년에는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운동의 지원 육성에 남은 생애의 열정을 쏟아오다가 2014년 6월 2일 생애를 마감했다.

■ 만능체육인 김복실

배재학교의 박치기

김후옥·주봉식과 함께 광주·전남 체육사의 3대 거봉 중 한 사람인 김복실(金福實)은 ‘먹통’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출생지가 지금의 북동인 누항촌이었기 때문에 그를 ‘누항촌 먹통’이라고도 했다. 먹통은 연중 운동장에서만 지낸 까닭에 얼굴이 마치 먹통처럼 검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 김복실의 젊은 시절 모습
얼굴이 검어 먹통이란 별명을 얻었다.

김복실은 1905년 광주 북동에서 5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서석초교의 전신인 광주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 이 학교 재학시절부터 체육에 소질이 있어서 야구선수로 활동했다.

이 무렵 광주에는 송일학교 교장이던 노라복(Robert Konx)을 비롯한 배유지·타마자 등 선교사들이 1915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다 오는 길에 야구공과 방망이 그리고 유니폼



《◎ 최상학》

■ 1930년대 호남은행 본점 직장 야구팀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최태근이며 그는 투수로 활약하였다.

을 가져 왔다. 강태성 姜泰成 장로가 이 유니폼을 모방해서 만들어 입은 것이 광주 최초의 유니폼이어서 화제가 됐다.

한편 광주보교를 졸업한 뒤에 김복실은 서울의 배재학교에 진학했고 여기에서도 야구 선수로 두각을 나타냈다. 배재학교는 기독교계 학교로서 항일의식이 팽배했던 학교 분위기 탓에 일본인만 다니는 이웃 경성중학교 학생과 충돌을 빚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1922년 가을, 경성중 학생이 배재중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정동예배당 앞의 넓은 뜰에서 일본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격돌했는데, 이때 김복실은 박치기와 주먹 등으로 혼자서 30여명을 상대해 모두 물리쳤다. 그 일로 장안에서 김복실은 ‘배재의 박치기’로 알려지게 됐다.

그의 박치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설 같은 일화도 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충장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북동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금의 광주일고인 광주고등보통학교 정문에 이르렀을 때 누가 앞을 가로 막아섰다. 취기에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화가 치민 그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가 달려가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쪼개지는 아픔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는 겁이 더러웠다. 이마의 멍 때문이 아니라 어젯밤 그의 박치기에 받혀 넘어진 상대의 상태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광주고보 정문 앞으로 보냈다. 만일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거리가 소란할 터였다. 그런데 친구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간밤에 죽었거나 다친 사람은 없고 무쇠로 된 우체통만이 넘어져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가 박치기로 넘어뜨린 것은 다름 아닌 우체통이었던 것이다.

김복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재학교 3학년 때 중퇴하고 곧바로 지금의 중국 선양瀋陽에 해당하는 평토편의 평토평대학 야구선수로 영입돼 2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다가 광주에 돌아왔다.

선수·코치·감독·심판의 1인 4역

김복실은 야구뿐만 아니라 체육만능인으로서 축구·정구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1924년 광주 최초로 창설된 축구클럽인 갑자단甲子團의 선수로 뛰었다. 이 클럽이 설립된 해가 간지로 갑자년이었기 때문에 갑자단으로 명명된 것인데 갑자단은 광주 뿐 아니라 목포·순천까지 원정을 다녔다.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또 경비도 없어서 순천까지 걸어가서 시합을 치렀는데 왕복 4일이 걸렸다.

갑자단 선수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인들이어서 주말에만 모여 연습을 했고 약 4년 동안 지속되다 해체되었는데 그 뒤로 광주에 두 개의 축구단이 더 창설됐다.

‘남밖에’라고 하는 남문 밖의 무호단武虎團과 ‘봉밖에’라고 하는 북문 밖의 화성단華

成團이다. 무호단과 화성단은 남·북대항전으로 광주 축구의 저변 확대와 실력 향상에 기여했고 다른 고장과는 경기 때에는 두 단체가 합해 광주축구단, 줄여서 광축이란 이름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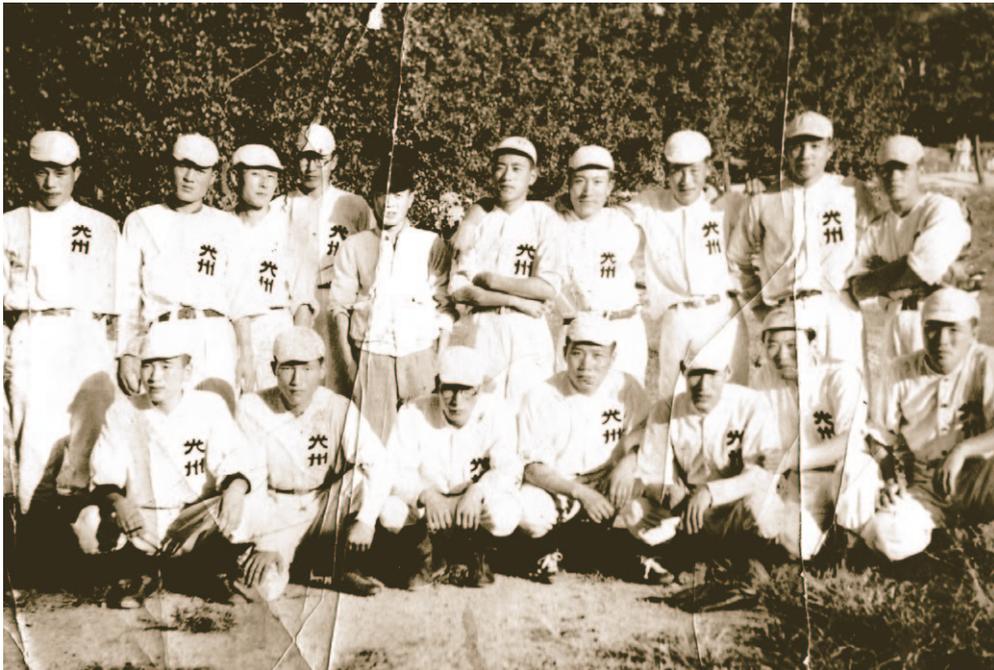
그때 두 팀을 통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복실이다. 그는 초대 단장이 되었으며 뒤에 김후옥이 단장을 맡기도 했다.

광축팀은 당시 서울·평양·함흥 축구와 함께 전국 4강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으며 김복실은 선수, 코치, 감독, 심판 등 1인 4역을 해냈다.

해방 후에는 주봉식과 함께 청년운동에 나서 광주청년단 북부 중대장으로 치안과 민심수습에 헌신했으며 체육회의 조직에 참여하여 초대 전남 축구협회장을 맡았다.

한때 전남도청의 야구선수로 잠깐 동안 보수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직업

■ 경성-광주 야구대회를 마친 뒤 모습
광주팀은 서울팀에게 1:0으로 졌다. (1942. 9. 26)



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선배나 후배 친지들의 딱한 일에는 발 벗고 나섰다.

그는 체육행사를 위해 모금한 돈을 훈련비나 원정비로 쓰고 남으면 형편이 어려운 선수의 가정까지 돌보면서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는 한 푼도 안 쓰는 청렴한 성품이었다.

체육 생활로 다져진 강철 같은 그의 체력이나 불굴의 의지도 병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1956년 가을 그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52세였다. 장례는 전남 최초의 체육인장으로 치렀다.

■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는 영산포팀
호남신문사 주최 전 조선축구대회 (1946. 7. 26)



덴마크 체조 보급한 정인세

친구따라 광주에 정착

정인세(鄭寅世)는 원래 서울 토박이로 1909년 마포에서 비교적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선린상업학교 재학 중에 운동을 좋아해서 배구선수로 활약했으며 세계 일주의 꿈을 안고 무술을 몸에 익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YMCA 체육관에서 유도를 수련해 2단의 자격을 얻었다. 이 수련장에서 김후옥과 사귀게 되었다. 이 때 그는 김후옥·이인덕(李仁德)과 함께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서 YMCA 유도부 3총사로 불려졌다. 이것이 김후옥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들 중 성격이 유순하고 얌전한 정인세가 유도부 반장이었다.

우리 나라 초창기 체육 보급 활동은 유도·권투·체조·축구·배구·야구 등의 종목이 거의 YMCA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되었으며, 서울의 중앙 YMCA는 조선 체육회와 더불어 한국 체육계의 두 기둥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지방 Y로서는 광주 YMCA의 활동이 활발했다. 당시의 YMCA는 민족주의자들의 결집체였으면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해 민족계몽운동을 선도하는 단체였다.

이때 YMCA 체육관의 삼총사인 정인세·김후옥·이인덕은 장안 기생들의 선망과 화제의 대상이었다. 특히 종로에 있었던 한성권번(漢城券番) 기생들이 삼총사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한소옥(韓小玉)이라는 기생이 김후옥을 집요하게 유혹했

었다. 나중에는 그가 묵고 있는 서울 집 앞에 셋방을 얻어 살면서 끊임없이 접근해 오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후옥이와 가장 친한 정인세를 불러 통사정을 했다. 어머니는 정인세에게 “후옥이가 자네 말 밖에 안 들으니 후옥이를 설득해서 깨 광주에 내려가 몇해 동안만 있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

후옥의 어머니는 인세와 함께 광주에서 2~3년 있다 보면 좋은 친구의 감화를 받아 마음잡고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인세는 후옥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김후옥과 함께 광주에 내려온 것이 정인세가 광주와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인세는 23살이었고 김후옥은 22살이었다.

■ 친구따라 광주에 정착한 정인세
그는 YMCA를 통해 스포츠를 보급하는 한편
귀일원을 설립, 장애인·폐질환자들을 돌보면서
일생을 마쳤다.



Y총무로 종교·체육 활동 전념

1932년 광주에 온 뒤 바로 김후옥은 총장로 5가 지금의 광주극장 옆에 있었던 광주 YMCA의 체육부 간사 겸 종합체육관장이 되고 정인세는 유도 사범을 하며 후진양성과 이 지방 체육 발전에 헌신하였다.

이때 유도도장은 한국사람들이 다니는 YMCA 체육관 말고도 대의동, 지금의 광주동부경찰서 건너편에 일본 경찰 출신인 도꾸나가^{徳永}라는 사람의 도장이 있었다. 이곳은 공무원이나 일본 사람들이 주로 다녔다. 광주 YMCA 유도부는 도꾸나가 도장의 실력에 뒤지지 않으려고 피나는 수련을 했다.

정인세는 김후옥과 금교 다리 건너편 녹성상회 건물에서 함께 살며 운동을 했다. 그는 1936년 27세 때 최병준^{崔丙俊} 광주3·1독립운동 주도 목사의 딸과 결혼, 광주에 정착했다.

정인세는 또 유도 뿐 아니라 광주에서 최초로 덴마크체조를 보급시킨 사람이다. 양림의 숭일학교에서 덴마크 체조 강습회를 열고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이 체조를 보급시키는데 앞장섰으며 그 밖에도 배구·농구·축구 등 체육만능인으로서 수피아여학교에서 농구코치를 했다.

1935년부터는 YMCA 간사로 있으면서 체육 외에도 성서반·YMCA 주일학교 수련회·강습회의 강사로 종교 활동과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광주 YMCA가 설립한 농업실습학교의 학감이 되었다.

1937년 일본의 신사참배의 거부로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 등 기독교계의 학교들이 모두 폐교되고 종교계가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광주 YMCA도 헌병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인세는 1939년 백영흠^{白永欽} 목사와 함께 1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정인세는 출옥한 뒤 광주를 떠나 평양신학교를 마치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일제 말의 암흑기를 지내게 된다. 그는 30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체육보급에 몰두하다가 그 이후에는 기독교 신앙생활과 사회사업을 통해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해방 후에 최홍종 목사의 권유로 다시 광주에 온 그는 수피아여학교와 광주 YMCA의 재건에 힘쓰다가 광주 YMCA 회장인 최홍종 목사를 도와 1946년까지 총

무를 맡아 종교·교육 활동에 전념했다. 1948년 5월에는 다시 제3대 총무로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YMCA를 운영했다.

정신질환자와 함께 한 노후

Y총무를 그만 둔 후에는 동광원(東光園)을 맡아 고아들을 돌보았다. 동광원은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광주의 유지 70여명이 힘을 모아 설립한 고아원이다. 처음에는 72명의 고아들을 수용했으나 1964년에 폐쇄될 때는 수용 고아가 6백여명에 달했다. 정인세는 이때 자기 아들·딸도 고아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했다고 한다. 그 뒤 생애를 마치기까지 방림동의 사랑의 집 귀일원(歸一園)을 맡아 2백여명의 정신질환자들도 돌보았다.

평소 사랑을 길로 드러내지 않는 그는 그동안 많은 마스크들이 헌신적인 생애를 취재하려 했으나 한번도 이에 응한 일이 없었다. 이 때문에 종교·교육·체육문화 발전의 큰 공로자이면서도 그 흔한 상 하나 받은 일도 없었다.

정인세는 중앙 YMCA 체육부에서 유도를 수련할 당시 체육부 간사인 현동완(玄東完)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의 권유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평생 사제지간으로 지냈다. 그가 어렸을 때 또래의 어린 소녀들과 크리스마스 불우이웃돕기 메달을 팔러 나갔는데 3일 동안 거리를 헤매며 행인들에게 거지처럼 동정을 구했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옥을 먹거나 수모를 당하면서도 메달을 팔았다. 어린 소년들로서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현동완선생의 감화 때문이었다. 정인세는 '그분의 말씀들은 평생동안 나를 지켜주는 영혼의 양심'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금욕생활로 육식을 하지 않았으며 기아를 면할 정도의 소식을 했다고 한다. 항상 친구 김후옥의 굳센 힘과 지사적 기질, 그리고 체육만능인으로서 그를 못있어 했으며 그와의 인연 때문에 광주에서 온 생애를 보내게 된 것을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60여년 동안 광주에서 그늘진 곳만을 찾아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91년 4월 29일 생애를 마쳤다.

■ 지덕체를 겸비한 주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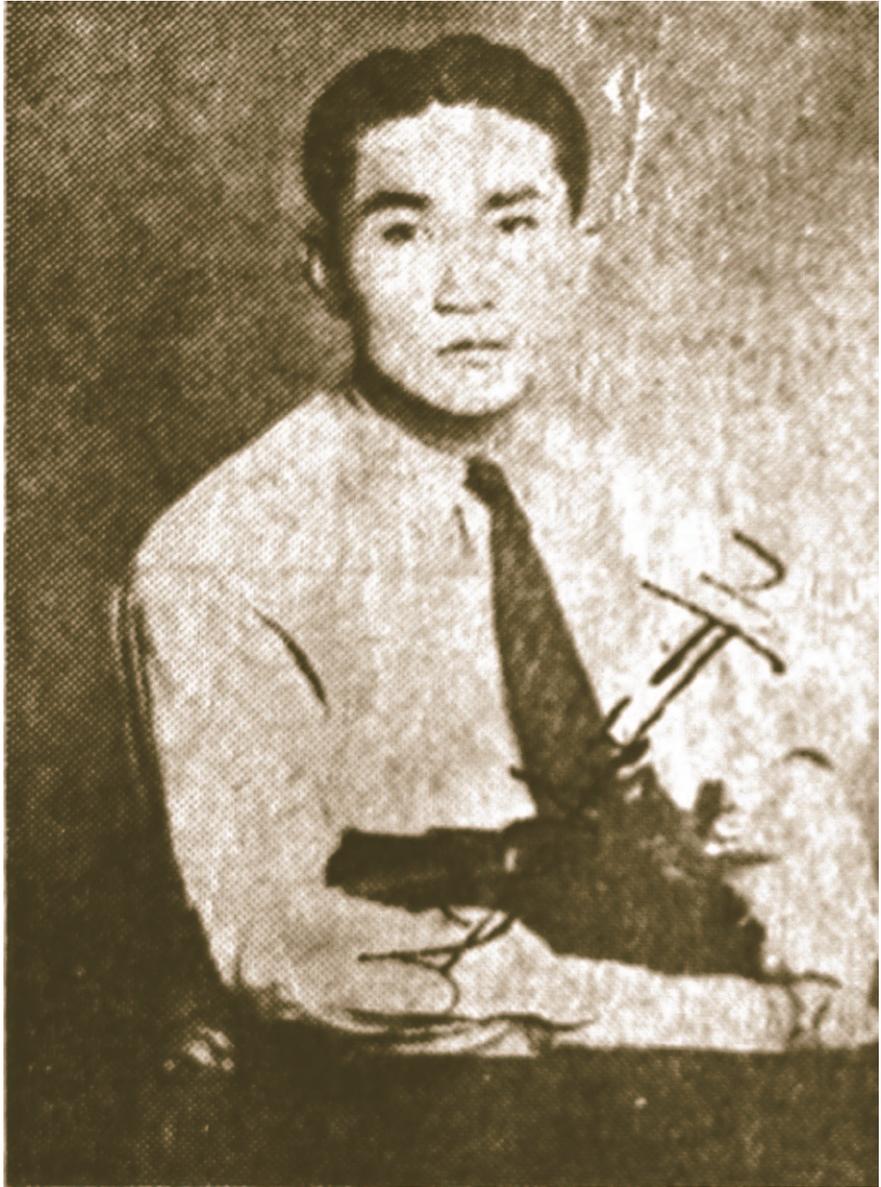
광주권투의 개척자

일제강점기 광주지역 체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주봉식朱奉植이다. 그는 1914년 광주 금동에서 태어났다. 평생 체육인의 운명을 걸머지게 될 운명은 서석초교의 전신인 광주보교 시절에 육상선수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광주고보 1학년 때는 비밀결사조직인 성진회에 가입했고, 2학년 때인 1929년에는 학생독립운동에 연루돼 퇴학을 당했다. 이것으로 1940년 일본유학 때까지 그는 당분간 학교와는 별다른 인연없이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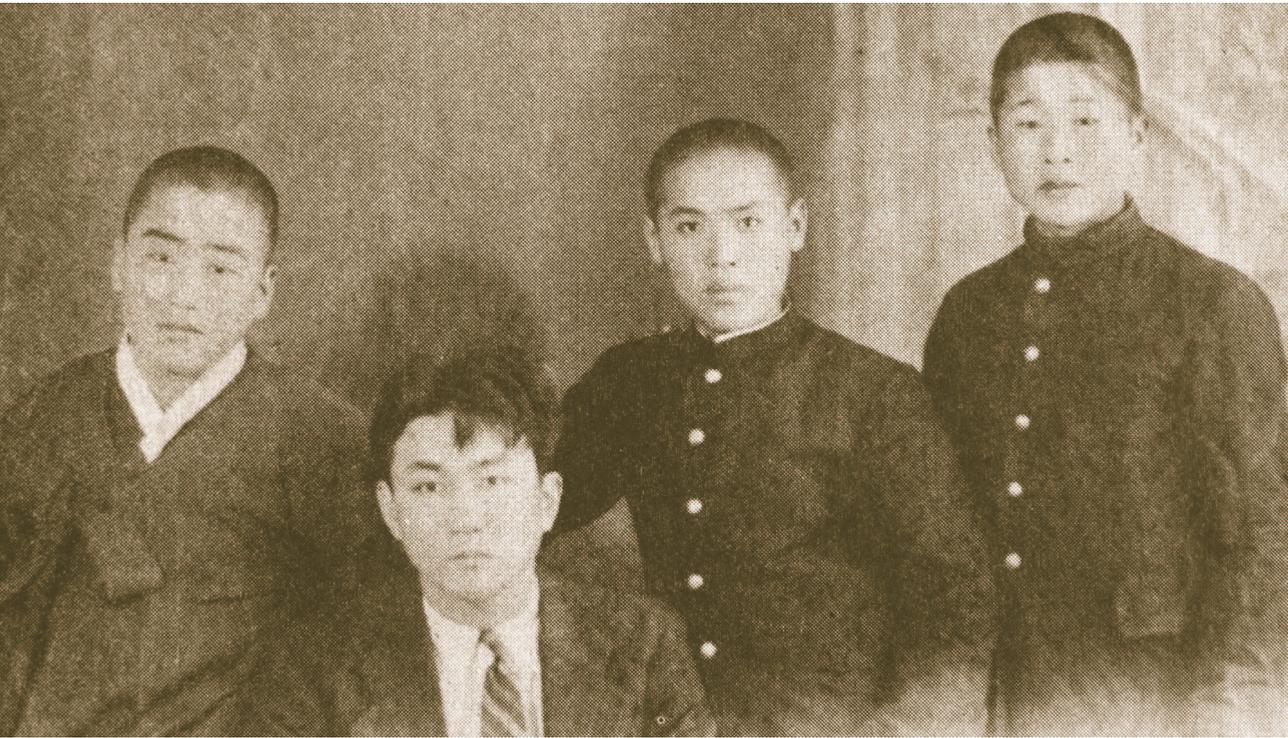
한편 광주고보에서 퇴학을 당한 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조선권투 구락부에서 권투를 배웠다고 한다. 이후 광주에 돌아와 흥학관에서 잠시 권투사범으로 활동하다가 1934년부터 1937년까지 광주 YMCA 부설 체육관에서 권투사범을 지냈다. 이 시기에 많은 광주의 젊은이들이 그에게서 권투를 배웠다.

그 가운데 문형식文炯植이 있다. 문형식은 1937년 전국 아마추어권투선수권대회 라이트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해 오사카에서 열린 전일본쇼토本, 즉 일본은 물론 당시 식민지이던 조선과 타이완을 포함한 권투대회에 동일 체급의 조선 대표선수로 참가했다.

문형식과 동갑내기로 주봉식의 제자인 문춘성文春成 1920~1985도 유명하다. 문춘성은 주로 해방 후에 이름을 날렸는데 1948년 5월, 당시 일본권투의 우상인 일명 ‘피



■ 20대의 주봉식
김후옥과 함께 광주 YMCA에서 체육을 지도 했으며
지·덕·체를 겸비한 항일투사이자 청년지도자였다.



■ 주봉식에게 권투를 배운 사람들
주봉식(왼쪽에서 두번째)은 광복 직후 김이현(오른쪽)
등과 함께 광주 청년단을 조직하여 민심수습, 질서회복
등에 진력했다.

스톤'으로 불리던 호리구치堀口를 KO로 눌렀다. 불행하게도 문춘성에게 패배한 호리구치는 그날 밤 전차사고로 숨을 거뒀다. 어쨌든 이 일로 문춘성은 일약 스포츠 스타로 부상했고 그가 잠시 귀국해 광주극장에서 시범경기를 펼칠 때에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후일담이지만 호리구치와의 시합광경을 담은 영상은 김후옥을 통해 경무대에 보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영상을 보고 몹시 기뻐하며 광주에 체육관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체육관 건립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주봉식에게서 권투를 배운 사람들로선 김이현金利鉉과 이달봉李達鳳이 있었

다. 김이현은 1944년 일제의 식민정책과 징병제 그리고 신사참배 등을 비판했던 이유로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달봉은 나중에 일본 오사카에서 사업가로 변신했다.

광주 YMCA 권투사범으로 있는 동안 주봉식은 권투의 홍보에도 열을 쏟았다. 권투선수들을 초빙해 시범경기를 주최하기도 했고 소요 경비는 거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그는 1936년 조선아마추어권투협회가 창설될 때 이사로 참여했다.

그러던 1940년 주봉식은 도쿄의 일본체육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엄격한 규율과 기숙생활로 유명했는데 주봉식이 이런 문화에 익숙했던 탓에 적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교를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자퇴를 하고 돌아왔다. 이후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방 전까지 주로 광주에 체류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기간에 그는 체육지도를 하면서도 항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했다. 발단이 된 것은 1942년 1월, 광주시내의 한 다방에서 조선인 여급이 일본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나무란 일이 일본경찰에게 알려져 체포되면서부터다. 이듬해 1월, 이 사건과 그간의 행적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주봉식에게 체육을 통한 민족의식을 고취한 일로 징역 2년, 조선어 사용을 장려한 일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해방 후의 청년단체 활동

1945년 8월 18일 광주극장에서는 수백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광주청년단이 결성됐다. 이 단체는 일본인들의 재산반출이나 공장 등 주요시설의 파괴를 막고 치안유지를 위함이었다. 이날 결성식에서 단장은 김석^{金哲}, 부단장은 주봉식이 선출됐다.

김석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인 김철^{金喆}의 조카이기도 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숙부와 같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1933년 상하이에서 체포돼 5년형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해방 직전에 광주에 머물면서 주봉식과 친분을 쌓았다.

광주청년단은 산하에 4개의 지역대를 두었는데 동부대는 문인걸^{文仁傑}, 서부대는 훗날 국회부의장이 된 정성태^{鄭成太}, 남부대는 정영범^{鄭泳範} 그리고 북부대는 김복실



■ 광주축구단

1937년 여름, 남조선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광주축구단이 광주극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최남주(앞줄 중앙)는 이 대회의 출전 경비를 부담하고 격려하였다. 뒷줄 왼쪽 김후옥, 주봉식, 오른쪽 끝이 최윤상이다.

이 맡았다.

광주청년단은 건국준비위원회, 즉 건준 산하에 속했다. 그러나 건준이 점차 좌경화되면서 일부가 우익으로 돌아섰고 주봉식도 우익에 몸담았다. 그 즈음에 주봉식은 조선국군준비대 창설에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지역의 국군준비대는 좌익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상황에 따라 그 성향이 조금씩 달랐다. 광주에서 국군준비대는 성격상 명백한 우익청년단체였다.

주봉식이 사실상 통솔하고 있던 광주지역의 국군준비대는 대대 규모로 조직되었다. 대대장은 학병에서 돌아온 임갑인(任甲寅)이 맡고 그 산하에 2개 중대가 있었다. 그 가운데 중국에서 돌아온 이상환(李相煥)이 제1중대장을 맡았다.

국군준비대는 1945년 9월 광주에 미군이 들어온 뒤에 해산했으며 그 참여인원들의 상당수는 이후 국방경비대와 경찰에 투신했다. 그러나 주봉식은 군대나 경찰보다는 정치 쪽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1948년 12월 주봉식은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이른바 족청의 전남지부 단장을 맡았다. 그러나 족청의 영수인 이범석이 이승만의

■ 1946년 2월 대회에서 연설하는 주봉식
왼쪽 사회자는 후에 국회의부장을 역임한 김녹영



◀이경모

자유당 정권에 참여하고 족청도 자진해산하면서 청년단체 생활도 중단됐다. 그럴 즈음에 전남신문을 창간해 얼마간 경영에 손을 댔으나 사업가 체질이 아니었던 탓인지 신문사는 곧 재정난에 빠져 폐간했다.

1949년에 이르면 정치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좌우의 청년단체들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이 잦아들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우익단체들도 대한청년단, 즉 한청으로 통합됐다. 주봉식도 1949년 2월 한청의 초대 전남단장을 맡았는데 한청 내의 주류세력이 아니었던 까닭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 한청 전남지부는 총장로 3가의 옛 신동아극장 자리에 있었다. 이 건물 안에는 체육도장도 함께 있어서 이전 광주 YMCA 시절에 그의 제자인 문형식과 김이현이 권투사범을 맡았고, 정일택鄭一澤이 유도사범으로 일했다. 훗날 광주·전남지역의 체육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다.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했던 김후옥과 달리 주봉식은 대부분의 생애를 광주에서 보냈다. 그는 체육인일 뿐 아니라 이름난 연설가였으며 문학에도 심취하여 타고르, 하이네, 괴테의 시를 줄줄 외웠다. 문장력도 뛰어났고 글씨도 서예가에 못지않았다. 그는 1949년 8월, 안타깝게도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다.



제5장 금 융



■ 광주농공은행

대한제국시절 광주·전남의 금융

일제강점기에 전남 최대의 상업중심지는 목포였다.

1898년 10월 개항 이후 목포는 해상교통을 통해 연안 도서와 제주,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의 다른 항구들 그리고 일본과 원활하게 연결됐다. 또한 목포는 영산포에 이르는 내륙수운의 출발점이었고 이를 통해 목포의 상권은 영산강 중류까지 확장됐다. 이런 배경에서 한때 광주의 전남관찰부를 목포나 나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수요가 증가하면서 목포에는 은행도 일찍 설치됐다. 개항에 맞춰 일본제일은행의 부산지점이 목포출장소를 냈고 1906년에는 일본 제18은행도 지점을 개설했다.

한편 1896년 전남관찰부의 소재지가 된 광주는 한동안 행정중심지라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상업은 닷새마다 열리는 오일장에서만 활기를 띠 뿐이었다. 그러던 1905년 러일전쟁 이후부터 일본 상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관공서가 인접한 광산동과 충장로 1가 일대에 하나 둘 점포를 냈다. 그러나 초기 일본인 상인들은 대개 관공서에 물건을 납품하는 어용상인이었다.

그러던 1906년에 광주농공은행, 1907년에 광주지방금융조합이 문을 열었다. 이런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설립된 것은 광주의 상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어서라기보다



■ 십팔(十八)은행 목포지점
 1906년 9월 개점했다. 제일, 제십팔이라는 은행 상호는 일본이 명치유신 후 근대은행을 설립하면서 설립 순에 따라 숫자를 은행 상호로 썼던 것이다. 나중에는 제일 은행만 남고 모두 바뀌었다.

는 광주가 여전히 행정중심지였던 사실과 관련이 깊었다.

두 금융기관의 설립은 지방 재정과 세무를 간섭하기 위해 광주에 와있던 일본인 재무관들이 주도했다. 설립 당시 지역민은 주식이나 조합비 모집에 응했고 일부는 임원으로 참여했지만 이들 금융기관에서 조선인들은 조연일 뿐이었다. 금융기관의 실권은 이들 일본인들이 틀어쥐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1907년에 설립된 일종의 어음거래소인 수형조합(手形組合)만은 상대적으로 조선 상인들의 역할이 컸다.

그래도 새로운 금융체제는 사람들에게 아직 낯설었다. 당시 광주에서는 일부 개

항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일본화폐도, 당시 대한제국 황실이 남발하던 백동화도 아닌, 종래의 엽전을 그대로 사용했다. 돈의 유통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농민들은 지주들에게서 연리 50%의 장리쌀, 상인들은 개인 대금업자들로부터 연리 40%의 고리대를 가져다 썼다.

근대은행의 여명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금융기관의 설립은 1880년대부터 논의됐다. 그러나 종주국으로 행세하는 청나라의 방해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1894년 갑오개혁 때도 은행설립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전환국을 세워 화폐를 주조하고, 국고금 취급을 민간회사에 맡기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다시 말해 국내에 본점을 둔 첫 은행은 1897년 2월 서울에서 설립된 조선은행(朝鮮銀行)이다. 설립을 주도한 안경수는 처음에 프랑스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은행을 세우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주식을 모집해 설립자금을 조달하여 가까스로 결실을 맺었다.

독립협회와도 관련이 깊었던 조선은행은 세금수납 등 국고금 취급으로 발전의 기회를 잡으려 했다. 당시 세금수납은 일종의 황금알이었다. 세금수납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다 세금 수납시기와 이를 정부에 다시 납부하는 시차를 이용해 세금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관행화됐다.

이처럼 세금수납을 위해 조선은행은 설립 이듬해인 1898년 8월 몇몇 지방도시에 지점을 내려고 했고 그런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광주였다. 그러나 조선은행이 실제로 광주지점을 개설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은행은 은행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안경수가 1898년 8월 망명하고 정부탄압으로 독립협회의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업휴업 상태에 빠졌다.

조선은행이 설립되고 9일 뒤에는 한성은행(漢城銀行)이 서울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한성은행의 자금은 고종의 종형제인 이재완이 일본제일은행에서 끌어왔다. 그러나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한상룡이었다. 한상룡은 이완용의 외조카였고 그를 비롯한 이완용 집안사람들이 은행을 쥐고 흔들었다. 그래서 이완용의 본관을 따서 한성은행은 ‘우봉이씨은행’이라고도 했다.



©「조흥은행 90년사」

- 공립한성은행 본점 모형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소안동(안국동)에 있었던 공립한성은행 본점 모형으로서 조흥은행 강남별관 자료실에 진열되어 있다.

- 은행 설립 당시 사용하였던 집기
돈궤, 도장집, 사무용 탁자, 필통, 주판, 장부 등이다.



©「조흥은행 90년사」

한성은행은 1898년 국고금 취급을 위해 지방에 지점 개설을 추진했고 그 일부가 실현됐다. 1898년 5월 전남 순천군이 거둬들인 세금을 당시 전남관찰부 소재지인 광주의 어느 은행지점에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지점이 아마도 한성은행 지점이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1899년에는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이 문을 열었다. 설립 때부터 고종의 측근들이 포진했고 자금도 황실에서 제공했다. 설립자금의 50%가 황실, 30%는 탁지부에서 들어왔다. 고종의 특혜로 한성은행을 밀어내고 1899년부터 국고금 취급 업무를 시작했다.

은행 경영에는 처음부터 고종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은행장은 처음에 민병석이 맡다가 2대 은행장에는 영친왕이 취임했다. 취임 때 영친왕의 나이는 고작 6세에 불과했다. 고종은 비밀자금을 관리하는 동시에 마치 자신의 은행인양 제멋대로 돈을 인출해가기도 했다. 그래서 고종의 사금고라는 평가를 받았고 은행을 사실상 황실이 장악한 것에 빗대어 '전주이씨은행'이라고도 했다.

천일은행은 1900년 재정난으로 정부 관리들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 때 탁지부에 대출을 해주기도 했지만 과도한 인출과 대출금이 문제가 되어 결국 1905년에 휴업상태를 맞았다.

초기 은행의 경영은 어설프고 그래서 해프닝도 많았다. 한성은행은 원래 유동인구가 많은 육의전 일대에 점포를 낼 계획도 했으나 이재완이 양반 체면을 내세워 주택가인 안국동에 설립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찾는 고객이 적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가 돈을 꾸려고 왔다. 은행은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요구했는데 그에게는 타고 온 당나귀뿐이라 이것을 담보로 제시했다. 은행은 고심 끝에 당나귀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담보로 받은 당나귀는 살아있는 짐승이라 매일 먹여야 했고 거기다 배설물까지 치워야 했다. 당나귀를 매어 둔 은행 뒤뜰은 파리 떼로 들끓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담보물 관리에 품이 많이 들어간 데다 대출 상환기일이 넘도록 그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경매로 당나귀를 처분해 손실을 만회하려 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한 임원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당나귀를 인수했다. 그 뒤 한성은행에서는 더 이상 살아 있는 동물을 담보로 받는 일

이 없었다고 한다.

한성은행은 이중장부를 쓰기도 했다.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한성은행의 중역들은 신식장부를 볼 줄 몰랐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식장부를 작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역들을 위한 구식장부를 작성해야 했다. 신식장부의 작성은 한성은행에 영업자금을 빌려주던 일본제일은행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한성은행은 여러모로 제일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앞서 소개한 당나귀 일화처럼 대출에 따른 담보에 대한 식견이 없어 담보 감정을 할 때면 제일은행에서 행원이 나와 감정을 대신해 주고 대출액을 결정했다.

일반대출은 하루마다 이자를 매기는 일보日步, 달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월보月步 등 제각각이었다. 한성은행은 일보, 천일은행은 월보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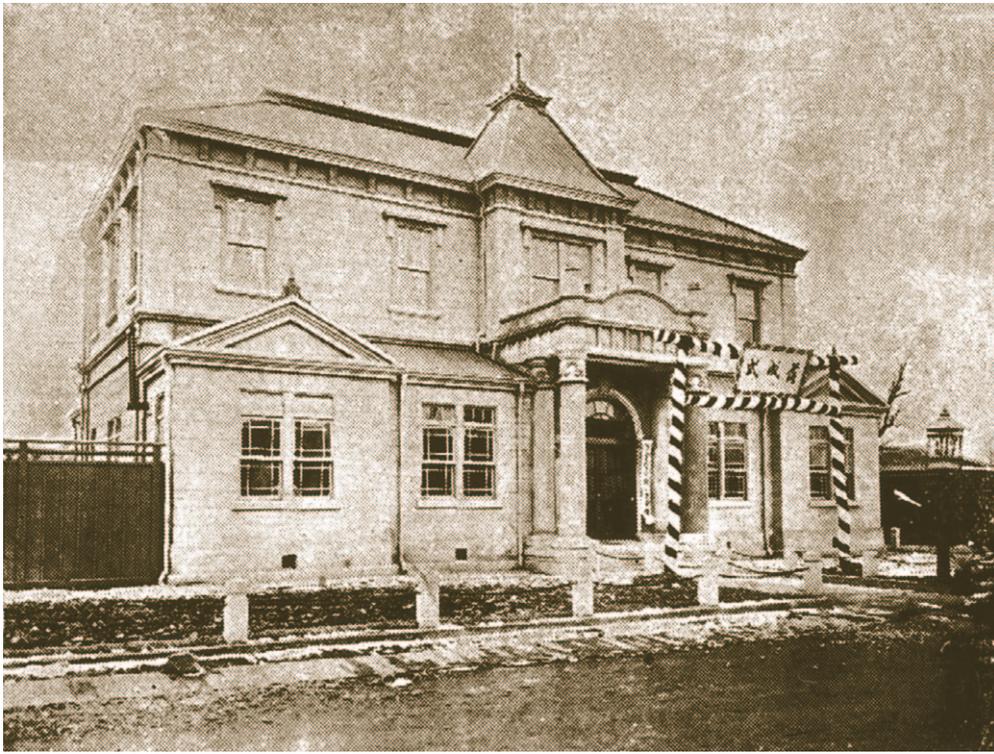
한성은행은 제일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그 이자의 2배를 받고 대출을 했다. 이른바 일수놀이를 했던 셈이다. 그러나 시중 사채의 절반에 불과한 이자라 점차 수요가 늘었고, 고객은 주로 고관대작들이었다.

농공은행의 설립

광주에 은행다운 은행으로 문을 연 것은 광주농공은행이다. 1906년 3월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와있던 메가타 다네타로 目賀田種太郎의 주도로 '농공은행조례'가 공포됐다. 이에 맞춰 서울에 본점을 둔 한성농공은행을 필두로 전국 주요도시에 은행이 설립됐다. 광주농공은행은 1906년 8월 설립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농공은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과 공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즉, 개간과 관개, 농로개설, 종자와 가축 구입 등에 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설립됐던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정액의 자본금을 대고 운영에 개입하는 특수은행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어 은행 설립 때 주식 2십만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대한제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갔다. 광주농공은행의 경우, 탁지부로부터 무이자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대하금貸下金 6만원을 제공받았고 채권발행 때는 탁지부가 지급을 보증하기도 했다.



■ 광주농공은행 낙성식 행사

그러나 걸만 대한제국 정부와 주주들이 세운 은행이었지 은행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실권을 휘두른 것은 메가타를 비롯한 일본인들이었다. 설립자금도 일본 흥업은행에서 들어왔다.

많았을 때 농공은행은 전국에 11곳이 있었다. 그러다 1907년과 1908년을 거치면서 하나 둘 통폐합됐다. 공주와 충주농공은행이 한성농공은행에 흡수됐고 이때 한성농공은행은 상호를 한호漢湖농공은행으로 변경했다. 대구와 진주농공은행도 통합돼 경상농공은행으로 재발족했다. 같은 방식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의 은행들은 평안농공은행으로 통합됐고, 함경도 지역도 함경농공은행으로 단일화됐다. 이에 반해 전남의 광주농공은행과 전북의 전주농공은행은 1918년 해산할 때까지 설립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결국 11곳이던 농공은행은 1908년까지 6곳으로 정리됐다.

통폐합에 맞춰 영업구역도 조정됐다. 영업구역은 대체로 1~2개 도도의 행정구역

과 일치했으나 생활권을 감안해 예외도 많았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농공은행의 영업구역에 속했으나 금산군은 한호농공은행에, 무주군은 경상농공은행에 속했다. 참고로 금산군은 1963년 지금처럼 충남에 편입되기 전에는 행정구역상 전북에 속했다.

광주농공은행의 영업구역도 대체로 전남도의 행정구역과 일치했으나 예외적으로 경남 남해군이 광주농공은행의 영업구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은 당시 남해군의 생활권이 여수 등 전남 동부에 속했던 것을 고려한 듯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일제는 1945년 10월 1일자로 남해군을 전남에 편입할 계획이었으나 그 전에 일제가 패망하면서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광주농공은행의 창립

출범을 준비하며 광주농공은행은 설립위원과 주식모집위원을 임명했다. 설립위원은 관리와 민간인을 절반씩 선정됐다. 관리로는 전남관찰사 이도재 李道宰, 광주군수 홍난유 洪蘭裕, 광주재정고문 타카쿠 高久敏가 임명됐고, 민간인으로는 김성규 金星圭, 김형옥 金衡玉 등이 임명됐다. 주식모집위원은 6명이었다.

이도재는 동학농민전쟁 때 진압에 공을 세워 이후 승승장구 출세를 했던 인물이었고 김성규와도 인연이 깊어 그를 설립위원에 영입했던 것 같다.

김성규는 동학농민전쟁 때 전라감사 김학진의 참모로 전주에 있었는데 이 때 전봉준과 협정을 맺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무안항 木포항 감리 監理 등 여러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관직을 사직한 뒤에는 장성과 목포를 오가며 농장과 회사경영에 진력했다. 1920년대에는 호남은행 설립에도 참여했고 1930년 초엽에는 100만평 이상의 농토를 가진 대지주로 성장했다.

그러나 김성규는 관료 출신의 부호보다 아들을 잃은 사람으로 기억될 때가 많다. 1890년대 후반 그는 장성군수를 지냈고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그를 불러 '김장성'이라고 했다. 당시 김성규는 장성군 내아에서 큰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훗날 극작가로 유명한 김우진 金佑鎭이다. 그런데 김우진은 1926년 가수 윤심덕과 대한해협에서 동반 투신자살을 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성규의 나이는 63세, 김우진은 29세였다.

어떻든 1906년 7월 30일 광주농공은행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설립위원 자격으로 김성규는 꽤 유장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당시 황성신문에 실려 있



■ 김성규
광주농공은행 창설에 참여했으며 무안감리, 금융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애국자로 존경 받았다.

다. 연설에서 김성규는 농공은행의 주주가 된 사람은 그가 고관대작이든 궁벽한 촌구석에 사는 사람이든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들이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이익실현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번 농공은행 출범으로 이런 오해가 불식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광주농공은행의 운명은 김성규의 기대와는 달랐다.

광주농공은행의 초대 은행장은 박원규(朴源圭)였고 이사는 김형옥, 이응일, 김기창(金基昌), 최상진이었다.

박원규는 광주 토박이로 1890년대 후반 전남관찰부 주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김형옥은 서울이 고향이었는데 개항 무렵 목포에 경찰관으로 왔다가 광주에 정착했다. 이응일도 서울 출신으로 국고금 징수를 하며 전남에 왔다가 정착했다. 농공은행 이사를 지낼 무렵에는 광주에 국악흥행업체인 양명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김기창도 본래 개성 출신인데 징세 일로 전남에 왔다가 눌러 앉았고 1909년 광주농공은행 영산포 지점이 개설될 때 그 지배인에 임명됐다. 최상진은 광주 출신으로 오랫동안 전남관찰부 주사로 일해 전남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인사였다.

이들 임원 아래에는 정점동(鄭點東) 등 4명의 행원이 있었고 이들 외에 부동산 담보물의 현황 파악을 위해 따로 토지조사원을 두고 있었다. 최흥중(崔興中) 목사도 초창기 광주농공은행의 토지조사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영의 실권은 전적으로 일본인 지배인의 손아귀에 있었다. 광주농공은행도 초대 지배인부터 모리(森)이란 일본인이 왔다. 모리는 도쿄제국대학을 나와 농공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훗날 농공은행의 후신인 조선식산은행에서는 이사를 역임하고 1929년 다시 식산은행에서 분리 발족한 조선저축은행의 은행장을 지내게 된다.

농공은행의 운영

광주농공은행이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임원들은 계속 조선인들이 맡았다. 은행장은 박원규에 이어 김형옥으로 교체됐고 이사도 정낙(鄭洛教), 박하준(朴夏駿), 현기봉(玄基奉)으로 바뀌었으며 감사로는 지응현(池應鉉), 최원택(崔元澤)이 활동했다.

그 가운데 정낙교는 후에 광주 양림동에 양파농장이란 농업회사를 차려 100만평

에 달하는 방대한 농토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1914년에 양파정 사직공원 소재 을 지었고 현재 '이장우 가옥'으로 알려진 고택의 본래 소유주이기도 했다. 박하준은 송정리 일대의 대표적인 지주인데 우리에게는 시인 박용철 朴龍喆의 부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현기봉도 전남 영암군 일대에 넓은 농토를 소유했고 이를 기반으로 그의 아들 현준호가 1920년 호남은행의 설립을 주도했다. 지웅현 역시 금남로에 사무실을 두고 약 140만평의 농토를 관리하는 봉남농장을 경영했다. 최원택 역시 광주의 대표적 부호였으며 광산구 용진광산 龍光으로 크게 돈을 번 최남주 崔南周의 조부이기도 하다.

농공은행은 설립 후 지속적으로 점포망을 늘렸다. 본점과 같은 해인 1906년에는 제주지점, 1907년에는 벌교지점과 영산포지점, 1912년에는 여수지점, 1914년에는 목포지점이 각각 개설됐다. 자본금도 설립 당시 1십만원에서 1914년 2십만원으로 늘

■ 농공은행의 영업내용을 알리는 광고

었고 1917년에 운전자금은 예금액 1백만원을 포함해 1백6십3만원에 이르렀고 대출액은 1백6십8만원이었다.

경영권은 일본인이 장악

그러나 조선인 임원들의 교체가 되는 동안에도 은행 경영의 실권은 계속 일본인들이 장악했다. 초기에는 재정고문 메가타, 그리고 1907년에는 탁지부 차관 아라리 荒井賢太郎의 간섭을 받았다.

일본인들은 모든 농공은행의 인사권을 독점했고 매일 대출내역을 검사했으며 1인당 5천원이 넘는 대출건에 대한 승인 권한도 행사했다. 그들은 은행장을 거치지 않고 지배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으며 주주총회나 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초기 농공은행은 일제의 화폐정리사업에도 동원됐다. 당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은 엽전 통용권에 속했다. 이로 인해 일본화폐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한 지역에서도 엽전으로 거래를 하고 이것을 다시 일본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다. 일제는 엽전을 몰아내는데 농공은행을 이용했다. 이를 위해 대출금을 오로지 일본화폐로만 지급했고 이것으로도 부족해 엽전을 사들이기도 했다.

은행의 운전자금은 다른 용도로도 집행됐다. 농공은행의 대출금리는 1910년 이전에는 연리 20%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는 10%대로 떨어졌다. 비교적 고금리였음에도 농공은행에 대한 대출수요는 많았다. 당시 시중금리는 연리 60~70%의 고리대 수준이었던 터라 농공은행의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런 대출금은 농공은행의 설립목적인 농공업 분야가 아니라 상당부분이 상업 분야로 빠져나갔다. 농공은행의 대출액 중 상업분야 대출은 늘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농공은행이 농공업 대출을 기피한데는 농공업의 속성장 대출금의 자금회수가 길었던 데에 있었다. 반면에 상업대출은 단기간에 회수가 가능했다. 한편으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8년 이전에는 등기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부동산 담보에 대한 불안정이 컸던 것도 농업대출을 꺼린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한 농공은행의 일본인에 대한 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농공은행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본 이주자들에게 농토 구입자금을 제

공한 결과였다. 농공은행은 점차 일본이주자들의 영농자금과 정착자금을 대주는 사금고로 전락했다.

동시에 농업은행은 해가 갈수록 자금이 고갈되어 갔다. 예금이 늘기는 했으나 단기예금이 많아 장기저리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 곤란했다. 계속 외부에서 돈을 들여와 소진된 운전자금을 채워 넣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출액이 예금액을 크게 초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일제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였다. 일제가 1920년부터 추진할 산미증식계획에는 장기저리대출이 필요했는데 이런 상태로는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1918년 현재 6곳으로 분산된 은행들을 하나로 통합해 몸집을 키우기로 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질 은행은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었다. 명목상 조선인들의 은행이기라도 했으나 새 은행은 명실상부 일제의 지배를 받는 금융기관임을 명확히 했다.

■ 조선식산은행 광주지점
훗날 이 자리에 한국산업은행 광주지점이 들어섰다.



식산은행으로 개편

1918년 농공은행은 모두 해체됐고 조선식산은행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임원이나 주주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광주농공은행도 1918년 4월에 해체됐다. 본점의 사무는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인계됐다. 광주농공은행의 마지막 은행장 김형옥은 식산은행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는 명목상의 참여일 뿐이었다.

광주농공은행의 본점은 충장로 2가의 옛 한국산업은행 광주지점 자리에 있었다. 이후 이 자리는 많은 변천을 겪었다. 건물은 1918년 이후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사용되다가 해방을 맞았고 1954년 식산은행이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뀔 때 다시 광주지점으로 쓰였다. 그러나 2009년 산업은행이 대폭 개편되면서 광주지점이 문을 닫았고 건물도 매각돼 헐렸다. 지금은 그 인근 부지와 합쳐져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서 있다.

한편 광주농공은행 이사를 지낸 현기봉은 영암과 목포에 기반을 두고 있던 지주이자 사업가였다. 그는 광주농공은행이 식산은행으로 개편되는 과정을 불편한 심기로 지켜봤다. 일제가 광주농공은행의 임원들이나 주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청산결정을 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기봉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반발이 나중에 독자적인 지방은행 설립의 토대가 됐는데 1920년 전남의 호남은행과 전북의 삼남은행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광주지방금융조합

전국 최초의 금융조합 등장

농공은행의 한계를 보완하여 서민금융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1907년에 등장한 지방금융조합이다.

일제는 금융조합을 설립하면서 이것이 조선의 전통적인 계책과 닮은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회원이 낸 돈으로 종자돈을 마련하고 이를 회전시켜 그 수익을 회원이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는 계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조합의 직접적인 모델은 일본에서 시행한 바 있는 신용조합이나 각종 사업조합이었다. 사실 금융조합은 협동조합 형식을 띠었으나 내용은 관치금융, 즉 처음에는 농공은행, 1918년부터는 조선식산은행의 말단조직이었다. 일제가 금융조합과 조선의 전통적인 계와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은 금융조합에 대한 조선인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강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는 900여 곳의 금융조합이 있었다. 그런데 금융조합이 전국에서 맨 먼저 설립된 곳은 광주였다. 초기 금융조합의 설립순서를 보면, 광주, 영암, 제주, 나주, 순천, 경남 진주, 충북 청주, 전주, 평남 평양, 평북 안주였다. 10곳 가운데 6곳이 전라도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일제가 광주, 나아가 전라도에 우선적으로 금융조합을 설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미곡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를 통

해 곡물을 용이하게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1900년대 일본에서는 도시 및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곡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남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 따라서 담보를 통해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조합을 전라도에 우선적으로 조직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금융조합은 항상 조합 설립과 때를 맞춰 미곡 창고를 신축하곤 했다.

둘째, 당시 전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의병에 대한 대응책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농민들은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금융조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의 자금을 제공하여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의병 참여나 지원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확히 입증하기는 곤란하지만 금융조합 설립이 한창이던 1900년대 후반 전라도가 전국에서 가장 맹렬하게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관권을 동원한 조합원 모집

금융조합은 1907년 5월 30일 대한제국 재정고문인 메가타의 주도로 '지방금융조합규칙'을 공표하면서 본격적인 설립에 착수했다. 재정고문부 광주지부는 탁지부 대신의 훈령과 금융조합 설립 계획 및 정관 초안 등의 서류를 갖고 내려온 재무관 이노우에井上雅二와 세무관 이용규李龍珪가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광주·화순·동북·능주·담양·창평·옥과·곡성군을 활동구역으로 삼고 창립위원 김형옥, 조운환曹雲煥, 이용일 등과 관찰사·군수·면장·이장이 동원되어 조합원을 모집했다. 8월 10일 모집을 마감할 때 조합원 수는 1,000명을 넘었다.

1907년 8월 24일 광주금융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조합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장은 전남관찰부 정당政堂이었다. 정당 앞에 연단을 만들고 기둥에 푸른 나뭇가지를 돌려 감아 만든 녹문錄間을 꾸미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엇갈리게 세웠다.

당시 창립식 상황은 「조선금융조합사」^{1929년}에 나와 있다. 먼저 전남관찰사 김규창金奎昌이 개회사를 했고 이어서 광주재정고문 이노우에가 조합 설립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임원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어 조합장에 최상진崔相鎭, 평의원에 정재룡鄭在龍



■ 광주금융조합 직원들(1935년)

등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최상진의 취임사가 있었다. 최상진은 원래 전라관찰부 수서기(首書記)와 주사(主事)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훗날 15만평 이상의 많은 농토를 소유한 지주가 됐다.

금융조합을 쥐고 흔든 일본인들

농공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조합도 일본인들이 이사로 부임해 실권을 쥐고 운영했다. 광주지방금융조합의 초대 이사에는 오쿠다(奥田種彦)가 부임했다. 오쿠다는 다른 이사들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禧)로부터 훈시를 들었다. 이어 재정고문부에서 자본금 1만원을 받아 10월 20일 광주에 도착했다.

오쿠다가 받아온 1만원은 탁지부가 금융조합에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었다. 이런 자금은 1905년부터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차입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부 공채발행으로 마련했다. 이런 차입금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를 갚아 경제주권을 회복하자고 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다.

광주지방금융조합의 업무는 11월부터 시작했다. 조합은 1914년 이전까지 예금, 즉 수신업무 없이 대출업무만을 수행했다. 대출금은 1인당 최고액이 50원으로 묶여 있었다. 담보의 대부분은 논과 같은 부동산이었으며 일부는 신용대부도 했다. 대출목적은 영농자금과 소를 구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출기한은 6개월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다.

초기 금융조합의 대출이자율은 일보(日步) 5전 이하였는데 연리로 환산하면 18% 전후였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고금리였지만 당시는 고리대가 성행하던 때라 저리로 비쳤다.

이런 금융조합의 실무는 일본인들이 맡았다. 그들의 이력 중에는 동양협회 전문학교 출신이 자주 눈에 띈다. 동양협회는 원래 1898년에 설립된 대만협회로 출발했다. 청일전쟁 뒤에 일본이 장악한 대만의 식민 지배를 돕기 위한 단체였다. 대만협회 시절에 협회는 식민지배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전문학교를 개설했는데 일본에서 전문학교는 후에 칙신대학(拓殖大學)으로 발족했다.

1906년 대만협회는 동양협회로 개칭했다. 러일전쟁 후에 한국을 보호국에 두고

중국 요동반도를 조차함에 따라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뜻이었다. 조선에는 1907년에 경성지부를 설치했고 같은 해에 전문학교의 경성분교를 개설했다. 경성분교는 나중에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는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편했다.

동양협회 전문학교를 나온 20대의 청년들은 메가타가 이끄는 재정고문부에 특채됐다. 일제강점 기간에 도쿄제국대학 출신이 총독부의 고급관료로 활동하는 동안 이 학교 출신들은 일선에서 식민정책을 수행했다. 그들의 주요 활동영역이 바로 금융조합을 비롯한 식민지 금융 분야였다.

광산금융조합에서 일한 호리구치 堀内光芳 광산금융조합 근무 사다히로 貞廣敬介 등이 이 학교 출신이었다. 이밖에 1910년대 광주농공은행에서 일했고 1930년대에는 식산은행 광주지점장으로 온 야마사키 山崎陳平, 1930년대 전남금융조합연합회 지부장을 지낸 마츠키모도 松本節郎 등도 이 협회의 전문학교 또는 경성분교 출신이었다.

엽전의 설움

금융조합이 수행한 초기 업무 중 하나는 화폐정리사업이었다. 이 점에서는 농공은행과 마찬가지로였다. 전래의 우리 화폐인 엽전을 회수하고 대신에 일본화폐의 사용을 늘려 일본통화권에 흡수시키는 것이었다.

전라도는 충청, 경상도와 함께 일제의 경제침탈이 극성을 부리던 1900년대까지도 엽전을 주요 화폐로 사용했다. 이는 중부지방이나 평안, 황해도의 서북한 지역이 일찍부터 일본통화권에 흡수됐던 것과 비교됐다.

이처럼 삼남지방에서 엽전 사용이 지속된 데는 대한제국 정부가 백동화 보급을 위해 세금 납부를 백동화로 강제했음에도 삼남지방 지방관들이 세금을 엽전으로 받고 이를 다시 백동화로 바꿔 탁지부에 납부한 데 따른 결과였다. 당시 지방관들은 엽전과 백동화 사이의 실거래 가격의 차익을 노려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화폐의 진입을 제지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삼남지방이 오랫동안 엽전 통화권으로 남게 됐다.

1900년대 후반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쥔 일제는 일본통화권 확대에 방해가 되는 엽전을 없애기 위해 농공은행과 금융조합을 동원했다. 이를 위해 대출은 일본화폐로만 지급했다. 대신에 엽전은 일본화폐와의 교환비율을 정해 회수했다. 이 때 일본



■ 광산금융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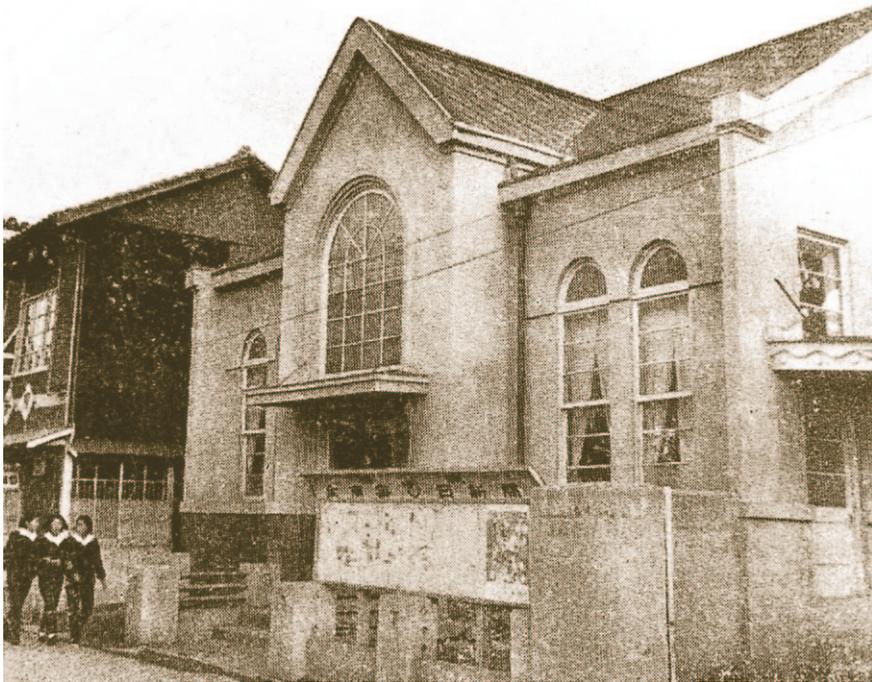
우리나라 처음으로 광주지방금융조합이 창립되어 광주공원에 건물을 짓고 개업했다. 1916년 10월 층장로 4가에 신축 이전했으나 광주조합이 설립되자 이 건물은 광산금융조합에 인계하고 광주조합은 다시 층장로 2가로 신축 이전 하였다.

화폐에 대한 엽전의 가치를 턱없이 낮춰 회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 엽전이 푸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후 엽전은 단순히 옛 화폐뿐 아니라 값어치 없는 존재 혹은 조선인을 비하하는 상징이 됐다. 이를테면 “엽전이니 별 수 있겠느냐”는 “조선 사람이므로 별 수 없다”는 의미가 됐다.

국어학자 이희승李熙昇이 펴낸 「국어대사전」을 보면, “한국 사람을 아직 봉건적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자학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했고 또 언론인 홍승면洪承勉은 엽전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깨치지 못했다. 세련되지 않다. 봉건적이고 투박하며 낡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런데 이처럼 엽전이 조선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변질된 과정에 대해 경제사학자



■ 동광주금융조합
이후에는 전남매일신문사 사옥이 되었다.

문정창(文定昌)은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인들은 지금은(地金銀), 즉 금이나 은의 뒷받침 없이 발행하는 불환지폐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 엽전을 반값도 안 되는 헐값으로 교환했다. 문정창에 따르면 일제는 이렇게 헐값으로 거둬들인 엽전을 오사카 조폐국으로 보내 일본주화를 제조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 때 사회적으로 맥을 못 추는 남자나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엽전’이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광주금융조합의 변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광주지방금융조합은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보였다. 광주지방금융조합은 처음에는 광주공원의 어린이현장 기념탑이 있던 공터에 있었다. 1916년 10월 충장로 4가 33번지에 벽돌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이 무렵 광주지방금융조합은 이름에서 ‘지방’을 떼고 광주금융조합이라고 바꾼 상태였다. 이는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을 ‘금융조합령’으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 1918년 다시 광산금융조합으로 개칭했다.

충장로 4가에 세워진 광산금융조합 건물은 1960년대 초엽 조합이 해체된 뒤에는 국립농산물검사소 광주출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 뒤에 건물이 헐리고 부지는 현재 어느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광주지방금융조합과 그 후신인 광산금융조합은 조합장으로 최상진, 김영규(金永奎), 정순환(鄭順煥)이 거쳐 갔고, 이사로는 오쿠다, 사사키(佐佐木魁), 하야시(林源八) 등이 일했다.

1919년 2월에는 광산금융조합과는 별도로 광주금융조합이 충장로 2가 28번지에 설립됐다. 광산금융조합이 농촌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조직이라고 한다면, 광주금융조합은 도시민을 겨냥한 금융조직이라는 점에서 달랐다. 광주금융조합은 조합장으로 우오타니(魚谷與藏), 이사로는 카와하라(川原吉秀), 모리(森要), 모리모토(森本衛橋) 등이 거쳐 갔다.

이 광주금융조합의 설립 인가는 1918년에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지방금융조합의 후신으로 기왕에 있던 광주금융조합(1914~1918)이 새로운 조합에 밀려 광산금융조합으로 개칭을 해야만 했다.

이들 조합과 별도로 1930년 12월에는 광산동 79번지, 즉 옛 전남매일신문사 사



© 최상학

■ 초대 광주금융조합장 최상진
대한제국 시절에 정삼품의 관직과 중추원 의관, 한국
인으로서의 마지막 광주면장을 역임했다.

옥 자리에 동광주금융조합이 설립됐다. 이 조합에는 조합장으로 진상협 金詳莢, 이사에 나가야 長屋勉 등이 재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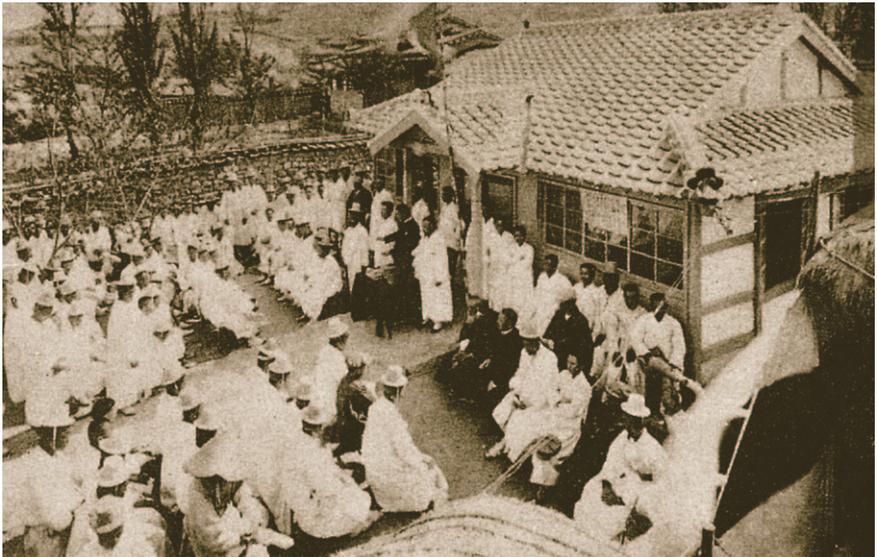
한편 송정리에도 2개의 금융조합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1919년 3월에 설립된 송정금융조합으로 장안섭 張安燮이 조합장으로 있었다. 장안섭은 해방 후에 송정읍장을 지냈다.

1923년 9월에는 도시조합으로 금봉금융조합 金鳳金融組合이 설립됐다. 이 조합은 압도적으로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조합장도 미야와키 宮脇丈八와 오즈카 大塚與平가 맡았다. 미야와키는 1930년 송정수리조합의 설립에 깊이 관여했고 훗날 그 조합장을 맡기도 했다.



■ 고흥지방 금융조합과 그 직원들(1916년)

■ 무안금융조합 창립 총회 광경



광주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융조합에서 사회경력을 쌓았다. 광주 출신으로 1929년 학생독립운동에도 가담했고 일본 메이지대를 나온 최동문(崔東文)은 화순·동북의 두 조합에서 겸임이사를 지냈다. 울산그룹 신선호의 아버지 신형식(申衡植)도 진도조합 이사였으며 한국전쟁 후 농협전남도지부장을 역임한 조응만(趙應萬)도 일제 때 나주 반남조합 이사를 지냈다. 이밖에도 조선인으로 금융조합 이사를 지낸 사람들은 많았다.

담양 담주_박영희(朴永喜)

무안 망운 및 외읍_김중갑(金重甲)

함평 나산_정경득(鄭慶得)

영암 독천_정창연(鄭昌連)

무안 지도_김택현(金澤鉉)

승주 주암 및 곡성 석곡_김준식(金俊植)

장성 삼계_정영모(鄭永模)

담양 창평_이종원(李鍾元)

곡성 옥과_송주영(宋柱永)

해남 우수영_이경표(李璟杓)



■ 전남금융조합연합회

인천에서 벽돌을 가져왔고 중국인 벽돌공이 쌓은 이 건물은 광주 벽돌 건물의 효시다.

처음 보는 벽돌건물일 뿐 아니라 청국 사람들이 지은 집이라 하여 광주 인근에서 많은 구경꾼이 모여 들었다고 한다. 건물 꼭대기에 구리판으로 된 4각 반 타원형 지붕이 특색이었는데 1975년 9월에 헐어버리고 농협 전남도 지부가 들어섰다.



■ 조선금융조합 창립기념비
한국전쟁 후에도 광주공원에 서 있었는데 일제 잔재물
이라 하여 철거되고 지금은 이 자리에 어린이헌장탑이
세워져 있다.

보성 득량_유흥상 柳興相
담양 대치_이석기 李奭基
영암 신복_김기채 金基采
영광 포천_배용환 裴用煥
완도 노화_소명영 蘇命永

장성 사가리_박선규 朴宣圭
완도 고금_이상수 李相洙
나주 봉황_김문현 金文顯
해남 계곡_박세화 朴世和
(1942년 현황)

한편 일제는 전국 최초로 금융조합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31년 광주 지방금융조합이 있었던 자리에 ‘조선금융조합 창립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1970년대 초까지 있다가 철거됐다.

■ 호남은행

호남은행의 설립 배경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은행령’은 종전에 조선인과 일본인 등 민족별로 나뉜 은행설립 규정을 통일한 것이었다. 동시에 대금업자들에게 대금업과 은행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대금업자들이 유사 은행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대금업자들을 중심으로 은행 설립에 나섰고 도처에 은행들이 생겨났다. 1913년 상반기에 8곳이던 은행은 그 해 하반기에 11곳으로 늘었고 1920년 하반기에는 21곳으로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광주·전남에서도 은행 설립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전부터 상인들은 물론 지주들도 대금업을 해왔다. 대부분의 보유자산이 토지에 묶여 있던 지주들은 늘 현금 부족에 시달려 왔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주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연하게 대금업, 즉 돈놀이를 했다.



■ 호남은행 휘장

그러나 신용대부는 언제든 돈을 떼일 위험성이 컸고,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부는 부동산 감정의 식견을 요구했으며, 1918년 이전까지 등기제도가 미비해 부동산조차 확실한 담보라 말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당시는 자금수요가 많고 고금리 시절이었던 탓에 대금업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이것이 수많은 지주와 상인들이 은행 설립에 뛰어들어준 이유였다.

일부 부호들은 1910년대 농공은행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서 은행 설립의 동기를 얻기도 했다. 농공은행의 운영에서 조선인들은 명색뿐인 임원 노릇을 했지만 개인 대금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목격했다. 또한 대금업과는 다른 규모의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해 경제의 상투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총독부의 견제로 설립에 진통

호남은행의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1919년 6월 중순이었다. 현준호는 앞서 도쿄 유학시절에 각별한 친교를 맺어온 김병로 金炳魯 1887~1964와 윤정하 尹定夏 1887~? 등을 만나 은행창립 구상과 발기인 구성에 나섰다.

김병로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어려서 전주 長齋 田愚 1841~1922에게 한학을 배웠으며 창평의 한학자 고정주 高鼎柱가 설립한 영학숙 英學塾에서 이미 현준호와 수학한 일이 있었다. 영학숙에는 동아일보의 김성수, 한민당의 송진우도 공부했는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뒷날 현준호와 깊은 인맥을 맺었다.

김병로는 1900년대 담양 용추사에서 최익현의 열변에 영향을 받아 의병에 투신했다. 당시 순창군 보좌청 補佐廳을 습격하기도 했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돌아와서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변론을 맡았다. 이런 경력에 힘입어 정부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가장 존경 받는 대법원장으로 기억된다.

윤정하는 도쿄고등상업학교 日明 東京高商를 졸업한 뒤 1909년 한성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하던 「상공월보 商工月報」의 편집자로 상업의 혁신을 주장하는 글을 썼다. 또한 요즘의 회계사에 해당하는 계리사 자격증을 우리나라 최초로 취득한 사람으로 1938년 「조선세무요람」을 집필하기도 했다.

■ 현준호 은행장
 호남은행 설립에 앞장
 섰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문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화를
 가진 인물이다.



김병로와 윤정하는 호남은행 설립의 모든 구비서류와 수속절차를 전담했고 은행 설립 뒤에 김병로는 이사 겸 법률고문으로, 윤정하는 회계고문으로서 계속 은행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발기인들이 구성됐는데 출신지역으로 나눠 보면 이렇다.

광 주 : 정낙교, 지응현, 김형옥, 조만선 趙萬善, 최선진 崔善鎭, 최종남 崔鍾南,
 최석휴 崔錫休, 주하영 朱賀永, 박하준 朴夏駿

목 포 : 현준호, 김상섭, 문재철 文在喆, 차남진 車南鎭, 김원희 金源喜, 김성규

담 양 : 고태주 高度柱, 고헌준 高光駿

화 순 : 박현경, 오완기 吳完基, 오병남 吳秉南

서 울 : 김성수 金性洙, 김병로, 오상현 吳相鉉, 윤정하

발기인들은 대체로 당시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부호나 지주들이었다. 크게는 광주 권과 목포권으로 나뉘 볼 때 여기서 미묘한 차이도 보였다.

광주권에서는 현준호가 한때 공부를 한 영학숙의 고정주 동생 고태주, 고정주의 아들 고헌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대지주들의 비중이 높았다. 최종남은 광주 사동의 부자로 알려진 최명구의 아들이었고, 최석휴은 대지주 최원택의 아들이었으며, 오완기와 오병남은 화순 동복을 대표하는 지주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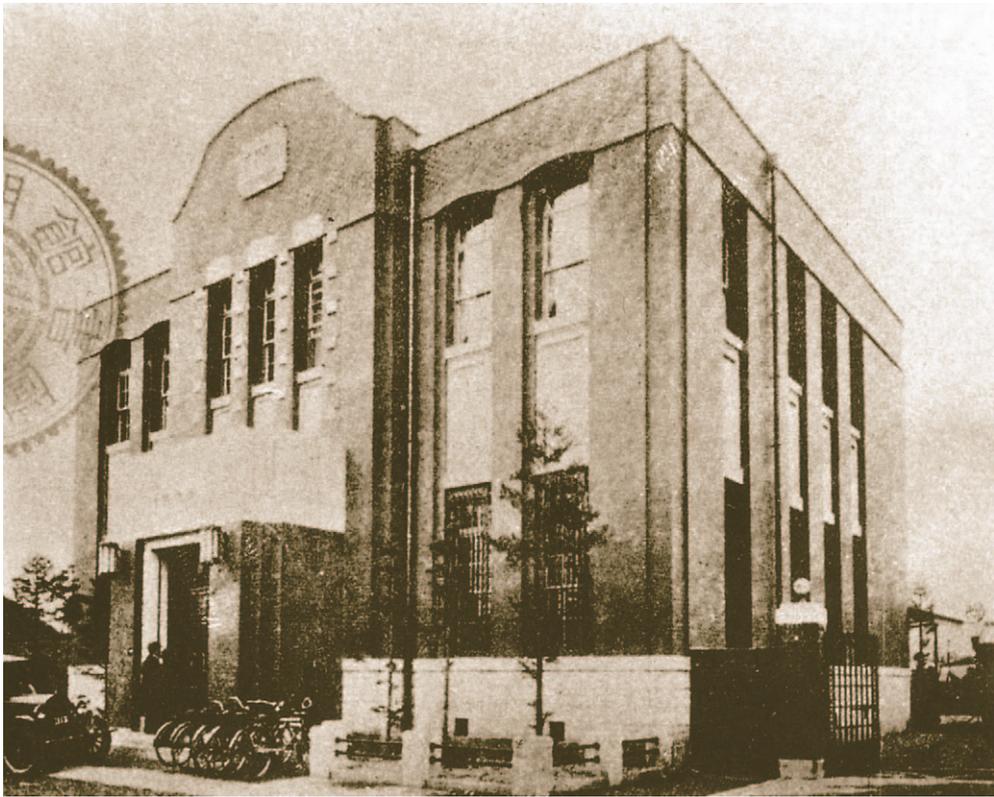
이에 비해 목포권에는 일부 대지주들도 섞여 있었으나 일찍부터 상업분야에 진출한 거부들이 많았다. 차남진의 집안은 아버지 차성술 시절부터 상업에 종사했고, 문재철 역시 아버지 문태현 때부터 대금업과 상업으로 기반을 닦았다.

1919년 7월 27일 광주에서 호남은행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설립에 따른 실무를 맡을 총대 總代로 현준호가 선출됐다.

현준호는 7월 30일 주식회사 호남은행 설립에 따른 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일본말로 모쿠로미쇼 目論見書라고 부르던 사업계획서에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아 허가를 미루었다. 기다리다 못한 현준호는 1920년 1월 중순께부터 허가를 전제로 미리 주식 모집에 나섰다. 그는 호남 곳곳을 누비며 각 지방 유지들에게 민족은행 설립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하고 다녔다. 총독부로부터 호남은행 설립을 인가 받은 것은 1920년 2월 9일이었다. 자본금 1백 5십만원의 호남은행 설립을 발기한지 꼬박 7개월 28일만이었다. 손정연 「무송 현준호」 참조

초대은행장 김상섭

설립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호남은행이 넘어야 할 고비는 또 있었다. 1920년대 초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된 불황의 골이 점차 깊어만 갔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가운데 현준호는 주식을 통한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 1920년 8월에 창립된 호남은행 본점
 1925년 3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1942년 5월 1일
 동일은행에 합병되어 충장로 5가로 옮겨가고 이 건물은
 조선은행에 이어 한국은행 광주지점이 되었다가 광주
 은행 본점 건물로 쓰인 뒤 철거되었다.

다행히 부친 현기봉의 자금과 현준호가 일본 유학시절에 호남출신 유학생들의 모임인 호남다화회 湖南茶話會에서 알게 된 곡성 출신의 정수태 丁洙泰 정내혁의 부친의 도움으로 3십 7만 5천원의 불입금을 완납했다.

창립총회는 1920년 8월 16일에 열렸다. 총회에서는 이사에 현준호, 김상섭, 김형욱, 문재철, 차남진, 김병로, 정수태, 고광준, 최종남을 뽑고 감사에는 박현경, 박하준, 지용현, 박종덕, 오완기를 선임했다.

다음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은행장으로 김상섭을 선출했고 현준호는 전무이사를

맡았다. 현준호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대신에 김상섭이 초대 은행장을 맡은 것은 선배 기업인에 대한 예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섭(金商燮)은 완도군 노화면 출신으로 원래 일본에 수출하는 쌀 거래를 중개하면서 사업 수완을 평가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현준호 일가와도 사업상 교분이 두터웠다. 1919년 현기봉은 공칭자본금 30만원의 목포창고금융회사를 설립했다. 상품을 담보로 대금업을 하던 회사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 회사에 김상섭은 전무이사로 참여했다. 반면에 김상섭이 1929년 공칭자본금 50만원의 전남신탁회사를 목포에 설립했을 때는 목포창고금융회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일종의 교차출자를 한 셈이었다.

현준호가 등용한 인재들

김상섭이 은행장을 지내는 5년 동안 현준호는 실무를 익혔다. 1925년 1월 29일 주주총회에서 현준호는 제2대 대표이사 겸 은행장에 선출됐다. 은행장에 취임하자 유능한 경영인을 초빙하여 우대하는 한편 자신은 전무를 겸하면서 은행의 내실화와 발전에 힘썼다.

현준호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등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김희성(金喜誠), 박준규(朴準圭), 장용태(張容泰), 최태근(崔泰根), 김신석(金信錫) 등이 손꼽힌다.

김희성은 조선은행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발탁했다. 그는 뒤에 광주상공회의소 명예회장과 광주시장을 역임했다. 박준규는 금융조합 이사 출신으로 해방 후 전라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장용태는 경성제일고보를 거쳐 와세다대학 상과를 나왔고 해방 후에 조흥은행장을 역임했다. 최태근은 도쿄상대를 나와 광주사세청장·지급의 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그리고 김신석은 해방 후 조흥은행 전무를 역임했는데 홍진기(洪鎭基) 내무장관과 중앙일보 회장 역임의 장인이기도 하다.

김신석은 1896년 경남 산청군 출신으로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1914년 4월 조선은행에 입사, 유능한 실무자로 지목받아 계산계·감사계·신입행원양성 주임으로 경력을 쌓았다. 1922년 호남은행으로 옮겨온 뒤에는 목포지점에 있다가 여기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1924년 광주본점 지배인으로 발탁됐다.

현준호는 그를 중용하여 1926년 이사, 1930년 전무이사로 임명했다. 그 후 호남은행은 사실상 현준호와 김신석, 두 사람에게 의해 운영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호남은



■ 김상섭 - 완도출신으로 검사를 지낸 뒤 기업계에 투신했다. 목포창고금융, 동아고무공업, 전남신탁 등 많은 기업을 창업했으며 초대 호남은행 두취를 역임했다.



■ 김신석 - 경남 산청 출신으로 조선은행에 근무하다 무송에게 발탁되어 호남은행 본점 지배인 전무를 거쳤다. 해방 후에는 조흥은행 전무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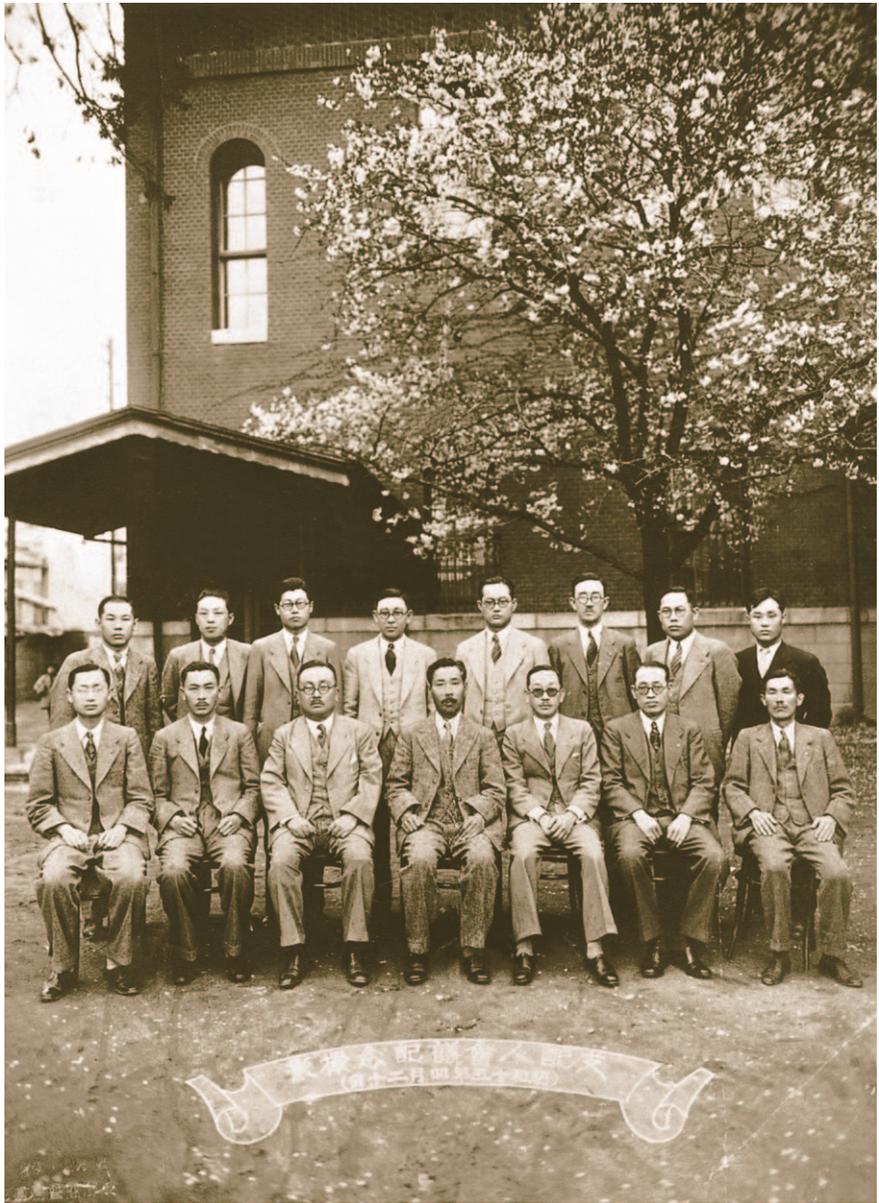
■ 장용태 - 경성제일고보를 거쳐 무송의 장학금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 호남은행 지배인으로 있다. 해방 후에는 조흥은행장을 역임했다.

행의 발전은 바로 이들의 활약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준호는 총책임자로서 최고 경영 방침을 정하면 김신석은 이를 충실히 실행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오늘날 기업경영의 기본 원리로 강조되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찍이 실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호남은행이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호남은행은 광주권과 목포권의 자본결합을 통해서도 큰 덕을 봤다. 이는 전북의 삼남은행과 비교된다. 삼남은행은 전북의 양대 상권인 전주권과 군산권을 아우르지 못한 채 전주권 자본만을 토대로 설립됐다. 그렇다 보니 영업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928년에 문을 닫고 말았다.

반면에 호남은행의 사세는 계속 확장됐다. 광주본점에 이어 1920년 10월 2일에 목포지점, 1922년 8월 순천지점, 1928년 8월 장성출장소를 설치했으며 장성출장소는 1929년 2월 지점으로 승격했다. 1932년 1월에는 보성지점을 내기도 했다.

1933년 7월에는 앞서 1918년에 설립된 동래은행 東萊銀行을 합병했다. 아울러 동일은행의 동래지점과 거창지점을 인수해 영업구역을 경남 서부권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전남도내에는 1936년 4월 영광지점, 1937년 담양지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 최상화

■ 전국 지배인(지점장) 회의

1940년 4월 20일 벚꽃이 만발한 호남은행 본점 뒤뜰에서 전국 지배인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 장용태, 세번째 김신석, 네번째 현준호, 뒷줄 왼쪽 두번째 최태근, 다섯번째 박준열.

자본금도 불어났다. 1920년대 초엽 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이 각각 1백 5십만원과 3십 7만 5천원이던 것이 1930년대 후반에는 각각 2백만원과 1백 7십 5만원으로 불어났다. 자본금 증가와 함께 영업수익도 늘어 호남은행은 결산 때마다 7~8% 전후의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호남은행에 대한 일제의 압박

그러나 지방에 있는 보통은행으로서 호남은행이 넘어야 할 고개는 많았다. 호남은행 출범 전부터 특수은행임에도 식산은행은 보통은행 업무를 겸했다. 1929년에는 식산은행의 저축업무를 떼어내 조선저축은행을 세워 다른 보통은행을 압박했다. 또한 보통은행들의 반대에도 금융조합이 조합원 외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예금액 제한을 풀었고 어음할인도 허용했다.

보통은행에 대한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는 소규모 은행들을 줄여나가 몇 개의 대형 은행만을 존치시키는 방침을 굳혀갔다. 1928년에는 이에 따라 '신은행령 新銀行令'을 공포했다. 신은행령은 은행 자본금의 하한선을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는 하한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은행을 도태시키기 위함이었다. 몇몇 은행이 이 뒷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호남은행은 이 뒷을 피해나갔다. 자본금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1920년대 후반에 현준호는 일제에 미운털이 박히는 몇 가지 일을 했다. 1927년 3월 평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남평의회 도지사의 자문기구에서 일본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기념사업을 벌이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일본인과 조선인이 반반씩 부담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자 현준호는 기념사업이 일본인에게는 뜻 깊은 사업일지 모르나 조선인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며 비용 분담에 반대했다. 이것이 이른바 '황실불경 皇室不敬 사건'으로 비화됐다. 총독부의 황민화 시책에 반하는 현준호의 은행경영에 대한 소문도 돌았다. 일설에는 1933년 전남평의회가 전남도 금고로 호남은행 지정을 요청했을 때 총독부가 거부한 것은 이때의 일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당시 현준호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내던 사람인데 그랬을 리는 만무했을 것이라고도 본다.

참고로 전남도 금고는 광주농공은행에 이어 당시 식산은행 광주지점이 맡았다. 1954년 4월 식산은행이 산업은행으로 개편되면서 일반 여수신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자 일체의 거래를 제일은행으로 인계하였다.

전남도 금고를 누가 맡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설전이 오갔다. 농협이 발족된 뒤에는 농협 측에서 전남이 농도農道이므로 농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을 연고로 한 광주은행이 설립된 뒤에는 지방정부의 금고는 마땅히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래서 도 금고 기간이 갱신될 즈음에는 두 금융기관 간의 유치운동이 치열했다.

■ 개성 선죽교를 찾은 호남은행 간부들(1936년).
 왼쪽 두번째 이상복, 세번째 김홍옥, 여섯번째 장용태,
 오른쪽 일곱번째 최태근, 여덟번째 박영만



© 최상학



◎ 최상학

■ 호남은행 목포지점 최태근 지배인의 취임 기념사진
 앞줄 왼쪽 최태근, 중앙 현준호

한편, 광주면은 호남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35년 광주읍이 부府 지금의 시에 해당로 승격한 이듬해 광주부 금고를 호남은행으로 지정했다. 그 뒤 광주부 금고는 호남은행을 흡수한 동일은행, 다시 동일은행의 후신인 조흥은행이 맡았다. 그 후 지방은행의 육성을 위해 시 금고를 광주은행에 옮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69년 1월, 시 금고를 광주은행으로 변경했다.

호남은행의 강제 합병

어쨌든 당시 호남은행은 일제의 핍박이 날로 심해져 일본인을 상무나 지배인으로 채용하면 제반 편의를 봐주겠다는 등 강요에 가까운 간섭이 있었으나 은행 측은 이를 일축했다.

■ 동일은행 목포지점 개업식 기념사진
호남은행은 1942년 4월 동일은행에 흡수합병된 뒤 5월 1일 개점식을 가졌다.



이렇게 되자 총독부는 호남은행에 대한 강제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강수를 뒀다. 「조흥은행 60년사」에는 호남은행 본점 지배인을 지냈고 훗날 조흥은행장을 역임한 장용태가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 내용에 나온다.

그에 따르면, 1941년 돌연 총독부의 ‘특별검사’라는 명목으로 50여일 동안 호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정기검사는 보통 7일 내외였으며 호남은행은 정기검사를 받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다. 검사반은 은행 장부를 빗질을 하듯이 살살이 뒤졌으나 꼬투리를 잡을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검사 평가는 ‘은행원들이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인을 채용하지 않는다’ ‘일본인이나 일본인 관련단체에 일체 용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호남은행이 배일기관排日機關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총독부는 1941년 겨울에 강제합병 명령을 호남은행에 내렸다. 총독부는 이 명령을 전달하면서 흡수될 은행으로 상업은행과 동일은행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호남은행이 이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자 1942년 봄에 총독부는 다시 최후통첩을 했다. 결국 4월 30일 호남은행을 해산했다. 호남은행은 비교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동일은행에 흡수되는 길을 택했다. 이것으로 호남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일제 때에서 지방은행이 완전 소멸되는 것을 의미했다.

호남은행을 흡수한 동일은행은 그 상호를 오래 간직하지 못했다. 1943년 10월 동일은행은 한성은행漢城銀行과 합병, 조흥은행으로 개편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제 말엽에 은행은 5곳, 즉 조선, 식산, 저축, 상업, 조흥은행만 남았다.

현준호의 호남동 저택과 학선제

오늘날 현준호는 젊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존재이다. 광주시내에 그가 남긴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현준호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

호남은행 본점은 1920년 9월 20일 개업 당시에 광주면 북문동 9번지의 단출한 기와집을 사용했다. 1925년 이 건물 뒤편에 있던 목조건물을 허물고 부지를 넓혀 2층 벽돌건물을 신축했다.

한때 한국은행 지점, 광주은행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철거됐다. 그 자리에 태산백



© 최상학

■ 현준호 저택

호남동 현준호의 저택은 1961년 천주교회에 매각되어 뜯기고 말았다. 현준호 생전에 깊은 교분을 맺었던 박인천 회장과 최태근 교장이 저택이 헐리는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화점, 호남백화점 등이 들어섰고 현재 다른 유통업체가 사용중이다. 건물 앞에는 호남은행 본점터였음을 알리는 작은 표석이 있다.

시내 호남동湖南洞 현준호와 밀접한 관련이 깊다. 일제초기 호남동의 명칭은 화원정花園町이었다. 이곳에는 호남은행의 창설자인 현준호의 저택, 전무 김신석 등 임원들의 사택, 그리고 일반사원들의 독신자 숙소가 모여 있었다. 그래서 광주군이 1931년 4월 행정구역과 그 명칭을 개정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호남은행 창설자에 대한 예우의 뜻으로 동네 이름을 호남정으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군은 이 일대

의 도로정비를 할 때도 현준호 저택을 생각해 길을 우회해서 냈다.

그 현준호 저택이 있던 곳이 호남동 67번지다. 부지 1,007평, 연건평 182평의 기와집이었다. 수년 동안 지어 1931년에 완공했고 해방 후까지 오랫동안 그 웅장한 규모를 담 너머에서도 가늠할 수 있었다. 건축에 들어간 목재만 해도 여느 살림집 몇 채를 짓고도 남을 정도였다.

1950년대에는 이 저택에서 영화감독 권영순의 데뷔작인 <옥단춘>을 촬영했다. 이 영화는 실내를 스튜디오처럼 사용해 촬영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영화촬영을 계기로 출연배우 김진규가 당시 신인이던 김보애와 결혼하기도 했다.

이 저택은 그 뒤에도 남아 있다가 1963년 천주교회에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8백 원이었다. 그 자리에 지금은 호남동 천주교회가 들어서 있다. 당시 집이 헐릴 때 광주의 노인 600여명이 몰려들어 눈시울을 적시며 아쉬워했다. 호남은행이나 현준호와 깊은 교분을 맺었던 박인천 금호그룹회장이나 광주국세청장을 지낸 최태근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현준호의 족적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에 통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 증심사의 제각

누에가 실을 뽑듯 부귀가 솟는다는 잠두혈의 명당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 서고 건물은 증심사소에 있는 전통문화관으로 옮겨졌다.



현준호의 또 다른 흔적은 학동에도 있다. 일제 때 학동은 학강정鶴岡町이라고 했다. 시내 쪽에서 봤을 때 무등산에서 이 동네로 내려오는 산줄기가 학의 형상을 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 능선이 누에의 머리처럼 우뚝 멈춰선 곳이 있는데 풍수상 이곳을 잠두혈蠶頭穴이라 했다. 그리고 지관들은 여기에 무덤을 쓰면 누에가 실을 뽑듯이 부귀가 번창하리라고 했던 것 같다. 이에 현준호는 1930년 10월 영암에 있던 현기봉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했다.

당시 이장 광경은 일대 장관이었다. 이장에 동원된 자동차만 15대였다. 그 무렵 광주에 등록된 자동차가 20여대, 전남에 200여대였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였다. 또한 상여가 지나가는 동안 길에는 흰 광목을 깔았다. 자동차를 탄 목수와 전기공들이 상여 앞에서 가며 상여가 걸리지 않도록 길가의 나무를 쳐냈고 늘어진 전선을 이설하기도 했다.

부친의 묘를 이장하고 현준호는 제각과 함께 말년의 거처로 삼기 위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지은 건물을 그동안 현준호의 호를 따 무송원撫松園이라 불렀다. 그런데 2008년 봄에 제각의 상량문이 발견돼 제각의 실제 명칭이 학선제鶴仙齋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학선제가 1930년 10월 5일에 착공, 1960년에 완공되어 30년에 걸쳐 지었음도 확인됐다.

그런데 학선제 부지는 1990년에 매각됐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다만, 학선제 건물만은 광주은행이 인수해 화순군 동면의 연수원 예정부지로 옮겨가 오랫동안 그곳 산중에 텅그러니 놓여있었다. 지금은 다시 광주로 옮겨져 증심사 입구의 전통문화관에서 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준호는 1950년 7월 북한군의 광주 점령 당시에 체포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 그 해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으로 북한군이 퇴각할 즈음 형무소 인근에서 학살당했다. 그의 묘는 1930년 영암에서 이장한 부친 현기봉의 묘와 함께 학동에 있다. 현기봉의 묘비는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휘호로 쓴 것이고 현준호의 묘비는 노산 이은상鷲山 李殷相의 글을 새긴 것이다.

■ 해방 후의 은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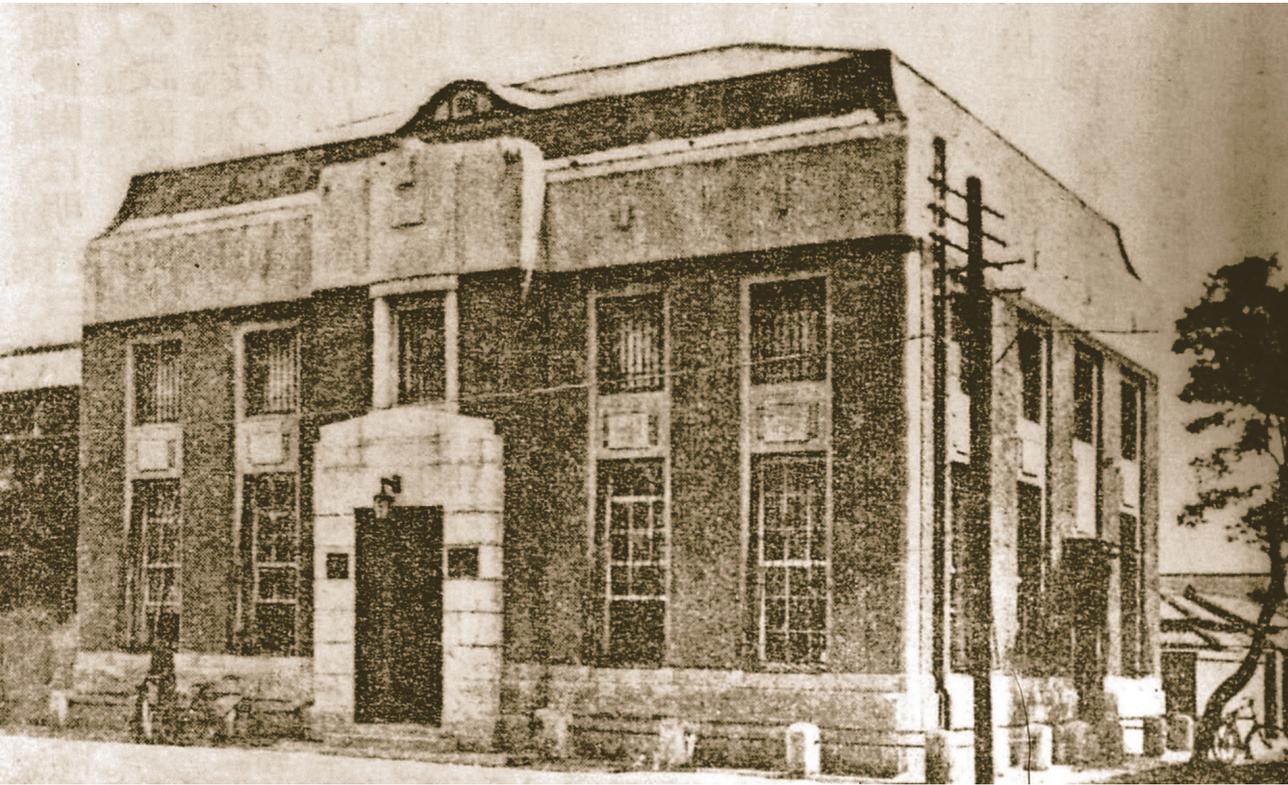
식산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일제의 금융정책 침범 중 하나는 식산은행이었다. 특수은행이자 국책은행이던 식산은행은 곡창지대인 전남에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많은 자금을 융자했다. 동척과 함께 1920~30년대 산미증식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무렵 수리조합과 간척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실대출(情實貸出), 특혜금융도 적지 않았다.

한편, 식산은행은 그 전신인 농공은행 때처럼 조선인들을 은행경영의 보조세력으로 내세웠다. 그 중 하나가 식산은행의 상담역에 조선인들을 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상담역은 유명무실한 지위였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직 그 구체적인 역할과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

광주·전남 출신의 상담역으로는 모두 6명, 즉 김형옥, 정낙교, 박하준, 현기봉, 이석래(李奭來), 정병현(鄭丙鉉)이 확인된다. 모두 광주농공은행 시절에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전시체제가 되면서 식산은행의 업무는 전쟁비용을 조달하는데 집중됐다. 이 무렵 일제는 통화증발, 말기에는 조잡한 고액권 지폐를 찍어 내기에 바빴다. 심지어 일련번호가 없는 지폐도 발행했다. 각종 채권발행도 남발했다. 그 중에는 '애국채권'이란 것도 있었다. 이 채권은 일종의 복권이었는데 당첨을



■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당초에는 농공은행 목포지점이었다. 식산은행은 일제의 농공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자금의 중요한 근거지로 하였다.

을 높여 채권 판매고를 늘리려고 했다. 값비싼 채권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사행심을 증동질해 전쟁비용을 마련하려는 것인 동시에 전쟁 인플레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이런 몸부림에도 일제는 패망했다. 패망은 식산은행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의미했다. 식산은행은 일본인들과 일본기업에 융자해 준 자금 중 10억~11억원을 회수할 수 없었다. 이는 식산은행의 전체 대출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보유한 일본 국채와 유가증권 등 미회수 자산까지 합하면 손실액은 19억원에 육박했다.

해방으로 예금 유입이 끊겼고 채권시장 마비로 전통적인 자금원이던 회사채 발행도 사실상 중단됐다. 1954년 4월에 식산은행은 한국산업은행으로 개편했다. 이후 2009년 산은금융그룹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무렵에는 오랫동안 산업은행의 전신이던 광주농공은행 본점과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사용되던 건물마저 헐리면서 사라졌다.

조선저축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한편, 식산은행은 1928년 저축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조선저축은행이다. 일반 시중은행들은 저축은행의 신설

■ 조선저축은행 광주지점
지금의 제일은행 전신으로서 1936년 3월 16일 개점했다.



을 시기상조라고 맹렬히 반대했으나 조선총독부는 1928년 12월 '조선저축은행령'을 공포했고 이듬해 7월 은행을 설립했다. 저축은행은 5원 미만의 보통예금, 거치예금, 적금 등을 취급했다.

초대 은행장은 22년 전 광주농공은행 초대 지배인을 지낸 모리였는데 이후 식산은행에서 이사를 맡았다. 모리처럼 저축은행의 역대 은행장이나 이사들은 대부분 모은행(母銀行)인 식산은행 출신이었다.

광주지점은 1936년 3월에 개설했다. 초기에는 총장로 1가 16번지, 즉 옛 고재탁(高在鐸)안과의원 자리에 건물을 빌려 지점을 냈다. 그 뒤 금남로 3가 9-2번지로 이전했다.

이때까지도 저축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배인은 일본인만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드물게 이런 관행을 깨고 조선인 이일준(李日駿)이 1940년에 광주지점 지배인으로 부임했을 때, 그 이유만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일제말엽에 저축은행 지점장의 사택은 불로동에 있었는데 뒤에 그 자리에 그랜드호텔이 들어섰다.

저축은행은 해방 후인 1946년 2월부터 식산은행에서 맡고 있던 보통은행 업무를 인수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식산은행 직원들이 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영향으로 종래 식산은행에서 담당하던 전남도 금고를 저축은행 광주지점이 인수받았다. 이후 농협으로 바뀌기 전까지 도 금고는 저축은행 광주지점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됐다.

저축은행은 이때만 해도 정부가 대주주로 있었다. 자유당 정권말기인 1958년에 정부는 저축은행 주식을 불하했는데 이때 제일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불하과정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고 1960년대 무렵 정부가 다시 불하주식을 환수했다. 그 후 1982년에 제일은행은 다시 민영화됐다. 제일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인수,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상태다.

1960년대 이후 사람들은 제일은행 건물을 벌집 모양의 독특한 은행으로 기억한다. 현재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광주지점이 입주한 건물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 여전히 '제일은행 빌딩'이라 부르기도 한다. 벌집 모양의 건물도 1990년대 후반에 철거되고 지금은 다른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 한일은행 광주지점
해방 이듬해 조선상호은행으로 발족하여 한국상공
은행, 흥업은행이라 하다가 한일은행으로 네번이나
이름을 바꿨다.

무진회사로 출발했던 한일은행

우리말에 무진장無盡藏이란 말이 있다. 원래 ‘다함이 없다’는 뜻의 불교용어였다. 그런데 중국 남북조시대에는 사찰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밀천으로 이를 서민들에게 저리 용자를 해주던 것도 무진장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이런 활동이 활발했다. 일본에서도 무진, 무진강無盡講 혹은 강講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일제강점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 사이에서 사설무진私設無盡이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됐다.

광주에서는 1909년부터 일본인들 사이에서 출현해 이후 무진업이 성행했다. 한때 수십여 개나 있었는데 금융사고도 빈발했다. 이런 무진들이 양성화된 것은 1922년 ‘조선무진령’이 공포되면서부터였다.

광주에는 1924년 2월 24일 자본금 1십만원, 불입금 5만원으로 광주무진주식회사가 설립됐다. 활동구역은 광주, 담양, 장성, 나주, 화순, 장흥, 강진이었고 회사는 충장로 3가의 2층 건물에 있었다. 필자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전 공작다방이 있던 건물로 기억되는 곳이다.

광주무진은 광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운영했다. 초창기 사장은 하라다原田謙造, 전무는 츠다津田寛가 맡았고 중도에 사장은 아사쿠라朝倉重次郎, 전무는 카와하라川原吉秀로 교체됐다.

1930년대에 총독부는 전국에 산재한 무진회사의 통합을 추진해 1939년 광주무진, 목포무진, 순천무진이 중앙무진주식회사에 흡수됐다. 이후 광주무진은 중앙무진 그리고 중앙무진이 이름을 바꾼 조선무진의 지점으로 운영됐다.

이처럼 중앙무진 또는 조선무진이 전국 규모의 금융회사가 될 무렵 광주지점은 금남로 5가에 있었던 옛 천일약방의 건물을 매수, 개축해 영업했다.

한편, 조선무진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조선상호은행으로 개편, 상업금융과 무진업무를 겸하다가 1950년 6월 한국상공은행으로 개편했다. 이때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으로 개편되는 동시에 종전 조선은행이 맡던 예금과 대출업무를 상공은행으로 인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상공은행은 1954년 6월에는 한국신탁은행과 합병하여 한국흥업은행으로 상호

를 바꿨다. 이 무렵 흥업은행은 신탁업무까지 겸한 유일한 은행이었다. 그러다 1959년 11월 흥업은행은 다시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바꿨다. 해방 이듬해에 상호은행으로 설립돼 무려 네 차례나 이름을 바꿔 한일은행이 된 셈이다. 그러나 한일은행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상업은행과 합병, 한빛은행이 됐다가 2001년 우리은행에 흡수됐다.

상업은행 유치에 얽힌 이야기

한국전쟁 이후 광주에 설립된 은행지점 중에 하나가 상업은행이다. 상업은행은 대한천일은행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천일은행이 1910년 조선상업은행으로 상호를 바꾼 뒤에도 그 휘장에 계속 ‘天一’이란 글자를 사용했다. 상업은행은 이 휘장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1977년 6월에야 바꿨다.

상업은행은 수많은 크고 작은 은행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이렇게 해서 일제 때에는 조흥은행과 함께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최대 보통은행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광주·전남과는 별다른 인연을 맺지 못했다.

반면에 전북과는 인연이 깊었다. 1928년 전북을 근거지로 한 삼남은행(三南銀行)을 합병하면서 전주, 군산, 이리지점을 인수했고 영남에서는 1935년 부산상업은행, 1941년 대구상업은행을 인수해 영업망을 확대했다. 또 북한지역에서도 1923년 원산

상업은행, 1925년 평양에 본점을 둔 대동은행을 합병해 많은 점포를 거느렸는데 해방 당시 상업은행은 북한지역에만 지점 27개 외에 전체 예금액의 3분의 1, 대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나 곧 이은 분단으로 상업은행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런 상업은행과 전남의 인연을 굳이 찾는다면 그 전신인 천일은행이 1899년 3월, 목포 지점의 설치인가를 받은 일이다. 그러나 목포지점이 실제 개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뒤 1933년 1월 상업은행은



■ 상업은행 휘장

장흥 및 강진에 점포를 설치했다. 그러나 1942년 11월 경남지역에 활동하던 동일은행과 영업구역을 조정할 때 이들 지점을 동일은행에 넘기고 대신에 동일은행의 동래 및 거창지점을 인계받으면서 전남과의 인연이 다시 끊겼다.

광주상공회의소의 상업은행 유치운동

상업은행의 광주지점 유치운동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53년에 시작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그해 9월 상업은행 광주지점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광주상의 박인천 회장은 재무부장관과 상업은행장 등을 찾아다니며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제출한 건의서에는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광주의 척박한 금융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953년 광주에서는 많은 돈이 어디로 갔지 모른 채 퇴장, 즉 장롱 속에 감춰준 상태였다. 물가등귀가 심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돈을 믿고 맡길만한 금융기관이 식산은행, 조흥은행, 상공은행, 저축은행의 지점 4곳, 금융조합 2곳에 불과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돈의 회전을 늘려줄 상업은행의 지점 설치는 학수고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전후의 불안정을 이유로 은행 점포의 증설을 반대했다. 기존 점포를 내실있게 경영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광주상의가 끈질기게 요청하자 상업은행은 본점 조사부의 참사(參事) 고선업(高善業)을 광주에 보내 금융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은행 측은 광주지점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점포 증설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완강하여 궁여지책으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다. 경영이 부진한 경남 울산의 방어진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에 광주지점 설치의 인가를 얻어낸 것이다.

광주지점 유치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상의와 상업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마찰을 고려해 이를 비밀에 부쳤다. 점포 자리를 물색할 때도 본점의 서무부장 전신용(全信容)과 조사부장 김교영(金敎英), 그리고 광주상의 임직원들이 은밀하게 돌아다녔다.

점포물색은 쉽지 않았다. 당시 인플레이가 극심해 흥정하고도 막상 계약을 할 때면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 계약이 틀어지곤 했다. 은행 점포로 쓸 건물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지점 개설에는 20평 이상의 건물이 필요했는데 총장로에는 그만한



■ 상업은행 광주지점
 천하에 제일가는 은행이라고 해서 천일은행이라 했다가
 조선상업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건물이 손꼽을 정도로 적었다. 또 그런 점포 후보지를 대상으로 흥정을 하다 보니 곧 중개인이나 건물주들이 은행점포를 구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시세보다 2~3배로 높게 값을 불렀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충장로 5가 옛 임옥양복점 자리도 이런 이유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점포물색이 늦어지자 실무자들은 초조했다. 1954년 4월 1일까지 개점을 못하면 지점 인가가 취소될 처지였기 때문이었다.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점

광주상의는 당시 광산동 13번지의 옛 전라남도 상공장려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점포 확보가 어렵자 상의는 이 건물의 한쪽 20여평을 상업은행에 내줬다. 이렇게 해서 상업은행은 1954년 4월 1일 그 자리에 광주지점을 개점했다.

초대 지배인 당시까지도 지점장을 이렇게 불렀다. 은 송규섭 宋珪燮 후에 전북은행장 역임, 부지배인은 김인술 金仁述, 대리는 박상교 朴祥敎와 강신항 姜信恒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북 출신이었다. 광주·전남 출신 중에는 상업은행 직원이 없어 인근 전북 출신에게 지점 개설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광주 사정에 어두워 개점을 앞두고 거래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때마침 변수가 생겼다. 식산은행이 산업은행으로 개편되면서 일반은행 업무를 저축은행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와 상업은행 측은 식산은행에서 빠져 나오는 거래처를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적잖은 항의를 받았다. 당시 저축은행 광주지점장 김홍길 金鴻吉은 처가가 나와 같은 문중이었는데 이를 내세워 섭섭함을 드러냈다. 광주상의에 일하는 필자가 상업은행의 유치를 위해 일한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자기 은행으로 넘어오는 거래처를 상업은행으로 빼내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개점한 상업은행 광주지점은 이후 영업규모가 커져 1955년 총장으로 3가 옛 송광 松光 철물상회를 매수해 점포를 신축했고 그해 4월에 이전했다. 이때 광주상의는 신축 이전을 기념해 한국화 한 폭을 상업은행 광주지점에 기증했다. 이 그림은 담양 출신의 화가 동강 정운면 東岡 鄭雲麵 1906~1948이 1940년 일본문부성 주최의 미술전람회에 출품해 입선을 받은 것이었다. 그림은 원효사의 옛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원효사의 원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었다.

상업은행 광주지점의 개설에는 박인천 회장과 얽힌 일화도 있다. 박회장은 지점 유치를 위해 관계당국을 찾아다녔고 개점 직전에는 점포 확보와 거래처 알선을 지원하기도 했다. 개점 첫날에는 축하의 뜻으로 상업은행에 예금구좌도 개설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예금구좌를 취소하고 자신의 원래 거래처인 조흥은행 구좌만



■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원효사의 옛 모습
동강 정운만이 원효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상업은행 광주지점에 걸려 있었다.

을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안 상업은행 지점장은 지점 유치를 추진한 주역이고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이란 점을 들어 박회장이 계속 자기 은행과 거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회장은 “비록 내가 공인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업은행 유치운동을 벌였지만 사적으로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과의 인연을 버릴 수는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공사가 분명했고 인연을 중시했던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업은행 광주지점은 21년간 총장로에 머물다가 1976년 12월 27일, 금남로 2가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여기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998년 10월 한일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으로 개편했다. 2001년 4월 한빛은행은 다시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통합돼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밑돌이 됐다.

■ 광주은행

광주상공회의소의 노력으로 설립

특정 지역을 영업권으로 하며 민간 주도로 세운 보통은행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터다. 1912년 경남의 구포은행龜浦銀行과 원산의 칠성은행七星銀行을 시작으로 1920년 대구의 경일은행慶一銀行, 광주의 호남은행, 서울의 조선실업은행, 대구의 경상공립은행慶尙共立銀行에 이르기까지 1910년대에만 이런 은행이 20여개나 설립됐다. 물론 광주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는 1906년에 설립된 광주농공은행이 있었으나 이 은행은 정부가 설립을 주도했고 본질적으로 특수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해방 후에는 1959년에 서울은행이 지방은행의 성격을 띠고 설립됐다. 여기에 자금을 받아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지방은행 설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요청이 되풀이되자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부산·대구·광주 및 대전에 지역경제개발 자금의 확보를 위한 지방은행의 설립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설립될 지방은행은 자본금이 부산은 4억원, 다른 지역은 2억원으로 하며 설립주체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 광주상의는 2월 7일 오후 2시, 상의 회의실에 지역 상공인과 유지 20여명을 초청해 '광주지방은행 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광주상의 박인천 회장을 추진위원장에 추대했다.



■ 광주은행본점
1979년 6월 12일 금남로 3가 1-11번지에 세워졌다.

광주은행의 변천

추진위원회는 서울과 지역에 출자 권유위원을 파견했고 그 해 12월 29일 내인가를 받았다. 1968년 6월 17일에는 서울지역 광주·전남지역 기업인 15명이 발기인으로 추가하여 5천 7백만원¹주당 가격은 1,000원의 출자금을 보태 법정한도액 2억원을 확보하고 9월 17일 광주 YWCA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렇게 하여 대구·부산·충청은행에 이어 4번째 지방은행으로 광주은행이 설립됐다.

광주은행은 그해 11월 20일 총장로 5가 옛 금성여객 옆에 사옥을 마련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창립 2년 후인 1969년 11월 10일에는 총장로 3가 6번지 옛 호남은행 본점이자 한국은행 광주지점이기도 했던 건물을 사들여 이전했다.

1979년 6월 12일에는 금남로 3가 1-11번지에 사옥 부지 673평, 지하 2층, 지상 9층, 연건평 3,731평을 지어 이전했다. 1997년 9월 3일에는 다시 대인동 7-12번지에 본점 부지 2,500평, 지하 5층, 지상 20층, 연건평 1만 4000평을 새로 지어 이전해 지금까지 사용 중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후 2001년 4월 2일, 우리금융지주사의 계열사로 흡수됐다.

필자와 광주의 금융기관

필자는 광주상의 재직시절에 주로 지역 경제현안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건의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당시 작성한 광주상의 건의서에는 금융 현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자금지원 요청이었지만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설립과 유치도 포함됐다. 광주은행 설립과 상업은행 광주지점 유치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건의서를 보면 광주·전남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금난을 겪어왔는가를 알 수 알 수 있다. 1952년 11월 재무부장관에게 보낸 중소기업자금 요청 건의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광주·전남의 산업은 95%이상이 중소상공업에 의존했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주요산업은 70%이상이 파괴됐고 중소상공업도 큰 피해를 봤다. 특히 1952년 광주·전남은 전선에서 떨어져 있었음에도 이른바 '워커 라인'에 의해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워커 라인은 한국 당시 미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설정한

낙동강 방위선을 말하는데 이 선을 벗어난 지역은 1952년 당시까지도 은행으로부터 용자제한을 받았다. 그로 인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기업들마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사채를 끌어다 썼다. 당시 사채 이자는 월리 15~20%, 연리로 환산하면 180~240%에 달하는 고리대였다.

비록 자금사정은 나중에 조금씩 개선됐지만 원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증설 없이는 해소되기 곤란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금융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일은 지역현안이자 필자에게도 큰 과제였다. 그런 과정 중에 정부의 산업은행 정비방침에 따라 폐쇄될 예정이던 산업은행 광주지점을 존치시킨 일, 광주은행과 광주투자금융^{후에 광주종합금융으로 개칭}을 설립한 일, 그리고 1973년 9월부터 노력해 이듬해 10월에 외환은행 광주지점의 개설을 성사시킨 일은 마치 엇그제 일인 양 새롭다.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들

우리나라의 금융조직은 1997년 말 불어 닥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23개 시중 은행 중 현존은행이 7곳이고 통폐합이나 인수합병으로 없어진 은행이 16곳에 달했다. 지방은행의 경우도 10곳 중 없어진 은행이 4곳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후의 제1금융권의 현황을 살펴본다.

■ 특수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지방은행

- 독자생존 :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 편입생존 : 경남은행, 광주은행 이상 우리금융지주 편입, 제주은행 신한금융지주 편입
- 퇴출 : 경기은행 한미은행 인수, 충청은행 하나은행 인수, 충북은행 조흥은행 인수, 강원은행^(*)

■ 시중은행

- 현존은행
 - 국민은행 국민금융지주회사 = 주택은행과 통합, 대동은행·경기 신용은행 등 인수
 -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 제주은행·동화은행·조흥은행·충북은행·강원은행 등 인수합병

- 한국씨티은행 미국씨티그룹 인코퍼레이션 = 씨티은행과 한미은행 통합
-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회사(2017년 편입예정)
-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 = 한빛은행·평화은행 합병, 광주은행·경남은행 편입
- SC은행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모체은행인 영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제일은행을 인수하여 세운 은행》
-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회사 = 서울은행·충청은행·보람은행 등 인수

• 퇴출은행

- 대동은행 국민금융지주회사에서 인수, 장기신용은행^(*)
- 동남은행 주택은행에서 인수, 주택은행 국민은행과 통합
- 동화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인수, 조흥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
- 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으로 합병
- 상업은행 한빛은행으로 합병, 한일은행^(*)
- 한빛은행 우리금융지주사로 합병, 평화은행^(*)
- 보람은행 하나금융지주사로 합병, 서울은행^(*)
- 제일은행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인수



제6장 통신



■ 경양역

봉수와 역

조선시대에 통신의 근간은 봉수와 역이었다. 봉수는 불이나 연기를 피워 릴레이식으로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봉수대가 필요했고 이런 봉수대는 대체로 해안가와 국경지대의 고지대를 따라 설치됐다.

광주에는 봉수대가 있었던 기록은 없다. 일제강점기 서석초등학교의 전신인 광주 보통학교의 교장을 지낸 야마모토 山本哲太郎가 1930년대에 「광주군사 光州郡史」를 펴내면서 지금의 벽진동에 있는 사월산 정상부에 오래전 봉수대가 있었다는 구전을 소개한 일이 있다.

그러나 광주에 봉수대가 있었던 기록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사월산 정상부에는 봉수대 흔적이라 볼만한 것이 없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가설된 봉수망의 특성을 생각해도 내륙도시인 광주에 봉수대가 있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광활한 평지를 배경으로 유독 솟아 보이는 사월산의 특성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던 것이 아닐까 싶다.

반면에 광주에서 역은 일찍부터 발달했다. 역은 봉수와 마찬가지로 릴레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봉수의 불이나 연기에 대신하여 사람이 걸거나 말을 타고 정보를 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전라도에는 모두 6개의 역로가 있었다. 동부지역을 관통하는 제원역로



■ 비웃을 입은 대한제국 시절의 세송인



■ 체신행정의 총본산인 구한국 통신원

©「한국우정 100년사」

와 오수역로, 서부지역을 잇는 삼례역로와 청암역로이다. 추가로 이들 동부와 서부를 잇는 두 개의 역로가 있었는데 노령산맥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양역로, 그 아래의 남해안을 따라 놓인 벽사역로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두 개의 역로가 관통했다. 광주의 동쪽은 경양역로에 속했고 이를 대표하는 역이 북구 우산동에 있던 경양역이었다. 반면에 광주의 서쪽은 청암역로 구역이었으며 그 산하의 선암역이 황룡강을 바라보고 지금의 광산구 선암동에 있었다.

또 하나의 광주

경양역은 조선 초엽에 남평의 오림역과 광리역을 포함해 모두 9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오림역과 광리역은 곧 청암역로에 편입되어 이후 7개의 역이 조선시대 말엽까지 유지됐다. 7개의 역은 본부

에 해당하는 경양역을 비롯해 담양의 덕기역, 화순의 가림역, 능주의 인물역, 동북의 검부역, 순창의 창신역, 옥과의 대부역이다.

초기에 경양역의 수장은 9품의 역승驛丞이었으나 1510년 6품의 찰방察訪으로 격상됐다. 조선후기에 이 경양역의 찰방 아래로 역의 운영을 직접 맡아보는 역리驛吏 1,300여명, 그 보조인력으로 흔히 역졸驛卒로 부르던 노비 250여명 정도가 있었다.

경양역은 광주 안에 있는 또 다른 광주였다. 역의 수장인 찰방이 6품의 벼슬아치로 3품의 광주목사에 비해 한참 낮은 관원이었음에도 찰방의 지위는 독특했다. 찰방은 통신사무 외에 역로 주변의 지방관의 비행이나 역모 모의 등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기관에 보고하고 이밖에 국사범을 수감하거나 이송 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지방 관아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찰방이 광주목사처럼 휘하에 육방관속을 거느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 찰방 송덕비

옛 경양 방죽 주변에 있었던 찰방 송덕비를 1965년 향교 정문 왼쪽으로 옮겼다.



경양역은 북구 우산동 392와 382번지 일대에 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근처 효죽동 우체국에서 옛 동광주조장 사이의 길을 ‘비각거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개의 비석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모두 역대 찰방들의 송덕비였다.

이 비석들은 1957년 광주시내의 다른 비석들과 함께 광주공원 입구에 이설됐다. 1965년에 다시 광주향교 입구의 왼쪽으로 옮겨졌다. 경양찰방과 관련된 비석들은 모두 6기가 있었다. 그러던 2003년 그 가운데 2기를 옛 호남전기 일명 구호전 근처로 옮겨 작은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장성의 청암역

우리나라의 역 제도는 새로운 통신제도의 도입에 따라 1896년에 폐지됐다. 그 후 역을 끼고 형성된 마을들, 즉 역촌들은 서서히 이름을 바꿨다. 이것은 일종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과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옛 역촌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런 마을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역리나 역촌 거주자들은 비천한 신분으로 보는 관행이 팽배했다. 그들이 어떤 처지였는가. 아마모토의 「광주군사」에도 옛보이다. 아마모토가 구전을 토대로 기록한 글에 따르면, 경양역은 원래 오치동에 있었고 그 일대에 함평 이씨들이 집단거주를 시작하면서 우산동으로 옮겨야만 했다. 선암역도 원래 소촌동에 있었는데 그 일대의 유력한 성씨인 충주 박씨들의 압력에 밀려 선암동으로 이설됐다.

이런 구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도 있으나 구전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데는 그만큼 역리나 역촌에 대한 옛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준다. 따라서 역촌들의 마을이름 바꾸기는 이처럼 옛 관습의 족쇄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려 했던 그 후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오늘날 옛 역촌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드물게 청암역靑巖驛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역사상 전라도에는 청암역이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나주시 청동리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장성군 장성을 용강리에 있었다. 본디 청암역은 나주시에 있던 역을 가리켰고 장성에 있던 청암역은 단암역丹巖驛이라 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청암역로의 본부는 본래 나주에 있었고 장성 단암역은 그 역로

에 속한 1개 역에 불과했다. 그런데 중도에 본부가 나주에서 장성 단암역으로 이전하면서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에 청암역이라 하면 이 장성에 있던 역을 일컫게 됐다.

장성 청암역은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970년대 중반 영산강 상류지역에 4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는데 그 중 하나인 장성호를 건설하면서 역 터가 수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기록에 의하면, 지금 장성댐이 가로지른 자리가 바로 역 터에 해당한다.

그런데 1950~60년대 광주우체국장과 광주체신청장을 역임한 진기홍(陳麒洪) 진영전(陳英全) 보복북지부 이 1968년에 펴낸 「한국체신사」에 청암역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청암역 관아의 규모는 여느 지방관이 주재하던 동헌(東軒)과 견줘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 건물들의 배치를 보면, 중앙에 찰방의 집무실인 동헌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 찰방의 살림집인 내아(內衙), 왼쪽에 창고가 있었다. 또한 동헌의 전면에는 삼문(三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다시 오른쪽에는 장방청(長房廳), 왼쪽에는 서청(書廳)이 자리를 잡았으며 오른쪽 모서리에는 주요 범죄인을 수감하는 형옥(刑獄)도 있었다. 그리고 삼문 앞에는 진남문(鎭南門)이라는 누각이 우람하게 서 있었으며 그 왼쪽으로 역마의 관리부서인 마청(馬廳)이 있었다고 한다.

진기홍이 현지를 취재할 당시 청암역에서 일했던 김채희(金采熙) 당시 81세를 만났다. 김채희의 증언에 의하면, 역마는 관아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기슭의 마장에서 사육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장 한쪽의 제각에서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찰방이 제주가 되어 제각 내부의 마상도(馬像圖) 앞에서 마필(馬匹)이 잘 자라고 청암역의 업무가 무탈하기를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역둔토

이런 역의 경제적 기초, 즉 운영비는 역둔토(驛屯土)라는 농토에서 나온 소출로 조달했다. 역둔토는 대개 역리와 그 가족, 그리고 노비들에 의해 경작됐다. 1895년에 역 관제가 폐지되면서 역둔토의 존재 의미도 잃게 됐다. 그럼에도 역둔토에서 나온 소출은 이후 한동안 광주우편사와 전보사, 심지어 광주 주둔 진위대의 운영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역둔토는 엄밀하게 말해 국·공유지라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역

둔토의 상당수는 오랫동안 역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마치 사유지처럼 관리되거나 경작됐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일제가 1918년에 마무리한 토지조사사업을 하며 무시됐다는 점이다. 일제는 대부분의 역둔토를 국유지로 단정해 관행상 인정되던 소유권은 물론이고 경작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경양역의 역둔토는 논 190ha^{57만평}, 밭 40ha^{1만 2000평}로 이를 합해 230ha^{69만평}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역둔토처럼 이곳도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면서 국유지로 몰수됐다.

당시 일제는 이들 토지를 팔아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서 빌린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초기 식민정책을 수행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전국의 역둔토 매각에 박차를 가했고 대부분 토지매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둔토를 팔았다. 경양역의 역둔토도 이렇게 해서 매각됐고 이후 몇 번의 소유권 변경을 거쳤다. 현재 광주역·광주교육대·동강대 등이 들어선 중흥동·신안동·풍향동 일대는 과거 경양역의 역둔토가 있던 지역이다.

■ 광주우체국

우체사와 전보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우편제도의 도입은 1884년 우정총국 郵政總局의 개국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우정총국에 2년 앞서 우정사 郵程司라는 조직을 창설한 적이 있었지만 근대 우편의 시작과 우정총국은 우리에게 하나의 등식처럼 각인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체신의 날’이 1956년부터 1971년까지 12월 4일이었고, 1972년부터 4월 22일인 것도 모두 우정총국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정총국은 며칠 뒤 그 개국을 축하하는 연회에 맞춰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단명하고 만다.

참고로 한때 체신의 날로 기념한 12월 4일은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연 날, 다시 말해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이고, 4월 22일은 고종이 우정총국의 개국을 명령한 날이다. 1972년 체신의 날을 변경한 것은 12월 4일이 우정총국과 관련이 깊은 날이지만 그 날 발생한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문을 닫은 날이므로 굳이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여론 때문이었다. 체신의 날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의 날’로 이름을 바꿔 기념하고 있다.

이처럼 갑신정변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근대 우편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한동안 중단됐던 이러한 근대 우편제도는 1893년 전우총국 電郵總局의 설치로 재개됐다. 이 기관은 우편과 전신업무를 통합한 최초의 기관으로 그 산하에 우



한국 최초의 우표 5문(文)



한국 최초의 우표 10문(文)

■ 우정국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선보인 조선 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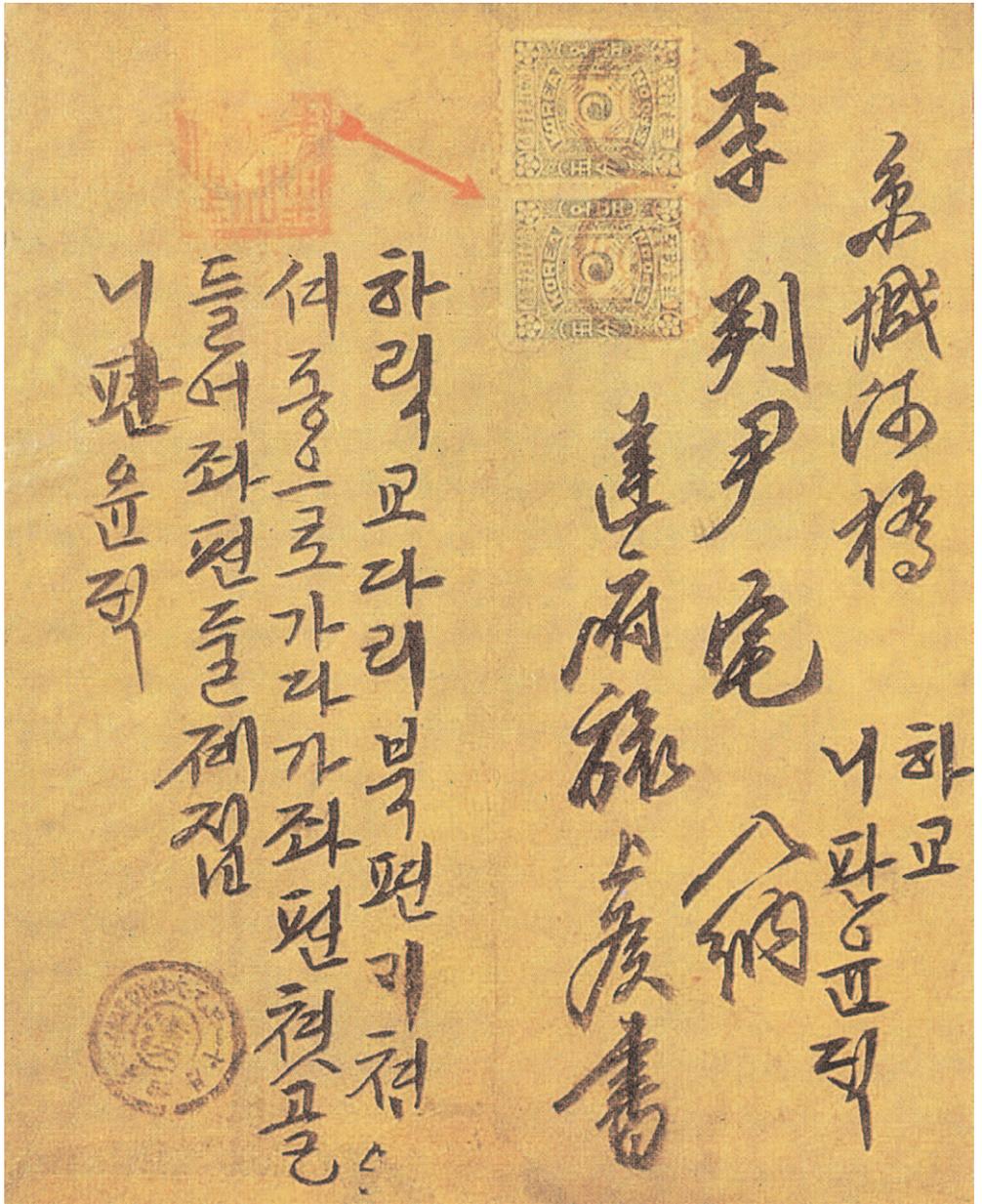
편업무를 담당하는 역체국驛遞局, 전신업무를 전담하는 전신국電信局을 두었다. 그러나 전우총국은 오래 가지 못했고 1895년 6월 정부는 농상공부農商工部 산하에 우체사郵遞司를 두었다. 우체사는 지금의 우체국에 해당한다.

이때 전국 23개 도시에 우체사가 설치됐는데 전라도에서는 남원·나주·제주가 여기에 해당됐다. 23이란 숫자는 아마도 당시 23부로 나뉜 지방행정제도에 따라 관찰부 소재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광주는 나주관찰부에 속했으므로 별도의 우체사가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관찰부 소재지임에도 전주가 빠지고 대신에 원산이 포함된 것은 예외다.

우체사 관제는 이듬해 6월에 다시 바뀐다. 이때 전국 25곳에 우체사 설치한다고 공포했는데 전라도에서는 전주·나주·남원이 그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제주가 제외됐다.

광주에 우체사가 설치된 것은 1897년 3월이다. 이는 1896년 8월에 시행된 지방행정제도의 개편과 관련이 깊은 듯하다. 앞서 1년여 동안 운영하던 23부 체제는 이 시기에 다시 13도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때 광주는 새로 창설된 전라남도의 관찰부 소재지가 됐다. 광주우체사의 설치는 이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그렇다고 광주우체사가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주관찰부의 폐지와 광주우체사의 설치 이후에도 한동안 나주우체사가 계속 운영됐는데 나주우체



©「한국우정 100년사」

대한제국시대의 우편물
 봉합봉투와 우표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 1912년 준공 당시의 광주우편국
당시에는 보기드문 현대식 건물이어서 인근 시골 노인들이
구경하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모여들었다고 한다.

사가 해체되고 그 업무를 광주우체사로 이관한 것은 1897년 12월이었다. 이에 맞춰 나주우체사 주사로 일하던 윤인구尹仁求와 안희수安熙壽도 광주우체사 주사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현재까지 기록상 확인된 광주우체사 최초의 직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오늘날의 우체국장에 해당하는 사장司長은 윤인구가 맡았던 것 같다. 공식적으로 광주우체사가 업무를 시작한 것은 1897년 12월 25일부터다.

한편 근대적 통신수단의 하나인 전신의 역사는 1885년 9월 한양과 인천 사이에 전신선을 개설하면서 부터다. 이 전신선을 관리하는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總局이 설치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런데 한성전보총국은 조선정부가 아닌, 청나라가 운영하는 기구였다. 이처럼 조선의 전신망을 청나라가 운영했던 것은 1882년 임오군란 직후 개입한 청나라의 입김이 커진 결과였다. 이와 별도로 조선정부가 직영하는 전신기관을 조직한 것은 1887년이며 이때 조선전보총국이 설립됐다. 한성전보총국과 조선전보총국은 1893년 전우총국이 생기면서 그 산하의 전신국에 흡수될 때까지 공존했다.

지방에 전신기관이 등장한 것은 1896년 전보사電報所가 설치되면서 부터다. 처음에는 한양·개성·평양·의주에 설치됐다가 점차 전국 주요도시와 항구에 설치됐다. 전라도에는 1897년 10월 전주·목포 간에 전신선이 개설됐고 이에 맞춰 전주전보사와 무안전보사가 각각 설치됐다. 여기서 무안은 목포항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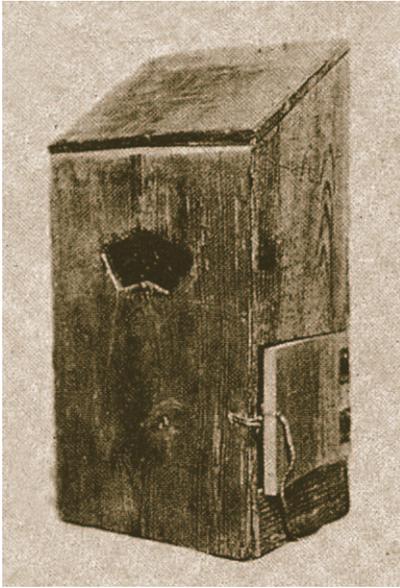
광주에서 전신업무가 시작된 것은 1901년 11월이다. 이때에 무안전보사의 지사가 광주에 처음 설치됐고 곧이어 12월에 광주지사는 광주전보사로 승격됐다. 이에 맞춰 전보주사 이정춘 李貞春과 이필구 李弼求가 광주에 부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 전신국장에게 해당하는 사장은 이정춘이 맡았다.

통신 주권을 잃다

1905년 4월 일제는 대한제국의 통신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광주에는 3개의 통신기관이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의 통신원 산하기관인 광주우체사와 광주전보사, 그리고 일본인 에노모토 榎本明治가 개설한 우편취급소가 그것이다.

이들 기관의 접수는 일본이 개설, 운영 중이던 목포우편국이 담당했다. 이에 목포우편국 소속의 고쿠로 小黒貞五郎 求 일행은 군인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광주에 도착했다. 당시 이들의 통역으로 주히영 朱賀永이 따라 왔는데 그는 훗날 광주면협의회 의원과 호남은행 설립위원 명단에서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이들이 왔을 때 광주우체사에는 김용빈 金溶彬, 광주전보사에는 이상의 李象儀가 근무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통신기관 사무의 인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광주에는 이때 까지도 이에 관한 상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 김용빈과 이상의는 이를 근거로 일본인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전남관찰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만으로 통신기관의 피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제로 한일 통신기관의 합



©「한국우정 100년사」



©「한국우정 100년사」

■ 대한제국시대 우체통(좌)과
사람 키만했던 일제강점기 우체통(우)

병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이 거부사건은 잠시 동안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1905년 6월 광주우체사와 전보사 업무는 일본인들에게 넘어갔고 그업무는 새로 조직된 목포우편국 광주출장소에 흡수됐다. 이 출장소는 이듬해 광주우편국으로 개편됐다.

광주우체사 출신으로 특기할 만한 인물로는 서정희(徐廷禧)가 있다. 경기도 포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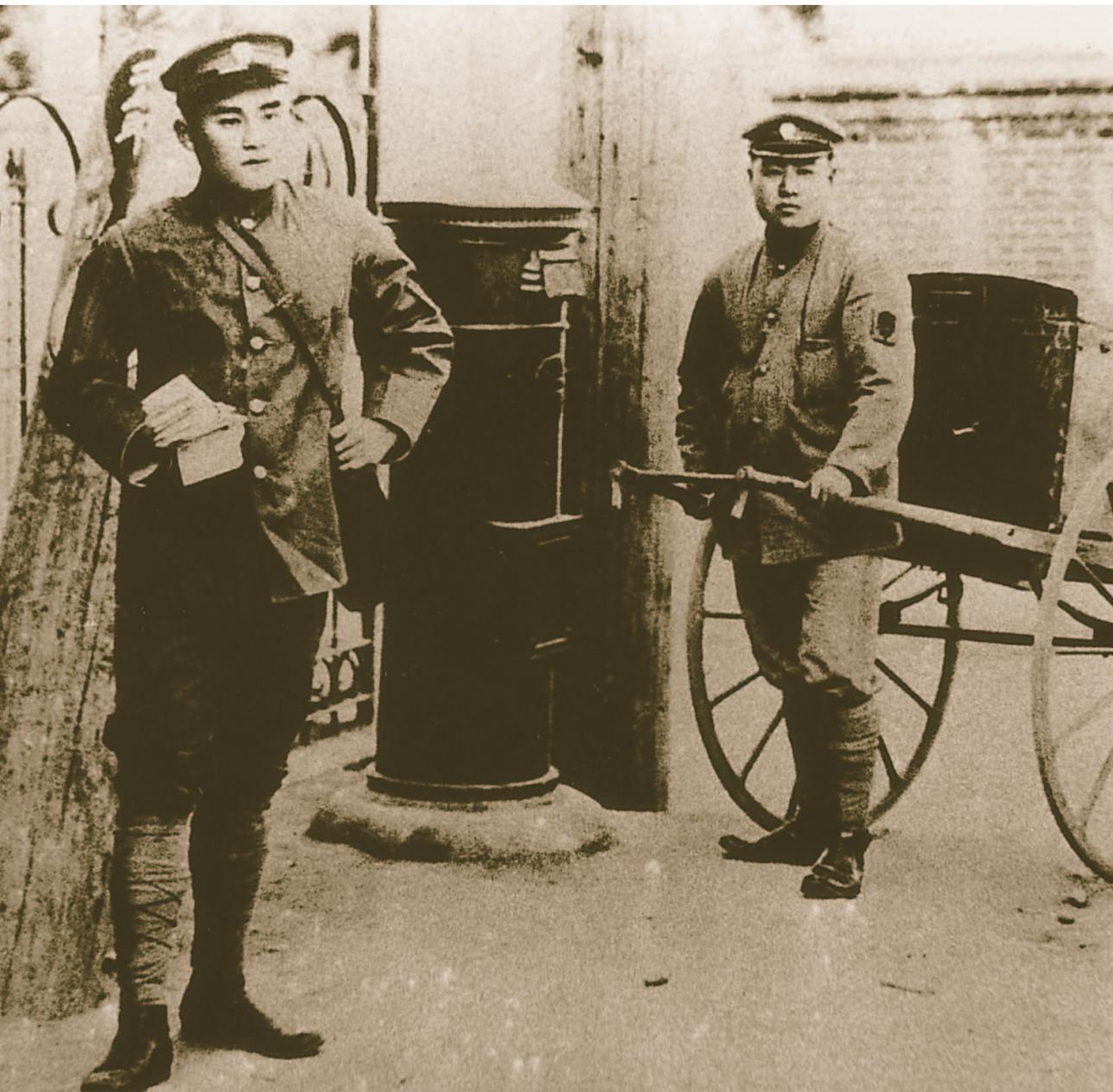
신인 서정희는 1890년대 말엽 무안우체사 주사로 발령을 받아 목포에 왔고 1900년 광주우체사 주사로 발령받으면서 광주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1904년 해임될 때까지 광주우체사 주사로 일했는데 해임 후에 공석이 된 자리에 온 사람이 앞서 말한 김용빈이다.

우체사를 그만둔 후 서정희는 계속 광주에 머물렀는데 처가가 광주였던 것도 체류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광주에서 그는 1900년대 중반 대한협회 광주지회의 설립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뛰어들었다. 나인영(羅永永) 등과 을사오적의 암살계획에도 참여했다가 발각돼 진도에서 유배생활을 했으나 탈출해 광주에 되돌아오기도 했다. 광주생활 중 그의 족적은 1920년대까지 뚜렷한데 특히 진보적 성향의 사회단체인 광주노동공제회가 그의 주된 활동무대였다. 그의 광주생활은 1925년 경찰에 체포되면서 중단됐고 출옥 후에는 서울로 옮겨가 생활했다. 간혹 광주를 방문하기는 했으나 주로 서울에 체류했던 것이다. 해방 후에 그는 제헌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나 한국전쟁 중에 납북됐다.

어느 우편배달부의 회고

대한제국시절부터 우편배달부는 체송인, 체전부, 체부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근대 우편제도의 일선에 있었으며 사실상 우체사나 우편국이란 조직만큼 우편제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신경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다행히 일제 때 목포에서 발행된 <목포신보> 1931년 5월 3일자에 1900년대 우편배달부 생활을 한 가네코(金子治一郎)라는 사람의 회고담이 실렸다. 이 회고담은 초기 우편배달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우편물은 지계에 싣고 체송했다고 한다. 그는 광주~목포 간 구간을 체송했는데 그 경로는 광주에서 출발해 남평을 거쳐 영산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나루터로 유명한 무안군 몽탄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3일째 되는 날 목포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당일 우편물을 목포우편국에 전달한 뒤 다시 역순으로 길을 밟아 광주에 되돌아 왔다. 광주~목포 간 체송에는 왕복 6일이 걸렸다. 이처럼 체송은 매우 힘이 벅찬 일이었는데 초기 조선에 온 일본인들 중에는 이런 우편업무 종사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 일제강점기의 우체부

©「한국우정 100년사」

그런데 이 무렵은 광주·전남에서 항일의병활동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우편배달부들은 체송 중에 이러한 의병의 공격을 종종 받았다. 가네코의 경우, 언젠가 능주 우편취급소에서 광주우편국으로 체송하던 중에 의병들을 만나 가까스로 도망친 일이 있었다. 이밖에도 체송 중에 조선인들에게 구타당하기도 하고 의병들의 습격 소식에 잠옷 바람으로 피신하는 등 여러 고초를 겪었다고도 한다.

실제로 의병들의 공격 사례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이런 사례는 1906년부터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이 끝나는 1909년까지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그런데 의병들의 우편배달부나 우편시설 공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첫째, 의병들이 단순히 근대 우편제도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공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이 배달부를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의병들과 배달부들의 접촉이 많았던 것은 배달부들의 특성상 외진 곳을 오갈 때가 많았고 무엇보다 이동횟수가 잦았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편배달부처럼 바깥출입이 많았던 세금징수원들도 의병들로부터 빈번하게 공격을 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둘째, 의병들이 단순히 배달부들을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편취급소를 습격한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취급소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곡성과 영광우편취급소는 1907년 9월과 10월에 각각 업무가 중단됐고, 장성취급소도 1907년 9월과 12월에 일시 폐쇄됐으며, 함평취급소는 1908년 1월에만 두 차례 업무중단을 겪었다. 그런데 이처럼 우편취급소가 공격받은 것은 이들 시설이 비교적 외진 지역에 산재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이들 취급소를 관할하는 광주우편국이 습격을 받은 일은 없었다.

셋째, 이러한 우편취급소의 습격은 비정규 군대로서 의병들의 속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06년부터 이후 광주우편국과 그 산하의 우편취급소들은 국고금을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의병들에게 이런 국고금은 수탈의 결과로 여기기에 충분했고 동시에 군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또한 우편취급소 습격은 전신선이나 전신취급소에 대한 공격처럼 일본군경의 통신선을 마비시키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광주우편국의 변천

광주우편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황금동 쪽에 있었는데 그 후 1912년 말엽 총장로 2가 16번지에 청사를 신축하고 이듬해 1월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우편국은 편지를 발송하는 통상우편 업무 외에 다양한 기능을 했다. 그 중 하나는 국고금의 취급이었다. 쉽게 말해 우편국에서 공과금을 받았다. 광주우편국의 국고금 업무는 1906년부터 시작했다.

우편국의 등장 이후에 광주 시내의 우편취급기관도 증가했다. 1910년대에 광주 시내에는 광주우편국, 한 곳뿐이었다. 그러다 1926년 시내 수기옥정(須奇屋町)에 우편소가 설치됐다. 수기옥정 우편소는 1930년 본정(本町)우편소로 개칭했는데 이는 수기옥정의 일부가 행정구역상 본정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었다. 본정 우편소는 총장로 5가의 옛 조흥은행 옆에 있었다. 이밖에 1934년에 금정(錦町)우편소, 1937년에 대정(大正町)우편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우체국은 초기부터 간단한 송금서비스인 우편환 외에도 금융 업무를 실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편저금이었다. 초창기에는 엽전, 일본제일은행권, 백동화 등 통용하는 돈이 다양하고 안정성도 약해 우편저금 수신고는 낮았다. 주로 광주에 온 일본인 관리나 군인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1910년대부터 조선인들의 우편저금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우편저금 예금자의 절반가량이 조선인이었다. 우편저금의 이자도 연리 4%대에서 5%대로 인상됐는데 이는 당시 개인대금업의 이율이 높았던 것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런데 우편저금은 일제강점기 후반기로 갈수록 강제성을 띠기 시작했다. 1943년부터는 사실상 강제저축에 가까웠다.

1929년부터 전국의 다른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광주우체국에서도 간이생명보험을 판매했다. 이 보험의 가입자는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3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약 20만건, 1940년대 초반에는 500만건으로 폭증하더니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조선인 1,100만명이 간이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여기에 일반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가입자까지 합하면 조선인 2명 가운데 1명꼴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인들의 소득수준을 생각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입률이었다. 물



■ 광주우편국
1920년대의 서문동(황금동)에 있었던 건물로 정문에
일장기가 세워져 있다.

론 우편저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험가입이 순전히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 등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제는 동분서주했다. 1938년 설립되기 시작한 저축조합도 그 일례다. 이 조합은 해마다 증설되어 1939년 8만개, 1944년에는 11만개에 이르렀다.

한편 우체국이 받은 우편저금과 보험 납입금은 일본 대장성에 예입됐다. 이 돈의 일부는 한반도의 식민정책자금으로 사용됐고 태평양전쟁이 격화된 뒤에는 전쟁비용으로 쓰였다고 한다.

간이생명보험과 관련해서는 아주 이채로운 사실도 전해진다. 1930년대 중반 광주부는 광주천 상류인 학동에 도시빈민의 집단거주지인 이른바 갱생부락(更生部落)을 조성했다. 이것이 훗날 ‘학동팔거리’라고 부르는 독특한 동네의 원형이 됐다. 당시 광주부는 이 갱생부락의 조성자금 중 일부를 간이생명보험에서 조달했다.

그 과정은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광주부가 직접 광주우편국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편국이 금융 업무를 다루기는 했어도 대출업무까지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장성이 식산은행 등 여러 금융루트를 통해 제공한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은 1965년 일본과의 경제협력자금 협상과정 때부터 그 보상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그 보상을 요구할 기세였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경제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우편저금과 보험금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 이것이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인 개개인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독단적으로 포기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체국, 전신전화국 그리고 우다방

우편국이란 명칭은 1949년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우체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에 맞춰 광주우편국도 광주우체국으로 개칭했다.

우체국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1912년 12월 우체국 청사가 막 완공됐을 즈음에 우체국이 네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점을 생각해 입구를 모퉁이에 배치하고 이 입구

를 중심으로 마치 건물이 좌우로 펼쳐진 느낌이 나도록 했다. 또 입구는 터릿 turret, 즉 성탑 형태로 만들어 입구를 강조하고 동시에 이국적이면서도 권위적인 느낌이 나도록 했다.

이러한 외관은 1963년 13월 청사를 개축해 콘크리트 건물로 면모가 바뀌었다. 그리고 1987년에 다시 개축을 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다. 그러나 네거리의 모퉁이에 입구를 둔 점이나 계단을 통해 입구를 드나들 수 있게 한 점은 초기 청사의 모습과 같다.

우체국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가운데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본다.

1970년 우리나라에는 우편번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수신 주소를 권역별로 나눠 고유한 번호가 부여됐다. 이렇게 해서 전라 남·북도와 제주도의 우편번호는 5로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 숫자로 표시했다. 오늘날처럼 여섯 자리가 된 것은 1988년부터다.

전신전화 업무에도 변화가 있었다. 1917년 출간된 「광주지방사정」에 따르면, 광주에서 전화서비스는 1908년 시작됐다고 한다. 초기 전화는 일제의 행정·군사 등 특수목적으로 사용됐다. 광주에서 민간전화 서비스는 191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광주의 전화도입시기에 대해서는 1908년 또는 1910년을 주장하는 기록도 있다.

어떻든 1917년 당시 광주시내에는 100여 개의 전화기가 사용 중이었고 사람이 교환기 앞에 앉아 전화회선을 연결되는 방식이어서 교환원이 필요했다. 이 무렵 광주 우편국에는 교환원 9명이 매일 3명씩 근무했다. 시내 전화료는 한 달에 5원씩, 연간 60원이었는데 이는 매우 비싼 축에 들었다. 당시 60원이면 동문 밖의 밭 100평을 사고도 남을만한 돈이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체국은 전신전화 업무를 병행했는데 1957년 우체국에서 전신전화 업무가 분리됐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광주전신전화국이 설립됐다. 설립 당시에 전신전화국은 별도의 청사가 없어 광주우체국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이듬해 장동에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이전했다. 전신전화국은 1982년에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개편되어 지금의 KT가 등장했다.

그런데 1910년대 광주에 전화가 등장했다고 하나 오랫동안 전화는 전형적인 사치

품이었다. 생활수준에 비해 전화기가 비쌀 뿐 아니라 전화요금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화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일부 영업점이나 부호들 사이에서는 전화 수요가 끊이지 않아 1920년대에도 전화 청약자들 가운데 추천을 통해 전화를 가설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전화기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1960년대부터 나타났고 1970년대에 이르면 거의 폭발 수준에 도달했다. 1970년대 전반기에 광주 인구가 50만~60만일 때 전화가입자는 불과 2만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화 가입자가 극히 적었던 것은 전화기가 부족하거나 비싼 탓이 아니라 전화회선, 구체적으로 말해 당시의 기계식 전화교환기가 처리할 수 있는 회선처리능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전화 부족사태로 인해 전화 가입을 둘러싸고 온갖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묘안이 1970년 8월 이전에 가설된 전화는 시중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이후 이른바 백색전화와 청색전화가 등장했는데 백색전화는 거래가 허용된 전화, 청색전화는 거래가 금지된 전화를 일컫는 말이었다. 즉 백색과 청색은 실제 전화기의 색깔이 아니라 이들 전화기의 최초 가설시기를 기록한 장부의 표지가 백색과 청색으로 나뉘어진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백색전화는 폭발적 수요를 타고 빠르게 값이 치솟았다. 광주의 경우 1972년에 2십만원이던 가격은 1980년에는 1백 4십만원으로까지 올랐다. 주로 전화기를 파는 전화상들이 이런 거래의 중심축이었다. 백색전화, 정확히 말해서 그 가입권은 어느새 상품으로까지 변해 백색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차익을 얻기 위해 되파는 일도 성행했다.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백색전화 가격은 1980년대 초엽 전자식 전화교환기가 도입되고 전화가입이 값싸고 손쉬워지면서 하루아침에 폭락했다. 1987년에 이르면 전국 어느 도시들처럼 광주에서도 한 가구에 한 대 꼴로 전화기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우체국 금융에도 변화가 있었다. 1977년 정부방침에 따라 광주우체국은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 업무를 중단했다. 국민생명보험은 일제 때 간이생명보험이 이름을 바꿔 판매하던 상품이었다. 그러나 자금 차입에 따라 우체국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보험 운용에서 얻는 수익보다 높으면서 적자가 누적돼 결국 중단했다. 이에



■ 광주 충장로 우체국
 젊음의 광장, 만남의 광장으로 대변되는 광주
 우체국 앞이다. 일명 우다방이라 부른다.

따라 광주우체국의 우편지급과 보험 업무는 모두 광산농협지소로 이관됐다. 그러나 우체국 금융은 우체국에서 전신전화 업무가 분리된 뒤에 경영난 타개의 방편으로 다시 부활했다.

우체국과 관련해 광주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1980년대에 우체국 앞 사거리를 우다방(郵茶房)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는 우체국을, ‘다방’은 당시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곧잘 애용했던 다방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다방은 실제 차를 파는 다방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름이었다. 주로 충장로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명소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다방이 유명세를 땀던 첫 번째 이유는 이곳이 지리적으로 광주사람들이 모이기에 적당한 곳이다. 우체국 사거리는 금남로, 황금동 등 인근 변화가의 중간지점이고 학생회관, 무등극장과도 인접해 있었다.

우체국과 당시 산업은행 사이에 길게 늘어선 공중전화 부스들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에는 개인휴대 통신단말기, 이른바 삐삐라 불렀던 무선호출기와 휴대전화기는 먼 미래의 얘기였다. 유일한 연락수단은 유선 전화기뿐이었는데 마침 이곳에는 공중전화부스가 열 지어 늘어서 있어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변경할 때는 연락하기 좋았다. 또한 이곳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공중전화부스를 증설하기도 했다.

광주우체국은 2010년 대인동의 동부소방서 건너편으로 이전했다. 현재 건물은 광주우체국 영업과로 여전히 운용 중이다. 그럼에도 우체국의 이전은 광주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한 대목이 시간의 저편으로 저물어가는 느낌을 준다.



사라져가는 우체통

1966년부터 정부는 전국의 면소재지에는 최소한 개의 우체국을 두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영향으로 1990년대까지는 전국에 3000개가 넘는 우체국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통신 소비패턴의 변화로 우체국은 감소했고 덩달아 근대 우편

을 상징하는 우체통도 급감하는 중이다.

흔히 우체국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편지쓰기 감소를 꼽는다. 그러나 편지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을 통한 편지쓰기는 오히려 전혀 없이 왕성하다. 이제 휴대전화기만 인식기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해도 지불이 끝나듯, 과거 은행 창구에만 의존했던 지급결제 방식은 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체국의 역할도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손으로 쓰는 편지는 아직 우리의 추억을 불러 일으킨다. 편지는 1970년대 까지 가장 일반적인 통신수단 중 하나였다. 전화는 특수층의 전유물이었고 전화번호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던 때였다. 편지는 쓰는 사람의 취향과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감성적 통신수단이며 기다림의 미학을 전제하고 있다. 일정 정도의 기대, 불안, 설레임이 교차하는 사람 사이의 의사전달 매개체이다.

사라져가는 편지를 되살리기 위해 2013년 전남지방우정청 청장 김병수는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 기간에 40만명이 43만통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광주, 그 지난날의 이야기

어려서 아버지는 내게 곧잘 성안에 나가 거리의 점방 이름을 적어오라 했다. 보통 학교 6학년 때 서울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철도역을 적어오라 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아버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교육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 참으로 기묘한 교육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나는 이 일들이 싫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향토 사료에 관심을 갖게 된 근원이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50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틈나는 대로 열심히 향토 사료들을 모았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료 하나 하나의 소중함과 애정 때문인데 이것이 서랍과 책장, 서재에 꽤 쌓이게 되었고 이제 이끼가 끼어 내게 있어서는 청동처럼 빛나는 것들이 되었다.

더구나 「금호문화」에서 지면을 할애해주는 호의에 힘입어 내 자료들을 엮어내게 되었다. 또 근래에 와서 이것들이 향토사 학계에서 활용되는 것을 볼 때마다 여간 보람 있고 흐뭇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금호문화」에서 이번에는 책까지 내게 해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기 이를 데 없다.

이제 오는 1996년이면 전라도全羅道에서 전남이 나뉘고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된 지 1백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광주는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발전해오기까지 숱한 여정을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곡창으로서뿐만 아니라 섬유공업의 원료공급기지로서 일제 식민지 수탈의 거점이 되었으며 또한 이에 항거하는 우리나라 의병항쟁과 학생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선인들은 내 것을 지키고 가꾸면서 신문을 받 아들이고 또 급격한 개화의 물결 속에서도 향토 정신의 맥을 지켜왔다.

예배당에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남녀가 따로 앉아 그 사이에 포장을 치고 예배를 보는 진풍경이 있었으며, 인정과 낭만의 애환이 집산하는 재래 장터가 전쟁과 더불어 들쭉날쭉 시들었다가 되살아났다. 보부상의 마지막 후예이던 의리의 사나이들이 근대 시장에 밀려 무대 뒤로 사라져간 이야기며, 우리 고장의 품위를 상징했던 기생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나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었다. 때로는 구술자들의 입을 빌려서, 때로는 기록과 자료를 통해서 엮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미흡함과 아쉬움이 앞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서도 한편으로는 또 할 일을 했다는 홀가분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 몫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고 애써왔다. 고희를 맞아 책을 내면서 내 손에 쥘 것이 이것인가 싶어 허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을 생광스럽고 살찌게 한 대목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광주를 사랑한다.

그리고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1994년 겨울

박 선 홍

이 따뜻한 광주의 이야기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될 수 있다. 생성되어 변화·발전하는 유기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궤적이 있고, 애환과 낭만이 있게 마련이다.

광주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광주는 마한의 고토(故土)로서 백제 땀 무진주(武珍州)로,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주(武州)로 불리다가 고려 태조 때(서기 940년)에 광주라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2천여년의 역사를 지녀온 오래된 고을이다.

백제 때는 7주의 하나였고, 신라 때는 9도독부에 들었던 거읍(巨邑)이었으며, 근래에는 전남의 수부(首府)로서의 역할을 다하다가 지금은 직할시가 되어 호남 제일의 한반도 서남지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광주는 영고성쇠의 역사적 전변과 벽해상전의 변혁을 거듭해 오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 왔지만 한 번도 활기를 잃거나 용기와 희망을 버린 일이 없는, 그리하여 예향과 의향으로서 오늘날까지 당당하게 핏줄기를 이어 온 전통의 빛 고을이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비춰보는 거울이라 한다. 그래서 지난날의 역사는 내일을 가늠해 나가는 방향타(方向舵)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옛것을 오늘에 비춰 조명해보고, 그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오늘을 더욱 뜻있게 마련하면서 나아가 미래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발자취는 결코 옛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 살아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태는 역사적 시간을 그저 밀려서 흘러 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쉽게 잊는 경향마저 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는 언제나 현재와의 관련 속에서 하나의 종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때 그때의 역사적 사건은 오늘의 행위를 통해서 현성(現成)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더욱이 한 지역사회의 향토사는 그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면서 나아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참된 자기의 위상과 입지를 정립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 지역사회의 변천과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대한 참된 이해와 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으로서 고장을 가꾸고 보살피려는 자치 의식과 개발 의지를 고양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향토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희망을 위해서 조상들의 생활 지혜와 발자취를 더듬어 보게 되고, 선인들의 정신세계와 숨결을 알아보며,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선흥 회장이 쓴 「광주 1백년」은 광주의 중간 시대 역사를 이해하고, 광주의 사회변천사를 조감하는데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광주도 전통적 농업 중심의 사회로부터 서구적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뤄지면서 도시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곧 수천년 동안 농경사회의 취락으로 이어 왔던 고읍(古邑)에 근대화의 바람이 불어닥 치면서 불과 수십년 사이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유교적 봉건사회와 서구적 민주사회, 그리고 전통적 권위주의와 개인주의적 직업의식이 혼재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갑작스런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이질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변동기의 이야기와 역사와 체험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이 이 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지역 향토사의 소중한 사료(史料)이며, 증언이라 할 수 있고, 살아있는 민중의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박선흥 회장은 광주에서 나서 자라고, 광주상공회의소에서만 40여년간 일해 오면서 지역 상공업발전과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무등산 보호운동에 앞장서 평생을 기울여 온 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회장을 가리켜 광주의 터주대감이라고 부른다. 박회장을 그렇게 부른 것은 광주 태생이요, 광주에서만 평생을 살았다고 해서가 아니다.

박회장이 살아온 192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이 우선 광주의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으며,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단순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남다른 향토애와 투철한 지역개발의식으로 의미있게 체험하고 폭넓게 참여하면서 하나하나 특수한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기록해온 산 증인이기에 그렇게 부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무등산에 대한 애정과 연구의 결정체라 할 「무등산」의 저술에서도 볼 수 있듯 아무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무등산 보호를 위하여 때로는 연구로서 혹은 사회운동으로서 신앙적 차원으로까지 고양시키면서 오랫동안 무등산을 가꾸고 지켜온 분이기 때문이다.

박회장은 전문 문필가도 아니요, 더욱이 학자도 아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늘 야마추어임을 자임하면서 언제나 문장이 소졸하고 연구가 미흡하다는 겸양의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등산의 바윗돌 한 개, 초목 한 그루, 어느 가게 이름 하나에까지 기울인 관심과 애정으로 쓰여진 진솔한 이 글들이 어찌 한 번 둘러보고 나서 문식(文飾)에만 공을 들인 글과 같을 수 있겠는가. 또한 하나 하나의 경험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자료를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찾아 헤맨 그 광주 연구의 열정이 어찌 책상머리에서 이뤄진 피상적인 연구에 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들 심신의 도량(道場)인 무등산만큼이나 푸근한 덕인(德人)의 모습으로 서서 광주의 유래를 밝히고, 일화를 소개하며, 잊혀져 가는 것들을 일깨워 주는 박회장의 그 구수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저 분야야말로 광주를 위해 태어난 분이요, 광주 연구와 광주 사랑 하나에 생을 기울이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느끼곤 한다.

이 「광주 1백년」은 근대농민운동과 사회개혁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 과도기를 지나고 또 오늘의 현대화된 광주에 이르기까지의 이 지역 사회변동의 모습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화를 곁들이면서 진솔하게 쓴 하나의 사회진보사적 성격의 글이라 할 수가 있다.

개화기 광주, 1920년대 광주, 상업, 공업, 은행, 우편·통신, 문화, 체육, 풍류와 먹거리, 사라진 풍경들, 되찾은 국토 산사랑 나라사랑 등의 내용에서 이별할 수 있듯이 글을 박회장 자신의 체험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체험만을 신변잡기식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뚜렷한 견해가 있고, 주제가 있으며, 살

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가 표현되어 있다.

언어표현의 간결성 속에 오히려 날카롭게 숨어있는 역사의식과 현실적 안목, 모나지 않는 소탈함 속에서도 버려야 할 저급문화에 대한 길항(拮抗)의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에서 개인적 체험을 집단체험으로 전이시켜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곧 치환(置換)의 미학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사라지는 것들의 자취와 내력을 찾고, 지금 있는 것들의 연원을 알아보면서, 우리들 서민적 일상을 진솔하게 표출해낸 이 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의미의 옷을 입으리라고 믿어진다. 보편적 정서의 따스한 인간 이야기나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 이야기들은 그렇다고 사진으로 단순하게 촬영해낸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무등산보호와 향토사랑의 기본 신앙을 가진 저자의 자기 나름의 앵글로 잡은 감동과 해석이기에 더욱 뜻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글은 광주라는 모티브와 인간주의가 한데 어울려 하나의 이채로운 감동을 우리들 곁에 놓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94년 겨울

광주문인협회장·광주교육대 교수 전 원 범

광주 1백년

초 판 1쇄 찍은 날 1994년 12월 5일

증보판 1쇄 찍은 날 2014년 11월 7일

지 은 이 박선희

펴 낸 곳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펴 낸 이 서영진

편집위원 신장용 조광철 이대석

발 행 담당 박수현 팀장 김지원

발행부서 기획홍보팀

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광주문화재단 062)670-7400

만 든 곳 디자인총전소

주 소 501-810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3

전 화 062)228-6100

팩 스 062)228-6110

메 일 diso6100@daum.net

등 록 2009년 6월 24일 제359-2009-000031

ISBN 979-11-86088-02-9

ISBN 979-11-86088-01-2(SET)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30319)